

옛길을 품은 마을 오리골

2014

일러두기

- 이 마을지는 「경기마을기록사업 4 : 경기도 사라져가는 마을조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으며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경기문화재연구원의 MOU사업으로 진행되었다.
- 경기도 내 마을 중 용인 처인구 김량장동에 위치한 오리골은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된 지역으로 개발계획이 진행되면 사라지게 될 마을의 사례로서 조사·기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지는 사라져가는 마을의 모습과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여러 측면에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발간사

밤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붉고 푸른빛으로 얼룩진 어두운 산동네가 참 아름답습니다. 모두들 그 아름다움에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한 겹만 들추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삶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고 고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뒤엉켜 있는 사람들의 깊은 말도 모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모두들 그저 어둠이 덮은 아름다운 산동네에 그냥 취해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 살던 사람까지도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까지도 말입니다. 그렇게 마을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편하게, 좀 더 쾌적한 삶을 지향하게 되고 그 지향은 ‘개발’이라는 당연한 과정을 야기합니다.

마을이 사라진다는 것은 작은 것이 큰 것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입니다. 사라져 가는 마을을 조사한다는 것은 작은 소리를 듣는 것이고, 큰 것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작은 것, 작은 소리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마을을 조사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람들의 생활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정리하고 그것의 역사적 위치를 재설정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곧 역사가 된다.’ 라는 역사적 시각의 큰 축이 문화기획과 맞물려 구술사 채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삶이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을 재구성하여 현재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작업 즉 현재화 작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Preface

구술사가 중요하게 인식된 계기는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그 형태가 지역문화의 원형으로서 귀중한 소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역사적 산물이라는 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재의 삶이 곧 문화가 된다는 것은 역사적 맥락의 현재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경기문화재연구원과 함께 기획,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사라져가는마을조사사업>은 경기도 마을 주민의 삶이 어떻게 지금의 경기도를 만들어 왔는가를 밝히는 대단히 귀중한 자료로 남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발걸음입니다만, 이번 용인 오리골마을 조사를 계기로 오리골마을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가 가진 역사가 어떻게 현재적 의미로 재탄생하게 될 것인지 기대가 큼니다.

더운 여름을 치열하게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일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런 중요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과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12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 상 덕

옛 길을 품은 마을 오리골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는 경기도의 특징 있는 마을을 찾아 조사하고 기록하는 「경기마을기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김포의 『용 못이 돌보는 마을, 용강리』, 남양주의 『새마을운동의 산실, 봉안 이상촌』과 『다산이 그리워한 마을, 마재』 등 마을조사 보고서 간행에 이어 이번에 용인의 『옛 길을 품은 마을, 오리골』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 작업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경기도 사라져가는 마을조사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성과를 내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인 오리골은 조선시대 선조의 여섯째 왕자인 순화군(順和君)의 아들 탐릉군(耽陵君) 이변(李堧)이 터를 잡고 살았던 마을입니다. 지금도 전주이씨 탐릉군파의 집성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경기도내 그 어느 마을보다 급속한 도시화로 옛 마을의 모습과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게 되어 시급하게 조사 대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의 전통생활문화를 조사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작업은 경기도 마을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 문화 콘텐츠 개발과 활용에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마을지 기록 자료가 축적되어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문화 콘텐츠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용인 김량장동 오리골 마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염상덕 회장님, 용인문화원, 용인학연구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지조사와 원고 작성에 수고한 내·외부 연구진에게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4. 12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장 조 유 전

1. 마을개관

1-1 마을의 자연·지리적 환경 12

1-2 마을의 고고·역사적 배경 14

1-3 마을의 역사적 인물 26

1-4 오리골 주변의 문화유적 35

2. 옛길과 함께한 오리골

2-1 오리골의 변천사와 지명유래 98

2-2 오리골의 옛 모습과 공간구조의 변화 118

2-3 마을조직과 마을행사 137

2-4 오리골, 사연이 담긴 장소 142

3. 의식주생활

3-1 손바느질부터 세탁소까지 158

3-2 시장과 함께한 오리골의 식생활 165

3-3 오리골의 옛 가옥 185

4. 생업과 생활용구

4-1 마을주민들의 생업 198

4-2 오리골의 생활용구 204

5. 세시풍속과 놀이

5-1 오리골의 세시풍속 218

5-2 오리골의 놀이와 여가 224

6. 오리골 사람들의 삶과 일생

6-1 오리골에 거(居)하다 241

6-2 오리골에서 성(成)하다 250

6-3 오리골과 연(聯)을 맺다 258

6-4 오리골에 생(生)하다 268

6-5 오리골과 별(別)하다 276

7. 신앙과 민간의료

7-1 용인神明신사(龍仁神明神社) 294

7-2 민간신앙 296

7-3 종교신앙 300

7-4 민간의료와 속신 302

8. 오리골 인물의 생애사

8-1 가난과 고달픔을 이겨내며 살아온 한은순의 삶 308

8-2 생존을 위해 강인하게 싸워온 김재식 씨의 삶 325

9. 오리골이 들려주는 이야기 340

[부록]

1. 오리골 사람들 348

2. 사진으로 보는 오리골 360



마을 개관 · 1

1. 마을개관

1-1 마을의 자연·지리적 환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김량장동 오리골은 남동(南洞)과 함께 행정 법정동인 중앙동(中央洞)이며 오리골의 위도는 37°14'16.87"N, 경도는 127°12'19.19"E이다. 이 마을은 처인구청 등 용인시의 행정기관이 밀집한 행정 중심지이다. 오리골이 속해있는 김량장동은 동쪽으로 고림동(古林東), 마평동(麻坪洞), 서쪽으로 역북동(驛北洞), 남쪽으로 남동(南洞), 북쪽으로 유방동(柳防洞)과 접해 있고 고림동과 경계 지점에 경안천이 흐르고 있다.¹⁾ 김량장동 오리골의 면적은 2,193km²이다.²⁾

용인을 둘러싸고 있는 광주산맥이 남한산성에서부터 남북으로 뻗어 내렸다. 주요 산은 법화산, 성산(城山;해발 471m), 부아산(負兒山;해발 403m), 함봉산(咸峰山;해발 306m) 등이 있고, 구성, 모현, 포곡 사이의 자연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광주 경안 남측에서 정남방향으로 발달한 산릉은 용인의 동부지역을 구분하는 산으로 태화산(645m), 노고봉(老姑峰;579m), 발리봉, 정광산, 형제봉, 쌍령봉 등의 산봉이 솟아 있다. 조사지역인 김량장동의 중앙공원 남쪽으로 노고봉이 있는 함박산(函朴山)이 위치해 있고 서쪽으로는 부아산(負兒山)이 동서로 뻗어 있다. 전체적으로 용인 주위로 저위 구릉성 산지(低位 丘陵性山地)를 형성하고 남북으로 발달한 산릉 사이에 침식저지와 충적지들이 형성되어 있어 마을과 농경지를 이루고 있다.³⁾

용인은 남북주향(南北走向)의 단층(斷層)을 따라 하천이 흐르고 주요하천은 북류하여

한강으로 유입하는 금령천(金嶺川), 서남으로부터 분향만(汾鄉灣)으로 유입하는 구흥천(駒興川), 동남으로 흘러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청미천(淸美川)이다. 조사지역인 김량장동을 지나는 하천은 경안천의 발원지로 용인 호리 용해곡으로 포곡면, 내사면, 모현면을 통과하여 용인평야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용인은 경기도에서 소하천의 발원지로 용수의 획득이 용이하고 가뭄과 수해의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천연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조사지역인 김량장동은 1530년(중종 25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1757년에 간행된 『여지도서(輿地圖書)』 용인현 산천조(山川條)에 “금령천(金嶺川)은 금령역(金嶺驛) 남쪽에서 기원하여 양지현 소로동 북쪽으로 흘러 광주의 소천으로 흘러들어 간다.”고 하였다. 그 후 1656년(효종 7년)에 간행된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⁴⁾에는 금령역(金嶺驛), 금령원(金嶺院)이 기록되어 있는데 1871년(순조 11년)에 간행된 『용인현읍지(龍仁縣邑誌)』에는 김량역(金良驛)으로 표기되었다. 용인현읍지(龍仁縣邑誌)⁵⁾ 지도에 김량천(金良川)이 표기되어 있고 김량장(金良場), 김량점(金良店)이 기록되어 있다.

1899년 간행된 『용인군지도읍지(龍仁郡地圖邑誌)』에는 “김량천(金良川)은 군 동쪽 30리에 있다.”는 기록과 “김량역(金良驛)은 군 동쪽 관문에서 27리의 거리에 있는데 기미(己未)년부터 폐기(廢棄)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마을에 시장이 서는 까닭에 김령장(金嶺場)으로 불렸는데, 뒤에 소리가 변해 지금의 김량장(金良場)이 되었고⁶⁾ “금령(金嶺)”이라는 지명이 후에 김량(金良)으로 기록된 것이다. 김량이라는 사람이 처음 시장을 연 까닭에 그의 이름을 따서 김량장으로 불렸다는 설⁷⁾도 있으나, 위의 기록으로 볼 때 김량장동에 마을이 형성된 것은 조선시대 중기 이전으로 볼 수 있다.

용인의 기후는 겨울이 되면 북동쪽으로부터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한파가 찾아오다가 3~4월이 되면 대륙으로부터 양쯔강 기단이 접근하면서 날씨가 풀리고 봄비가 내리며 황사가 동반하기도 한다. 7~8월이 되면 북태평양으로부터 고온다습한 오가사하라기단이 많은 비를 동반하면서 무더위가 몰려온다. 연평균 기온은 11.7℃이며 강수량은 우기에 160mm가 내려 강우량의 80%를 차지한다.⁸⁾

4) 용인향토문화연구회, 용인군읍지(증보판), 향토문화자료총서 1, 향토문화연구회간, 1982, p.29.

5) 『東國輿地誌』에 在縣東三十里, 『龍仁縣邑誌』에 金良場(在縣東三十里), 金良店(在縣東三十里水餘面) 앞의 책, p.36.

6) 주3 앞의 책, p.1138.

7) 주1 앞의 web site.

8) 주3 앞의 책, pp.12~18.

1) <http://terms.naver.com>(2014.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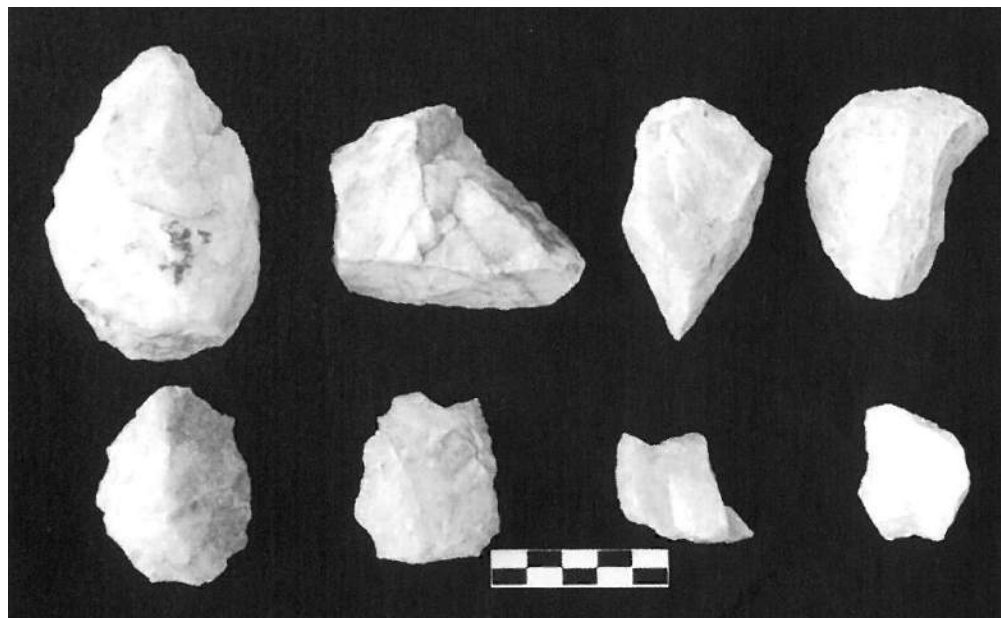
2) 용인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수여지(水餘誌;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용인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2009, p.48.

3) 용인군지편찬위원회, 용인군지, 1990, pp.10~11.

1-2 마을의 고고·역사적 배경

1) 구석기시대

구석기시대는 신생대 제3기말 플라이오세(Pliocene)에서 제4기 갱신세 말 빙하기가 종식되는 1만년 무렵까지 400만년 이상 지속된 시기이다.⁹⁾ 용인 지역에서 구석기인들이 살았던 흔적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그 유적이 발굴되어 점차 밝혀지고 있다. 모현면 갈담리에서 몸돌과 석기가 채집된 이래로 평창리,¹⁰⁾ 이동면 죽전리, 둔전리,¹⁰⁾ 갈담리,¹¹⁾ 남사면 봉무리,¹²⁾ 북리, 봉명리, 방아리,¹³⁾ 아곡리,¹⁴⁾ 이동면 묵리,¹⁵⁾ 천리,¹⁶⁾ 덕성리, 원삼면 목신



용인 동백리 구석기 유적 출토 석기

9) 경기문화재단연구원·경기도박물관, 경기 발굴 10년의 발자취,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2009, p.7.
10)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용인시, 용인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토지박물관 학술조사총서 제17집, 2003, pp.335~337.
11) 앞의 책, pp.374~376.
12) 주10 앞의 책, p.415.
13) 주10 앞의 책, p.442~445.
14) 주10 앞의 책, p.462.
15) 주10 앞의 책, pp.521~522.
16) 주10 앞의 책, pp.535~537.

리, 보정리 등에서 석핵, 박편석기, 홈날, 찌개들이 출토되었다.¹⁷⁾ 용인 평창리 구석기유적¹⁸⁾은 25,000년 전에 형성된 문화층에서 세석인 석기 등 후기구석기시대의 석기 공작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특히 첨두형(尖頭形) 석기, 홈날석기, 사다리꼴 석기 등은 그 제작상의 특징과 인접 지역의 유사한 시기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들과 형태적으로 많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발굴 조사한 용인 동백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용인 동백리·동리 유적¹⁹⁾에서 구석기인들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외면찌개, 양면찌개, 여러 면 석기 등 4,000여 점의 석기와 수습된 목탄의 AMS 분석결과 27,000±300B.P., 20670±410B.P., 31,100B.P.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백리 유적에서 나타난 문화층의 연대는 BC 20,000~30,000년 전으로 편년되며 구석기시대에 용인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2) 신석기시대

한국 신석기시대는 B.C.8000년경 제주도 고산리 유적에서 토기가 출토된 이래로 B.C.6000년경에 남해안 일대에 신석기토기가 등장하고 경기도 지역에서 청동기시대가 개시되는 B.C.15~14세기까지로 볼 수 있다.²⁰⁾ 용인 지역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 유적은 용인 고매리 선사유적²¹⁾, 백암면 석천리²²⁾, 양지면 제일리²³⁾와 기흥읍 상갈리 유적²⁴⁾을 들 수 있다. 빗살무늬토기 편들이 구릉의 경사면에서 출토되어 신석기시대에 용인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즐문토기는 구연직하에 짧고 굵은 사선문을 앞날 시문하여 횡주어골문을 구성한 것과 사선문을 압인 시문하여 격자문을 구성한 것, 그리고 세침선을 압인하여 종주 어골문을 구성한 것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즐문토기는 주로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²⁵⁾

17) 주10 앞의 책, p.48.

18) 이선복·유용욱·성춘택, 용인 평창리 구석기유적 발굴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2000, p.99.

19)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한국토지공사, 용인 동백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용인 동백리·동리유적 III - 구석기유적, 학술조사보고 제164책, 2005, pp.92~93.

20) 주9 앞의 책, p.26.

21) 주10 앞의 책, p.259.

22) 주10 앞의 책, pp.654~655.

23) 주10 앞의 책, pp.705~706.

24) 홍종필·엄익성, 기흥상갈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명지대학교박물관·한신대학교박물관·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1998, pp.19~40.

3)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는 무문토기와 마제석기가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청동기가 제작되는 시기로 정형화된 지석묘와 석관묘가 등장하고 농경을 생계경제로 삶을 영위한 시대이다. 경기도의 청동기시대 시기는 B.C.15~13세기에서 B.C.300년까지로 볼 수 있다.²⁶⁾ 청동기시대에 들어오면서 수원·화성 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신석기시대 유적보다 더 증가되고 있다. 청동기시대에는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분화되었다.

고고학 유적을 통해 볼 때 용인 지역에는 청동기시대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은 용인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제석부가 출토된 지역은 구성면 보정리, 포곡면 전대리, 내사면 정수리, 기흥읍 고매리, 외사면 백암리, 원삼면 두창리 등을 들 수 있고 반월형석도는 용인시 남동 옥현부락과 풍덕천의 임진산성에서 출토되었다.

특히 1965년 모현면 초부리에서 출토된 세형동검 용범(鎔範;거푸집)은 청동기 제작기술을 알려주는 유물이다. 용인 죽전동 선사유적지²⁷⁾에서는 주거지에서 공열토기가 출토되었고, 용인 구갈리, 임진산, 보라리,²⁸⁾ 서천리,²⁹⁾ 영문리,³⁰⁾ 전대리,³¹⁾ 일산리,³²⁾ 봉명리,³³⁾ 묘봉리,³⁴⁾ 백봉리,³⁵⁾ 옥산리³⁶⁾에서는 무문토기 편, 마북리 주거지³⁷⁾에서 구순각목공열토기 편 등이 수습되었다.

용인지역에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거석문화 유적인 지석묘와 입석이 발견되고 있다. 지석묘는 모현면 왕산리, 내사면 주북리, 구성면 상하리, 양지면 주북리, 원삼면 맹리, 와사면 근삼리, 백암면 장평리³⁸⁾와 근삼리,³⁹⁾ 매산리 등에서 확인되고 입석은 원삼면

사암리, 남사면 창리, 포곡면 유운리에서 발견되고 있다. 구성면 상하리 지석묘를 “할아버지 바위”, “할머니 바위”로 부르고 마을 주민이 지석제를 지내고 있다.⁴⁰⁾ 민간에 지석제가 남아있는 것은 청동기시대 이래로 내려온 거석신앙이 지금도 살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원삼면 사암리 선돌은 3개의 돌이 정동(正東)을 향하여 횡렬로 배열된 열석(列石;alignments)이며⁴¹⁾ 태양송배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열석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인도, 유럽⁴²⁾ 등에서 발견되고 있어 이 청동기시대에 사람들의 국제적인 생활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용인 원삼면 사암리 열석(列石;Alignments)

4) 초기철기시대

청동기시대에 이어 기원전 4~3세기경 중국의 철기문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남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초기철기시대는 중국 동북지역에 자리 잡았던 연(燕)나라의 영향으로 주조철기가 보급되고 점토대토기, 세형동검, 적석목곽묘 등과 같은 새로운 문화가 유행한 시대이다. 초기철기시대는 청동기시대가 막을 내리는 기원전 4세기 말~3세기 초에 서부터 한군현(漢郡縣)의 영향으로 단조철기가 대량으로 보급되고 본격적인 철기시대인 원삼국시대가 시작되는 기원전 1세기까지 설정할 수 있다.⁴³⁾ 야철 기술의 보급은 철제농기구와 무기의 발전을 가져와 삼한이라 불리는 정치체가 성립된다.

용인지역의 초기철기유적은 최근에 서천택지개발지구, 용인 농서리에서 무덤이 조성되고, 죽전 대덕골 유적⁴⁴⁾에서 소성유구가 조사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대덕골 소성유구

25) 주10 앞의 책, pp.213~214.

26) 주9 앞의 책, p.50.

27) 주10 앞의 책, pp.770~773.

28) 주10 앞의 책, pp.215~217.

29) 주10 앞의 책, p.268~269.

30) 주10 앞의 책, pp.338~342.

31) 주10 앞의 책, p.356~357.

32) 주10 앞의 책, p.385~389.

33) 주10 앞의 책, pp.428~437.

34) 주10 앞의 책, p.496.

35) 주10 앞의 책, p.632.

36) 주10 앞의 책, pp.643~645.

37)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한국델파이, 용인 마북리 백제 토광묘, 학술조사보고 제45책, 2005, pp.33~34.

38) 주10 앞의 책, pp.650~651.

39) 주10 앞의 책, pp.669~672.

40) 주10 앞의 책, pp.106~107.

41) 주10 앞의 책, pp.49~51.

42) Douglas C.Heggie, Megalithic Science—Ancient Mathematics and Astronomy in Northwest Europe, Thames and Hudson, 1981, p.160.

43) 주9 앞의 책, p.80.

44) 경기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공사, 용인 죽전택지 개발지구내 대덕골 유적, 학술조사보고 제34책, pp.210~211.

는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이며 반지하식 등요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다. 대덕골 2호 수혈에서 다량의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소형토기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인근에서 토기제작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용인을 주변으로 화성 동학산 유적 등이 확인되고 있어 청동기시대 말에 초기철기시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점차로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원삼국시대

경기지역의 원삼국시대는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백제가 초기국가로 출현하는 기원후 3세기 중반 후반 무렵까지의 시기이다.⁴⁵⁾ 원삼국시대에서 삼국시대로 이행하는 시기의 용인은 이전의 마한세력에서 벗어나 백제의 성장과 함께 백제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간다. 원삼국시대 유적과 백제유적이 다수 조사지역 인근에서 확인되었다. 생활유적으로 수지 풍덕천리, 기흥읍 구갈리, 보정리 소실, 흥덕 택지개발지구, 고림동 주거지에서 원삼국시대의 생활양식을 알아 볼 수 있다.

조사지역의 인근에 위치한 원삼국시대 고림동 주거지는 A지구의 11호 주거지와 B지구의 2호, 8호, 10호 주거지이다. 주실의 평면은 장방형이며 내부에서 부석식노지 또는 부뚜막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A11호 주거지는 L자형 온돌(쪽구들)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B2호와 8호, 10호 등의 주거지는 부석식 노지를 설치하였다. 원삼국시대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경질무문의 심발형토기 또는 옹이 많고 여기에 타날문토기 원저단경호가 공반된다.⁴⁶⁾

6) 삼국시대

(1) 백제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에 나오는 마한 54국 중 용인지역을 비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한강유역에 위치한 백제국(百濟國)이 성장하면서 용인지

역도 편입되었을 것이다. 3세기에 들어와 백제의 고이왕(古爾王;234~286)은 지배체제를 정비하면서 국가의 성장기반을 다졌고 4세기에 근초고왕(近肖古王;346~375)은 369년에 전라도 지역의 마한을 정복하고 371년에 북으로 대방군과 고구려 평양성을 공략하는 등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용인지역은 백제의 성장과정과 함께 한강의 지류인 경안천과 탄천을 이용하여 백제세력이 유입되자 마한세력에서 벗어나 백제의 영역에 흡수되었을 것이다. 임진산성,⁴⁷⁾ 죽전리,⁴⁸⁾ 언남리, 기흥읍 구갈리,⁴⁹⁾ 내대지, 영덕리, 보정리, 언남리, 청덕리,⁵⁰⁾ 화산리,⁵¹⁾ 맹리⁵²⁾ 등에서 4~5세기대에 백제토기 편들이 조사되었다. 이 시기에 용인지역은 이미 백제의 영역에 복속되었던 것이다.

용인 죽전리에서 백제 토광묘가 발견되었고 용인 마북리 유적에서는 백제의 토광묘와 옹관묘가 발굴되었는데 이 유적에서 발굴된 백제의 주구토광목곽묘에서는 환두대도, 철검, 삼갈, 철부, 철착, 직구광견호, 평행타날문대호, 원저장경호 등이 출토되었고 4세기대로 편년되었다.⁵³⁾ 용인 구갈리 유적에서는 백제 주거지 12기, 구덩이 62기, 소형수혈유구 19기, 구상유구 7기, 토광묘 1기, 옹관묘 1기 등이 발견되었다. 백제 주거지는 능선상부와 하단부, 계곡부에 분포되어 있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등고선방향과 평행하고 내부시설은 수혈, 부뚜막, 벽구시설, 구, 단 등이 확인되었다. 이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로 단경호,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를 중심으로 일상용기가 많고 구덩이에서 출토된 유물은 고급용기인 광구단경호, 직구단경호, 뚜껑 등의 기종이 출토되었다.⁵⁴⁾

용인 청덕리 유적⁵⁵⁾에서는 백제 수혈유구 2기가 발굴되었는데 유구의 평면 형태는 모두 원형이며 단면 형태는 1호의 경우 원통형, 2호의 경우 프라스크형이다. 1호 수혈에서는 평

47) 이인숙·백종오, 용인 임진산성 긴급발굴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삼성물산(주)주택부분, 경기도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4책, 2000, pp.400~403.

48)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시 죽전지구 문화유적 및 민속조사보고서, 한신대학교박물관 유적조사보고서 제11책, 1999, pp.29~30.

49) 경기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경기지방공사, 기흥 구갈(3)택지 개발지구내 용인 구갈리 유적, 학술조사보고 제35책, 2003, pp.47~266.

50) 경기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공사, 동백~죽전 간 도로개설 구간 내 용인 청덕리 백제 수혈유구, 학술조사보고 제65책, 2006, pp.9~71.

51) 주10 앞의 책, pp.508~515.

52)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용인 맹리 106번지 유적-단독주택 조성부지 내 시굴조사 보고서, 학술조사보고 제113책, 2009, pp.5~42.

53)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한국델파이, 용인 마북리 백제 토광묘, 학술조사보고 제45책, 2005, pp.35~113.

54) 주49 앞의 책, pp.247~264.

55) 주 50 앞의 책, pp.62~63.

45) 주9 앞의 책, p.84.

46)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 고림동 유적 발굴조사 제2차 지도위원회의 자료, 2009.9, p.9.

행선문, 조족문, 횡선부가평행선문이 타날된 대용 3점, 평행선문이 타날된 대용이 출토되었다. 이외에 고배, 소호, 광구장경호, 돌괘이[石鑊] 등 16점이 출토되었고 2호에서는 장란형토기 구연부 편이 출토되었다.

근래에 용인 풍덕천동에서 백제시대 주거지가 1998년에 한신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되었다.⁵⁶⁾ 용인 수지 백제 주거지 유적은 탄천 상류 광고산 자락의 구릉지 사이에 형성된 선상지(扇狀地) 위에 입지하고 주거지 4기와 대형 수혈유구 1기, 제사유구로 추정되는 토기 집중 매납 유구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5각형, 말각장방형, 말각방형, 타원형 등 평면 형태가 다양하며 출토유물도 농기구, 병기, 생활용기가 출토되어 용인지역의 한성백제 연구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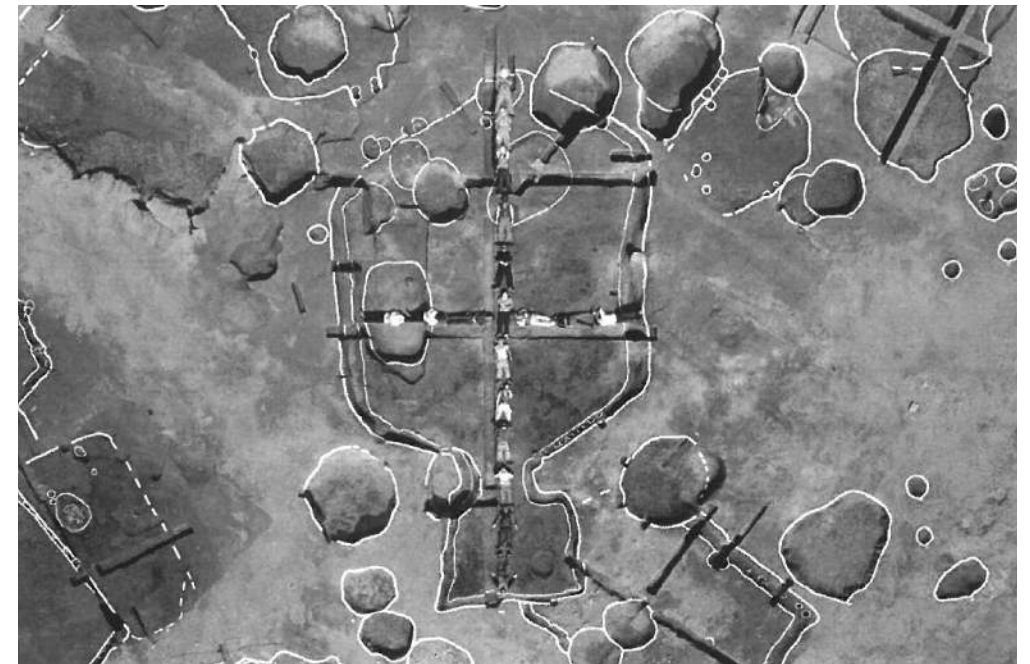
조사지역인 김량장동의 동쪽지역에 위치한 고림동 유적이 발굴되어 원삼국시대에서 한성백제시대에 용인지역의 생활상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2009년 한신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주거지 32동, 수혈유구 162기, 구상유구 4기 등이 확인되었고 빗살



용인 수지 백제주거지 유구노출 광경

56) 한신대학교박물관·한국토지공사, 용인 수지 백제 주거지, 한신대학교박물관 유적조사보고서 제9책, 1998, p.120.

무늬토기 편을 비롯하여 중국제 시유도기, 통형기대, 기와 등이 출토되어⁵⁷⁾ 백제의 중앙과 지방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용인 고림동 한성백제시대 여자형(呂字形) 주거지

(2) 고구려

고구려는 건국초기 중국의 요동·요서 지방과 부여지방으로 영토 확장에 주력하다가 4세기 초반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하고 황해도 일원으로 진출한 이후 본격적인 남하를 실시하여 용인을 비롯한 한강유역이 삼국의 쟁패지가 되었다. 광개토왕 1년(392년, 백제 진사왕 8)에 고구려는 백제의 10성을 점령하고 396년에는 광개토왕이 백제를 정복하여 58성 700촌을 복속시켰다. 고구려 장수왕은 475년에 3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죽령, 조령 일대에서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고구려 시대에 용인지역의 구성현(駒城縣)은 멸오(滅烏)라고 하였다.⁵⁸⁾

57)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 고림동 유적 발굴조사 제1차 지도위원회의 자료, 2009.5, pp.8~16.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 고림동 유적 발굴조사 제2차 지도위원회의 자료, 2009.9, pp.9~19.

58) 주10 앞의 책, pp.55~56.

(3) 신라 · 통일신라

한반도 동남부에서 국가로 성장한 신라가 소백산맥을 넘어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것은 진흥왕 때인 6세기 중엽이다.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은 나제동맹(羅濟同盟)을 맺고 551년 북진을 시작하여 백제는 한성과 한강하류의 6군을 수복하고 신라는 죽령이북의 한강상류 10군을 차지하였다. 553년 신라는 백제가 수복한 한강유역을 탈취한 후 용인지역을 경덕왕 16년(604) 때 고구려의 구성현(駒城縣)을 거서현(巨黍縣)으로 편성하였다. 삼국통일 후 지방통치 체제는 685년 신문왕(神文王)대에 9주 5소경 제도가 정비되면서 용인지역은 한산주(漢山州)의 영현에 편입되었다.

용인지역의 신라유적은 언남리 유적과 마북리 유적을 들 수 있다. 언남리 유적⁵⁹⁾에서는 석곽묘에서 타날문토기합이 출토되었고 마북리 유적⁶⁰⁾에서는 횡혈식 석실분, 보정리 유적⁶¹⁾에서는 석실분이 발굴되었다. 조사지역과 인근에 위치한 용인 운학동⁶²⁾에서는 돌방무덤(석실묘)이 확인되었다. 용인 할미산성⁶³⁾에서 6~7세기 초반으로 편년되는 신라토기가 출토되어 신라의 한강 진출과 삼국통일과정을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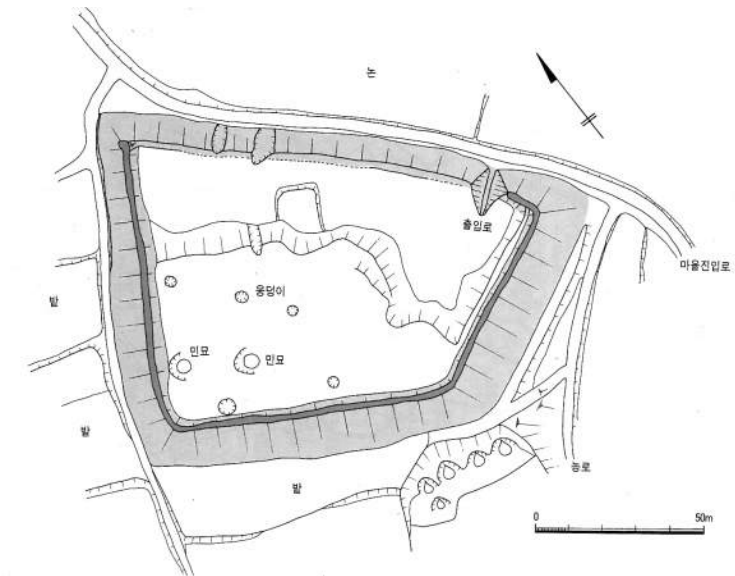
보정리 소실유적에서는 삼국~통일신라시대 석곽·석실묘 22기가 발굴되었다. 이 중 횡구식석실묘가 16기, 수혈식 석곽묘가 6기이다. 연도가 달린 횡혈식 석실묘는 1기가 확인되었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단각고배와 호가 주류를 이루고 병, 완, 대부완, 배, 대부배, 대부장경호, 배부발 등 다양한 기종이 나타난다.⁶⁴⁾

7) 고려시대

고려 태조 23년(940)에 군현을 개정하면서 용인의 거서현(巨黍縣)을 용구현(龍駒縣)으로 개명하였다. 현종(顯宗) 9년(1018)에 전국을 8목(牧), 56지주군사(知州郡事), 29진장

(珍臧), 20현령(縣令)으로 개편할 때 용인을 광주목(廣州牧) 임내(任內)에 두었다가 명종 2년(1172)에 와서야 용인을 광주에서 분리하여 감무(監務)를 두고 현감(縣監)을 파견하였다. 조사지역의 처인현(處仁縣)은 본래 수원부에 속해 있던 부곡(部曲)이었는데 고려 현종 때 처인(處仁)이란 명칭이 존재한다.

몽골의 2차 고려침입 때 살리타이(撒禮搭)가 이끄는 몽골군이 남진하는 과정에서 처인성(處仁城)을 공격하였다. 몽골군이 다다르자 수주(水州;현 수원)에 속해 있던 처인읍(處仁邑) 부곡(部曲) 민들을 포함한 용인의 백성들은 처인성에 들어가 항전하였다. 이 전투에서 백현원(白峴院)의 승려 김윤후(金允侯)의 활약으로 살리타이가 사살되어 몽골군은 물러나게 되었다.⁶⁵⁾



용인 처인성 평면도

처인성은 용인시 남사면 아곡2리 43번지 아곡마을에 위치하며 평지에 쌓은 토성으로 용인에서 진위나 양성방면으로 나아가는 남북교통로에서 수원, 오산, 안성으로 통하는 동서교통로의 교차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 성은 완장천(完庄川) 변에 형성된 해발 약 70m의 구릉지대 끝부분에 자리를 잡았고 토성의 둘레는 약 350m, 중심 토루의 너비는 4.2cm,

59) 최정필·하문식·홍보경, 용인 언남리 유적, 세종대학교박물관·동부건설(주), 2001., 주10 앞의 책, pp.280~281.

60) 주10 앞의 책, p.288.

61) 경기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공사, 용인 보정리 청자요지 - 죽전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12·14지점 발굴조사 보고서, 학술조사보고 제64책, 2006, p.263.

62) 주10 앞의 책, pp.741~743.

63) 경기도박물관·용인시, 용인 할미산성, 2005, p.167.

64) 경기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주)에스제이종합건설, 용인 보정리 소실유적 사발굴조사 보고서 -본문·도면-, 학술조사보고 제5책, 2005, pp.321~327.

65) 韓國學文獻研究所, 高麗史 上, 古典大學講讀教材 7, 서울亞細亞文化社, 1983, p.469. 『高麗史』卷23 高宗19年 12月條



용인 처인성 원경

내 외벽의 너비는 5.4~7.8m, 높이 5m, 평면 형태는 사다리꼴이다. 이 처인성은 본래 백제시대에 초축된 것으로 알려졌고 통일신라시대의 당초문 암막새, 주름무늬 작은 병, 고려시대 청자 편, 유심철제대도 등이 출토되었다.⁶⁶⁾

이 처인성뿐만 아니라 할미산성과 석성산성에서도 고려시대 유물이 확인되었고 죽전리 완장이골, 마북리 사지, 마북리 건물지, 중세건물지, 흥덕지구에서 고려시대 건물지가 발굴되었다. 마북리 정광지구, 단국대 신축부지, 보정리 소실유적, 청덕리, 좌향리, 역말고분군, 흥덕지구 등에서는 고려시대 석곽묘,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생산유적인 가마는 이 동면 중리의 고려백자 가마, 서리 중덕의 고려백자 가마, 서리 상반의 고려백자 가마, 죽전리의 청자 및 도기가마 등이 확인되어 중세고고학에 관심을 끌게 되었다.⁶⁷⁾

용인 보정리 유적에서는 청자요지가 발굴되어 고려시대에 용인지역은 청자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유적에서는 고려시대 가마 2기, 폐기장, 석렬유구

12기, 소성유구 1기, 주거지 1기, 구상유구 1기 등이 조사되었다. 보정리 요지에서 출토된 청자의 기종은 대접, 발, 완, 접시, 잔, 잔탁, 뚜껑, 병, 주자, 호, 합, 대발, 대반, 장고, 향로, 향완, 정병, 두침, 타호, 벼루, 화분, 돈, 불상, 상형 등 26가지이다. 이 유적의 중심연대는 12세기를 넘지 않는 시기로 보고 있다.⁶⁸⁾

8)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조 6년(1397) 전국의 향·소·부곡을 없애고 지방체계를 개편할 때 처인현(處仁縣)에 현령(縣令)을 두었다. 태종 13년(1413)에 처인현은 용구현(龍駒縣)과 합하여 용인(龍仁)이 되었다. 정조 13년(1789)에 작성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의하면 용인현에는 16개 면이 소속되어 있었다.

용인에서 조사된 조선시대 유적은 신갈리,⁶⁹⁾ 서천지구의 건물지, 용인 심곡서원,⁷⁰⁾ 관방유적은 마북리 석축유구와 임진산성을 들 수 있다. 생산유적으로 상현동 기와 가마가 있고 분묘유적으로 죽전 대덕골, 서천지구, 보정리 소실유적, 근삼리 등에서 토광묘와 회곽묘가 확인되었다.⁷¹⁾

9) 근대

용인지역은 고종 32년(1895) 4월 지방관제 개편 때 전국을 23개 부, 337개 군으로 개편하였는데 용인현과 양지현은 현에서 군으로 개편되고 용인군은 죽산군, 이천군 등과 함께 충주부에 소속되었다가 다시 1895년 5월 26일에 경기도로 이속되었다. 1914년 3월 일제(日帝)가 부, 군, 면을 폐합하여 전국을 97개 군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용인에 양지군이 통합되어 죽산의 백암, 원삼, 근삼이 용인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⁷²⁾ 조사지역은 경기도 용인군 수여면 김량장리가 되었다. 1937년 수여면을 용인면으로, 읍삼면을 구

68)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공사, 용인 보정리 청자요지 - 죽전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12·14지점 발굴조사 보고서, 학술조사보고 제64책, 2006, pp.264~270.

69)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대한주택공사, 용인 신갈 택지개발지구 내 발굴조사 보고서, 학술조사보고 제14책, pp.1~69.

70)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용인시, 용인 심곡서원, 학술조사보고 제76, 2006, pp.7~42.

71) 주 67 앞의 책, pp.32~33.

72) 주 66 앞의 책, pp.154~155.

66) 경기도박물관·용인시, 용인 할미산성, 2005, p.35.

67)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공사, 용인 마북동 취락유적 - 삼막동~연수원간 도로개설구간내 문화유적 사발굴 조사 보고서, 학술조사보고 제109책, 2009, pp.31~32.

성면으로 개칭하면서 용인면 소속이 된 뒤, 1979년 용인읍 관할이 되었다. 1996년 용인시 김량장동을 거쳐, 2005년 용인시에 3개 구청이 신설되면서 남동과 함께 처인구 중앙동의 법정동이 되었다. 1996년 3월 1일 용인시로 승격될 때 김량장리와 남리 전 지역을 합치고 용인시의 중앙이 된다 하여 중앙동이라 하였다.

1-3 마을의 역사적 인물

1) 고려시대

(1) 이길권(李吉卷)

이길권(李吉卷;904~1008)은 고려초기 용인지역의 호족으로 용인이씨의 시조이고 시호는 안곡공(安穀公)이다. 그는 성품이 강직하고 재능이 탁월하여 천문과 지리에 도통하고 당시 도선선사(道洗禪師)와 친분이 깊었다고 한다. 왕건은 고려건국 후 이길권의 공로를 가리켜 “옛날 주(周)의 대업을 도운 여상(呂尙)이나 한(漢) 개국공신 장자방(張子房)보다 용인 이길권의 공이 더욱 컸다.”고 하여 식읍(食邑) 500호(戶)를 내리고 산성군(山城君)에 봉하였다. 태조는 그를 구성백 삼한벽상공신 삼중대신 승록대부태사(駙成伯 三韓壁上功臣 三重大匡 崇錄大夫太師)로 삼고 능성각을 제(題)하여 공신으로 정한 후 태조의 누이인 장공주를 내리어 부마로 삼았다.⁷³⁾

(2) 이사영(李士穎)

이사영(李士穎;?~1396)은 고려 후기 문신으로 호는 평은(平隱), 본관은 용인이다. 정몽주와 동년방(同年榜)이고 이색과 성균관 동학이다. 우왕 2년(1376) 왜구 300여 기가 고부, 태산 등을 거쳐 전주와 임피현(臨陂顯)을 함락시켰다. 이때 이사영은 전라도병마절도사 유실과 함께 왜와 싸웠으나 패하였다. 공양왕 3년(1391) 형조전서를 거쳐 우부대언이

되었고 정몽주가 화를 당하였을 때 남원에 유배되어 배소에서 타계하였다. 묘는 용인 상현동 심곡에 있다.⁷⁴⁾

(3) 이석지(李釋之)

이석지(李釋之)는 고려 말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영천(永川), 호는 남곡(南谷), 문경(文卿)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판도판서(版圖判書) 송현(松賢)이며 아버지는 경덕재생(慶德齋生) 흠(洽)이다. 용인 출신으로 이곡(李穀)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1342년(충혜왕 3) 성균시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다. 1347년(충목왕 3) 문과에 급제한 후 정언(正言), 경상도안렴사, 보문각대제학(寶文閣大提學), 판도판서(版圖判書) 등을 지내다가 고려가 망하자 새 왕조에 불복하고 절의를 지켜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이 되었다. 묘소는 조사지역인 오리골에 있다고 전하고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임원 부락에 사당인 남곡재(南谷齋)가 있다.⁷⁵⁾

(4) 이중인(李中仁)

이중인(李中仁;1315~?)의 호는 진초(秦楚), 본관은 용인으로 이길권(李吉卷)의 후손이다. 정몽주(鄭夢周)와 이색(李穡)이 이중인에게 경서(經書)와 제자백가(諸子百家書)를 배웠다고 한다. 학문과 덕망이 높아 8현(八賢)으로 추앙되었고 1392년 이성계(李成桂)가 조선을 건국하자 개성의 광덕산(光德山)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72현과 함께 절의를 지킨 학자이다. 이중인은 양주군 별내면에 있는 송산(松山)에서 생을 마감하였는데 송산사(松山祠)에 그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용인시 기흥읍 영덕 잔다리에는 그의 유품을 안장한 묘소가 있다.⁷⁶⁾

(5) 정몽주(鄭夢周)

정몽주(鄭夢周;1337~1392)의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圃隱), 본관은 연일(延日)로 동방 성리학의 대가로 학문에 뛰어나고 정치가, 외교가로 활동하였다. 그는 공민왕 6년

73) 주10 앞의 책, p.62.

74) 경기도사편찬위원회, 내 고장 경기도의 인물 2, 2006, pp.497~498.

75) 앞의 책, p.511.

76) 주3 앞의 책, p.1229.

(1357) 감시(監試)에 합격하여 성균관박사, 성균관대사성, 문화평리(文化評理), 예문관·집현관의 대제학, 문하찬성사 등 여러 관직을 지내고 영원군(永原君)·충의군(忠義君)의 품계를 제수받았다. 조선 건국과정에서 제거되었으나 태종에 의해 복권되어 문충공(文忠公)이란 시호와 함께 익양부원군(益陽府院君)을 받고 묘소를 해풍(海豐)에서 용인의 쇠포천(曬布村) 천장 후 봉사(奉祀)를 위해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에 정착하게 되었다. 충렬서원(忠烈書院)은 모현면 능원리에 있으며 문충공 정몽주를 모신 곳으로 선조 9년(1576)에 건립되어 광해군 원년(1608) 사액되었다.

(6) 정습명(鄭襲明)

정습명(鄭襲明;?~1151)은 고려 문신으로 본관은 연일(延日)이다. 향공(鄉貢)으로 문과에 급제한 후 내시(內侍)에 들어갔고, 국자사업(國子司業), 기거주(起居注), 지제고(知制誥)를 역임하였다. 최충, 김부식 등과 함께 시폐십조(時弊十條)를 올렸으나 거절당했고 인종 24년(1146) 예부시랑으로 태자(毅宗)에게 강서(講書)하였다. 의종 3년(1149)에 한림학사가 된 후 추밀원지주사(樞密院知奏事)에 올랐다.⁷⁷⁾

2) 조선시대

(1) 남구만(南九萬)

남구만(南九萬;1629~1711)은 문신으로 자는 운로(雲路), 호는 약천(藥泉)·미제(美齋),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효종 2년(1651)에 사마시를 거쳐 1656년에 별시문과에 급제한 후 함경도관찰사, 도승지, 부제학, 대사간을 역임하고 숙종 11년(1685)에 좌의정, 숙종 13년(1687)에 영의정을 지냈고 문충공(文忠公)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문사(文詞)와 서화(書畵)에 뛰어나 『약천집(藥泉集)』, 『주역참동계주(周易參同契註)』라는 저서를 남겼고 남지(南智)와 장현광(張顯光)의 비문에 그의 글씨가 남아 있다.⁷⁸⁾ 묘소와 사당은 용인 모현면 갈담리에 있다.

77) 이희승 등, 한국인명대사전, 한국인명대사전편찬실, 신구문화사, 1995, p.832.
78) 주3 앞의 책, pp.1255~1256.

(2) 심대(沈岱)

심대(沈岱;1546~1592)는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 호는 서돈(西墩)이다. 선조 5년(1572) 친시문과(親試文科)에 급제한 후 사인(舍人)·검상(檢詳)을 역임하고 보덕(輔德)으로 있던 중 임진왜란이 발생하였다. 경기감사(京畿監司)로 제수되어 도성을 수비하던 중 전사하여 선조 37년(1604)에 호성공신(扈聖功臣) 1등으로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고 청원군(靑原君)에 봉해졌다. 광해군 2년(1610) 선무원종(宣武原從) 1등 공신으로 영의정에 추증되고 청원부원군(靑原府原君)의 작호와 충장공(忠壯公)이라는 시호를 받았다.⁷⁹⁾ 묘소는 용인 남사면 오산리에 있다.

(3) 심사정(沈師正)

심사정(沈師正;1707~1769)은 조선후기 문인화가로 호는 현재(玄齋), 본관은 청송(靑松)이며 영의정 심지원(沈之源)의 증손이고 심정주(沈廷胄)의 아들이다. 겸재(謙齋) 정선(鄭敼)의 문하에서 그림을 배우고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와 함께 조선 중기의 대표 화가이다. 영조 24년(1748) 묘사중수도감(描寫重修都監)의 감동(監董)이 되었고 화훼(花卉), 초충(草蟲), 영모(翎毛), 산수(山水) 그림에 능했다. 대표 작품으로는 강산야박도(江山夜泊圖), 하경산수도(夏景山水圖), 목단도(牧丹圖), 맹호도(猛虎圖), 파교심매도(灞橋尋梅圖) 등이 있고 묘소는 용인 이동면 서리에 있다.⁸⁰⁾

(4) 유형원(柳馨遠)

유형원(柳馨遠;1622~1673)의 자는 덕부(德夫), 호는 반계(磻溪), 본관은 문화(文化)이며, 조선후기 실학의 선구자이다. 효종 5년(1654)에 진사시에 합격하였지만 관직에 나가지 않고 『반계수록(磻溪隨錄)』을 집필하였다. 그 외에도 성리학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지리, 군사, 언어 등의 문집을 남겼고 이용후생(利用厚生) 실학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묘소는 용인 외사면 석천 2리 정배산(鼎排山) 기슭에 있다.⁸¹⁾

79) 주3 앞의 책, pp.1246~1247.
80) 주3 앞의 책, p.1287.
81) 주3 앞의 책, pp.1254~1256.

(5) 이길보(李吉甫)

이길보(李吉甫;?~1483)는 조선시대 문신으로 본관은 용인이며 이백지(李伯持)의 증손이다. 세조 3년(1457) 별시에 을과(乙科)로 급제한 후 승문원부정자, 정언, 예조좌랑, 이정부사인, 통훈대부 행사간, 승문원판교, 병조참지, 병조참의, 동부승지, 우부승지, 우승지, 좌승지, 도승지, 경기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이길보는 왕의 측근에서 권세가 높았지만 청렴하였고 집안에 상을 치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여 왕이 곶, 유둔(油屯), 종이, 쌀, 콩을 하사하였다고 한다.⁸²⁾ 묘는 용인 기흥읍 영덕리에 있다.

(6) 이백지(李伯持)

이백지(李伯持;1361~1419)는 여말선초(麗末鮮初)의 문신으로 본관은 용인이며 이사위(李士渭)의 아들이다. 우왕 11년(1385) 고려의 유신(遺臣) 우홍명(禹洪命)과 함께 문과에 급제하여 태종 15년(1417) 동부대언(同副代言)으로 청백리에 녹선(錄選)되었다. 우부대언(右副代言), 좌부대언(左副代言), 강원도관찰사, 전라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정종이 승하하자 산릉도감제조(山陵都監提調)로 임명되었고⁸³⁾ 묘는 용인 포곡면 가실리에 있다.⁸⁴⁾

(7) 이사위(李士渭)

이사위(李士渭;1342~?)는 여말선초(麗末鮮初)의 문신으로 본관은 용인이다. 공민왕 9년(1360)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와 함께 문과에 급제한 후 고려 말에 판호조사(判戶曹事), 밀직부사(密直副使), 서해도관찰사(西海道觀察使) 등을 역임하였다. 조선개국 이후 개성유후(開城留後)를 지냈고 묘는 용인 모현면 매산리에 있다.⁸⁵⁾

82) 주74 앞의 책, p.448.

83) 주74 앞의 책, p.481.

84) 주3 앞의 책, p.1268.

85) 주3 앞의 책, p.1266.

(8) 이석형(李石亨)

이석형(李石亨;1415~1477)은 문신으로 자는 백옥(伯玉), 호는 저현(槁軒),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세종 22년(1440) 생원·진사시, 문과에 합격한 후 정언(正言)·지제교(知製敎)에 임명되고 정인지와 함께 『치평요람(治平要覽)』을 편찬하여 응교(應敎)로 승진되었다. 집현전 수직제학(守直提學)을 거쳐 문종 원년(1451)에 직제학(直提學), 춘추관 지주관(春秋館記注官)이 되어 『고려사(高麗史)』 편집에 참여하였다. 세조 2년(1456) 예조참의로 제수된 후 판공주목사(判公州牧使), 한성부윤(漢城副尹), 대사헌, 중추원부사, 경기도관찰사, 호조참판, 승록대부를 거쳐 성종 원년(1470) 판중추부사(判中樞府使)로 좌리공신(佐理功臣)과 함께 연성부원군(延成府院君)에 올랐다. 묘소는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포은 정몽주의 묘소 왼쪽에 있으며 인조 2년(1624) 김상용(金尙容)이 지은 신도비가 있다.⁸⁶⁾

(9) 이세백(李世伯)

이세백(李世伯;1635~1703)은 조선의 문신으로 자는 중경(仲庚), 호는 우사(雩沙)·북계(北溪), 본관은 용인이다. 효종 8년(1657)에 진사시에 합격한 후,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홍천현감(洪川縣監), 지평(持平), 정언(正言), 교리(校理), 이조좌랑(吏曹佐郎), 집의(執義), 동부승지(同副承旨), 황해도관찰사, 평안도관찰사, 공조참판, 도승지, 대사간, 광주유수, 한성부판윤, 예조판서, 판의금부사, 우의정, 좌의정을 역임했다. 동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기사환국(己巳換局)에 송시열(宋時烈)을 유배시키라는 왕의 교지를 쓰지 않아 도승지에서 파직되었다. 인현황후(仁顯皇后)가 승하하자 국장도감총호사(國葬都監總護使)가 되었고 시호는 충정(忠正)이며 저서로는 『우사집(雩沙集)』이 남아 있다.⁸⁷⁾

86) 주3 앞의 책, pp.1235~1237.

87) 주77 앞의 책, p.655.

(10) 이완(李莞)

이완(李莞;1579~1627)은 조선시대 무신으로 본은 덕수(德水)이고 이순신의 조카이다. 선조 31년(1598)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전사를 알리지 않고 노량해전(露梁海戰)을 승리로 이끌었다. 선조 32년(1599) 무과에 급제하여 도총도사(都總都事), 남포현감(藍浦縣監), 평양중군(平壤中軍), 충청도 병마절도사(忠靑道兵馬節度使), 의주부윤(義州府尹)을 지냈다. 이괄의 난을 진압하였고 정묘호란(丁卯胡亂) 때 전사하였으며 병조판서에 추증되고 숙종 32년(1706) 아산의 현충사(顯忠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강민(剛愍)이며 묘와 정려문이 용인 수지읍 고기리 샘말에 있다.⁸⁸⁾

(11) 이의현(李宜顯)

이의현(李宜顯;1669~1745)은 조선시대 문신으로 자는 덕재(德哉), 호는 도곡(陶谷), 본관은 용인이며 이세백(李世白)의 아들이다. 숙종 20년(1694)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후, 검열(檢閱), 설서(說書), 정언(正言), 교리(校理), 부응교(副應敎), 승지(承旨), 예조참판(禮曹參判), 형조판서, 예조판서, 이조판서, 대제학, 우의정,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며 저서로는 『도곡집(陶谷集)』이 있고 글씨로 금양위박미비(錦陽尉朴瀾碑), 충정공홍익한갈(忠正公洪翼漢喝)이 남아있다.⁸⁹⁾

(12) 이재(李紱)

이재(李紱;1680~1746)는 문신으로 자는 희경(熙卿), 호는 도암(陶庵)·한천(寒泉), 본관은 우봉(牛峰)이다. 숙종 28년(1702) 알성문과(謁聖文科)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검열(檢閱), 편집청기사관(纂輯廳記事官)을 겸하여 『단종실록(端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 후 홍문관(弘文館), 헌납(獻納), 북편사(北評事), 이조정랑(吏曹正郎), 승지(承旨)를 역임하였다. 그는 사례편람(四禮便覽), 도암집(陶庵集), 주자어류초절(朱子語類抄節), 근사심원(近思尋源), 오선생징언(五先生徵言), 검신록(檢身錄), 주형(宙衡) 등의 저서를 남겼다. 문

88) 주3 앞의 책, p.1287.

89) 주77 앞의 책, p.702.

정공(文正公) 이재(李紱)를 제향하는 한천서원(寒泉書院)은 동촌면에 위치하고, 묘는 이동면 천리에 있다.⁹⁰⁾

(13) 이종무(李宗茂)

이종무(李宗茂;1360~1425)는 조선시대 무신으로 본관은 장수(長水)이다. 우왕 7년(1381) 강원도에 침범한 왜구를 소탕하는 데 공을 세워 정용호군(精勇護軍)이 되었다. 정종 2년(1400) 상장군(上將軍)으로서 박포(朴苞)가 태조의 넷째 아들 방간(芳幹)을 왕위에 올리고자 일으켰던 제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책록되고 통원군(通原君)의 훈작을 받았다. 세종즉위년(1419) 5월 삼도도체찰사(三道都體察使)에 임명되어 삼도도통사(三道都統使) 유정현(柳廷顯)과 함께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이 공로로 찬성사(贊成事)를 제수 받은 후 세종 3년(1421)에는 장천부원군(長川府院君)으로 봉하여졌다. 묘는 용인 수지읍 고기리 산 79번지의 광교산 기슭에 있다.⁹¹⁾

(14) 조광조(趙光祖)

조광조(趙光祖;1482~1519)는 문신이며 도학자(道學者)로 자는 효직(孝直), 호는 정암(靜庵), 본관은 한양이다. 중종 5년(1510) 진사회시(進士會試)에 장원 급제한 후 조지서(造紙署) 사지(司紙), 성균관 전직(典籍), 사헌부 감찰, 사간원 정언(正言), 수찬(修撰), 호조와 예조의 정랑(正郎)을 거쳐, 중종 12년(1517)에는 교리(校理)로 있으면서 여씨향약(呂氏鄉約)을 전국에 보급하였다. 현량과(賢良科)를 설치하여 신진관리를 선발하였고 중종 14년(1519)에 대사헌(大司憲)으로 발탁되어 세자 부박객(世子副賓客)을 겸하던 중 위훈삭제 사건(僞勳削除事件)이 일어나 전라도 화순의 화주(和州)로 유배되었다. 선조 때 신원이 복원되어 영의정(領議政)으로 추증되고 문정(文正)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⁹²⁾ 용인 심곡서원(深谷書院)은 문정공(文正公) 조광조의 신위가 봉안된 곳으로 1650년에 창건되어 그 해에 사액을 받았다.

90) 주3 앞의 책, pp.1257~1258.

91) 주3 앞의 책, p.1233.

92) 주3 앞의 책, p.1259~1260.

(15) 채제공(蔡濟恭)

채제공(蔡濟恭;1720~1799)의 본관은 평강(平康)이고, 자는 백규(伯規), 호는 번암(樊巖)·번옹(樊翁)이며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영조 19년(1743)에 과거에 급제한 후 승문원 권지부정자(承文院權知副正字), 수찬, 교리, 한성부 우윤, 예조참판, 병조판서, 호조판서, 예조판서, 평안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번암집(樊巖集)이 남아 있다.⁹³⁾ 정조 때 영의정을 지냈고 1762년에 도승지로서 옥사(獄事)에 사도세자(思悼世子)를 옹호하였다. 정조가 즉위한 후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 형조판서로서 옥사를 처리하였고 절의 노비를 폐하는 사노비절목(寺奴婢節目)을 마련하였다. 정조 4년(1780) 홍국영의 몰락과 관련하여 관직에 물러났다가 정조 12년(1788) 우의정에 올랐고 정조 14년 천주교도들의 박해가 시작되자 천주교 신봉의 묵인을 주장하여 정조 17년(1793) 영의정이 된 후 10여 년간 천주교 박해가 없었다. 그 후 수원 화성성곽(華城城郭) 축성에 모든 설계 및 경영을 담당하는 업적을 남겼다.

(16) 허엽(許曄)

허엽(許曄;1517~1580)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양천(陽川)이며, 호는 초당(草堂), 자는 태휘(太輝)이다. 연산군 10년(1504) 진사시(進仕試)에 합격한 후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이조좌랑(吏曹佐郎)을 거쳐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으로 『중종실록』, 『인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 후 홍문관부교리, 이조정랑, 사헌부장령, 성균관대사성, 삼척부사, 이조참의, 사간원대사간,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선조 1년(1568) 진하사(進賀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향약의 설치 및 시행을 건의하였다. 저서로는 『초당집(草堂集)』, 『전언왕행록(前言往行錄)』 등이 있다. 묘소와 신도비는 원삼면 맹리에 있다.⁹⁴⁾

93) 주3 앞의 책, p.1242.

94) 경기도사편찬위원회, 내 고장 경기도의 인물 3, 2006, pp.464~465.

3) 근·현대

(1) 유근(柳瑾)

유근(柳瑾;1861~1921)은 언론인으로 호는 석농(石農), 본관은 진주(晉州), 처인구 마평동에서 출생하였다. 1898년에 장지연(張志淵), 남궁억(南宮棼), 나수연(羅壽淵) 등과 함께 황성신문(皇城新聞)을 창간하여 독립정신 고취에 힘썼다.⁹⁵⁾ 민족의식 고취를 위하여 『신정동국역사(新丁東國歷史)(1906)』, 『초등본국역사(初等本國歷史)(1908)』, 『신찬초등역사(新撰初等歷史)(1910)』 등의 역사 서적을 편찬하였다. 1919년 4월에 개최된 13도 대표자의 국민대회에 대중교계 대표로 참석하다가 오랜 감옥생활로 별세한 후 1962년 3월 1일에 건국공로훈장이 추서되었다. 국가보훈처는 2001년 10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유근을 선정하였고⁹⁶⁾ 묘소는 오리골 중앙공원의 충혼탑으로 올라가는 길 북쪽에 있다.

1-4 오리골 주변의 문화유적

조사지역의 문화유적은 이미 용인시 광역지표조사⁹⁷⁾ 과정에서 드러나 있으나 김량장동을 둘러싸고 있는 미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념물이나 역사적으로 기록할 가치가 있는 유적을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순서는 김량장동의 서남쪽에서 실시하여 동남쪽의 마평동으로 올라가다가 동북쪽의 고림동에서 시작하여 서북쪽의 능말, 은덕골 쪽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조사순서를 계획하였다. 이 조사자의 조사 순서는 기록의 순서와 같은 것이다. 도시개발이 진행된 김량장동 중심지 지역은 매장문화재 유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시켰으나 이전에 조사된 기록을 참고하여 유적을 기술하였다.

95) 주77 앞의 책, p.508.

96) 주2 앞의 책, pp.172~173.

97) 주10 앞의 책, pp.726~741.



오리골 주변지역 문화유적 분포지도

1) 김량장동 유물산포지 1

- 유적명칭 : 김량장동 유물산포지 1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중부대로 1392번길 18-16 일원
- 시대 : 조선
- 조사내용 :



김량장동 유물산포지 1 전경

○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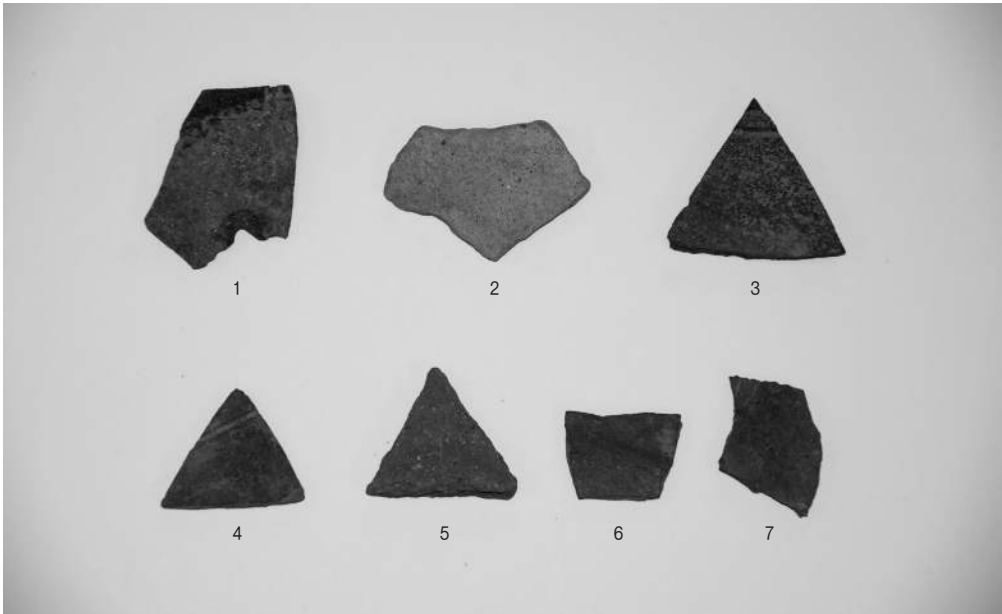
김량장동 유물산포지 1(위도 37°13'49.48"N, 경도 127°11'46.13"E)은 신갈에서 용인으로 가는 42번 국도를 타고 용인으로 들어오면 보플 부분에서 우측 동진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나온다. 이 길을 타고 가다가 용인향토사료관 부근에서 좌회전하여 100m 정도 가면 럭키불가마사우나가 있다. 이 불가마사우나 뒷길 좌측에 목양교회가 있고 그 뒤에 지우건

축설계사무소가 존재하며 우측에 민속요릿집 금촌집 사이로 노고봉(해발 211.0m)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나 있다. 이 도로를 타고 200m정도 가면 좌측으로 밭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선시대 토기 편들이 산포되어 있다.

○ 유 물

1. 토기

유물 번호	색 조			태토	경도	두께 (cm)	설 명
	외면	속심	내면				
1	녹청	적회	회	니질	도질	0.4~0.6	녹청색도질토기 몸통 편으로 외면에 녹청자 자연유약이 흘러 나와 있고 중간에 횡침선을 둘러놓았다. 내면에는 대나무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물레로 돌린 흔적이 선명하게 나 있다.
2	회황	회	회백	정질	연질	0.85~0.97	회백색연질토기 몸통 편으로 태토에는 운모와 고운 모래가 섞여 있고 내면에 대나무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물레로 돌린 흔적이 있고 외면의 표면은 박락되었다.
3	회흑	적회	회청	니질	경질	0.74~0.9	회청색경질토기 몸통 편으로 외면에 두 줄의 횡침선이 있고 표면은 박락되어 있다. 내면의 정격자로 타날을 한 후 물손질하여 문질렀다. 태토는 일부 운모가 보이고 잘 정선되어 있다.
4	회흑	회백	회청	니질	경질	0.45~0.5	회청색경질토기 몸통 편으로 외면에 한 줄의 음각 횡침선이 둘러져 있고 물손질한 흔적이 보이며 내면에 물레로 돌린 흔적과 음각선으로 “V”자 모양을 그어 놓았다. 태토는 일부 기포가 있으나 잘 정선되어 있다.
5	회흑	적회	회청	조질	경질	0.89~1.1	회청색경질토기 몸통 편으로 태토는 작은 모래와 운모가 섞여 있고 일부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내 외면은 대나무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깎고 물레로 돌린 흔적이 있다.
6	회청	적회	회청	정질	경질	0.5~0.56	회청색경질토기 몸통 편으로 태토는 운모가 보이고 기포가 형성되어 있으나 잘 정선되었다. 외면은 일부 박락되었고 빗질의 흔적이 보이며 내면은 여러 줄의 음각선을 그은 후 빗질과 물손질, 그리고 물레로 돌린 흔적이 관찰된다.
7	회청	적회	회청	정질	경질	0.5~0.6	회청색경질토기 몸통 편으로 태토는 운모가 보이고 잘 정선되었다. 외면은 여러 줄의 음각선과 빗질의 흔적이 보이며 내면은 여러 줄의 파상선문을 그은 후 빗질과 물손질 흔적이 관찰된다.



김량장동 유물산포지1 수습유물

2) 김량장동 유물산포지 2

- 유적명칭 : 김량장동 유물산포지 2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중부대로 1408번길 20-18번지 일원
- 시 대 : 조선
- 조사내용 :

○ 현 황

김량장동 유물산포지 2(위도 37°13'50.43"N, 경도 127°11'59.01"E)는 김량장동 유물산포지 1에서 중앙공원 정문 동쪽으로 노고봉 북사면 하단을 따라가면 약수빌라 2차 가동 뒤쪽으로 밭이 형성되어 있다. 이 밭에 조선시대 토기와 백자 편들이 산포되어 있고 서쪽 부분은 조사 당시 건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유물산포지에서 동쪽으로 100m 정도 가면 6·25 참전전승탑 등이 세워져 있고 그 뒤에는 중앙공원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김량장동 유물산포지 2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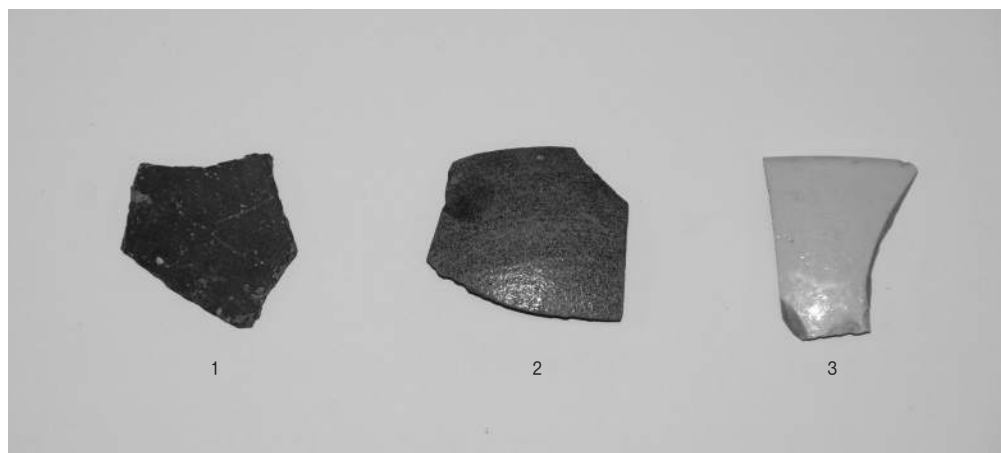
○ 유물

1. 토기

유물 번호	색 조			태토	경도	두께 (cm)	설 명
	외면	속심	내면				
1	회청	적회	회청	조질	경질	0.5~0.6	회청색경질토기 몸통 편으로 내·외면의 표면은 일부 박락되었고 내면에는 물손질 흔적이 나 있다. 태토는 일부 기포가 형성되어 있고 운모가 섞여 있고 잘 정선되었다.

2. 도자기

유물 번호	색 조			태토	유 태색	두께 (cm)	설 명
	외면	속심	내면				
2	회청	적회	회청	니질	청녹색	0.5~0.6	청자 구연부 편으로 구연부는 내반되어 있고 견부에 3줄의 침선이 돌아가며 유약은 고르게 잘 발라져 있다. 구연부의 직경은 10.6cm이다.
3	백	백	백	니질	순백색	0.5~0.75	순백자 구연부 편으로 구연부는 약간 내반되었으나 직립에 가깝고 태토는 고운 점토로 잘 정선되었다. 유약은 순백색을 띠며 고르게 잘 발라져 있다. 구연부의 직경은 20cm이다.



김량장동 유물산포지2 수습유물

3) 전적기념비

□ 유적명칭 : 6·25 참전유공자공적비·호국무공수훈자공덕비·

6·25 및 베트남참전 전상사자공적비·베트남참전 유공자공덕비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중부대로 1408번길 18-16번지 일원

□ 시 대 : 현대

□ 조사내용 :

전적기념비(위도 37°13'51.24"N, 경도 127°12'4.45"E)는 김량장동 유물산포지 2에서 중앙공원 정문 동쪽으로 100m정도 가면 약수터가 나오고 그 우측으로 돌아가면 4개의 전적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기념비의 명칭은 왼쪽부터 6·25 참전유공자공적비, 호국무공수훈자공덕비, 6·25 및 베트남참전전상사자공적비, 베트남참전유공자공덕비이다. 기념탑은 현대에 용인시장이 세운 것이다. 이 기념탑 남쪽으로 등산로를 통해 노고봉에 올라갈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이 전적기념비는 1951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김량장 전투를 기념하여 세운 것⁹⁸⁾이고 베트남 참전 유공 전우회, 6·25 참전 유공자회의 명단이 음각된 비문이 세워져 있다.

98) 주3 앞의 책, pp.148~149.



전적기념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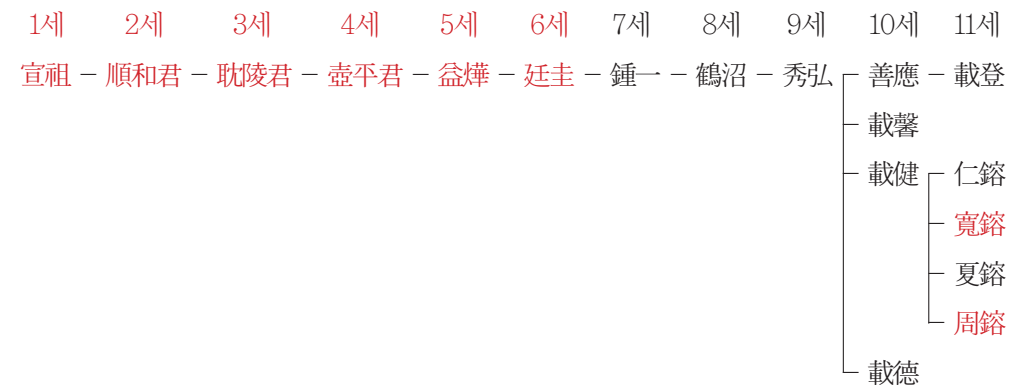


전적기념비 내용

4) 전주이씨 탐릉군파 묘역

- 유적명칭 : 전주이씨 묘역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중부대로 1408번길 16-14번지 일원
- 시대 : 조선
- 조사내용 :

전주이씨 탐릉군파 묘역(위도 37°13'49.58"N, 경도 127°12'5.70"E)은 6·25 참전유공자 공적비·호국무공수훈자공적비·6·25 및 베트남참전전상사자공적비·베트남참전유공자공적비에서 북쪽으로 10m지점에 형성된 경사면을 따라 하단에서부터 탐릉군(耽陵君) 이변(李覯) 신도비(神道碑), 이주용(李周鎔;1927~1992) 묘역, 이관용(李寬鎔;1915~1994) 묘역, 이정규(李廷圭) 묘역, 이익엽(李益燁) 묘역, 이운(李櫟;1679~1744) 묘역, 나주 정씨(羅州鄭氏) 묘역, 탐릉군 이변 묘역, 경주이씨 묘역이 형성되어 있다. 탐릉군파 묘역에 조성된 가계는 다음과 같다.⁹⁹⁾



순화군(順和君)은 선조의 제6남으로 순빈(順嬪) 김씨의 소생이고 순화군(順和君)이 소생이 없자 선조의 제7남인 인성군(仁城君)의 둘째 아들인 해안군 역(海安君 億)을 양자로 삼아 대를 계승하게 되었다. 해안군(海安君)의 첫째 부인이 탐릉군 묘역에서 제일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경주이씨 묘역이며 그의 제4남이 탐릉군(耽陵君) 이변(李覯)이다. 탐릉군의 장자는 호평군(壺平君) 이운(李櫟)으로 순화군파 소종중의 파종회를 이루고 있다.

99) 이해영·이해진, 전주이씨순화군파보전, 전주이씨순화군파종중, 가문닷컴, 2007, p.8.

이 묘역은 경주 이씨 묘역만 이전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1981년 경기도 용인군 김량장리 앞산에서부터 용인~이천 간 도로 공사로 인하여 현 장소에 이전 복원한 것이다. 이 당시에 출토된 복식 66점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기증되어 보관되어 있다. 출토 복식의 내용으로 흉배(胸背) 2쌍, 관복(官服) 3점, 천익(天翼) 2점, 중치막(中致莫) 20점, 창의(淸衣) 5점, 중단(中單) 1점,褶호(衣+護)¹⁰⁰⁾ 3점, 도포(道袍) 2점, 여자(女子) 저고리 1점, 배자(褙子) 1점, 저고리 2점, 바지 6점, 습신 외작, 사모(紗帽) 1점, 베개 1점, 두발낭(頭髮囊) 1점, 자수낭(左手囊) 1점, 우족낭(右足囊) 1점, 망건(網巾) 1점, 각대(角帶) 1점, 요대(腰帶) 1점, 악수(幄手) 1점, 천금(天衾) 3점, 지요 1점, 대감금(大歛衾) 2점, 구의(柩衣) 1점, 명정(銘旌) 1점이다.¹⁰¹⁾

(1) 탐릉군(耽陵君) 이변(李覯) 신도비(神道碑)

신도비는 전적기념비에서 노고봉으로 들어가는 산책로 초엽의 동쪽 하단에 위치해 있다. 신도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1981년 탐릉군파 종친회원이 세웠다.

前面(北) 朝鮮國中義

朝鮮國 中義大夫 耽陵君 兼 五衛都摠府 副總管 神道碑銘 並 序

曾經論陳主筆 一丁 李鎬應 謹撰 九代孫 寬鎔 盥水謹書

公諱覯字命新號濤聲 宣廟王子順和君諱玠之孫考顯祿大夫海安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諱

100) 소매가 없고 뒤 술기가 단에서 허리께까지 트인 조끼 모양의 관복이나 군복. 길이는 두루마기처럼 길다.

101) 석주선, 조선시대 출토복식의 실태,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개관 2주년 기념 제1회 학술세미나, 단국대학교 부설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1983, p.28.



탐릉군 묘역 전경(남→북)



탐릉군 묘역 전경(북→남)

億妣郡夫人慶州李氏永吉女公以 仁祖十四年丙子五月十三日生于考之配所斯之以則 宣廟有十三王子第六日順和君聚郡夫人長水黃氏左贊成赫女並夭而無育第七日仁城君諱珙聚郡夫人海平尹氏領議政承吉女有五男二女男次乃公之考海安君也仁城君天姿魁偉每立朝班之上疑似天人下降百僚莫不仰視至 仁祖改玉人心未定陳勝吳廣之類遂波起伏而嘯其標榜蓋以仁城推戴爲言反正功臣世稱疏魔李貴云者謀除仁城麟次上疏劾之 仁祖每教不問李貴構誣光海妻侄柳孝立逆玉使喉仁城矯誣大妃密旨謨復光海爲言作誣招而刻之 大妃驚駭且怒遽下諺教而自明於是 仁祖事于 慈殿明知誣招而曲從遷仁城于珍島而賜死其配郡夫人與海安七男妹追流于耽羅群島然而 仁祖深知仁城之無辜每當國家慶憾輒下仁城諸子放還命而每觐權臣李貴之諫阻還收放還命以至五個星想會有島民慶州李氏家通婚而海安無乃泣從連生二男冕次公放還後又生一男克也追流後八年乙亥九月始有量移襄陽之命隨金吾吏而歷全南忠清江原三道二十六官一千三百里丙子正月二十六日纔到襄陽配所是世 嶺月胡報丁丑正月傳聞放還命而發程追流後十年事也三月十日入京 仁祖宣召宣醢而慰之命雪冤仁城而復爵並授諸子職佶海平君億海安君健海原君伋海寧君僖海陽君也伋命婚娶兼有給其需之曲仁城子女卽時應命嫁娶而唯海安既有所娶兼有

側面(東) 大夫

三子猶豫六年中自上數有議婚下問無乃娶郡夫人濟州高氏以此公之家聞仰屈之一名久後 上傳聞海安之前娶與有三子各授職而慰之漸陞階而封君公耽陵君也自此海安侍奉偏親昆季一堂金玉上嘆安過廿年命道多舛郡夫人海平尹氏奄忽素孝海安以孝傷孝際有 孝宗命海安出系順和後乃順和歿後四十九年事也以此海安哀毀無境至生妣郡夫人海平尹氏發軔扶輿泣血而氣絕輜載歸第而不起公之十男妹續繼順和君家此是公之配所稟生與其考海安一生之大概也噫公之天姿習行右乎諸子及長誠孝兩堂餘力學問豪俠

後面(南) 耽陵君之墓

之風能鎮鄉曲雲漢之章威壓杏壇既立朝以孝移忠以文會友愛君以誠率僚以德在廟堂之上則憂其民遊江湖之遠則憂其君一出一入無爲而自適 顯廟器重之凡於軍國大事必以諮之以此自 顯宗至 英祖歷事四朝官知都摠府副摠管克其人臣之榮因老患而歿乃 英祖七年辛亥六月三十日事享年九十六龍仁治金良別鶴原公之藏也配郡夫人礪山宋氏榮業女生于 仁祖十三年乙亥二月十五日歿于 顯宗元年庚子三月二十七日享年二十六墓與公同窆無有繼配郡夫人羅州丁氏一教女生于 仁祖

十八年庚辰八月八日歿于 肅宗十年甲子正月五日享年四十五墓餘公同窆有二男三女男壺平君櫟壺山君櫟女清州韓碩徵昌寧曹夏成宜寧南弼郎壺平娶郡夫人同知宜寧南從萬女生一男忠義衛益燁再娶郡夫人昌原具尙夏女無育壺山聚郡夫人恩津宋南載女生一男一女男益輝女平山申錫周益燁娶綾城具泰徵女生一男二女男廷圭女文化柳廷國全州柳東源益輝娶漢陽趙震傑女生一男根圭廷圭娶晉州姜翊相女生四男二女男鍾一武護軍鍾三鍾五鍾九女宜寧南有周漢陽趙奎益鍾一娶彥陽金時喆女生一男鶴沼鍾三娶漢陽趙重益女生四男二女男武科縣監樂沼昌沼賢沼東沼出系季父鍾九後女延日鄭煥台漢陽趙珉中鍾五娶清州韓明鎬女無育鍾九娶陽川許瓚女無育以仲兄鍾三第四子東沼爲後餘改譜牒爲囑耳公之家有此衍慶皆因天道之無往不復也歲己未秋公之九代孫和其族日鎔成鎔奉公之行壯與家乘而見我乞幽墟之文耳余辭之不得據實改證而爲序因以銘之曰天將大任 古謫十載 神途至公 假借既定 嘗膽有年 朝野咸頌 王克器之 歷史五廟 那無試鍊 命稟八難 人法偏私 鹿馬易名 文鳴叔世 聲徹絳宵 位高八座 恩深三生



탐릉군 신도비 전경

側面(西) 碑銘

仁壽九六 馥馥斯澤 嘉爾孝裔 乃樹斯石 德何一二 久或湮滅 獻茲淨財 命傳永劫

太祖開國紀元五百八十九年庚子 月 日 耽陵君派宗親會員一同謹立

辛酉遷窆于營內聚葬麓

(2) 이주용(李周鎔) 묘역

이주용(李周鎔;1927~1992) 묘역은 탐릉군 신도비에서 서남쪽으로 약 50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묘역의 석물은 망주석, 상석, 고석, 계체석, 묘표, 봉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망주석에는 세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묘표에는 1994년 자손인 이상훈(李尙勳)과 이상은(李尙恩)이 썼고 이주용의 형인 이관용이 찬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行政事務官全州李公周鎔之墓

側面(西)

甸服之內龍仁邑治下金良場里別鶴洞老龜峰麓卯坐 原有朝 宣祖大王六男順和君派 八代孫인 祖父님 通德郎府君載建의 六男妹를 두시어 一九二七年 陰歷六月十九日 誕生하셨고 女一順 仁鎔 日鎔 寬鎔 夏鎔 五분의 兄님을 두시었다. 아버님은 舊韓末의 소용돌이 속에서 民族의 悲哀를 안고 長成하시었다. 龍仁公立普通學校를 一九四〇年 二十二回로 卒業하시고 民族受難期에는 배움의 길만이 民族救援의 길이라 生覺하시어 經濟에 많은 어려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一九四六年 七月十六日 徽文高等學校를 三十八回로 卒業하시고 一九四九年 七月 十六日 檀國大學校 專文部 政治科를 卒業하시었다. 祖國을 위하시어 이바지 하자는 生覺으로 鐵道廳에 入選하여 誠과 熱을 다한 결과 一九六三年 十二月 十七日 박정희대통령께서 내리신 表彰狀을 수여받으셨고 在職기간 동안에도 배움의 길을 게을리 하시지 않으시어 一九六六年 二月 十一日 延世大學校 經營大學院을 修了하시었다. 一九七三年 七月 二十五日 行政事務官에 任命되시었으며 釜山鐵道國 馬山驛長이 되시었고 一九七六年에는 鷺梁津驛長을 역임하시었다. 또한 서울驛 그릴 支配人으로 계시던 一九八〇年 八月一日에는 맡은바 職務에 정려하고 國家社會 發展에 이바지한 공으로 대한

민국 헌법의 규정에 의거 최규하 대통령께서 내리신 근정표창을 수여받으시었다. 아버님의 곧고 바르신 생각과 行蹟은 많은 表彰과 더불어 우리 가문의 자랑이자 모범이시었다. 四十六年間의 일제강점기에서 八一五解放을 맞고 이어 六二五事變을 겪은 일대 激變의 세월을 살아 오셨으면서도 百年을 계획하는 마음으로 交通部의 發展을 위해 每事에 정성을 드리셨던 아버님은 一九八八年 十二月 명예로운 停年退任을 하시고 그동안 부족했던 가족과의 정을 돈독히 하시며 쉬임없이 일에 精進하시던 중 평소와 같이 하루를 보내시고 一九九二年 十月十六日 陰曆九月 二十日 새벽 평온하신 모습으로 六十六歲를 一期로 세상에 작별을 고

側面(西)

하시었다. 先靈下三日장 子時에 葬禮를 모시고 아버님의 公德을 두 손 모아 기리며 고히 잠드시기를 비옵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遺德을 길이 追慕합니다. 分身으로 남기신 子孫은 二男一女로 娶海州吳成永女德根繼子하여 海乙을 두시고 再娶陽城李益東女義子하여 尙勳 尙恩을 두시었다. 尙勳 尙恩은 不孝를 뉘우치며 삼가 씁니다. 一九九四年 月 日 兄 寬鎔 謹撰



이주용 묘역 전경

(3) 이관용(李寬鎔) 묘역

이관용(李寬鎔; 1915~1994)의 묘역은 이주용 묘역의 동쪽에 인접하여 위치해 있다. 묘역은 망주석, 상석, 고석, 향로석, 계체석, 묘표, 봉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망주석에는 세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묘표는 아들 李海乙이 썼고 李寶鎔이 撰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全州李公寬鎔 孺人順興安氏 之墓

側面(東)

甸服之內龍仁邑治下金良場里別鶴洞老龜峰卯坐原有朝宣祖大王六男順和君派 八代孫인 祖父님 通德郎府君載建의 六男妹를 두시어 一九十五年 陰歷六月六日 誕生하셨고 女一順 仁鎔 日鎔 夏鎔 四분의 兄님과 一을분의 아우 周鎔을 두시었다. 아버지님께서는 日帝治下 함경북도 성진에서 대형철공소를 운영하시어 약 一千五百名の 동료를 따뜻하게 돌보시고 해방 후에는 서울에서 경남토건주식회사의 重任을 맡아 主要工事を 하시고 그 後 운송사업을 하시면서 일가 친척들의 和睦과 情을 돈독히 하시는데 進力을 다하심으로서 家門의 법도를 세우고 宗親會 운영 및 發展에 온 힘을 기울이셨으며 귀향하신 후 一九八一年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던 十三분의 선조지묘를 移葬케 된 바 열과 정성을 다하여 老龜峰 山에 安葬하심으로서 家門內에서는 물론 온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또한 마을 老人會를 결성하시고 술선수범의 모범을 실천하시고자 努力하셨으며 새마을 종합복지회관을 建立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심으로서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추구하시었다. 평생을 가족사랑 이웃사랑에 유념해 오시던 아버지께서는 一九九四年 陰曆八月 二十日 八十世를 一期로 세상에 작별을 고하시었다. 先靈下三日장 未時에 葬禮를 모시고 아버님의 은혜로움을 두 손 모아 기리며 平安히 잠드시기를 비우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遺德을 깊이 追慕합니다. 分身으로 남기신 子孫은 順興安氏 鎭宅의 一女錫順을 妻로 취하여 一男 海乙을 두시고 延安車氏 丙喆의 二女 昌淑을 子婦로 취하여 孫으로 聖株와 賢株를 두시었다. 海乙은 不孝를 뉘우치며 이 글을 씁니다.

一九九四年 九月二十九日 寶鎔 謹撰

不肖子 海乙 謹書



이관용 묘역 전경

(4) 이정규(李廷圭) 묘역

이정규(李廷圭) 묘역은 이주용(李周鎔) 묘역의 남쪽에 인근하여 위치하여 있다. 묘역은 망주석, 상석, 고석, 혼유석, 묘갈, 계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쪽 망주석의 세호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동쪽의 망주석의 세호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 묘갈은 1982년에 세웠고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北)

通直郎忠毅校尉全州李公之墓 配溫人晉州姜氏祔左

側面(東)

通直郎忠毅校尉全州李公諱廷圭之墓碣銘 並 序

曾經論陳主筆 李鎬應 謹撰 王孫 海安君 十七代孫 海壽 謹書

而公諱廷圭字文元號晚翠乃 宣廟第六王子順和君諱王土之五代孫海安君諱億耽陵君諱寬壺平君諱

櫟公之 高 曾 祖 禰之三世也考明善大夫武忠翊衛將諱益燁妣愼夫人陵城具氏尙夏女 英祖六年 庚戌正月十五日生公天賦岐嶷見者異之及長豐貌偉幹有蘭茁鵠峙之姿且兼好學好俠之風博達於文武

後面(北)

又有孝親愛日之誠恒念偏親之早寡劬勞恩克行孟宗默妻之孝一鄉矜式早中武科閱兵鍊武爲己任婁進爲忠毅校尉階至通直纔出六而歿享年稀有四乃純祖三年癸亥六月十一日事也同月十九日永窆于前記先塋局內己坐原嗟夫公以破牧之材竟未伸志雲梯階上作龜步而終蓋因 純祖朝戚里擅政與壺平明善兩世早夭之以也公之配溫人晉州姜氏翊相女生于 英祖七年辛亥五月二十六日在家誠孝兩堂于歸移孝偏姑敬事君子至純祖十六年丙子七月九日而歿享年八十六同月十七日祔公墓左辛酉聚葬時與公同遷丙坐原而仍舊舉四男二女男鍾一武護軍鍾三鍾五鍾九女宜寧南有周漢陽趙奎益鍾一娶彥陽金時喆女有一男鶴沼鍾三娶漢陽趙重益女有四男二女男武縣監樂沼昌沼賢沼東沼出系鍾九后女延日鄭煥台漢陽趙珉中鍾五娶清州韓仁傑女無育鍾九娶陽川許瓚女無育鍾三第四男東沼爲后鶴沼娶南原尹珽女有二男秀弘秀慶再娶星州李挺女有二男二女男秀恒出系東沼后秀幹女文化柳興圭慶州李熙豐樂沼娶廣州金寅曦女有一女而無嗣取東沼長子武司果秀英爲后女義城金熙大昌沼娶草溪鄭鎮大女有一男二女男秀英出系樂沼後女海州鄭大年晉州姜星煥以長男出系取鶴沼第三男秀恒嗣后秀弘娶平壤趙亨錫女有一男一女男善應女漢陽趙存曦秀慶娶昌寧成道根女無育取秀幹第四男德應爲后秀幹娶延日鄭郁濟女早卒而無育再娶海州吳泰昌女有四男益應完應順應德應出系秀慶后秀英娶高靈朴大鎔女有一男四女男根應女礪山宋始榮光州鄭基榮鎮川宋澤龜達城徐光翼秀興娶全州柳譚女有一男二女男周應也宜其亨之者與歲辛酉秋其裔載萬海散奉公之

側面(西)

女延日鄭文鎔安東金常鎭餘蕃不盡記公之家有此衍慶概因屢世清白積德之蔭行狀與家乘而乞碣文于余予辭之不得攷其狀而爲序因以銘之曰
唯公稟魄 胷藏天文 妖雲蔽日 投鼠非亂 賁賂橫街 一生獨潔 數曲挽鈴 今勒斯石
仙李金尺 手執彤弓 戚里亂舞 斯器爾何 清白反愚 百年通直 萬籟隨谷 明示永劫
太祖開國紀元五百九十年辛酉 月 日



이정규 묘역 전경

(5) 이익엽(李益燁) 묘역

이익엽(李益燁) 묘역은 이정규(李廷圭) 묘역 서쪽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묘역에는 상석, 고석, 혼유석, 계체석, 묘갈, 망주석, 봉분이 있으며 서쪽 망주석의 세호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동쪽의 망주석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이다. 묘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고 1983년에 세웠다.

前面(北)

明善大夫忠翊衛將全州李公之墓 配愼夫人綾城具氏祔左

側面(東)

明善大夫忠翊衛將全州李公諱益燁之墓碣銘 並 序
曾經論陳主筆 李鎬應 謹撰 王孫海安君十七代孫 周鎔 謹書
而公諱益燁字命新號竹軒我朝 宣廟第六王子順和君有諱王土之耳孫海安君有諱億耽陵君有諱寬公之曾 祖禰而考壺平君有諱櫟妣縣夫人昌原具氏尙夏女 肅宗三十四年戊子十二月日生公寔乃遺復子也其

於撫育修學就仕蓋青孀母縣夫人賜也公之稟性豐裕自幼文才與臂力右乎凡常及長早中武科

後面(西)

官至忠翊衛將階至明善而猶不忘縣夫人之鴻恩與孤獨凡於閭閻官衛街路間珍聞異見一如告之傍待母堂之一笑而白足每於節衣時羞遊玩等志口養毫無懈弛恒忙於奉親一念而馳走朝野通稱出天大孝命道多舛不幸短命而夭時年立有三乃 英祖十 六年庚申三月二十八日事也死者已歸無知而其於偏親之痛臆果何如者歟同年鶯夏初七日朝野祖送而永窆于先塋下巽坐原公之配愼夫人綾城具氏泰徵女生于 肅宗三十七年辛卯十月十日在家克孝十七歲隨聘入公之門誠孝偏姑敬事君子纔立齡而失竊撫育遺孤一男二女使嫁娶后至英祖四十年甲子盡悴而歿享年五十四乃秋七月十九日事也同月二十七日祔公墓左辛酉聚葬時與公同遷丙坐原而仍舊既述一男二女男通直廷圭女文化柳禎國全州柳東源廷圭娶晉州姜翊相女有四男二女男鍾一武護軍鍾三鍾五鍾九女宜寧南有司漢陽趙奎益鍾一娶彥陽金時喆女有一男鶴沼鍾三娶漢陽趙重益女有四男二女男武縣監樂沼昌沼賢沼東沼出系鍾九后女延日鄭煥台漢陽趙珉中鍾五娶清州韓錫佑女無育鍾九娶陽川許瓚女無育取鍾三第四男東沼爲后鶴沼娶南原尹珽女有四男二女男秀弘秀慶秀恒出系東沼后秀幹女文化柳興圭全州李熙豐樂沼娶廣州金仁曦女有一女而無嗣取東沼長男武司果秀英爲后女義城金熙大昌沼娶恩津宋世寶女有二男秀興秀翊出系賢沼后賢沼娶金海金尙賢女無育取昌沼第二男秀翊爲后東沼娶草溪鄭鎮大女有一男二女男秀英出系樂沼后而無嗣

側面(西)

取鶴沼第三男秀恒爲后女海州鄭大年晉州姜星煥餘蕃不盡記斯裔有此衍慶概因列祖清德之以也歲辛酉其裔辰鎔海丞海京等奉公之行狀與家乘而乞碣文于余辭之不得攷狀遽實而爲序因以銘之曰
斯家遺氈 臨
終託孤 唯恤鞠養 世世祖述 天將大任 孜孜克服 佳兮流芳 乃樹頑石 忠孝貞烈 夫詔婦遂 那願反哺 晶
晶胤玉 焉逸試鍊 轉轉理循 恐或久煙 俾傳永劫
太祖開國紀元五百九十一年壬戌三月 日 立

(6) 호평군(壺平君) 이운(李櫟) 묘역(墓域)

이운(李櫟;1679~1744) 묘역은 이익엽(李益燁) 묘역의 남쪽 상단에 위치하여 있다. 묘역은 향로석, 상석, 혼유석, 봉분, 봉분호석, 망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쪽 망주석의 세호는 내려가고 동쪽의 세호는 올라가게 조각하였다. 묘표는 모두 2기가 세워져 있는데 상



이익엽 묘역 전경

석 뒤에 1기와 묘역 서쪽에 1기가 세워져 있다. 상석 뒤에 있는 묘표 앞면(북면)에는 『朝鮮國崇義大夫壺平君諱櫟之墓 配縣夫人宜寧南氏 祔左 繼配縣夫人昌原具氏祔右』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른 면에는 글씨를 쓰지 않았다. 묘역 서쪽에 세워져 있는 묘표의 상단에는 전서로 측면(서면)에 “朝”, 전면(북면)에 “鮮國壺平”, 측면(동면)에 “君”, 후면(남면)에 “之墓碑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비문의 순서는 서쪽 측면에서 시작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側面(西)

朝

朝鮮國崇義大夫壺平君諱櫟之墓碑銘 并 序

曾經論陳主筆 李鎬應謹撰 海安君十代孫 空軍大領海星謹書

甸服之內龍仁治金良麓別鶴 坐原有我朝 宣廟第六王子順和君派海安系耽陵家之聚葬處開而僻幽而明如五星之聚奎行者停步觀者稱譽而其正中結節處乃斯族壺

前面(北)

鮮國壺平

平君有諱櫟字君先號月潭公之藏也乃公 宣廟朝王玄孫位也而王子順和君王土王孫海安君諱

諱億其 曾 祖 彌之兩世也考耽陵君諱覓妣郡夫人礪山宋氏榮業女也生妣繼妣郡夫人羅州丁氏一教女也 肅宗三年丁巳二月十日生公自幼穎闔孝事兩堂餘力學問文鳴一世鄉党師之杏林伯之 當宁嘉之特除封君移孝于忠分憂於民疲民過化黠虜蟄伏刑獄稍閑軍國庶幾遽然一疾竟奪斯人齡僅立二乃 肅宗三十四年戊子二月十四日事也考妣之痛百口難代矣民之哭萬牛如吼 上聞甚驚愕命進素饌厚賜賻典然而苑者已矣以其年四月十二日同窆于前配墓右公之前配縣夫人宜寧南氏同知從萬女生于 肅宗二年丙辰二月八日自幼塞淵十八歲歸公之門移孝于舅姑致敬于君子舉家稱之秀萼先風纔過二穉而仙化乃 肅宗二十一年乙亥十月十日事齡僅十九同月十六日以備後年祔左之儀而永窆于先塋局內辰坐原無有繼配縣夫人昌原具氏尙夏女生于 肅宗六年庚申五月四日芳筭十八而適公之門奉舊姑事君子殫盡彤管纔過十二禾丁公之捐館乃縣夫人二十九歲事也嗟夫縣夫人當此城崩之痛

側面(東)

君

初欲殉從爲心暗相遺胞之在腹而忍生祖送后芳踵不越閨槌永廢疏粧垢面麻衣產下遺孤而撫育使之修學成人就任寔乃階明善益燁也蓋斯族之親盡後大成專仗縣夫人之力也大哉縣夫人嚙盡許多劬勞遂此大任至 英祖二十年甲子因老患而告終乃二月十日事也享年六十五同月十五日同窆于公墓右歲辛酉自都堂有龍仁邑擴張事由

(7) 나주정씨(羅州鄭氏) 묘역

나주정씨(羅州鄭氏) 묘역은 이운(李櫟) 묘역의 상단에 위치해 있고 탐릉군(耽陵君) 이변(李覓) 묘역의 하단에 위치해 있다. 나주정씨는 탐릉군 이변의 계비(繼妃)이다. 묘역에는 망주석, 문인석, 향로석, 상석, 고석, 혼유석호석, 계체석이 잘 갖추어져 있고 상석 좌우에 팔각형의 향로석이 놓여 있는 점이 특이하다. 서쪽 망주석의 세호는 내려가고 동쪽 망주석의 세호는 올라가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이 묘역에는 묘표가 없지만 탐릉군 이변 묘역의 묘표 전면(북)에는 “朝鮮國中義大夫耽陵君五衛都總府副總管諱覓之墓配郡夫人礪山宋氏 祔左 繼配郡夫人羅州丁氏墓下”라고 쓰여 있어 나주정씨 묘역임을 알 수 있다.



호평군 이운 묘역



나주 정씨 묘역 전경



탐릉군 이변 묘역 전경

(8) 탐릉군(耽陵君) 이변(李覯) 묘역

탐릉군(耽陵君) 이변(李覯) 묘역은 나주정씨 묘역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장명등을 중심으로 동서에 망주석과 문인석, 동자석, 봉분 북쪽 중앙에 향로석, 상석, 고석, 혼유석, 묘표, 봉분과 호석이 둘러져 있고 사성부분이 붕괴되지 않도록 화강암으로 최근에 둘러놓았다. 서쪽 망주석의 세호는 내려가고 동쪽 망주석의 세호는 올라가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묘표 전면(북)에는 “朝鮮國中義大夫耽陵君五衛都總府副總管諱覯之墓配郡夫人礪山宋氏 祔左 繼配郡夫人羅州丁氏墓下”라고 쓰여 있고 다른 면에는 글씨를 새기지 않았다. 묘표의 기단의 문양은 복연의 모습을 하고 있다.

(9) 경주이씨 묘역

경주이씨 묘역은 탐릉군 이변 묘역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석물은 장명등을 중심으로 동서에 망주석, 문인석이 있고 중앙에 향로석, 상석, 고석, 혼유석, 묘표, 봉분과 호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쪽 망주석의 세호는 내려가고 동쪽 망주석의 세호는 올라가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봉분앞에 서 있는 묘표의 전면(북)에는 “王孫海安君初配 郡夫人慶州李氏之墓”라고 쓰여 있다. 묘역의 서쪽에 서 있는 묘표는 1983년에 세웠고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側面(西)

郡

郡夫人慶州李氏墓碑銘并序

曾經論陳主筆 李鎬應謹撰 海安君十一代孫 工學博士海京謹書

郡夫人慶州李氏 宣廟第六王子順和君有諱玘之繼子王孫海安君有諱億之初配也 王孫之己本生考妣 宣廟第七王子仁城君有諱珙郡夫人海平尹氏也而仁城君因世

前面(北)

夫人慶州

稱疏魔李貴所構柳孝立誣獄流珍島而不歸繼有郡夫人海平尹氏及所生諸子女之追配耽羅群島 命海安奉郡夫人尹氏挈病廢伯兄率七弟妹而就耽羅旌義縣配所有年隣居士人慶州李姓翁見海安之秀相舉之而器之送媒婆而請婚事郡夫人親行看選後召海安而言其實海安自以謂罪人而固辭之郡夫人海平尹氏強之曰汝兄海平病廢次卽汝也放還無期光陰不停爾欲斷先王之遺繫乎海安無奈泣從連生二男長冕次覯也放還後又生一南克也追配八年乙亥始有量移出陸襄陽之命海安與次弟海原奉率一族而隨金吾吏歷全南忠清江原三道二十六官行水陸一千三百有里而丙子正月二十六日到襄陽配所是歲臘月有北騷乃丙子胡亂也丁丑正月有放還令海安與海原上奉下率而入京朝見仁祖乃追配後十年事也 仁祖宣醮而慰之命雪冤仁城而復爵并授諸子之爵億海安君也仍命仁城君諸子女之嫁娶兼有給其儒之典仁城諸子卽時應命嫁娶而海安已有所娶兼有所生三男旣安接于龍仁縣而約待機事猶豫三年中自 上數

側面(東)

李

有議婚下教無乃娶郡夫人濟州高氏久後 上傳聞海安之前娶與既有所生三男而不罪召海安而授慶州李氏牒與所生三男之職而慰之漸陞階而封君嗟夫郡夫人生于光海八年丙辰三月八日十八歲入王孫之配所寓終享外命婦之榮告終于 肅宗六年庚申五月九日享年六十五同月十七日永窆于龍仁治金良麓別鶴贊坐原乃辛酉聚葬麓

後面(西)

氏墓碑銘

上位也有三男二女男耽溪君冕耽陵君寃耽山君克女禮判德水李景曾兵曹僉知德水李仁老耽溪君冕娶郡夫人韓山李元圭女有四男韓原君樞韓豐君杔韓興令皙韓陽君楹耽陵君寃娶郡夫人礪山宋榮業女無育再娶郡夫人羅州丁一教女有二男三女男壺平君櫟壺山君櫟女淸州韓碩徵昌寧曹夏成宜寧南弼良耽山君克娶郡夫人陽川許湜女有一男一女男河陽正材女杞溪俞命彬餘攷乾位碑文爲囑耳歲辛酉秋其裔海暎農學博士海淙奉郡夫人之行狀家乘乞碑銘于余辭之不得攷狀據實而爲序銘之曰

暇讀晉史 貴爲公主 回憶我朝 王法繩之 步月別鶴 三璋龍卵 兩瓦瑚璉

可尙懷羸 能讓內子 否泰唯命 鹿馬易名 守閨金良 別聖遺甄 九重仙精

舐犢餘情 偏心所貴 鞠養自樂 馥馥流芳 乃勒頑石

唇覺唯爽 天下何換 以終天年 久或煙滅 俾傳永劫

太祖開國紀元五百九十一年 壬戌 月 日



경주이씨 묘역 전경

5) 서학사(瑞鶴寺)

□ 유적명칭 : 서학사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서구 33-3번지

중부대로 1408번길 16-14번지 일원

□ 시 대 : 근 대

□ 조사내용 :

서학사(위도 37°13'51.42"N, 경도 127°12'14.94"E)는 6·25 참전비에서 동쪽으로 중앙공원 정문을 향하여 200m 정도 직진하면 우측에 위치해 있다. 서학사는 1930년대에 어느 선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며 현재 화성의 용주사(龍珠寺)의 말사로 비구니 스님이 주지를 맡고 있다. 대웅전의 외 벽면에는 심우도(尋牛圖)가 그려져 있고 풍탁(風鐸)이 매달려 있다. 대웅전 앞에는 현대에 세워진 탑이 있다. 대웅전 불당에는 소조독존나한상(塑造獨尊羅漢像)이 안치되어 있는데 흙을 재료로 만들었고 조선시대 말기 양식이라고 하여 2007년 용인시 향토문화재 제61호로 지정되었다.¹⁰²⁾



서학사 전경

102) 주2 앞의 책, pp.490~491.



서학사 소장 소조독존나한상(塑造獨尊羅漢像)

6) 전주(全州) 유순(柳洵) 묘역

- 유적명칭 : 전주(全州) 유순(柳洵) 묘역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산37-18
- 시대 : 근대
- 조사내용 :

(1) 청주인(淸州人) 한아기(韓雅其) 송덕비(頌德碑)

유순 묘역(위도 37°14'0.72"N, 경도 127°12'18.01"E)은 서학사에서 동쪽으로 약 500m정도 가면 중앙공원 주차장과 정문이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서쪽으로 바라보는 산록에 위치해 있다. 청주인(淸州人) 한아기(韓雅其) 송덕비(頌德碑)는 유순묘역으로 올라가는 입구 좌측에 위치해 있고 최근에 세운 것이다. 한아기 송덕비는 2008년에 세웠고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東)

季允公의 六代 宗孫婦 淸州人 韓雅其頌德碑

側面(北)

종친회장 秉熙 양성택과 이사 完秀 어비울택과 이사 忠熙

총무이사 基松 삼삼이과 이사 明熙 감 사 千熙

종파 이사 基陽 여주파 이사 午熙 감 사 康熙 建立

김량택 파이사 光熙 고삼파 이사 斗熙

後面(西)

季允公의 六大宗孫婦 淸州人 韓雅其(한아기)는 西紀 一九〇七年에 경기도 수원군 동탄면 산척리 二二四번지에서 父親 韓景弼의 따님으로 태어나 一九二九年에 全州柳氏十五世季允公 諱 洵의 六代宗孫 諱 浚秀에게 出嫁 一九三七年에 七代宗孫 秉熙를 出産하여 宗統의 代를 잇고 기울어가던 宗家の 家勢를 일으키며 많은 先代의 奉祭祀와 묘소 수호에 정성과 심혈을 기울이던 중 夫君이 一九四四年에 別世하자 門中の 어려운 大小事를 손수 맡아 해결하고 집안간의 和合에도 더욱 노력하여 宗家에는 恒시 親姻戚들로 門前成市를 이루게 하였음을 물론 解放後 農地改革과 六·二五동란의 渦中에서도 宗土를 굳건히 지켜 오늘날 龍仁 全州柳氏 季允公派 宗親會 發展의 基盤을 공공히 한 功績이 至大하여 季允公 家門의 後孫들과 孫婦들에게 龜鑑이 되도록 本會 任員들이 뜻을 모아 이 頌德碑를 세웁니다.

二〇〇八年十月一日

秉熙 基松 謹撰

(2) 유순(柳洵) 묘역

유순(柳洵) 묘역은 청주인 한아기 송덕비에서 서쪽 상단에 위치해 있다. 묘역의 석물은 남북으로 서 있는 망주석 사이로 장명등이 있고 향로석, 상석, 고석, 혼유석, 계체석, 봉분의 호석과 묘역의 북쪽과 서쪽에 묘표가 세워져 있다. 북쪽 묘표는 1999년 세웠고 서쪽 묘표는 2013년에 세웠으며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 墓表(北)

前面(東)

全州柳 公諱洵之墓 庚坐

後面(西)

乾一七三六年丙辰九月 九日生

一七九六年丙辰正月二十六日卒享年六十一歲

全州柳氏始祖濕字十五世

字 季允

墓 龍仁市金良場洞龜尾

配密陽朴氏一七三三年癸丑十一月十二日生

一七七九年己亥十二月 八日

墓 龍仁市麻坪洞幕墟坤坐

子 昇來

晟來

一九九九年己卯四月五日八世孫秉熙謹豎

○ 墓表(南)

前面(東)

(字 季允)

全州柳公洵之墓

側面(南)

公의 본관은 全州(完山), 諱는 洵, 字는 季允, 시조는 完山伯 濕이며, 시조비는 삼한국대부인 전주최씨로서 五男一女를 두었다. 二男 克愾는 문과로 직제학을 거쳐 연안부사가 되었고 克愾의 二男 濱은 문과로 영흥도호부사가 되었다. 濱의 二男 의손은 문과로 참판을 하였는데 문장이 뛰어나 세종 임금이 특별히 寵愛하여 戒酒敎書와 綱目訓義書 및 無冤錄 等의 序文을 짓게 하였고 死後에 좌익원종공신 二등에 녹권되었으며 吏曹判書에 추증되었고, 養子인 末孫의 三男 季潼은 충무위 부사직을 하였다. 季潼의 장남 軾은 문과로 인천부사를 하였고, 軾의 장남 潤德은 문과로 한성우윤을 하였

으며, 윤덕의 장남 擥는 참봉을 하였는데 城의 季子 復立을 양자로 맞이하였다.

復立은 主簿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부임치 않았는데 임진왜란 때 수문장으로 진주성을 지키다 순절하여 이조참판에 추증되고, 정려가 내려졌으며, 진주 창렬사에 배향되고 후에 이조판서로 加增되었다.

後面(西)

復立의 獨子 昊는 무과로 첨지를 하였고 三男 櫟은 壽職으로 同知가 되었으며, 櫟의 五男 汝燧는 무과로 선전관을 하였는데 이분이 公의 曾祖父이다. 조부는 鼎基, 부친은 銑이며, 모친은 淸州韓氏이다.

공은 一七三六(丙辰)年 九月九日 태어나 밀양인 박상삼의 따님을 맞이하여 두 아들을 두니 昇來와 晟來이다. 큰아들 昇來는 진천장씨를 配匹로 맞이하여 다섯 아들을 두니 聖養, 繼養, 勉養, 克養, 萱養이며, 繼養은 堂叔 弘來의 養子로 갔다. 둘째아들 晟來는 청풍김씨를 배필로 맞이하여 두 아들을 두니 心養과 敏養이다.

이하 자손이 많아 모두 기록할 수 없으나 公의 오세손 最根은 副司果, 最根의 아들 瑾은 탁지부주사, 중앙학교장, 황성신문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언론을 통한 독립운동을 하여 건국공로훈장을 받았고, 瑾의 아들 年秀도 독립운동을 한 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公의 六世孫 玩은 무과로 참령을, 琿은 문과로 교리를 하였다.

公은 주위의 존경과 칭송을 받으시며 다복하게 천수를 누리시고 一七九六年一月二十六일 別世하시니 享年 六十一歲이다. 묘소는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산 三十七의 十八번지 중앙공원내 구미 선산에 모셨으며, 배위는 처인구 마평동 산 五十四의 八번지 선산에 모셨다. 公歿後 약 二百여년이 지나 공과 연관된 문헌을 수집하여 위와 같이 略述하는 바이다. 銘하여 이르노니,

아! 평범 속에 삶의 진리가 있네. 계운공께서는 벼슬의 뜻을 접으시고 산수 좋은 용인 땅에 터전을 잡으시고 온갖 역경을 극복하시며, 오로지 최상의 孝道와 友愛로 정이 두텁고 화목한 家門을 이룬다는 孝友根天敦睦成家の 정신으로 家門을 이끌고 번창시켜 오셨으니,

이 훌륭한 정신과 無限한 덕망이 사라지거나 잊히지 않도록 큰 비석에 글을 새겨 우리 후손들이 길이길이 따르고 실천하여 우리 종친회가 천만대를 이어가며 더욱 번성하고 발전함은 물론 나라의 큰 人才가 代를 이어 나오기를 기대하고 기원하면서 모든 宗員들의 뜻을 모아 公의 誕生 二百 七十七週年 生辰日(陰九月九日)을 기념하여 이 비석을 다시 세웁니다.

側面(北)

二〇一三年十月十三日(陰九月 九日)

七代孫 季允公派宗親會 會 長 秉熙

八代孫 季允公派宗親會 理 事 長 基松 共撰

總務理事 基昌

理事 基陽 光熙 寅熙 完秀 基鉉 允熙 基元

午熙 道熙 斗熙 基哲 忠熙 政熙

監事 千熙 康熙 共立

(3) 유승래(柳昇來) 묘역

유승래(柳昇來) 묘역은 유순(柳洵) 묘역의 북쪽으로 5m정도에 인접하여 위치해 있다. 묘역은 망주석, 향로석, 상석, 계체석, 묘표, 봉분의 호석이 둘러져 있고 장명등이 봉분 남쪽에 위치해 있다. 망주석 등 석물은 모두 근래에 설치한 것이다. 묘표는 1999년에 세웠고 봉분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東)

全州柳公諱昇來之墓

配鎮川張氏

配竹山朴氏附左

申坐

後面(西)

乾一七五七年丁丑 六月 十日生

一八二七年丁亥十一月 十五日卒享年七十一歲

坤一七五〇年庚午 八月 十四日生

一七九七年丁巳十一月 十二日卒享年四十八歲

坤一七七三年癸巳十一月 十一生

一七五三年癸丑 正月二十四日卒享年八十一歲

全州柳氏始祖濕字十六世

字 輝仲



유순 묘역 전경



청주인(淸州人) 한아기(韓雅其) 송덕비



유순 묘역 전경



유승래 묘역 전경

墓 龍仁市金良場洞龜尾

子 聖養 繼養 勉養 克養 萱養

一九九九年己卯四月五日七世孫秉熙謹豎

7) 의령남씨(宜寧南氏) 묘역

□ 유적명칭 : 의령남씨(宜寧南氏) 묘역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공원 내

□ 시대 : 근대

□ 조사내용 :

의령남씨 묘역(위도 37°13'51.71"N, 경도 127°12'29.64"E)은 유순 묘역에서 중앙공원을 따라 남쪽으로 300m 정도 돌아가면 산의 남면에 형성되어 있다. 묘는 모두 4기가 조성되어 있는데 석물은 각각 묘표, 향로석, 상석, 계체석, 봉분의 호석을 사각형으로 조성하여 놓았다. 묘역이 놓여있는 위치에 따라 북쪽 하단부터 기술하면 (1)제주고씨(濟州高氏) 혜숙(惠淑) 묘, (2)의령남씨(宜寧南氏) 상훈(相勳) 묘, (3)의령남씨(宜寧南氏) 창우(昌祐) 묘의 배열로 놓여 있고 그 상단에는 (4)의령남씨(宜寧南氏) 봉희(鳳熙) 묘가 위치해 있다. 묘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상단에는 묘비가 없는 2기의 봉분이 있다.



의령남씨 묘역 전경

(1) 제주고씨(濟州高氏) 혜숙(惠淑) 묘

前面(南)
配濟州高氏惠淑之墓
後面(北)
乾 一九四五年乙酉十二月 九日 生
年 月 日 卒
坤一九五0年庚寅 一月二十八日 生
二0一0年庚寅 七月 二日 卒
子 南基白 子婦 吳永美 孫 雄鉉
女 靜姬 壻 李始炯 外孫 在國
在雄
西紀二0一0年十月十七日 謹豎

(2) 의령남씨(宜寧南氏) 상훈(相勳) 묘

前面(南)
宜寧南公相勳
配韓山李氏 之墓
配全州李氏祔左
壬坐
後面(北)
乾 丁酉生 陰六月 十一日卒
坤 丙子生 陰七月二十五日卒
坤 丙子生 陰十月 五日卒
子 昌祐 孫 基重 曾孫 潤鉉
孝祐 然皓 學鉉
錫佑 基白 聖鉉
雄鉉
二00一年四月五日 立

(3) 의령남씨(宜寧南氏) 창우(昌祐) 묘

前面(南)
宜寧南公昌祐
之墓
配咸平李氏啓姪
後面(北)
乾一九二六年 陰十月 十四日 生
二0一四年 陰三月 二日 卒
坤一九二九年 己巳 五月 二十日 生
二00八年 戊子 二月 十三日 卒
子 南基重 子婦 金京熙 孫 潤鉉
學鉉
女 南貞淑 壻 尹基永 外孫 璟秀
西紀二00九年 四月 五日 謹豎

(4) 의령남씨(宜寧南氏) 봉희(鳳熙) 묘

前面(南)
宜寧南公鳳熙
配全州李氏 之墓
配順興安氏祔左
壬坐
後面(北)
乾陰一月 四日卒
坤陰十月十四日卒
坤陰二月十一日卒
子 相勳 孫 昌祐 曾孫 基重 高孫 潤鉉
孝祐 然皓 學鉉
錫祐 基白 聖鉉
雄鉉
二00一年四月五日立

8) 석농(石農) 유근(柳瑾) 묘역

- 유적명칭 : 석농(石農) 유근(柳瑾) 묘역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공원 내
- 시 대 : 근대
- 조사내용 :

유근 묘역(위도 37°13'50.43"N, 경도 127°12'23.82"E)은 의령남씨 묘역에서 현충탑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도로 우측으로 석농 유근 선생 추모비가 서 있고 추모비에서 우측 소로를 타고 약 50m 가면 석농 유근 묘역이 위치해 있다. 묘역은 망주석, 계체석, 향로석, 상석, 봉분의 호석, 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망주석은 동서로 세워져 있고 서쪽의 세호는 올라가고 동쪽의 세호는 내려가는 모양이다. 묘역은 전체적으로 북쪽 능선에 조성되어 있다. 추모비와 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고 묘표 상단의 두 모서리는 “八”字 모양으로 깎았다.

(1) 석농(石農) 유근(柳瑾) 선생 추모비

前面(東)

大韓帝國主事徽文義塾長 皇城新聞社長

獨立志士石農柳瑾先生追慕碑

側面(南)

어진 선비의 護國精神이 永久히 國民에게 龜鑑이 되도록 하였으니 그 貢獻은 千秋萬世에 해와 같이 빛나고 名聲은 北極星보다 더 높으리라. 先生의 本貫은 全州 姓은 柳 諱는 瑾 字는 敬集 號는 石農 石儉이다. 始祖는 完山伯濕 始祖妣는 三韓 國大夫人 全州 崔氏인데 二男 克恕는 文科로 寶文閣直提學을 거쳐 延安府使가 되었다. 克恕의 二男 濱은 文科로 永興都護府使가 되었고 濱의 二男義孫은 文科로 禮曹參判을 하였는데 佐翼願從功臣二等에 錄勳되어 吏曹判書로 追贈되었으며 養子 季潼은 季弟末孫의 三男인데 忠武衛副司直을 하였고 都承旨에 追贈되었다. 季潼의 長男 軾는 文科로 仁川府使를 하고 禮曹參判에 追贈되었으며 軾의 長男 潤德은 文科로 漢城府 右尹을 하였고 潤德의 長男 軾는 參奉을 하였는데 사촌 城의 二子 復立을 養子로 맞이하였다. 復立은 主簿에 除授되었으나 辭讓하고

後面(西)

赴任치 않았다가 壬辰倭亂때 參戰하여 晉州城을 지키다 殉節하여 旌閭가 내려지고 晉州 彰烈祠에 追享되었으며 또한 高宗때 吏曹判書에 加贈되었다. 復立의 아들 昊는 武科僉知로서 戶曹參判에 追贈되었고 昊의 三男 櫟은 壽職 同知이며 櫟의 季子 汝燧는 武科로 宣傳官을 하였다. 七代를 지나서 最根은 副司果를 하였는데 이분이 先生의 父親이며 母親은 慶州人 金魯洙의 따님이다. 先生은 哲宗十二(一八六一)年 九月 二十六日 龍仁市 麻坪洞 新坪마을에서 태어나 漢學을 工夫한 후 上京하여 高宗 三十二(一八九五)年 金홍집 內閣의 度支部 主事를 하였다. 그 후 高宗 三十五(一八九八)年 남궁억 등과 皇城新聞을 創刊하여 主筆 論說委員으로 활동하였고 萬民共同會 幹部로 活動하다가 日警에 逮捕된 바 있으며 高宗 四十(一九〇三)年 다시 度支部 主事를 하였다. 高宗 四十二(一九〇五)年 十一月 皇城新聞에 掲載된 乙巳條約을 暴露하는 是日也放聲大哭을 張志淵이 끝맺지 못하자 後半部를 作成하였는데 이것이 問題가 되어 皇城新聞은 無期 停刊당하였다. 高宗 四十三(一九〇六)년 新訂 東國歷史를 共同 著述하였다. 純宗 一(一九〇七)年 皇城新聞 社長을 하고 徽文義塾 塾長을 한 후 이듬 해에 大韓協會發起에 參與하고 純宗 二(一九〇八)年 初等 本國歷史 初等小學 修身書를 著述하였다. 純宗 三(一九〇九)年 崔南善 등과 朝鮮光文會를 組織하여 古文書를 發刊하였고 一九一〇年 日帝때는 新撰初等歷史를 著述하였다. 一九一五年 中央學校 初代校長을 하였고 一九一七年 朝鮮物產獎勵運動을 指導하다가 發覺 日警에 逮捕되어 獄苦를 치렀다. 一九一八年 大倥敎 正敎가 되었고 一九二〇年 東亞日報 題號를 짓고 編輯 顧問을 하였는데 一九二一年 五月 二十日 宿患으로 別世하였다. 葬禮는 國民葬에 준하는 東亞日報 社葬으로 永訣式을 하고 龍仁의 先塋에 安葬하였으며 一九六二年 政府로부터 建國 功勞勳章이 追敍되었다. 先生은 全州人 李昌模의 따님을 맞이하여 獨子 年秀를 두었는데 獨立運動을 한 功績으로 二〇—〇年에 政府로부터 大統領 表彰을 追敍받았으며 廣州人 安鍾和의 따님을 맞이하여 두 아들을 낳

側面(北)

으니 豐熙와 斗熙이고 胄孫은 豐熙의 아들 基哲이다. 二〇一二年 光復節을 맞이하여 先生의 偉大한 功績과 祖國 守護의 愛國精神을 代代孫孫 後世에 傳承하고자 이 追慕碑를 세운다.

二〇一二年 八月 十五日 孫 斗熙 曾孫 基哲 全州柳氏季允公派宗親會 理事長 基松 共撰

全州柳氏季允公派宗親會 會長 柳秉熙 總務理事 柳基昌
 理事 柳基陽 柳光熙 柳寅熙 柳完秀 柳基鉉 柳允熙
 柳基元 建立
 柳午熙 柳忠熙 柳政熙
 監事 柳千熙 柳康熙

(2) 묘표

前面(北)

순국선열 石儂柳瑾의 묘

後面(南)

선생은 용인인으로 황성신문사에 장지연과 함께 일하시면서 일제의 침략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을사위약에 서명한 매국 각료를 맹렬히 공격 비난하고 일제의 원흉 이등박문이 황제와 각부 대신을 핍박한 이면의 사실을 폭로하여 필주를 가하였고 장지연이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사의 “시일야 방성대곡”의 대 논설을 쓸 때도 도왔으며 1907년 황성신문이 속간되자 사장에 취임하여 언론투쟁을 계속하는 한편 육영사업에 진력하였으며 3·1 운동에도 참가하였고 1920년 동아일보가 창간됨에 따라 편집 감독을 맡아 일생을 언론 창달에 이바지한 바 크며, 1921년 5월 20일 영민하시다.

1962년 3월 1일 건국공로훈장 국민장 추서



유근 선생 묘역 전경



석농 유근 선생 추모비

9) 현충탑(顯忠塔)

- 유적명칭 : 현충탑(顯忠塔)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산36 중앙공원 내
- 시대 : 근대
- 조사내용 :

현충탑(위도 37°13'50.31"N, 경도 127°12'20.78"E)은 한국전쟁 중 전사한 군인 627위, 경찰 14위, 군속 38위 등 용인시 관내 호국영령 679위를 모신 추모비이다. 현충탑 내부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의 내용이 새겨져 있다.

이 탑은 용인군에서 제작을 이일영 화백에게 위촉하여 1975년 6월 6일 제막되었음 용인군수 윤 병 하

탑의 서측(西側)

호국영령비

수지면

상병 이용길 순경 윤종학 징용 김두식 징용 박창서 징용 심만수 징용 윤성균

남사면

상병 박현순 일병 남정은 병장 최명부 상병 정홍순 일병 신경식 이병 양만금 상병 이우석 상병 이정석 이병 공근영 일병 서정택 상사 정현용 병장 김승덕 일병 남상협 상병 최혁진 병장 하재덕 상병 윤길원 상병 이상근 병장 서병칠 병장 정항노 상병 정운용 일병 김종엽 병장 조성근 일병 이중문 하사 권오민 일병 이병기 상병 구임희 일병 정병문 병장 정환영 일병 이원만 상병 노재성 일병 김용경 상병 서병열 일병 임찬용 병장 김상규 병장 이범호 일병 엄경환 일병 노재정 병장 정하규 병장 권병만 일병 박태섭 하사 김용만 일병 공근수 일병 이만우 일병 송만금 병장 이정준 일병 박종일 중사 이재춘 중사 이창현 일병 이천술 경사 최윤부 징용 김춘동 징용 이영징 징용 권오구 징용 정진철 징용 이춘식 이병 이정우 일병 김국태

이동면

대위 목좌균 중위 심정옥 하사 이상덕 하사 강장석 일등중사 김윤기 이등중사 정태석 일등중사 어준우 병장 강성용 일병 조행구 일병 박종선 일병 표복용 하사 강순영 일병 임재덕 상병 최복희 일병 유광용 일등중사 박선찬 상병 홍종성 일병 조장준 중사 우종록 일병 이강범 일등중사 최덕진 일병 양순용 병장 계훈극 일병 이재철 하사 홍종성 하사 양호근 일등중사 임석규 일병 홍원표 하사 김근식 이병 홍선표 하사 유무형 일등중사 이필성 병장 박종섭 이병 이은만 일병 박진원 일병 강순일 중사 김남복 군속 우해승 병장 어문우 상병 임종석 일병 이하석

원삼면

하사 이종대 이등중사 김준희 상병 정상운 병장 박계옥 하사 박윤길 일병 박정웅 일병 박만식 하사 오신근 일병 김덕중 하사 허정옥 일등중사 이범찬 일등상사 오배근 일병 오세송 이병 안철만 일병 이희수 일병 홍우영 일병 한태원 일병 이민하 일병 이은석 하사 김사현 일등중사 신현철 이등중사 윤석선 일병 김만영 이등중사 신정원 이등중사 신경철 일병 김영주 일병 이만영 일등중사 이창식 이등중사 현봉원 하사 강한표 이등중사 전상은 일병 한인석 이등중사 김맹춘 일병 오형근 일병 정낙규 일병 이배희 이병 이태철 일병 김성용 일등중사 한찬교 이병 조인기 일병 엄상익 이병 홍성직 일병 이강주 일병 오완영 상

병 김양일 순경 이세영 군속 이상철 군속 김춘식 군속 윤응섭 군속 이재호 순경 이용우

외사면

대위 정언섭 이등중사 김동희 하사 안상남 이등중사 곽준균 일병 유근구 하사 마순용 하사 고원중 하사 장세만 일병 안상묵 일병 이중태 일병 오세균 일병 이재철 일병 이범선 하사 최일관 하사 윤규열 일병 김창하 하사 송병영 일병 박한준 일병 안승철 일병 이교진 이등중사 박한옥 일등상사 오백용 일병 김대철 하사 황인섭 이등상사 박용선 일병 차용안 하사 안준형 일병 안재록 일병 윤춘명 이등상사 김용석 하사 이진옥 이등중사 김종한 이등중사 이종벽 일병 이석재 일등중사 긴영우 이등중사 이성희 이등중사 김병운 일병 이명희 이등중사 조동규 하사 김정희 일병 박성악 일병 이상준 상병 황규성 일병 김화성 일병 윤춘영 병장 오재수 병장 유상배 일병 조상호 이병 정창모 상병 황규원 순경 장석형 순경 정한영 경사 이만수 군속 정기복 군속 윤창희 군속 김동호 군속 심중섭 군속 이준식 군속 이상희

내사면

일병 구중서 이병 이준희 하사 심춘택 이등중사 조병원 이등중사 허면중 병장 김홍섭 일병 유기찬 이등상사 유옥수 하사 임태순 하사 임희복 하사 심언택 하사 이해영 하사 이병구 하사 박성모 병장 김차열 일병 유경석 일병 김경희 하사 송재선 이등중사 장준석 일병 박명환 이등중사 유상열 이등상사 박병찬 하사 강인배 병장 정덕영 이등중사 강백수 이등중사 민병수 하사 안남원 하사 김병덕 이등중사 정연만 중사 서호용 일병 유복준 일병 마종인 상병 이춘기 병장 최대근 하사 박의학 중사 이춘웅 하사 김희재 순경 이병완 병장 유태석 소령 허만옥

故陸軍少領許萬煜 外四九八名 神位

억만겁 이어나갈 억천만 생이여 여기 우리 군민이 정성을 모아 이 탑을 세우니 우리러 보고 또 우리러보아 길이 이 나라 지키소서

탑의 동측(東側)

용인읍

중위 최광식 일병 김현강 일병 김현석 일등중사 황용창 일등중사 김양배 하사 양구석 일병 박철재 일등중사 이수복 이병 조우복 일병 홍순구 하사 유채희 이등중사 정순태 이

등중사 송호석 하사 유학수 하사 박대규 하사 양운석 일병 김익운 일등중사 유현수 이등중사 양재준 하사 박상길 일등중사 정해림 일병 정근섭 일병 유태식 이등중사 권종화 하사 신현옥 하사 장기동 하사 조규용 일병 남철원 일등중사 장재환 일등중사 유완 일병 이영조 이병 이태영 일병 차석기 하사 송상옥 하사 오충근 일등중사 원희상 이등중사 김진만 하사 허연 일병 조무행 하사 김성기 하사 정홍용 하사 김유영 하사 임은택 일등중사 박종봉 하사 정규천 이등중사 한상도 이등중사 민병창 이등중사 이병덕 일병 이재희 일병 최영한 이병 조준원 이병 유경중 상사 조기원 중사 이명석 상병 이성환 하사 문명식 일병 김학선 하사 정해직 하사 김장만 일병 박규식 일병 정건섭 일병 박종길 일병 박태운 일병 임재필 이병 김복동 병장 정장유 하사 백경현 상병 김종철 경위 이정운 군속 유창수 경위 김동혁 일병 신평호 상병 이상학 군속 김업동 병장 정낙용 소위 손창진 상경 윤항식 하사 최영호

기흥읍

중위 이정준 병장 하정영 일병 이학열 일병 오두환 병장 김진원 일병 최기복 일병 홍현성 하사 고석화 일등중사 박용필 이병 신수복 하사 이황규 이병 안병임 이등중사 남정길 하사 최재경 이등중사 이종관 일병 이근태 병장 오세근 일등중사 최석영 상병 송영배 일병 황종업 일병 김성배 하사 엄남석 이등중사 홍현창 이병 김용규 이병 김순태 일병 김운태 일병 홍기정 상병 정용행 일병 장해식 상병 김관규 일병 최남용 일병 김학구 하사 김청 일병 조상호 군속 강석구 군속 이용규 군속 권상묵

포곡면

이등중사 안병식 일등중사 조중희 하사 이준영 일병 차준승 일병 차준협 하사 김관영 이등중사 홍성원 이등상사 조천행 이등상사 남봉희 하사 조병길 일병 권종식 하사 진영하 이병 심우걸 일병 이진관 중사 조태근 일병 김창원 일병 이영식 일병 이봉규 이등중사 안병욱 하사 이기봉 일병 이보상 일등중사 안계오 일등중사 신두섭 일병 이진구 하사 안종오 이병 김건수 병장 박한충 순경 박봉수 군속 이창규 이병 김학원

모현면

중위 이호성 일병 남상순 중사 최갑용 일병 정운영 이등중사 임성대 중사 이정희 이병 강남희 일병 정운학 상병 이원희 상병 정사억 상병 이원배 상병 최동근 병장 이병용 하사

정봉준 일병 전기만 일병 엄영복 이병 이영희 일병 정세영 일병 이남희 일병 최갑성 병장 김성희 일병 이광배 상병 정연금 일병 신현수 병장 이기동 일병 정태영 하사 임영택 상병 박홍식 중사 정연홍 병장 신동식 일병 김일영 경위 정일영 상병 이인배

구성면

소위 손창진 일병 이재덕 하사 이귀현 하사 이순기 이등중사 이은기 일병 윤석난 하사 박기수 하사 안승복 이등중사 김완기 하사 이태희 이등중사 박홍식 하사 박태식 일병 이종수 일병 박영환 이등중사 한석한 일병 조병현 일병 이현인 일병 최병섭 병장 홍인섭 병장 임순택 일병 이영식 병장 이명우 하사 공운식 일병 전복천 일병 최도길 이등중사 김효수 이등중사 김홍조 이등중사 용인석 이등중사 박춘희 하사 문덕기 정용 정갑봉

수지면

소위 유흔목

이등중사 박재근 이등중사 이의순 하사 이종해 일병 강복산 일등중사 김기홍 이병 이재천 이등중사 지청산 하사 이교선 하사 이현홍 이등중사 윤상희 이병 신흥성 일병 윤종식 일병 김용복 일병 심충진 일병 권태안 일병 안영식 일병 이성우 일병 임영규 상병 김광식 하사 이국진 일병 김수병 하사 나창배 이병 김재학 병장 심응효 병장 정진학 일병 조성배 일병 김만경 상병 박영상 상병 최찬섭

건립취지문

이 비는 전몰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높이 기리고 그 뜻을 후세들이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19만 군민의 정성을 모아 건립한 것임

1990년 6월 6일

용인군수 김학규



현충탑 전경

10) 밀양박씨(密陽朴氏) 묘역

- 유적명칭 : 밀양박씨(密陽朴氏) 묘역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산36
- 시대 : 근대
- 조사내용 :

밀양박씨 묘역(위도 37°13'50.06"N, 경도 127°12'22.64"E)은 현충탑 입구에서 동쪽으로 20m 지점에 우측으로 묘역이 형성되어 있는데 상석에 “孺人密陽朴氏之墓”라는 글씨가 쓰여 있고 그 상단에 3기의 봉분과 그 상단에 1기가 있으나 묘표석이 없다. 따라서 이 묘역에는 모두 5기의 묘가 존재한다. 이 묘역은 최근에 조성된 묘역으로 밀양박씨와 관련된 묘역으로 보이며 봉분의 호석, 상석, 향로석, 고석이 있지만 계체석이나 망주석, 묘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밀양 박씨 묘역 전경

11) 파평윤씨(坡平尹氏) 언년(言年) 묘역

- 유적명칭 : 파평윤씨(坡平尹氏) 언년(言年) 묘역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 시대 : 근대
- 조사내용 :

파평윤씨 언년 묘역(위도 37°14'41.06"N, 경도 127°12'40.32"E)은 밀양박씨 묘역에서 내려와 중앙공원 입구의 동쪽에 나 있는 45번 국도를 타고 광주 방향으로 다리를 지나 200m 정도 가면 서쪽으로 난 도로가 있다. 이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정수장이 나오고 도로 우측에 밭이 형성되어 있고 그 너머 묘역이 위치해 있다. 묘역은 망주석, 묘표, 향로석, 고석, 상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묘역 상단에는 5기의 묘가 위치해 있다. 동쪽 망주석의 세호는 올라가고 서쪽 망주석의 세호는 내려오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묘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고 근래에 세워진 것이다.

前面(南)

坡平尹氏言年

之墓

海州崔公昌燮

後面(北)

崔公一九四五年五月九日 卒	長子	在鉉
尹氏一九四七年二月十日 卒	長女	在喆
	婿	韓相高
	女	在分
	婿	李相旭
	女	京子
	婿	朴壽根
	姪	崔在天

一九七九年 四月 二日 立



파평윤씨 언년 묘역

12) 밀양박씨(密陽朴氏) 효부비(孝婦碑)

□ 유적명칭 : 밀양박씨(密陽朴氏) 효부비(孝婦碑)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 시대 : 1934

□ 조사내용 :

밀양박씨 효부비(위도 37°14'27.53"N, 경도 127°12'37.80"E)는 파평윤씨 언년 묘역에서 남쪽으로 300m정도 가면 45번 국도 서쪽에 위치해 있다. 비좌는 지표에 파묻혀 있고 비신은 백색계통의 대리석으로 월두형이다. 비신의 높이는 118cm, 폭 44.5cm, 두께 7.2cm이다.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고 1934년 9월에 용인 기노친목회의 발기로 세워졌다.

前面(東)

猗歟孝婦 食必匙之 衣榻常潔

善養病舅 坐必扶矣 掃濯不息



밀양박씨 효부비 전경

孝婦車聖泰夫人密陽朴氏之碑
克誠克敬 出自天性 ○不用極
愈久愈篤 非由學識 甘載一日

後面(西)
昭和九年甲戌六月 日
發起 龍仁耆老親睦會

13) 신태군(申宅均) 영세기념비(永世記念碑)

- 유적명칭 : 신태군(申宅均) 영세기념비(永世記念碑)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 시대 : 1936
- 조사내용 :

신태군 영세기념비(위도 37°14'28.01"N, 127°12'38.26"E)는 밀양박씨효부비에서 북쪽으로 1.1m 지점에 위치해 있고 비신은 월두형이다. 비좌의 높이는 12cm, 너비 50cm, 두께 73cm, 비신 높이 112cm, 너비 상 45.5cm, 하 44cm, 두께 16.5cm이다.

이 기념비는 1936년 7월 22일에 건립되었고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面(東)
仁宅種德 誠勤奉識
恩愛惟均 遠慮我鄉
金良第三區長申公宅均永世記念碑
年季○俸 民賴安堵
蓄成旦財 萬口咸頌

後面(西)
昭和十一年丙子七月二十二日建



신태군 영세기념비 전경

14) 김량장동 유물산포지 3

- 유적명칭 : 김량장동 유물산포지 3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낙은로 34번길 16-4
- 시대 : 조선
- 조사내용 :

○ 현황

김량장동 유물산포지 3(위도 37°14'27.74"N, 경도 127°11'57.33"E)은 밀양박씨효부비와 신태군 영세기념비에서 서북쪽으로 형성된 산록을 따라 약 1km 정도 돌아가면 채제공 묘소와 사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넓은 밭이 형성되어 있다. 이 밭에 청화백자와 도기편이 분포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옛집 두 채가 보인다. 유물산포지에서 서쪽으로 10m 정도 가면 낙은 경로회관이 있는데 그 앞에 약 200년 정도 된 은행나무가 서 있다.



김량장동 유물산포지 3 전경

○ 유 물

1. 도자기

유물 번호	색 조			태도	유 태색	두께 (cm)	설 명
	외면	속심	내면				
1	흑갈	적회	적갈	니질	흑갈	0.45~ 1.2	흑갈색흑유도기의 저부 편으로 유약은 굽 부분을 제외하 고 전면에 시유되어 있다. 번조 받침은 모래 받침으로 포 개 굽기를 하였다. 내면에는 물레의 흔적이 있고 굽의 지 름은 4.5cm이다.
2	백색	백색	백색	니질	순백색	0.5	청화백자목단문호 건부 편으로 건부에 청화 목단 문양이 그려져 있고 경부는 외반 되어 올라가고 있다. 태도는 순 백색으로 잘 정선되어 있고 유약은 회백색을 띠며 전면에 고르게 시유되었다.



김량장동 유물산포지 3 수습 용기 및 청화백자 편

15) 채제공(蔡濟恭) 묘역

- 유적명칭 : 채제공(蔡濟恭) 묘역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산 3-12, 5

- 지정사항 : 경기도기념물 제17호
- 시 대 : 조선
- 조사내용 :

채제공 묘역(위도 37°14'31.84"N, 경도 127°11'58.96"E)은 김량장동 유물산포지 3에서 동북쪽으로 약 50m지점에 위치해 있고 묘역입구 부근에 채제공 뇌문비(諫文碑), 사당(祠堂)이 있고 묘역의 석물은 양, 망주석, 향로석, 상석, 고석, 계체석, 혼유석, 묘표, 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석에는 사방에 문고리 무늬가 새겨져 있다. 채제공 뇌문비는 모현면 초부리 묘소 입구에 뇌문비각 안에 있다. 뇌문비는 죽은 사람의 생전 공덕을 칭송하는 글을 새긴 비로 정조(正祖)가 1799년 3월 26일에 채제공의 명복을 신에게 기원하면서 내린 제문이다.¹⁰³⁾

(1) 채흥원 및 채과영 묘역

채제공 묘역에서 서북쪽으로 약 50m지점에는 채흥원 묘가 위치해 있는데 묘역은 봉분, 향로석, 고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석 前面(西)에는 “歷工曹參判漢城左尹 平康蔡 公 弘遠 配貞夫人全州李氏 之墓”, 側面(北)에는 “六代孫 古竹山蔡虎錫의 願力으로 西紀 二〇—〇年十一月二日 五代祖와 四代祖 두 분의 墓를 移葬하여 모신 후 西紀二〇—一—年 五月二十五日 床石을 놓다”, 側面(南)에는 “英祖壬午十一月十六日生 純祖壬辰五月七日卒 享年七十一歲”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채제공 묘역 전경



채흥원 및 채과영 묘역 전경

103) 주10 앞의 책, pp.730~732.

채홍원 묘의 하단에는 채과영(蔡果永)의 묘가 위치해 있는데 묘역은 봉분, 향로석, 상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석의 전면(西)에는 “平康蔡公果永之墓”, 側面(南)에는 “純祖甲子八月一日生 憲宗丙午進士 丁未蔭都事直長 哲宗壬子文科 歷司諫院正言 壬子十月八日卒”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2) 채제공뇌문비(蔡濟恭誄文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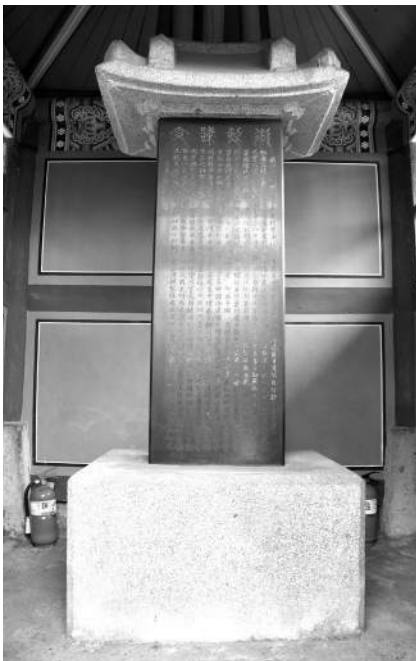
御製誄文
議政府領議政 奎章閣提學華城府留守壯勇外使賜諡文肅公蔡濟恭葬日遺閣臣替訣于其靈若曰
松喬上竦山嶽脚牢卿式似之判不枯槁挺然獨任義三秉一木天編史手握非律斧鉞狐鼠日星忠蓋蜀
訛易警巴賁不驢洞辨廓闢返我鄒魯知申膝席血涕如雨自持寸丹質諸天神萬育莫奪百劫無磷蓋卿
稟賦俊爽英特寧驥櫪伏不駒輶促薄雲氣槩吞朝局量發之於文忼慨劉亮莊精列液馬隨班筋燕南歌
筑抗隊新翻篋雖魏盈杼不曾投子匪懸鏡卿實虛舟萬賴歸寂三品出鑪起來樊巖坦履康衢嗟卿巷遇
寧考則哲特置經幄知自簪筆若龍於虞出納 王命若僑於鄭潤色辭令口嘗 御藥手綴 天章魚魚雅雅
赤(艸+市)蒼珩知卿用卿子篤自信有謨必采取卿抱蘊有牘必詡嘉卿秉執有事必咨喜卿諧洽有唱
必疇愛卿風韻一號眞荊舉世廉藺太阿如水疇敢孤車策名立朝五十年餘清華要膺奚適不宜度支中
權藝苑樞司延登奎閣接武江漢煌煌六節藩留及閭乃立之相不卜不夢捍流屹石支厦巨棟澤漉群黎
祿仁九族桃門韋布槐庭襪襍西樓七分上應壽星鶴髮象笏尚有典型爰宅于華青繩路臨采采春露手
指松陰大耋元朝聽漏起居渥顏卿眸端供穩趨卿期八齡子謂百歲西來一氣敢肆垂滄間起人物卿亦
乘箕朝無老成國其何爲其間孝親罕如卿者令焉已矣有淚一灑春杵遽撤凡杖未錫不與人亡滿架牙
軸徵付剗劂將壽其傳親製誄文五百餘言歷鋪平素子筆無愧寄語弘遠母忝母貳
己未三月二十六日

(3) 채제공묘표(蔡濟恭墓表)

前面(西)
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
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
館觀象監事檢校 奎章閣提學 贈
諡文肅公樊巖蔡先生濟恭之墓



채제공뇌문비(蔡濟恭誄文碑) 비각



채제공뇌문비(蔡濟恭誄文碑) 전경

16) 평양조씨(平壤趙氏) 재순(載順) 효부비(孝婦碑)

- 유적명칭 : 평양조씨(平壤趙氏) 재순(載順) 효부비(孝婦碑)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역북리 317-3
- 시 대 : 1979
- 조사내용 :

평양조씨 재순 효부비(위도 37°14'27.45"N, 경도 127°11'24.66"E)는 채제공 묘역에서 서쪽으로 번암공원을 지나 세브란스 병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허진 씨 가옥 담장과 붙어 있다. 비신은 월두형이며 전면(南)에 “平壤趙氏載順孝婦之碑”라고 쓰여 있고 후면(北)에는 “西紀一九七九年七月一日 建立 子 玲 珍”이라고 새겨져 있다. 비의 규모는 총 높이 111cm, 비좌높이 8cm, 너비 62cm, 두께 39cm, 비신높이 103cm, 너비 37.5cm, 두께 11.5cm이다. 비문의 뒤편에는 안내판이 새겨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재순 효부비
趙載順 孝婦碑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역북리

효부 조재순 여사의 본관은 평양이며, 조선 말기 고종 3년(1903계묘) 수원에서 출생하였다. 여사는 어려서부터 천성이 착하고 효성이 지극했는데, 1926년 이 고장 역북리의 양천허씨 문중으로 출가하였다.

여사는 평소 효성이 지극하여 시부모 봉양에 정성을 다했고, 남편을 공경으로 내조하여 가문과 이웃 사람들에게 칭송이 그칠 날이 없었다.

어느 해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 병석에 눕게 되자, 여사는 시약과 음식 수발은 물론 대소변까지 받아내는 등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불편 한마디 없이 부도(婦道)를 뒀는데 헌신적이었다. 여사는 항상 환자 견에서 악취를 제거하고, 옷과 침구를 청결하게 했으며 9년간을 하루같이 병구완에 정성을 다하였다.

여사의 이러한 헌신적인 부도는 모든 사람들의 귀감으로 널리 칭송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양천(陽川)허씨(許氏) 종가(宗家)의 발의로 1979년 7월 1일 이 효부비가 서게 되었다.

이 효부비의 전면에는 「평양조씨재순 효부지비」란 비문이 새겨져 있다.



평양 조씨 조재순 효부비 전경

17) 역북동 유물산포지

- 유적명칭 : 역북동 유물산포지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금학로 235번길 23-6
- 시 대 : 조선
- 조사내용 :

○ 현 황

역북동 유물산포지(위도 37°14'22.74"N, 경도 127°11'19.40"E)는 평양조씨(平壤趙氏) 재순 효부비(載順孝婦碑)에서 서남쪽으로 약 200m 지점에 연대 세브란스병원 뒤편인 서쪽으로 경사진 구릉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조선시대 백자편들이 산포되어 있다. 구릉 지역은 경사면으로 일부 고추가 심어져 있고 경사면을 따라 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산 구릉지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역북동 유물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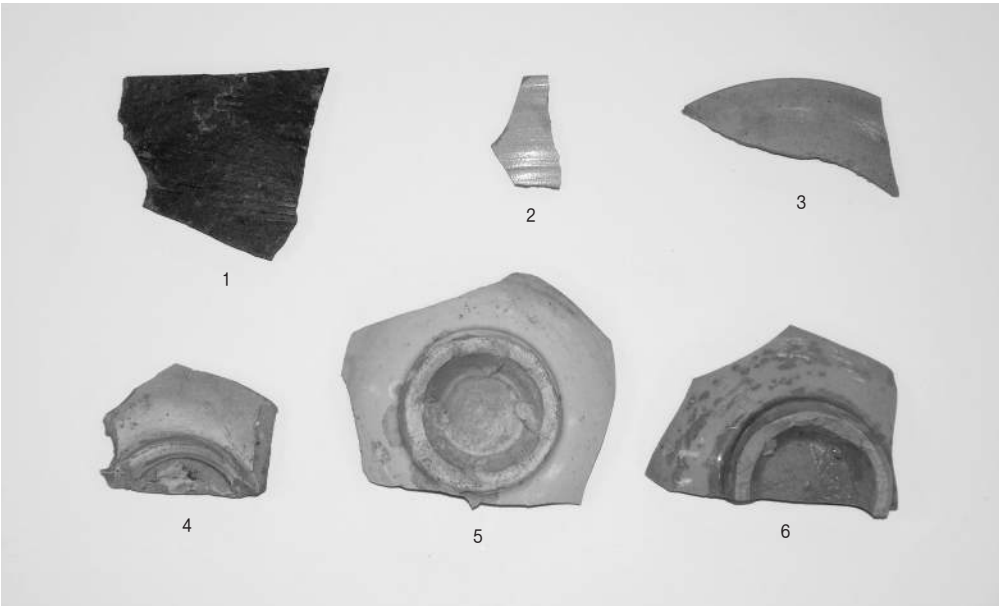
○ 유 물

1. 토기

유물 번호	색 조			태토	경도	두께 (cm)	설 명
	외면	속심	내면				
1	흑청	적회	회청	정질	경질	0.56~ 0.9	회청색경질토기 몸통 편으로 태토는 일부 기포가 형성되어 있고 운모가 보이며 잘 정선했었다. 외면은 음각선을 그은 후 물손질과 빗질을 하였고 내면에는 물레로 돌린 흔적이 있다.

2. 도자기

유물 번호	색 조			태토	유 태색	두께 (cm)	설 명
	외면	속심	내면				
2	회갈	회색	회갈	니질	회갈	0.3~ 0.4	분청사기 구연부 편으로 내·외면에 기형 조성 시 물레로 돌린 흔적이 나 있고 그 위에 유약을 균일하게 발랐다. 기형은 견부가 약간 벌어진 접시 편으로 보이며 구연부는 외반되어 있다. 태토는 니질 점토로 정선했다.
3	회	회백	회	니질	회	0.4~ 0.45	분청사기 구연부 편으로 구연부는 외반되어 있다. 태토는 니질 점토로 정선했다. 유약에는 일부 빙열이 나 있다. 구연부의 직경은 15.6cm이다.
4	회백	회백	회	니질	회	0.45~ 0.92	분청사기 저부 편으로 동체 외측면의 저부는 음각으로 홈이 파있는 형태로 정리하였다. 굽의 형태는 대마디 굽으로 깎은 흔적이 있으며 태토는 니질 점토를 사용하여 잘 정선했다. 굽의 지름은 6.4cm이다.
5	명청	백	명청	니질	명청	0.6~ 1.05	백자저부 편으로 유약은 굽 내부의 일부를 제외하고 전면 에 고르게 시유되어 있고 축절굽이다. 유색은 명청색을 띠고 있으며 내면에는 부분적으로 철분이 녹은 흔적이 보이고 굽 내부와 내저원각에 태토 비집이 붙어 있다. 굽의 지름은 6.2cm이고 내저 원각의 지름은 7.8cm이다.
6	회	회백	회	니질	회	0.45~ 0.7	백자저부 편으로 유약은 굽 내부를 제외하고 전면 에 고르게 시유되어 있고 축절굽이다. 유색은 명청색을 띠고 있으며 굽 내부와 내저 원각에 태토 비집이 붙어 있다. 굽의 지름은 6.2cm이고 내저 원각의 지름은 8cm이다.



역북동 유물산포지 수습 토기, 도자기 편

18) 독립항쟁기념탑(獨立運動記念塔)

- 유적명칭 : 독립운동기념탑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 시 대 : 현대
- 조사내용 :

독립항쟁기념탑(위도 37°14'4.58"N, 경도 127°11'47.22"E)은 신갈에서 용인시로 들어가는 42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김량장동 용인 삼거리 도로 중앙에 위치해 있다. 독립항쟁기념탑 뒤에는 독립운동 유공자의 명단이 있고 독립항쟁기념탑 동쪽에는 설립취지에 대한 비문을 용인군에서 새겨 놓았다. 독립운동 설립취지 비문의 동쪽에는 평화통일 비가 세워져 있는데 화강암에다 “평화통일”이라고 한글로 쓴 후 그 하단에 직사각형의 대리석 안에 명문을 새겼다. 이 명문의 하단에는 “대한민국”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라는 글씨와 함께 비둘기를 형상화한 원형의 로고가 있고 뒤쪽에는 건립위원의 명단이 있다. 이 비석의 남쪽에는 자연보호헌장 비가 세워져 있고 상단에는 새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의 청동상이 앉아 있다.

(1) 독립항쟁유공자 명단

獨立抗爭有功者

金達桓 權鍾穆 崔相根 金胄元 金九植 韓榮圭 金赫 金性男 洪鍾煌 尹喆鎬 金永達 洪鍾煜
吳準 金殷秀 黃敬俊 吳光鮮 金昌淵 金士根 吳義善 安鍾珩 劉泰秀 吳姬英 李德均 李今萬
吳姬玉 李殷杓 林許玉 李漢應 李寅夏 鄭哲和 崔英喆 丁奎復



독립항쟁기념탑 전경



독립항쟁유공자 탑비 전경

(2) 독립항쟁기념탑 설립취지문



독립항쟁기념탑 설립취지문 비 전경

우리 고장 용인에서 독립항쟁에 몸 바치신 선열들은 항일의병 40명, 3·1만세 운동 주도 인사 77명, 애국독립지사 36명 등 모두 153명에 이른다. 3·1 독립만세 운동 당시에는 관내 인구 3만 2천여 명 중 1만 3천 2백여 명이 궤기하였으며, 이 중 741명이 일제의 만행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실종되는 등의 수난을 겪었다. 이렇듯 민족의 자존과 독립을 위하여 일신을 던지신 애국 선열들의 숭고한 발자취가 우리 후손들의 가슴속에 면면히 기려져 있어야 했음에도 그분들의 고귀한 구국 항

쟁 정신이 역사의 갈피 속에 묻혀 온 지 어언 반세기. 이제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애국선열들의 넋을 다시 한 번 추모하고 그 고귀한 희생과 독립

정신을 되새겨 길이 후손에게 전하고자, 온 국민의 한결같은 뜻을 모아 이 탑을 세우노니, 군민들이여! 이 탑 앞에 고개 숙여 지나간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새기라. 그리하여 오욕스런 과거를 반성하되, 결코 잊지는 말자. 그리고 위대한 조상의 자랑스런 후손이 되어 희망과 번영이 넘치는 내 조국과 내 고장을 가꾸어 나가자.

1995.8.15.

용인군수 윤 병 희

(3) 평화통일 비

아 육천만 민족의 가슴에 응어리진 분단된 조국통일의 한이 언제나 풀리려나. 여기 용인군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사십일명은 이 탑을 보는이에게 우리 민족의 역사적 소명인 평화통일의 굳은 의지를 심어주고 오늘에 사는 우리겨레가 그 얼마나 조국통일을 염원하였는가를 길이 후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탑을 세우노라.

건립위원

조양수 권영주 김영식 김영하 김용기 박옥봉 문장달 이기출 김학규 남중열 박낙환 변해봉 황근숙 이명숙 이상표 설상헌 이우석 임기현 조만형 우일출산 유성걸 윤규돈 조행원 채영묵 한창수 홍증혁 유상국 홍신표 홍의표 김경호 김정근 김기홍 박승숙 박혜숙 송복규 심현옥 박영덕 이병운 이영우 이종설 윤상송

후원 韓一石材工業株式會社

대표이사 정 중 근



평화통일 비 전경

1984년 9월 30일

(4) 자연보호헌장 비

자연보호헌장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향기 높은 민족 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 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어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이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 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 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을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 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보호헌장을 제정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 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다.
2.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자연보호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존이 우선되어야 한다.
5. 온갖 오물과 폐기물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의 오염과 파괴는 방지되어야 한다.
6. 오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7. 국민 각자가 생활 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1978년 10월 5일

이 탑은 1979년에 건립, 42번 국도 확장으로 인하여 이곳으로 이전하였음

1991. 9. 1.

작가 이 일 영

시행정 용 인 군



자연보호헌장 비 전경



옛길과
함께한
오리골
· 2

2. 옛길과 함께한 오리골

오리골은 2009년 고시된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사라지게 될 마을이다. 또한 용인중앙시장 등 도시 중심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특성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되어 왔다. 때문에 현재 오리골에서 대를 이어 살아가고 있는 주민은 극히 소수이며 이미 마을을 떠나 근처로 이주하거나 지역을 떠난 주민들도 많다. 이러한 마을의 조건으로 인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오리골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몇몇 주민들과 현재까지 오리골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오리골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해 보았다.

2-1 오리골의 변천사와 지명유래

1) 오리골은 김량장동의 일부

오리골은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딸린 자연마을이다. 과거에는 자연마을의 성격이 비교적 뚜렷하고 마을의 경계도 어느 정도 분명했으나 지금은 도시화로 인해 구분이 어렵게 되었다.

1995년 용인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처인구가 신설되고 이전의 김량장리는 동(洞)으로 승격되었는데 남동과 함께 중앙동에 속하게 된다. 김량장동과 남동은 이전의 리(里)가 승격된 법정동이고 중앙동은 두 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인데 오리골에 동사무소가 자리 잡고 있다.

오리골은 김량장동 6통에 속하며 42번 국도인 중부대로로 인해 윗부분이 단절되어 김량장동 14통에 일부가 들어가 있다. 처인구청에서 사거리로 이어지는 시내통과 도로인 금령로에서 남쪽으로 오리골을 바라보았을 때 왼편의 구 경찰서자리인 공용주차장, 용인감리교회, 구 보건소가 오리골의 좌측이 되고, 제일은행에서 용인맨션으로 오르는 길이 오리골의 오른편이 된다. 그러나 6통과 14통의 일부는 직선으로 구획된 도로를 따라 나누었기 때문에 골짜기나 능선을 따라 나누던 자연마을의 구분과는 차이가 있다.

오리골은 김량장동에 속해 있지만 김량장동은 1914년 이후에 새로 생긴 지명이다. 이전에는 소학동이라고 불렀는데 당연히 오리골은 소학동에 딸린 마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시대 후기에 간행되었던 여러 『읍지』나 『대동지지』 같은 지역 기록에도 오리골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14년 일본인들에 의해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조선지지자료』라 하여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지명을 조사한 자료가 남아 있다. 또 1914년을 전후하여 역시 일본인들에 의해 우리나라 지도가 제작되었는데 축척이 1: 50,000으로 새로 개편된 리명(里名)과 이전의 리명(里名)이 함께 실려 있다.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리(里)는 오늘날의 자연마을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오리골은 보이지 않는다.

당시 소학동에는 김량장이 설 정도로 용인 관내에서 안성과 수원, 광주와 이천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이기는 했지만 『조선지지자료』에 나오는 소학동에 속한 자연마을은 별학과 진흙구덩이, 그리고 능말의 세 마을이 있을 뿐이다.

지금의 고림동 임원리에 숲원리와 보둔지를 비롯하여 9개 마을이 있고, 남동의 대촌리에도 안터와 옥고개를 비롯하여 5개 마을이 있으며, 동진리에도 4개 마을이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수여면의 중심이었던 소학동에는 자연마을이 적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신 5일장이 서는 김량장이 있어 수여면의 중심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할 때 오리골은 독립된 자연마을이 아니라 별학의 일부였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두 마을은 최근까지도 다른 마을에 비해 느슨하기는 하지만 대소사를 함께하기도 하고, 친목회도 두 마을이 하나로 운영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기록으로 나타나는 오리골은 없기 때문에 오리골의 역사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소학동이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에도 나타나는 지명임을 감안한다면 별학 역시 당시에 소학동의 일부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용인은 1970년대 이후 인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200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팽창을 이룬다. 지금은 100만 가까운 인구를 포용하는 거대 도농복합시가 되었지만 수지와 기흥의 집중개발이 인구급증으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 반면 오리골의 변화는

오히려 1970년대에 용인이 본격적인 산업화로 들어가면서 주어진 변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1945년 해방 이전만 해도 오리골의 호구는 15호에서 많아도 20호를 넘지 않았다. 이후 6·25전쟁을 겪으면서도 별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1960년대 후반이나 1970년대 초반에 이르면 40호 내지 50호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2) 오리골 현황

2014년 현재 오리골에 해당하는 김량 6통은 441세대이고 가구(家口)로는 150여 호에 이른다.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것을 감안해도 예전에 비해 대단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중부대로로 인해 단절된 14통에 속한 일부를 더하면 훨씬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오리골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1980년대 전후인데 용인이 본격적인 산업화로 들어서면서 외지인의 전입이 급증하게 된 이후이다. 1970년대 후반에 용인 최초의 아파트인 용인맨션이 건축되고 이후 신광맨션과 같은 연립주택이 들어섰으며 마을 주민들도 방이 여럿 딸린 주택을 지어 세를 놓기도 하였다. 단독주택도 많이 늘어났는데 주로 읍사무소 뒤편과 감리교회 위로 집중되었다.

또 이전의 42번 국도였던 금령로를 따라 극장과 면사무소, 등기소와 금융조합 등이 들어서면서 오리골의 성장에 변화를 주었다. 후에 한국전력과 동사무소, 소방서, 농협과 은행 등이 들어서면서 더 많은 변화를 주게 된다.

용인면사무소나 등기소, 농협 등은 오리골의 일부로 용인읍내에서 중요한 마을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42번 국도, 즉 금령로가 지나는 길가에 형성된 것으로 오리골 자체의 전통마을과는 거리가 있다. 어디까지나 오리골은 구성에서 옮겨온 구 용인군청과 용인면사무소가 위치해 있던 김량장동에 딸린 마을로 전형적인 시골마을이었던 것이다.

3) 옛 지도로 보는 용인과 오리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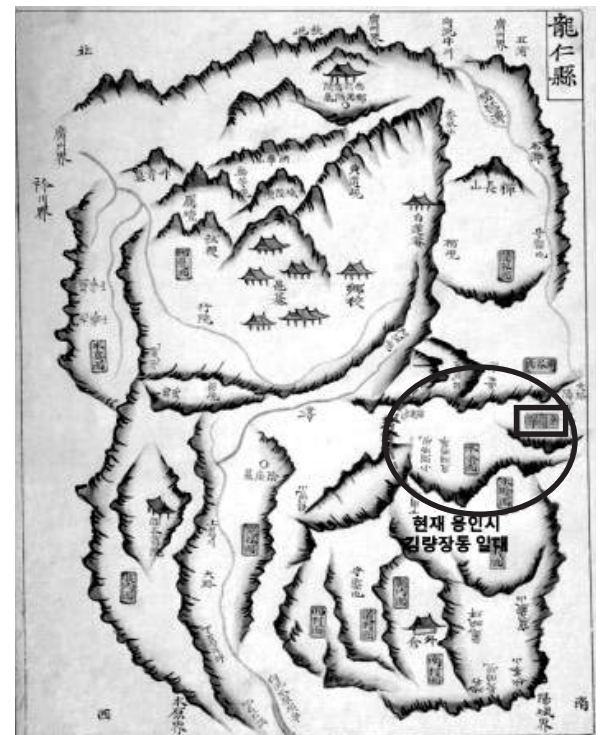
(1) 옛 기록과 옛 지도에서의 용인과 오리골 위치

‘오리골’과 관련된 옛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오리골이 속한 김량장동에 대한 기록은 몇몇 기록에 남아 있다. 1530년(중종 25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1757년에 간행된 『여지도서(輿地圖書)』 용인현 산천조(山川條)에 “금령천(金嶺川)

은 금령역(金嶺驛) 남쪽에서 기원하여 양지현 소로동 북쪽으로 흘러 광주의 소천으로 흘러들어 간다.”고 하였다. 그 후 1656년(효종 7)에 간행된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¹⁰⁴⁾에는 금령역(金嶺驛), 금령원(金嶺院)이 기록되어 있는데 1871년(순조11년)에 간행된 『용인현읍지(龍仁縣邑誌)』에는 김량역(金良驛)으로 표기되었다. 용인현읍지(龍仁縣邑誌)』¹⁰⁵⁾ 지도에 김량천(金良川)이 표기되어 있고 김량장(金良場), 김량점(金良店)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1899년 간행된 『용인군지도읍지(龍仁郡地圖邑誌)』에는 “김량천(金良川)은 군 동쪽 30리에 있다.”는 기록과 “김량역(金良驛)은 군 동쪽 관문에서 27리의 거리에 있는데 기미(己未)년 부터 폐기(廢棄)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지도에 표기된 김량장동과 용인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용인현 『해동지도(海東地圖)』¹⁰⁶⁾를 보면, 동북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하였고, 지도의 중앙에 읍치를 그려 넣었는데, 관아 건물과 홍살문의 모습이 상세히 표기되어 있다. 김량장동이 있는 수여면(水余面)은 읍치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읍치와 경계를 이루는 산줄기에 ‘금령봉(金嶺峰)’이라 표기되어 있어 ‘김량’의 어원이 ‘금령’에서 온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서는 용인향토문화연구소 정양화 선생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김량의 어원은 금령(金嶺)일 것으로 생각된다. 마평동과 경계를 이루는 경안천의 상류를 김량천이라고 한다. 역대 읍지를 보



『광여도, 용인현』, 19세기 전반, 서울대규장각 소장

104) 용인향토문화연구회, 용인군읍지(증보판), 향토문화자료총서 1, 향토문화연구회간, 1982, p.29.

105) 『東國輿地誌』에 在縣東三十里, 『龍仁縣邑誌』에 金良場(在縣東三十里), 金良店(在縣東三十里水餘面) 앞의 책, p.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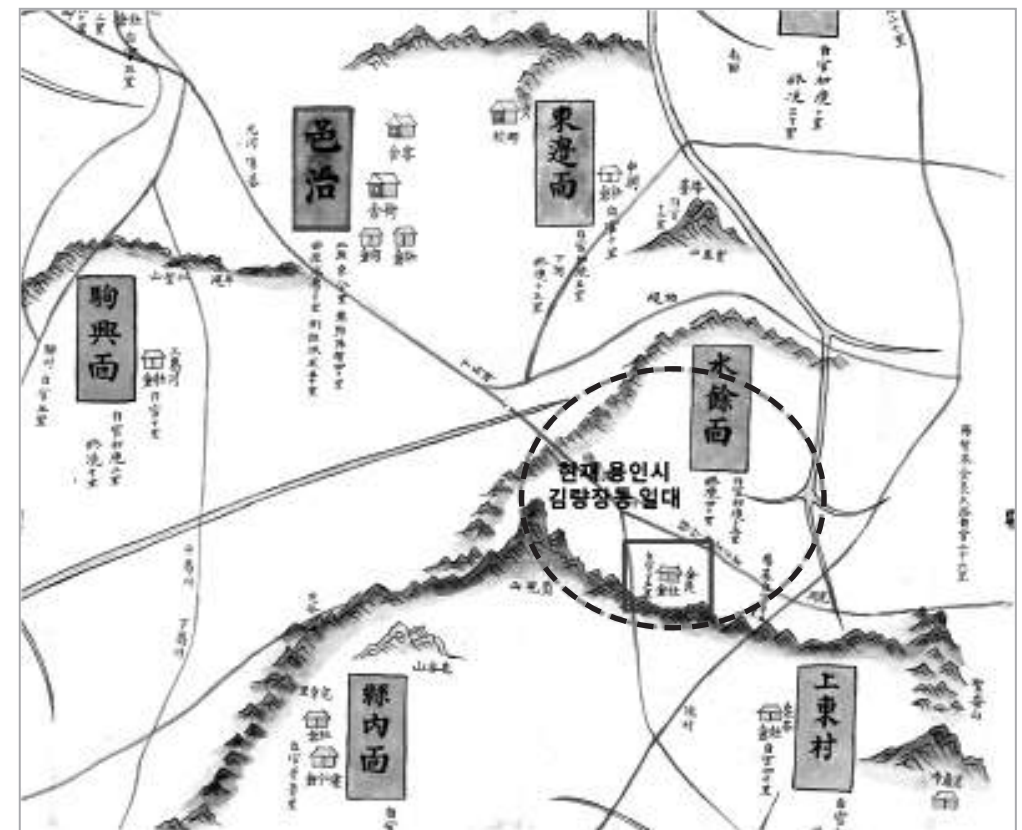
106) 18세기 중반 제작, 채색필사본, 서울대규장각 소장

면 금령천으로 나오다가 후대에 김량천으로 표기가 바뀌고 있다. 또 고려조를 이어 조선 시대에 실시되었던 역원제(驛院制)에 금령원과 금령역이 있는데 지금의 역북동 일대에 있었다. 이 또한 후대로 내려오면 김량역으로 표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금(金)은 김으로도 쓰는데 성(姓)을 가리킬 때는 김으로 발음한다. 과거 양지 땅이 현(縣)으로 고을을 이루고 있었을 때 지금의 마평동 일대는 주서면에 속한 지역이었다. 그 속에 김량리(金良里)가 있는데 1914년 일본인들이 만든 지도를 보면 지금이 마평 라이프아파트 인근이다. 같은 지도에 김량장도 나오는데 리(里)가 붙은 마을이 아니라 장시(場市), 즉 5일장이 서는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다. 역대 『용인현읍지』, 『양지현읍지』를 참고해보면 금령이 김량으로 바뀌는 시기가 거의 같고 장시로 나타나는 시기와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현재의 김량천이 용인과 양지고을의 경계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양지의 김량리와 용인의 김량장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이 있다. 그간의 땅이름 조사연구의 결과를 참작한다면 양지의 김량리에서 용인의 김량장으로 이름이 옮겨오고 의미가 확대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또 김량이라는 지명도 금령이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¹⁰⁷⁾

요약하면, 지금의 김량장은 ‘금령’에서 변화한 것으로 원래는 고갯마루를 가리키는 지명이었으나, 후대에 5일장이 서고, 이름도 김량으로 바뀌면서 ‘김량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광여도』¹⁰⁸⁾에서도 김량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지만, 오리골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전체적인 구도와 내용은 『해동지도』와 유사하다. 동북쪽을 지도 상단으로 배치하였고, 읍치에는 관아건물과 향교, 사직단, 여단, 성황단 등 3단 1묘가 잘 표시되어 있다. 지도의 동남쪽에 ‘수여면’이 표기되어 있고, 그 북동쪽에 붉은 사각형으로 ‘金嶺驛’이 표시되어 있다. 이때까지도 ‘金良’이라는 지명보다는 ‘金嶺’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금령역은 이 고을의 역이다.

금령역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말기까지 경기도 용인 지역에 설치된 교통 통신 기관으로 왕래하는 관료나 사신들을 접대하고 공문서를 전달하며 관수 물자를 운반하던 교통통신 기관이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경기도 용인 지역에 설치된 역이었다. 관련기록으로는 『세종실록(世宗實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 『용인현읍지(龍仁縣邑誌)』(18세기 중엽), 『여지도서(輿地圖書)』, 『용인군지(龍仁郡誌)』(1899) 등에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읍치에서 동쪽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구흥



『용인현지도』, 1872년 제작, 서울대규장각 소장

역(駒興驛)과는 30리 간격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 『여지도서』에는 대마(大馬) 1필, 기마(騎馬) 3필, 복마(卜馬) 1필, 노(奴) 15명, 비(婢) 3명을 보유했다고 하는 길로 보아 구흥역의 절반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대동지지』에는 위치를 동남 30리로 기록하고 있다. 19세기 중엽의 『용인현읍지』(1871)에는 김량역(金良驛)이 관문(官門) 동쪽 20리에 있고, 마호수(馬戶首) 5명, 말 5필, 위답(位畜) 20석 5두락, 밭 23석 16두락을 기록하고 있다. 19세기 말의 『용인군지도읍지』(1899)에 따르면, 갑오경장 직후인 1895년 폐지되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1872년에 제작된 『용인현지도』¹⁰⁹⁾에서는 처음으로 ‘金良’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지도는 북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하였고, 읍치에는 아사, 객사, 창고

107) 2009년 09월 30일 (수) 용인시민신문, 정양화, 용인향토문화연구소장

108) 19세기 전반 제작, 채색필사본, 서울대규장각 소장

109) 1987년 제작, 채색필사본, 서울대규장각 소장

등의 건물만 단순히 그려 넣었다. 각 면에는 읍치로부터의 초경(初境)과 종경(終境)이 기록되어 있고, 도로는 대로와 중로가 구분되어 있다. 읍치의 동남쪽에 수여면이 자리잡고 있고, 읍치와 수여면을 잇는 대로의 남쪽에 ‘사창(社倉)’과 ‘김량(金良)’이 기록되어 있다. 이전 지도에 보이던 ‘금령(金嶺)’은 보이지 않는다. 금령역이 1895년 폐지되었다고 하나 지도를 제작할 당시인 19세기 후반에는 그 역할과 중요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용인현과 관련된 옛 지도를 종합해 보면, 김량리가 있던 수여면은 읍치가 있던 기흥구 연남동 일대의 남동쪽에 위치한 작은 고을이었으나, 행정구역 개편과 군소재지의 이전 등으로 현재 용인시의 중심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김량장리의 원래 지명은 금령에서 온 것으로 보이며, 19세기 후반에 ‘김량’이라는 지명이 고문서와 옛 지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를 즈음하여 ‘금령’에서 ‘김량’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된다. ‘오리골’은 ‘김량’이라 표기된 그 인근으로 판단되나, 지도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2) 근·현대지도를 통해 본 오리골



1914년 제작 수치지형도(1:50,000)

1914년부터 측량을 시작해 제작된 수치지형도(1:50,000)는 구한말 당시 우리나라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지도자료이다. 이 지도자료에 ‘오리골’은 표기되어 있지 않고, 김량리와 김량장리가 표기되어 있는데, 김량리와 김량장리가 별도의 리(里)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일대를 김량리라 하고, 장시가 열리는 지역을 별도로 표기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오리골과 인접한 김량장리는 수여선(水驪線)¹¹⁰⁾

110) 수여선(水驪線)은 수원-여주 간을 잇던 협궤 철도 노선이다. 1972년 3월 31일 전 구간 폐선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 12월에 사철인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가 여주 지역의 쌀을 수탈하려는 목적으로 부설하였다. 1942년에 수인선과 함께 조선철도에 양도되어 두 선을 합쳐 경동선(京東線)이라 하였다가 광복 이후 사철 국유화 정책에 따라 교통부 철도국 소유로 변경되었다.

의 역 중에 하나인 용인역이 표기되어 있고¹¹¹⁾ 그 남쪽에 오리골이 있는 위치는 산자락의 남쪽능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오리골의 서쪽으로는 별학리가 표기되어 있다. 수여선 너머에는 능촌(陵村)을 비롯한 몇몇 마을이 확인된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오리골은 김량장리의 남쪽, 별학리의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75년 제작된 수치지형도에는 오리골이 위치한 곳이 ‘남구’라 표기되어 있고, 김량장을 중심으로 중앙구와 그 너머에 동구가 위치해 있으며, 오리골 서쪽에는 별학이 있는데, 현재의 처인구청 남쪽 일대(오리골 서쪽)이다. 이 지도만 본다면, 남구, 중앙구, 동구 등 이 일대를 가리켜 ‘김량장리’라 한 것으로 보인다. 김량장이 있는 곳은 몇 개의 블록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곳이 김량장리의 중심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오리골이 위치한 남구를 중심으로 대로변을 따라 건물들이 뽁뽁이 표시되어 있고, 산능선을 따라 작은 길들이 개설되어 있다. 지도상 건물 표시가 많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별학과 남구, 북쪽의 능말 인근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오리골 지명유래

지금도 용인의 지명유래를 적은 책에는 적지 않게 오리골의 속지명으로 소학동을 들고 있다. 하지만 소학동은 오리골의 속지명이 아니라 본래 김량장동의 이전 지명이었다. 아래에 김량장동과 소학동에 대해 약술하고 오리골의 속지명을 소개한다.



1975년 제작 수치지형도(1:50,000)

111) 1914년 제작된 지도에 1930년 개통된 수여선이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도는 후대에 수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1) 소학동(巢鶴洞)은 김량장동

김량장동은 용인의 중심이다. 지금은 시청이 역북동으로 옮겨 갔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김량장동을 용인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본래 용인군청은 언남동에 있었는데 과거 용인현의 소재지였던 곳이다. 이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군청(郡廳)이 김량장으로 옮겨오게 된다. 새로 만들어진 용인군의 중심이기 때문인데 김량장의 이전 이름은 소학동이었다.

소학동은 김량사거리 옆에 구(舊) 군청이 있던 일대라고 하거나, 오리골의 속지명이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관행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에 불과하다. 소학동은 김량장동의 옛 지명이었기 때문이다.

① 언남동에서 소학동으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4년 일본인들이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양지군 전체와 죽산군의 일부가 용인에 편입되어 새로이 용인군이 되었다. 당시 용인군은 12개 면(面)으로 편제되었는데 1963년 고삼면이 안성으로 편입되면서 11개 면이 남게 되었다. 지금의 용인시는 구(區)나 동(洞)이 생겼지만 기본적인 영역은 11개 면 당시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용인군청이 옮겨온 수여면(水餘面)은 무네미고개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무네미를 무나미로 보아 물[水]이 남는다[餘]는 뜻으로 수여면이라 했던 것이다. 수여면은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도 군청이 있는 면의 이름이었는데 후에 용인의 소재지에 있는 면이라 하여 용인면이 되고 다시 용인읍(邑)으로 승격되었다가 용인이 시가 되면서 용인읍은 사라지고 이전의 리가 동(洞)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군청이 있던 지역이 김량장리였기 때문에 김량장동이 되고 중앙동관할이 되는데, 김량장동은 법정동이고 중앙동은 김량장동과 남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이다.

② 이전에 김량장리는 없어

1925년 5월 25일에 간행된 『구한국 지방행정구역 일람』에는 양지와 죽산을 포함하기 이전의 용인군이 16개면에 136개 동리로 나와 있는데 수여면에 속한 18개 동리 가운데 김량장리는 없고 소학동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2년 뒤인 1914년 개편된 새로운 행정구역하에서 용인군, 즉 양지와 죽산을 포함

하여 12개 면 96개 동리가 새로 편제되고 수여면의 소재지로 김량장리가 등장한다. 김량장리를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소학동과 호동의 일부를 합쳐 김량장리를 편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후 소학동은 자연마을 이름이나 행정구역 주소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지금의 마평동 지역, 마평동 신사거리 부근과 라이프아파트 일대에 김량리(金良里)라는 지명이 있다. 역대 읍지류나 아래의 『조선지리지』에도 양지군 주서면에 속한 마을로 나오고 있다. 김량장은 소학동에 속한 시장으로 나오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수여면에 속한 10개 리(里)가운데 하나로 수여면의 소재지가 된다. 1917년에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1:50,000지도에도 김량장리라는 지명으로 나오는데 이전의 소학동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된다.

조선시대의 면과 1914년 새로 편제된 면과는 차이가 있다. 이전의 면을 두세 개나 네 개를 합쳐 하나의 면을 새로 만들었는데 용인의 경우 남사면이나 내사면, 외사면 등이 4개의 면을 합쳐 만들어졌고 이동면이나 기흥면, 수지면 등은 2개의 면이 합쳐진 것이었다.

리동(里洞) 역시 조선시대와 행정구역 개편 이후가 다르다. 지금의 자연마을이 조선시대의 리(里)나 동(洞)이라고 한다면 새로 개편된 리나 동은 이전의 리나 동을 두세 개씩 합쳐서 만들었던 것이다.

③ 김량장동은 소학동의 관할과 일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상황을 담고 있는 『조선지리지』를 보면 산명(山名)과 곡명(谷名), 천명(川名)과 야평명(野坪名), 주막(酒幕)이나 시장명(市場名), 영현명(嶺峴名), 보명(湫名), 동리촌명(洞里村名), 고적이나 특산에 이르기까지 고루 기록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자세하기도 하도 소략하기도 한데 수여면의 경우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수여면에 속한 소학동에 올라있는 위의 지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지명	우리말	현 지명	현위치
산명	학봉(鶴峰)			
	노고산(老姑山)	늪은 봉	노고봉, 노구봉	태성중학교 뒷산
	석봉(石峯)	돌봉산	돌봉치	KT(용인전신전화국) 북쪽 산
곡명	수장곡(水庄谷)			
	은독곡(銀犢谷)		은독골	KT(용인전신전화국) 뒤편 골짜기
시장명	김량장			
고비명	김량이비			용인감리교회 옆(현재는 없음)

구분	지명	우리말	현 지명	현위치
아평명	수장평(水庄坪)			
	오생평(五生坪)	위웅들	오생이들	영락교회남쪽-구 김량주공 방향
	구룡평(九龍坪)			
	별학평(別鶴坪)	별학들	베레기들	문예회관 천주교 입구 사이
	왕교평(旺郊坪)	왕고이들		
	구미평(九尾坪)			현대아파트 다보스병원 일대
	수용평(水春坪)	물방이들		김량장역 (구)주택은행자리 부근
보명	구미보(九尾沼)		구미보	태성중학교 앞 경안천
	주막보(酒幕沼)			
	구룡보(九龍沼)			운학동 삼삼마을 앞?
동리촌명	별학리(別鶴里)	별학동	베레기, 별학	서구 산업도로위, 처인구청 뒤편
	니동(泥洞)	진흙구덩이		문예회관 신우아파트 아래편? 제일은행 뒤 전매소자리 부근?
	능촌(陵村)		능말	용인초등학교 용인중학교 북쪽

이를 보면 위에 나오는 지명들이 현재의 김량장동, 즉 1914년에 편제되었던 김량장리 구역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돌봉은 용인초등학교와 전화국 뒤편에 있는 산으로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바위로 된 산머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구미는 태성중고등학교가 있는 마을로 남동과 경계를 이룬다. 아래편에 있는 아파트단지의 마을이름이 구미마을인데 마을의 속지명에서 가져온 것이다. 구미는 한자로 구미(龜尾)로 쓰는 경우가 많아 지명유래에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자주 등장하지만 위의 구미는 구미(九尾)로 표기되어 있다.

별학은 지금 천주교와 문예회관이 있는 일대이고 오생이들은 옛날 역전에서 서쪽으로 구주공아파트, 즉 금호아파트 방향의 주택가이다. 능말은 용인중학교와 초등학교 뒤편으로 미성아파트와 공신아파트가 있는 일대를 말한다.

이를 감안하면 소학동의 관할구역은 지금의 김량장동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소학동은 이미 정조 때인 1789년(정조 13)의 『호구총수』에 등장하는 지명이다. 소학동의 뜻이 말 그대로 학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인지는 몰라도 200년이 훨씬 더 된 이름인 것이다.

앞의 『조선지명지지』를 보면 수여면에 속한 여러 리(里) 가운데 소학동은 자연마을이 세 개 뿐이다. 장(場)이 서는 중심지 치고는 적다고 할 수 있는데 군청이 옮겨 오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지리지』에 기록된 옛 지명 위치와 오리골 (지도표시: 남창군)

김량장동이 용인면 김량장리였을 때 중앙구와 동구, 북구, 서구, 남구의 5개 구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는 행정적 편의에 따른 인위적인 명칭이다. 김량 시내는 가로세로 격자형의 도시구획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이 역시 김량이 군청소재지가 된 후 체계적으로 개발된 결과일 것이다.

지금은 80대나 9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동구나 남구의 행정구분이 마치 자연마을 지명처럼 굳어져 버렸다. 그 이전의 자연마을 이름이나 속지명들은 사라진 것으로 생각된다.

1914년 새로이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김량장동이 소학동을 대신해서 수여면의 대표 지명이 되고 소학동이라는 이름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던 것이다.

(2) 오리골의 유래와 속지명

① 오리골[梧里谷]

오리골은 김량장동에 딸린 속지명이다. 김량장동의 서쪽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금령로를 경계로 중앙구와 마주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별학(別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동쪽은 남구와 경계를 이루며 남쪽에는 42번 국도인 중부대로가 지나며 더 아래편으로는 노고봉이 있다.

오리골은 도시화되어 골목이 복잡하고 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지만 대부분이 단독주택이고 연립주택이 일부 있으며 아파트가 한 곳 있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는 북쪽편의 금령로와 남쪽의 중부대로가 있다. 이전의 군청, 즉 지금의 처인구청 앞을 지나 이천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중부대로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42번 국도였으나 중부대로가 개설되면서 시내도로가 되었다.

남쪽에 있는 중부대로는 산업도로라고도 하는데 1980년대에 새로 개설된 것이다. 이 도로로 인해 오리골의 일부가 도로 건너편에 남게 되었다. 금령로와 중부대로 이외의 마을 내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 주택가 골목길에 해당된다.

오리골 안에는 롯데시네마건물과 농협 용인시지부, 용인농협과 제일은행, 한국전력과 중앙동 사무소가 있다. 용인 최초의 아파트인 용인맨션과 구 보건소가 오리골에 걸쳐 있고 용인감리교회와 서학사도 오리골에 있다. 용인인삼조합도 있었으나 지금은 캘리포니아호텔이 되었고 롯데시네마 건물 왼편에 있던 여러 건물은 4층짜리 큰 건물로 변했다.

오리골의 입구는 롯데시네마건물 왼편의 골목길이다. 이 길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윗부분이 중부대로 건설로 인해 단절되었을 뿐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오리골은 크게 윗동네와 중간, 그리고 아랫동네로 나뉜다. 이를 구분짓는 기준은 마을에 있던 우물이다. 중앙동사무소 후문에서 조금 올라가면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맨 아래편에 있던 우물이었다. 아래우물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4거리 골목이 나오는데 그 위편에 우물이 하나 있었다. 이 우물이 가운데 우물이며 다시 더 올라가 별학으로 넘어가는 고개 마루턱 왼편에 우물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가장 위편에 있었다.

1970년대 이전만 해도 마을에 상수도는 물론 펌프가 있는 집도 없었다. 대부분이 마을의 공동우물을 이용했는데 집에서 가까운 거리의 우물을 이용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마을이 3개의 공간으로 나뉘게 되었던 것이다.

즉, 맨 위의 우물을 길어다 먹는 사람들이 사는 구역을 윗동네라고 불렀는데 이는 윗말

이나 아랫말, 응달이나 양달처럼 마을 내에서 구역을 구분짓는 기준이 된다. 중간이나 아랫동네는 따로 부르는 이름이 없었는데 윗동네를 제외하면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오리골의 한자표기는 오리곡(梧里谷)이다. 오리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미 마을일대에 주택이 들어차 오리나무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올라가는 골짜기라는 뜻으로 오르골이라 한 것이 변음되어 오리골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오리골 안에 속지명으로 불리는 것은 별로 없다. 몇 개가 확인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건물이나 커다란 나무 등을 통해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과수원은 과일나무를 심어 과수원이지만 그 일대를 부르는 지명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속지명에 비해 더 많은 것 같다.

② 신궁(신궁:神宮)

오리골 동쪽에 있던 신사(神社) 터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일제(日帝)식민지 말기 내선일체(內鮮一體)와 궁성요배(宮城遙拜)를 강요하면서 전국 각처에 신사를 세웠는데 지방에는 1개 면(面)에 하나씩 신사를 세웠다. 용인신사는 정식명칭이 용인신명신사(龍仁神明神社)였으며 건립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936년 10월 15일의 매일신보 신문기사에 이미 신명신사에 대한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일제 말기에 1면(面)1사(社)가 강조되어 집중적으로 신사가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감안하면 용인신명신사는 훨씬 이전에 세워진 것이 된다. 이는 아마도 용인 군청과 경찰서, 전매국출장소가 있던 용인소재지여서 일찍부터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빨리 신사가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용인신명신사는 현재의 감리교회자리 위편 구 보건소자리에 건립되었는데 1945년 일제 패망 이후 철거되었고 신사 자리에는 후에 현충탑이 세워졌다. 오리골 입구에서 감리교회로 올라가는 계단이 예전의 신사로 올라가던 계단으로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또 감리교회에서 정문 주차장까지 길고 평평하게 닦여 있고 양쪽에 벚나무가 심겨 있었다.

정식은 신사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신궁(神宮)으로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모두 신사만 있었으며 서울과 부여 두 군데만 신궁(神宮)이 설치되어 있었다.

용인신명신사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학생들이 참배했다고 하며 일본사람들이 스기목이라고 부르는 삼(杉)나무 재목으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광복 이후 철거되었는데 재목의 일부를 가져다가 밥상을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

③ 윗동네

오리골에서 남쪽 마을 윗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을 가리킨다. 보통 자연마을의 윗말에 해당되는 명칭으로 주로 맨 위에 있는 마을 우물의 물을 길어다 먹는 구역을 가리킨다.

④ 윗우물

마을에 있는 3개의 우물 가운데 따로 이름이 있는 우물은 없다. 윗우물은 오리골의 맨 꼭대기에서 별학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 왼편에 있는데 이른바 작은 별학이라고 불리는 마을과의 경계에 있다. 지대는 높은 곳에 있지만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비교적 풍부한 수량을 자랑했는데 집집마다 우물이나 펌프가 설치된 이후에도 가뭄이 들어 우물이 마르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후에 상수도가 가설되면서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⑤ 가운데우물

가운데우물은 윗동네를 올라가는 길가에 있었는데 주로 마을 중간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했다. 지금은 사라지고 흔적만 남았다.

⑥ 아래우물

아래우물은 중앙동사무소 후문 위편 길가에 있었다. 바가지로 퍼 담을 수 있는 샘으로 주로 오리골 아래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했다. 아래 우물도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⑦ 낭떠러지

낭떠러지기라고도 한다. 제일은행에서 용인맨션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급경사를 이루는데 중간에 처인구청 방향으로 골목길이 있다. 주로 오른편에 일본식 주택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이 전매국 관리들의 관사였다. 세무서장 관사도 있었고 전매국장 사택도 있었다고 한다.

가까이 군수관사가 있는데 세무서장 관사였다고 하며 지금은 신축되어 예절교육관으로 쓰이고 있다. 용인맨션과 군수관사로 갈라지는 위편의 급경사를 낭떠러지라고 불렀다. 낭떠러지는 동네아이들의 놀이터 구실을 하던 곳이다.

⑧ 과수원

낭떠러지 위편으로 과수원이 있었다. 지금의 용인맨션과 신광빌라 일대에 해당되는데 주로 복숭아나무가 심겨 있었다. 마을에서도 그냥 과수원이라고 불렀다.

⑨ (별학)고개

오리골에서 별학¹¹²⁾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대부분의 고개는 넘어가는 방향에 따라 이름이 붙는데 별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별학고개라고 부르고 별학에서는 오리골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리골고개라고 불러야 하지만 앞에 마을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고개 마루턱에 바로 붙어 있는 마을을 ‘작은 별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구분도 나중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⑩ 마을회관

마을회관은 윗동네 바로 밑에 있었다. 남쪽 위로 중부대로가 지나고 동쪽으로는 구 보건소가 있다. 예전에는 마을 회관으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세를 주고 새로 주택을 임차하여 마을회관과 노인정을 운영하고 있다.

⑪ 현충비 터

지금의 감리교회 마당 위편 구 보건소 자리쯤에 해당되는 곳으로 일제시대에 용인신명신사(神社)가 있던 곳이다. 광복 이후 신사가 철거된 자리에 현충비(顯忠碑)를 세웠는데 후에 노고봉 중턱으로 현충탑을 새로 세워 이전하면서 철거되었다.

⑫ 인삼조합 터

오리골 입구로 들어서면 송림다방이 있었고 그 위편에 용인인삼조합이 있었다. 처음에는 용인삼엽조합이었다가 후에 용인인삼조합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용인, 이천, 여주, 안성, 화성, 시흥은 물론 한때 강원도 전체까지 관할하였다. 후에 안성조합이 생기고 강원조합이 신설되면서 용인조합은 이천과 여주, 화성 등지를 관할하게 되었다.

본래 인삼조합 자리는 밭이었는데 일제시대에는 일본인들이 조성한 과수원이 있었다. 과수원에는 사과와 배나무가 혼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후에 이천으로 사무실이 옮겨가면서 용인인삼조합 부지는 매각되었고 그 자리에 캘리포니아호텔이 들어서 있다. 용인인삼조합이라는 명칭도 동부인삼농협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12) 오리골주민들은 별학을 베르기, 버래기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본 책에서는 제보자에게 들은 용어를 그대로 살려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⑬ 극장 터

오리골 입구 오른쪽 모서리에 용인극장이 있었다. 용인극장은 일제 때 공회당이었고 광복 이후에는 옆에 있던 면사무소의 강당으로 쓰이기도 했다. 후에 매각되어 지금은 롯데시네마 건물이 들어서 있다. 극장자리는 롯데시네마 건물을 정면에서 마주 보았을 때 왼편에 해당된다.

⑭ 용인읍사무소 터

극장 오른쪽에 읍사무소 건물이 있었다. 본래는 용인면사무소 청사로 일제 때 건축된 것이었는데 용인면이 읍으로 승격된 이후 읍사무소가 되었으나 용인읍사무소가 현재의 중앙동사무소자리로 이전하면서 민간에 매각되어 식당 등으로 이용되다가 매각되어 롯데시네마 건물의 일부가 되었다. 현재 롯데시네마건물의 중앙부분이 읍사무소 터에 해당된다.

⑮ 등기소 터

읍사무소 오른쪽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가 있었다. 후에 역북동으로 이전하고 식당 등으로 이용되다가 매각되어 롯데시네마 건물의 일부가 되었다. 구 용인등기소 자리는 현 롯데시네마 건물의 오른쪽에 해당된다.

⑯ 군농협

정식 명칭은 용인군농업협동조합이었고 줄여서 군농협이라고 불렀다. 본래 일제 때의 금융조합자리로 당시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후에 새로 건축되었다. 지금은 농협은행 용인시지부라고 불리고 있다.

⑰ 제일은행

제일은행 자리는 오리골의 가장 서북단 모서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도로 구획을 따라 나누는 것으로 예전에는 모래밭이 있었다고 한다. 수여선 철도를 부설할 때 용인역 터를 닦으면서 제일은행 뒤편에서 처지구청 방향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밑을 절개하여 흙을 파다 메꾸어 철도와 역 부지를 닦았다고 한다. 때문에 이곳을 진흙구덩이라고 불렀다고 하며 제일은행 자리는 본래 금학천이 흐르던 개울바닥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건물을 지을 때 바닥을 파보니 자갈과 모래만 나왔다고 한다.¹¹³⁾

⑱ 현충비계단

감리교회 계단이기도 하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계단 옆에 있는 주택의 진입로로 쓰인다. 본래 신사로 올라가는 계단이었는데 사각 시멘트 보도블록처럼 만들어 쌓아서 계단을 조성하였다. 지금은 오래되어 블록마다 틈이 벌어지고 좌우로 기울어져 있다. 아래편에 끈지리라고 불리는 놀이판이 음각되어 있다.

⑲ 서학사(西鶴寺)

서학사는 오리골과 별학 사이에 있는 절이다. 조계종 2교구 용주사 말사로 예전에는 오리골을 통해 올라 다녔으나 별학마을 위편도 되기 때문에 종종 서학사가 있는 곳이 별학이냐 아니면 오리골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⑳ 경찰서 터

용인경찰서가 있던 곳으로 지금은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용인경찰서는 일제 때부터 있었으며 당시의 본관건물과 무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나 후에 용인이 팽창하면서 새로 본관건물이 건축되었고 무도관도 철거되었다.

역북동에 용인문화복지 행정타운이 들어서면서 용인경찰서도 이전되었는데 지금은 용인동부경찰서가 되었다. 경찰서가 행정타운으로 이전된 이후 공용주차장이 조성되어 용인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경찰서 뒤편에는 예전의 경찰서장 관사가 있다. 정확한 경계로는 오리골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용인시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일본식 주택이다. 지붕이나 벽체, 창문은 교체되고 보완 되는 등 일부자재는 바뀌었으나 건물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본래 담이 둘러 있었으나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면서 철거되었고 뒤뜰에 우물이 그대로 있으며 마당에 심었던 향나무 몇 그루도 그대로 남아 있다.

㉑ 전매국 터

용인농협 영농자재판매센터 자리부터 처지구청 방향으로 기업은행이 있는 데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 있었다. 용인은 예로부터 용인엽이라고 하는 재래종 담배품종이 있을 정도로

113) 전 용인시의장 조원행 생전증언

담배의 특산지로 이름이 있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제 때는 조선총독부 전매국 출장소가 용인에 있었는데 기업은행자리는 전매소가 있었다. 수원에는 전매소가 있었을 뿐이라고 하니 용인이 갖는 위상을 알 수 있다.

전매국 출장소 위편에는 출장소직원들의 관사가 줄지어 있었고 그 가운데 군수관사도 있었다. 군수관사는 후에 시장관사로 건축되었다가 지금은 예절교육관으로 쓰이고 있다. 당시 용인전매국에서는 정구팀을 운영했는데 경기도에서 알아주는 수준 높은 팀이었다고 한다.

제일은행 골목에서 용인맨션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은 1970년대 후반에 용인맨션을 건축하면서 새로 낸 길로 이전에는 전매국창고가 있었던 자리이다. 전매국 터는 용인에서 앞담배경작이 줄어들면서 기능이 정지되고 후에 민간에 불하되어 지금은 여러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일제말기에는 전매국 위편, 즉 지금의 용인맨션 올라가는 언덕 위편에 관솔기름공장이 있기도 했다. 관솔은 소나무에서 송진이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데 일제말기 물자가 귀해져서 일본인들이 대대적으로 송진을 채취하여 끓인 다음 비행기 연료로 사용했다고 한다.

양조장에서 커다란 독을 뺏어다가 관솔기름을 싣고 가기도 했다.

㉓ 예명춘

예전의 버스차부 앞에 있던 중화요리집이다. 용인에 있는 몇 안 되는 화교(華僑)가 경영하는 중국집으로 용인에서 이름을 날리던 요리집이었다. 한자로는 여명춘(黎明春)이지만 한글로는 예명춘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고 실제로 용인의 많은 사람들이 예명춘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그 자리에 건물이 들어서 있고 24시 상점으로 변화했다.

㉔ 송림다방

송림다방은 1960년대부터 있던 다방으로 용인읍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다방 가운데 하나였다. 본래 용인 버스차부 옆에 있었으나 버스차부가 사거리 옆 현재의 외환은행 자리로 이전하면서 건물이 신축되고 송림다방은 오리골 입구 안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오리골 입구에서 10여 미터 들어가면 구 경찰서 방향으로 골목이 있는데 오리골로 올라가는 모서리에 있었다. 송림다방은 이전 이후에도 상당기간 존속했으나 고객들의 취향이 변하면서 용인읍내에서 다방이 줄어드는 추세에 따라 사라지고 말았다.

㉕ 신신옥, 신신이발관, 신신양복점

버스차부 앞에 있던 식당과 이발소, 양복점이 모두 신신이라는 상호를 공동으로 사용했다. 1970년대 초반 버스차부가 옮겨가기 전에 차부 앞에 있던 가게들이다. 상호는 신신을 공유했으나 주인은 달랐다고 하며 신신이발관의 오른쪽에는 시계와 도장을 전문으로 하던 정시당이 있었고 오리골 입구 모서리에는 이흥규 법무사 사무실이 있었다. 이흥규 법무사는 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게 되는데 건물신축 이후 상권에 변화가 오게 된다.

신신옥 왼편에는 예명춘이 있고 예명춘 왼편으로 대성관과 태화관이 있었다. 다시 왼편에는 제일약국이 있었는데 당시 용인 읍내에 있던 두 약국 가운데 하나였다. 제일약국의 왼편에는 화운다방이 있었는데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서리가 된다.

화운다방은 송림다방, 은하다방과 함께 용인읍내에서 가장 오래된 다방 가운데 하나였는데 후에 정다방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대성관도 후에 영광사진관이 자리 잡게 된다. 제일약국 자리는 일제시대에 허채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하며 신신옥과 신신양복점 자리에는 일신옥이라는 식당이 있었다고 한다.

오리골 입구에 있던 여러 점포들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것은 1989년도에 개척되었던 전국체전의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당시 성화봉송로로 지정되면서 도로를 확장 정비하고 주변 건물이 신축되면서 높아진 보증금으로 인해 기존의 점포들은 대부분 물러나가고 새로운 점포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된다. 오리골 입구에 있는 이흥규 법무사의 건물도 1990년도를 전후해서 건축된 것이라고 하는데 제일약국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점포가 없다.

지금 오리골 입구에 접해 있는 점포들은 대부분이 의류나 화장품 매장들이다. 브랜드매장도 많고 과거에 비해 훨씬 세련된 전시와 깨끗한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다. 오른쪽에는 커다란 롯데시네마건물이 들어서서 마치 용인의 테마파크 같은 구실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곳이 비어있는 실정이다.

오리골 또한 김량 8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흘러 아파트단지로 변모한다면 오리골의 흔적은 역사 속에서나 찾아야 할 것이다.

2-2 오리골의 옛 모습과 공간구조의 변화

1) 오리골의 옛 마을 모습(1960년대)

용인시 김량장동과 오리골에 관한 항공사진 중 가장 오래된 사진은 1966년에 촬영된 사진이다. 사진자료에는 용인시와 김량장동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인 오리골도 비교적 자세히 촬영되어 있어 지금과 같이 도시화, 현대화되기 이전의 오리골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오리골은 김량장과 인접하고 있어 이 일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남쪽의 노고산(노구봉)을 등지고 북쪽을 향해 열려 있는 지형에 오리골과 김량장이 자리 잡고 있으며, 금학천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경안천과 만나게 된다. 하천은 자연하천으로 주변에 모래사장이 발달해 있고, 물줄기는 제방안쪽으로 자연스럽게 길을 내면서 흐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도로는 수원에서 들어와 이천, 여주로 이어지는 현재의 금령로(42번 국도, 후에 오리골 중턱으로 큰 대로가 개설되면서 금령로는 도심도로로 남게 됨)가 경안천을 건너지 않은 위치에서 남쪽으로 안성, 북으로 광주로 연결되는 백옥대로(45번 국도)와 만나 용인시에서 가장 큰 사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금학천 남쪽 제방변으로는 수인선 철도가 하천 곡선을 따라 여주를 향해 개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인역¹¹⁴⁾ 주변으로는 여느 역 앞이 그러하듯 넓은 광장이 마련되어 있고, 철도 관련 건축물(하역창고 등)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금령로를 남쪽에 두고, 금학천과 수인선 철도를 북쪽 경계로 하여 그 사이에 방형의 블록이 정연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김량장이다. 방형의 도로망을 따라 상업시설이 발달한 도심이었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중심상업 지역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금령로에 접하여 남쪽으로는 비교적 큰 규모의 건물들이 눈에 띄는데 용인역 남쪽 가장 오른쪽에 산림조합 건물이 있고, 그 남쪽 마을 중심에는 군수관사가 있고, 그 옆으로 전매국창고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사택도 있었다고 하는데, 모두 일본식 건물이었다고 한다. 금양로를 따라 전매국창고와 농협(현재도 이 자리에 농협건물이 위치해 있음)과 등기소,



1966년 오리골 항공사진(자료:국토지리정보원, 1966년 9월 촬영)

읍사무소, 읍사무소에 딸린 공회당(강당)¹¹⁵⁾ 등의 공공시설이 차례로 위치해 있고, 오리골 안쪽 초입에는 경찰서와 경찰서장 관사, 그 남쪽으로 군청이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한편, 금양로 맞은편에는 해동양조장과 시외버스터미널 차고지가 위치해 있어 금양로를 중심으로 이 일대가 용인읍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김량장 남쪽 금령로를 건너서 노고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가지형 길이¹¹⁶⁾ 나 있는

114) 수인선 일제강점기 여주와 이천 인근의 쌀을 수탈할 목적으로 개설한 철도로 그 중간 지점에 자리 잡은 용인역은 1930년 12월 1일 개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1972년 4월 1일 폐지되었다고 한다.(조선통독부 회보, 국가기록원 자료 참고)

115) 이곳은 처음에 읍사무소에 딸린 강당(공회당이라 불렸다고 함)이었는데, 후에 '용인극장'이 되었다고 한다. 최근 롯데시네마가 들어서 있다.

116) 우리나라 전통자연마을의 도로망 형식 중 하나로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듯 한 모양으로 구성된 길을 뜻한다.

데, 이곳이 바로 오리골이다. 길 한편으로 집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고, 집의 뒤편과 북서쪽으로 넓은 농토가 형성되어 있다. 오리골 뒤편 노고산이 내려온 능선 위에는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자리는 일제강점기에 신사(龍仁神明社, 1936년 10월 15일 매일신보 기사에 실린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판단됨)가 세워졌던 자리라고 한다. 후대에 신사가 철거되면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 항공사진상으로 북동쪽과 북서쪽에 교회로 올라오는 계단이 확인된다. 교회를 등지고 남서쪽으로 뻗은 길이 이어지는데, 이곳에는 장방형의 대지를 조성하여 그 중앙에 현충비를 세웠다고 한다.¹¹⁷⁾ 현재 이곳은 예전 보건소가 있던 자리로, 지금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반딧불이 문화학교’ 등의 단체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오리골에서 조금만 서쪽으로 고개를 넘어가면, 별학말이 있는데, 노고산 동쪽 기슭 아래쪽으로도 집들이 자연스럽게 난 길을 따라 용기중기 모여 있고 그 앞으로 경안천을 따라 넓은 뜰(구미평)이 펼쳐져 있다.

요약하면, 1960년대 김량장 일대와 오리골은 크게 두 가지 성격과 기능으로 대별된다. 우선 금령로를 경계로 용인역 주변은 철도와 관련된 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김량장 터는 격자화된 방형의 도심블록을 중심으로 당시에 상업시설이 밀도 있게 자리 잡고 있어 도시기능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노고산 북쪽 능선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오리골과 그 주변의 구미평, 별학 등의 마을은 자연에 순응한 도로망을 따라 한쪽으로 집들이 모여 있고, 그 앞으로 넓은 농토가 마련되어 있는 전통자연마을 모습을 이 무렵까지도 갖추고 있어 도심 주변의 주택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리골은 금령로에서 뻗어 나와 노고산 서편 골짜기를 따라 형성된 길(이 골짜기를 오리골이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을 중심으로 20~30호가 모여 사는 도심 주변 작은 농촌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1980년대 오리골

1981년 촬영된 항공사진은 1966년 항공촬영 이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15년 전과 가장 큰 차이는 우선 수여선이 사라진 것이다. 1972년 4월에 수여선이 폐지되면서 김량장동 북쪽 능골 방향과 용인역 부지 쪽으로의 도시 확장이 가능해졌다. 주요

117) 위 내용은 용인문화원 정양화 선생과 오리골 터줏대감 이영실 선생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1981년 오리골 항공사진(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1981년 4월 촬영)

도로(42번, 45번 국도)가 확장되었으며, 능골방향으로 다리가 증설되었다. 김량장동은 내부의 격자형 도로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다만 기존에 수여선 철로로 개발하지 못했던 부지와 42번, 45번국도가 교차되는 사거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건물이 다수 신축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오리골과 인접한 일대와 구미평 방향의 기존농토가 대부분 사라진 대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리골 주변으로의 가장 큰 변화는 1966년 항공사진에서 확인되는 현충비가 1975년 노고산 중턱으로 확장되면서 현충탑이 들어서게 되었고, 노고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공원이 생겨난 것이다. 또한 구미평과 현충탑을 잇는 대로는 후에 용인 중심지와 금양로를 우회하는 6차선 중부대로(산업도로)의 토대가 되면서, 오리골과 별학마을 일대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김량장과 오리골의 경계가 되는 금령로에서 오리골로 진입하는 교차도로가 다수 신설되면서 별학뜰을 비롯한 오리골 주변의 농토가 사라지고 다수의 주택 및 일반건물이 들어서면서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도시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별학과 오리골 경계지점에는 용인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분양아파트인 ‘용인맨션’이 새롭게 건립되었는데, 이는 용인시 주변으로 수많은 아파트단지가 건립되는 시초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1966년 항공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오리골의 중심도로(감리교회 서편 능선을 따라 남쪽으로 뻗어 나온 도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그 주변으로 오리골 앞뜰이었던 부지에 주택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고산 능선을 따라 녹지를 형성하고 있던 감리교회 부근은 주변으로 주택이 들어서면서 녹지는 줄고, 섬처럼 고립된 형태로 남아 있게 된다. 요약하면, 오리골은 1966~1981년 사이 15년간 큰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오리골 방향으로 도로망의 신설과 이에 따른 도시화, 이로 인한 농지의 감소와 그 자리에 주택건설의 증가, 금령로(대로) 주변으로의 대형건물이 크게 증가하는 등 기존의 농촌 자연마을의 모습을 점진적으로 잃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주요 공공시설 역시 큰 변화를 보이는데, 용인군청(후에 처인구청으로 바뀌게 된다)이 새롭게 신축되었고, 기존에 있었던 전매국창고나 등기소, 읍사무소 등은 사라지고 대신 상업용건물이 하나 둘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2000년대 오리골 모습

1981년 이후 33년이 지난 김량장동과 오리골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2011년 용인경전철(에버라인)이 금학천 북변으로 신설된 것이다. 하지만, 용인경전철의 경우 고가구간으로 설치되어 예전 수여선과 같이 능말과의 단절은 가져오지 않았다.

도로체계는 우선 능말과 김량장, 김량장과 마평동을 연결하는 교량이 다수 설치되었으며, 42번 국도의 연장선인 중부대로가 설치되면서 용인시 전체 도시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원래 42번 국도는 금령로를 지나 이천, 여주로 연결되는 국도였는데, 1981년 현 충탑과 구미평을 연결하는 대로가 확장되면서 지금의 중부대로가 되었다. 중부대로는 감리교회 남쪽에 동서방향으로 개설되었는데, 오리골의 중심을 관통하고, 예전 금령로와 연결되는 남북방향의 도로가 설치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일대의 도로망은 격자형 도로망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부대로를 따라 별학마을을 지나 통일공원삼거리



2014년 오리골 항공사진(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2014년 8월 이미지)

까지 이어지는데, 이 중부대로 주변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연립주택 등이 다수 지어지게 된다. 1981년까지 유지되었던 별학들을 비롯한 이 일대의 농지는 모두 사라지고 만다. 이러한 현상은 오리골 일대도 마찬가지인데, 기존 금령로와 연결되는 오리골의 중심도로는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 있지만, 중부대로로 인해 현충원(중앙공원)과 연결되는 부분이 단절되고 말았다. 이러한 이유로 오리골은 중부대로의 북쪽과 남쪽으로 분리되면서 그 연속성은 사라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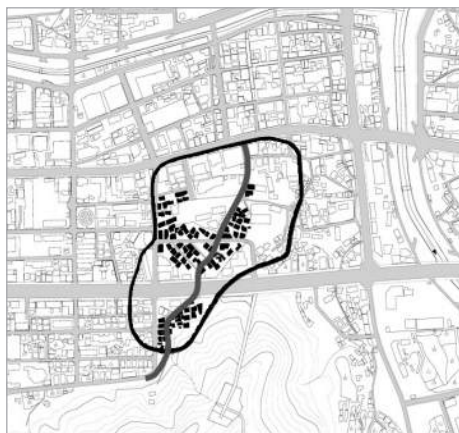
한편, 오리골과 금령로가 만나는 인근을 중심으로 중앙동주민센터, 한국전력공사 등의 공공시설이 오리골 중턱의 넓은 부분을 차지하며 자리하게 되고, 금령로에 면한 곳을 중심으로 금융시설(농협, 국민은행, 제일은행 등)과 도심상업시설(병원, 음식점, 영화관 등)



1966년 김량장동, 오리골 일대



1981년 김량장동, 오리골 일대



2000년대 김량장동, 오리골 일대
오리골 도로망의 변화

이 발달하게 되었다. 중부대로 북쪽 아래에는 오리골길(금령로 90번길)을 중심으로 예전의 모습과 유사하게 주택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다.

4) 오리골의 공간구조 변화

(1) 도로망의 변화

한 도시나 지역의 변화는 도로망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새로운 도로의 개통은 그 주변 택지의 형태와 지가, 주변환경 등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에 따라 그 지역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지역인 용인시 오리골 역시 지금은 여느 도심의 주택가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도심 주변에 위치한 전통마을의 형태에 가까웠다. 남쪽의 노고산을 배경으로 북쪽으로 열려 있는 대지의 골짜기에 지형에 순응한 가지형 도로가 자연스럽게 나 있고, 그 주변으로 옹기종기 주택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도로형태는 도시화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오리골 외부의 큰길에서 오리골 내부로 도로가 파생되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 생겨나는 도로는 지형에 순응하기보다는 기존의 큰 도로(금령로)에서 동서방향, 또는 남북방향으로 직교되도록 개설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도로가 개설되어야 택지의 모양이 방형에 가깝게 되고 그

만큼 주택이나 건물을 신축할 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1981년경에는 오리골 내부로 이러한 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건물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오리골 주요도로(금령로 90번길)는 그 주변으로 도로가 파생되어 생겨났을 뿐 대체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근 30여년 동안 오리골의 도로망에도 큰 변화가 생겨났다. 이미 별학과 별학뜰 쪽은 과거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며, 오리골 역시 중부대로(42번 국도)가 들어서고, 오리골 내부에서도 도로가 직선화되면서 점차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1966년부터 현재까지 남아 있는 도로는 오리골의 중심도로(금령로 90번길)와 주변 파생도로가 유일함을 알 수 있다.

(2) 주택 분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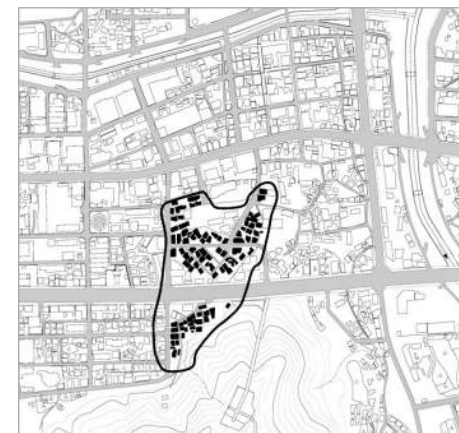
오리골은 앞서서도 언급했다시피 지금의 금향로 90번길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남쪽으로 노고산을 등지고, 북쪽으로 향해 있는 노고산 자락(감리교회 일대)을 기대어 북북동에서 남남서 방향으로 세장하게 자리 잡은 마을이다. 1960년대만 해도 이러한 전통적인 마을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 이 당시 주택들은 오리골길을 따라 북서쪽의 넓은 뜰을 바라보며 일렬로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일반적인 농촌마을이 그러하듯이 뒤로는 산을 등지고 전방으로는 경작지와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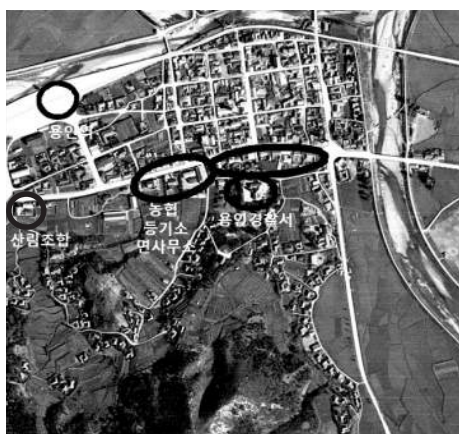
1966년 김량장동, 오리골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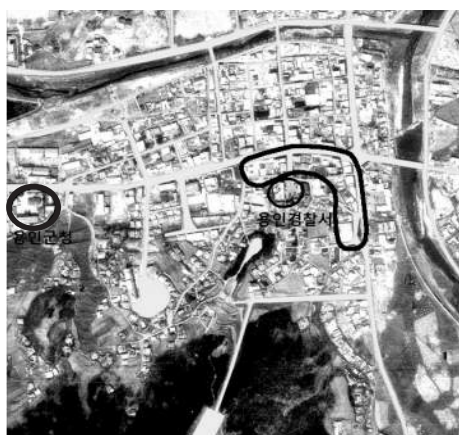
1981년 김량장동, 오리골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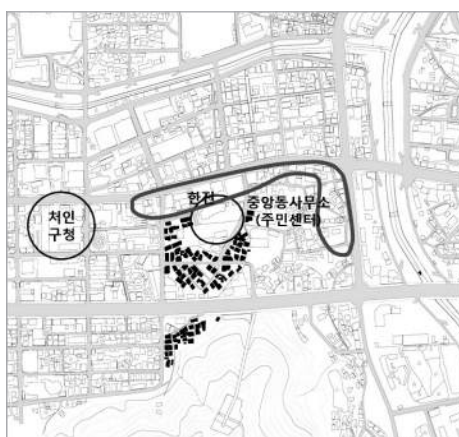
2000년대 김량장동, 오리골 일대
오리골 주택분포의 변화



1966년 김량장동, 오리골 일대



1981년 김량장동, 오리골 일대



2000년대 김량장동, 오리골 일대

오리골 주택분포의 변화

천을 바라보고 자리 잡은 배산임수의 마을배치와 동일하다. 다만 대부분의 마을이 남향하는 데 반해 오리골은 북서향을 하고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하지만 이 당시 주택들의 배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을은 비록 북서향을 하고 있지만, 주택들은 남서쪽을 향해 열려 있는 ‘ㄱ’자형 배치임을 알 수 있다.

1980년경에는 내부도로가 신설되면서 주택의 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오리골 중심도로(금향로 90번길)에서 직교하여 좌우로 개설된 골목길들에 면하여 주택들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나뭇가지에 열린 나뭇잎과 같은 구성인데, 금향로 90번길이 큰 중심 줄기이고, 그 좌우로 개설된 도로는 잔가지에 해당하며, 그 잔가지에 열매가 달리듯 주택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때 지어진 주택들은 대부분 단층이거나 2층 내외의 양옥집으로 판단되며, 주택의 좌향은 1960년대와 동일하게 남서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오리골 주택배치는 기존의 주택배치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큰 도로변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도로에 맞추어 서향해 있다.

(3)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변화

1937년 용인현 수여면(水餘面)이 용인면으로 개칭되면서 일대는 용인의 중심지가 되었다. 동서로는 수원과 이천, 여주 등과 가깝고, 남북으로는 안성과 광주군과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과 수여선 용인역이 위치해 있어 김량장동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금령로와 면하여 공공건물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1966년 항공사진에서는 산림조합, 전매국과 등기소, 면사무소가 금령로에 면해 있고, 오리골 안쪽길에 면하여 용인경찰서와 일제강점기 건물인 경찰서장관사가 감리교회 북쪽에 있었다고 한다. 경찰서장 관사건물은 지금까지 남아 있지만 그 용도는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변하였다.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금령로에 면한 남쪽부지에는 많은 건물은 없었지만, 김량장을 마주보고 몇몇 상업시설이 있었다고 한다.

철도가 사라진 이후인 1981년 사진에는 금령로 남쪽에 이전보다 많은 수의 건물이 확인되는데, 기존의 공공건물은 대부분 사라지고 상업시설이 크게 증가하였다. 후에 용인시 처인구청이 되는 ‘용인군청’이 신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음식점을 비롯하여 영화관, 의원 등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금령로 변과 오리골 일대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중앙동주민센터, 한국전력공사, 서쪽으로 처인구청이 금령로와 인접하여 자리 잡고 있으며, 금령로를 따라 각종 은행과 개인병원, 영화관, 각종 소매점과 음식점이 발달해 있다. 길 건너 맞은편 김량장 쪽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김량장 안쪽 블록으로는 여느 도심 전통시장과 같은 상설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5) 오리골의 현재 모습(오리골 산책)

(1) 오리골의 전체 풍경



오리골 전경사진(필자 촬영)

오리골은 금령로 남쪽에 노고산을 배경 삼아 자리 잡은 마을이다. 노고봉 중턱에는 1975년 6월 6일 한국전쟁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현충탑이 위치해 있고, 노고산 전체는 ‘용인중앙공원’으로 조성되어 오리골 주민뿐만 아니라 용인시민의 휴식처로 제공되고 있다. 오리골과 김량장 경계인 금령로 변은 고층건물과 상업시설로 개발되었지만, 오리골은 대체로 오래된 주택지로 형성된 유서 깊은 마을을 유지하고 있다. 용인시 대부분의 전통마을은 근래 들어 도시화의 영향으로 택지개발 등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예전의 논과 밭, 전통마을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등 밀도 높은 개발이 이루어져 옛 모습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오리골은 옛길을 중심으로 나름의 주택지를 형성하며 옛 마을의 명맥을 어느 정도 이어오고 있다.



오리골 전경사진(네이버지도 항공뷰 편집)

(2) 금령로 일대의 상업시설

옛 마을의 경계가 모호하듯 오리골의 정확한 범위를 아는 것은 쉽지 않다. 대략 처인구청을 경계로 서쪽을 옛 오리골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김량장(용인중앙시장)과 오리골의 경계가 되는 금령로는 어느 도심 거리와 크게 다르지



옛 별학들, 수원방향 전경



용인중앙시장과 능말 방향 전경

않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용인시 전체의 중심지이자, 처인구의 중심 지역으로 금융과 상업시설이 가장 발달해 있는 곳이다.

조선시대 말부터 성행했던 김량장 자리에는 ‘용인중앙시장’이 전통시장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고, 금령로 변으로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NH농협, 국민은행이 차례로 위치해 있다. 이외에 롯데시네마를 비롯한 문화시설과 의원, 약국, 각종 체인점이 용인의 중심가답게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용인경전철을 비롯하여 주변 지역으로의 도로망이 잘 발달해 있어 지역주민의 유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1970년대 김량장리 시가지(출처 : 용인문화원)



‘롯데시네마’주변 상업시설(롯데시네마 뒤편이 오리골임)



1985년 용인군청 모습(출처 : 용인문화원)

(3) 오리골 일대의 공공시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량장동 일대는 조선시대 말,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용인면소재지이자 용인군청 소재지였던 곳이다. 예전에는 금령로 주변으로 용인면사무소와 전매국, 등기소 등이 있었다고 한다. 면사무소와 등기소, 전매국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현재 이 일대의 공공시설로는 지금 처인구청이 된 용인군청을 들 수 있는데, 1982년 준공되었다고 한다. 금령로에서 오리골로 조금 들어간 위치에

는 이곳의 행정동인 중앙동주민센터가 위치해 있고, 그 맞은편에 한국전력공사 용인지점이 자리 잡고 있다.

처인구청은 행정구조 개편에 따라 2005년 10월 31일에 경기도 용인시에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등 3개 구를 신설하면서 처인구청도 설치되었는데, 옛 용인군청을 처인구청으로 이용하면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현재 금령로 50번지에 위치해 있는데, 1982년 군청 준공 당시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4층 건물의 본관과 2동의 부속건물로 금령로를 향해 ‘ㄷ’자형 배치이다.

중앙동은 처인구 김량장동과 남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이다. 중앙동 주민센터는 오리골 중심도로인 금령로 90번길에 면해 있는데, 4층 규모의 주민센터와 2층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오리골 안쪽에 있는 유일한 공공건물이다. 주민센터 바로 앞쪽으로는 한국전력 용인지점이 자리하고 있다.



중앙동 주민센터 전경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전경

(4) 오리골 주택과 옛길

금령로 90번길은 오리골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옛길이다. 도시계획에 의한 직선화된 도로가 아닌 능선을 따라 예전부터 형성된 자연스러운 곡선이 남아 있는 길이다. 오리골 초입에 해당하는 금령로 90번길에 들어서면 롯데시네마, 푸레쥬르,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비롯한 상업시설이 약 90m 가량 형성되어 있다. 금령로와 가까워 접근이 용이하고, 유동인구가 풍부하며, 인근의 중앙동주민센터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목이 좋은 상업지역이라 할 수 있다.

조금 더 길을 따라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한



용인중앙감리교회 계단



오리골 옛길 주변 주택가 전경



오리골 골목길과 옛 주택



오리골 옛길 주변 주택 현황 1

국전력 용인지점이 있고 그 위쪽에 중앙동주민센터가 넓게 자리 잡고 있다. 이곳부터가 본격적으로 오리골 주택가가 시작되는 위치이다. 주민센터 맞은편에는 용인중앙감리교회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된 길이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계단이라고 한다. 당시 이곳에는 일제가 설치한 신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신사의 위치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마을 어디에서나 올려다볼 수 있는 공간적 위계가 높은 위치에 설치된 사례가 많은데 이곳이 그러한 입지에 맞는 곳이다. 노고산 자락과 연결되는 작은 능선이 내려와 얹은 지형을 보여준다.

계단은 약 30단 내외로 설치되어 있는데, 고저 차는 약 3~4m로 판단된다. 계단의 기저부는 견치석으로 쌓았으며, 계단석은 시멘트 블록으로 촘촘히 쌓아 올렸다. 계단의 중턱에는 1970년대 주택과 거목이 한 그루 서 있어 마을의 오래된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오리골 사거리 앞 쉼터



오리골 옛길 이발소와 화분

오리골 주택지는 이곳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도로에 면한 주택들은 대부분 2~3층 내외의 저층으로 1층에는 상가가 있는 경우가 많다. 슈퍼, 미용실, 세탁소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상업시설로 2~3집 건너 하나꼴로 위치해 있다. 옛길 중간 중간에는 폭이 2m 이내의 좁은 막다른 골목길이 발견되는데, 개발에서 밀려난 오래된 옛집들이 모여 있다. 시멘트블록으로 담장이나 벽체를 두르고, 지붕에는 슬레이트를 올린 단층집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골목길과 주택들이 위치한 곳은 1966년, 1981년 항공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오리골이 지금과 같이 개발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주택들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주택들에서는 집앞이나 담장 위에 화분을 키우거나 화단을 이용해 농작물을 기르기도 하는 등 서민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길을 따라 남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사거리가 나타나는데, 도시계획에 의해 생겨난 동서방향의 직선도로(금령로 106번길)와 오리골 옛길이 만나는 지점이다. 옛길은 여기서부터 금령로 12번길이 된

다. 두 개의 길이 만나는 곳으로 비교적 넓은 사거리를 형성하고 있고, 약간의 여유공간과 금령로 쪽으로 시야가 열려 있어 여름이면 마을주민(대부분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작은 모임이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된다. 이곳을 지나 12번길로 들어서면 자동차는 출입이 불가능한 좁은 길로 이어지고, 오래된 옛집과 2층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 길은 중부대로를 만나면서 끊어지게 되는데, 중부대로와 연결된 곳에는 고저 차를 극복하기 위한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끊어진 옛길은 중부대로를 건너 다시 시작한다. 예전에는 한 동네였지만, 6차선 중부대로는 들어서면서 한참을 돌아 건널목을 건너야 갈 수 있을 만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옛 오리골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은 길을 건너 중부대로 1448번길과 1440번길로 둘러싸인 삼각형 블록 주택지가 이에 해당한다. 옛 길이 골목길의 형태로 남아 있고, 주택들도 자연스러운 부정형의 필지 안에 골목길에 면하여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다.

주택들은 2층 이내의 단독주택들이 대부분으로 옥상이 있는 평슬래브집이 많은데, 대



중부대로 건너편 오리골 옛길과 골목길(중부대로 1440번길)



오리골 옛길과 주택(중부대로 1440번길 일대)



오리골 옛길 주변 주택 현황 2



오리골 옛길(금령로 12번길)과 옛길에 면한 1970년대 시멘트블록집



오리골 옛길(금령로 12번길)과 중부대로가 만나는 지점

오리골 옛길 주변 주택 현황 2

체로 분위기는 금령로 12번길 주변의 주택들과 대동소이하다. 주택의 형태와 재료 등으로 볼 때 도로에 면한 주택들은 1980년 중반 이후에 신축된 집들로 보인다.

이 주택지 서편으로는 택지개발로 인한 직선화된 도로와 장방형 블록안에 3~4층 내외 규모의 주택들이 밀집해 있어 옛 모습은 사라지고 없다.

(5) 용인맨션(용인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분양아파트)과 다세대 주택

중부대로 1448번길에서 북쪽 방향으로 금령로 72번길(옛 오리골 서쪽 농경지 일대)을 따라 내려가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물이 '용인맨션'이다. 이 아파트는 용인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분양아파트라고 한다. 아파트의 배치는 남북방향의 一자형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실형이다. 현관은 금령로 72번길에 면해 동측진입이고, 거실이 서쪽에 배치된 서향건물이다. 용인시의 주택 변화는 1970년대 초반까지 전통가옥이나 양옥 등의 단독

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1974년 연립주택이 등장하게 되었고, 1975년 아파트가 처음 건립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980년대까지는 대부분 단독 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용인의 가장 오래된 아파트는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에 근무하는 장교와 부사관들의 숙소(BOQ : Bachelor Officer's Quarters)로 지어졌는데, 용인중학교 앞에 아파트형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이후 최초의 '민간아파트'는 자연농원(지금의 에버랜드) 근무자를 위한 숙소를 아파트 형태로 지은 것이 두 번째이다(포곡면 전대리와 용인읍에 지었다고 함),

이후 '민간분양아파트'인 용인맨션(김량장리 342번지)은 3군사령부에서 민사참사로 근무하던 오인섭 씨가 1978년 예편하면서 토지를 매입하였고, 인척 관계인 성기관 씨와 함께 지었다고 한다. 1978년 6월에 착공하여 다음해(1979년) 11월에 완공하여 입주하였다. 이 아파트의 건축면적은 505㎡이며, 모두 40가구가 입주하였고, 입주 당시 난방시설은 연탄보일러였다고 한다. 이 아파트의 부지가 김량장동 남쪽 오리골의 야산을 깎아 지었기



1979년 건립당시 용인맨션



현재 용인맨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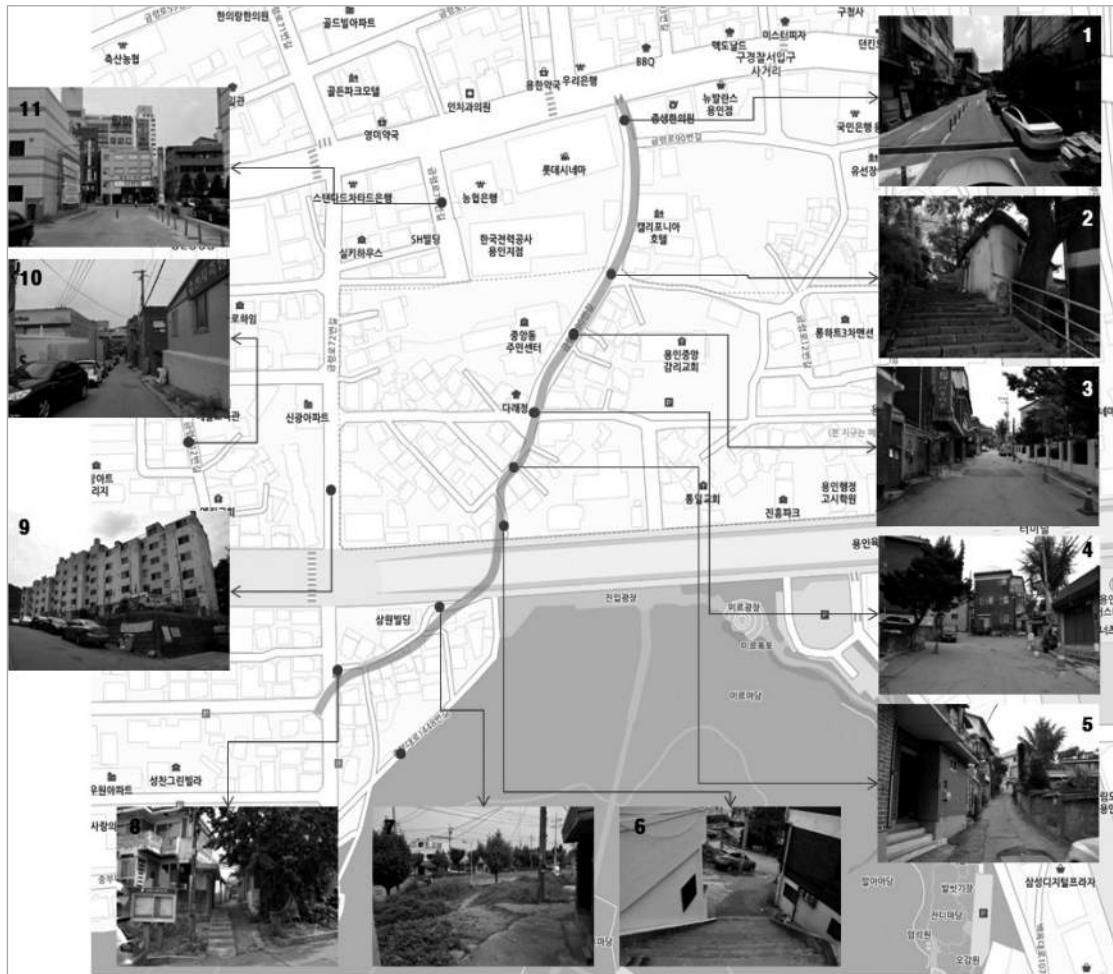


금령로 72번길 주변 다세대 주택



금령로 72번길 초입

용인시 최초의 민간분양아파트 '용인맨션'과 금령로 72번길 주변 다세대주택



때문에 건립 당시 주변건물에 비해 웅장하게 보였다고 한다. 당시 분양대금은 800만원 정도였다고 한다.¹¹⁸⁾

현재 용인맨션은 많이 쇠락한 모습이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북쪽 금령로 방향으로만 도시계획으로 생겨난 블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금령로에 가까워질수록 오리골 초입과 마찬가지로 1층에 상업시설이 있고, 그 위층에 주거용시설이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일대의 모습은 오리골의 옛모습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여느 중소도시의 모습과 대동소이한 풍경이다.

118) 김태근, 「용인의 최초 민간 분양아파트 용인맨션」, 『용인문화』 2010년 가을호, Vol.14, pp.67~68.

2-3 마을조직과 마을행사

오리골은 과거 대다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마을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지역 개발의 바람을 타고 외지인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마을이 변모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가 거의 해체된 상태이다. 중앙동으로 승격되기 이전에는 이장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 자치기구가 있었고 마을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의 조직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지만 지금은 마을 자치기구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가구를 중심으로 대동회 모임 정도만이 유지되고 있으며 마을의 큰일 작은 일들을 도맡아 운영해 오던 청년회는 해체된 지 이미 오래다.

청년회는 마을 사람들의 단합과 교류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는 단체였다. 마을에 잔치가 있거나 초상이 나면 모두 모여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하였고 체육대회나 경로잔치, 또는 야유회 행사도 직접 주관하여 이끌었다. 물론 마을의 제반 사항에 대한 의제도 논의하고 주민 화합이나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도 마련하면서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일하던 청년조직이었다. 마을의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주민은 크게 늘어난 반면 청년회에 참여하려는 젊은 사람이 없고 오랫동안 토박이로 살아온 몇몇 사람이 이끌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어 조직을 해체하였고 오늘날에는 오우회라는 친목회가 운영되고 있다.

또 과거에는 공식적인 마을 조직이 아닌 동년배들의 모임과 같은 자생 조직으로 각종 계 모임이 많았다. 부모의 초상 등을 당했을 때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조직한 위친계를 비롯하여 상호 친선을 다지기 위한 친목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저축의 개념으로 운영되던 쌀계, 매달 푼돈을 내다가 순번이 돌아오면 고가의 반지를 구매하는 반지계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많은 주민들이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계를 만들어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는 초상이 나거나 갑자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의지할 수가 있었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 살면서 계를 타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던 이들 다양한 계들은 대부분 해체되고 이제는 몇몇 친목 모임만이 남아 있다.

1) 대동회

대동회는 마을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확인하고 상호부조 정신을 함양하여 사회적 협동을 증진하기



오리골 마을회관

위해 옛날부터 운영해온 전통적인 조직이다. 즉 마을의 자치적인 운영을 위한 모임으로서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오리골에는 통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회가 결성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거와는 달리 행정단위의 통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장제도는 동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운영되는 법적 기구로 주민들이 대동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동장이 임명하며 행정의 보조적 또는 협력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오리골 마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민자치조직으로서 일종의 인보단체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성격과 역할도 크게 변하였다.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거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실현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는 역할은 예전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통장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일선행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일선행정의 보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장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현재 조수복(남, 68) 통장을 중심으로 오리골 대동회가 매년 연말에 열리고 있는데 200여 세대 중 30~40여 명만이 참여하고 있다. 예전부터 살아온 토착민이 20여 가구 되는 것으로 보아 대동회도 오리골 토박이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듯하다. 또한 매년 봄가을로 마을 사람들이 야유회 성격의 관광을 다녀온다. 참여 인원은 30~35명 정도이고 마을에 적립된 기금이 있어서 참가비는 별도로 받지 않고 있다.

2) 노인회

노인의 권익신장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된 오리골 노인회는 현재 이영재 회장을 중심으로 4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건강과 보람을 앞세우며 건강한 노년을 창출하기 위해 열성을 다하여 각종 활동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노년이라고 안주하면 그냥 노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회원들은 노년은 인생의 제3기라는 자세로 빛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생의 제3기를 살아가는 노년세대는 이 사회를 지탱하는 지혜의 터전이고 화합과 조화의 주역들이다. 그러므로 오리

골 노인회는 사회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오리골에는 노인회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노인회 회원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이다. 평범한 가정집을 개조하여 만든 노인회관은 오리골 마을회관 내에 있다. 마을 노인들은 매일 노인회관에 모여 서로 정담을 나누거나 여가활동을 한다.

오리골마을 사람들은 예로부터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성을 쏟아왔다. 그러나 19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로 주민들이 각박한 삶을 살게 되고 마을도 많은 변화과정을 겪으면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자 다시 노인층을 위한 새로운 여가활용시설을 만들고 신경을 쓰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날로 핵가족화 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이 시대의 변천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데다가 젊은이들과의 대화 단절, 또 자신들의 역할 감소 등으로 느끼게 된 소외감을 달래기 위해 노인회관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회관에 모인 오리골 노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바둑, 장기, 화투놀이 등의 오락을 즐기고 함께 TV를 시청하며 여가를 활용하고 있다.



노인회관 입구



노인회원들의 여가생활 노래교실

3) 부녀회

부녀회는 오리골 마을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 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마을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결성된 여성단체이다. 처음 부녀회가 태동한 것은 1970년대 한창 새마을운동이 전개되고 있을 때 관 주도하에 마을 단위의 새마을 부녀회가 생겨나면서부터이다. 그때는 새마을 부녀회라고 했는데 초창기에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내 집 앞마당 쓸고 초가지붕 없애기 운동 등을 벌이는 것

에서부터 거리청소를 하고 기타 봉사활동이나 각종 잘 살기 운동을 벌이는 활동을 주로 전개하였다.

당시에는 4H 활동부터 시작하여 부녀회로 연결되어 생활개선이나 각종 소득 사업에 앞서 농촌 개혁에 크게 기여를 했지만 오늘날에는 마을이 도시화되고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그 성격이나 활동 영역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겨울철 김장을 담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에게 나눠 주거나 노인정 관리 등 각종 봉사 활동을 하기도 하고 농협이나 동 주민센터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여 사회활동을 하기도 한다.

오리골 마을 부녀회는 현재 3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마을에 주요행사가 있을 때 음식을 장만하거나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어버이날 행사 때에는 회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음식을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잔치를 베푼다. 봄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부녀회의 중요한 사업이다. 오랫동안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목진남 씨(여, 67)가 현재 부녀회장을 맡고 있다.

4) 오우회

전통적인 자연마을이었던 오리골이 점차 도시화 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도 했지만 반대로 이곳에 터전을 잡고 오랫동안 살아온 토착민들이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다. 땅이나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람들로부터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아온 사람들이 땅 주인이 신축을 하는 바람에 떠밀리다시피 떠난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마을 토착민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주민은 20여 가구에 불과하다.

오리골에서 태어나 동고동락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모임이 오우회이다. 오우회는 오리골에 살던 사람들이 옛 정을 나누며 친목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90년대 초반에 결성되었다. 여기저기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하여 처음에는 5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명칭도 당시에는 ‘오리골 청년회’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원이 줄어들어 약 15명 정도만 남게 되자 오우회로 모임의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오리골 우정회’의 약칭인 것이다.

오우회 회원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오리골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영실 씨가 유일하다. 이영실 씨는 택시기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용인의제21실천협의회 생태환경분과위원장을 맡아 환경운동을 해오고 있는 생태 전문가이다. 회원들의 직업도 다양해서 페인트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병원 식당이나 음식점,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마을버스 기사, 레미콘 기사, 중장비 기사, 딸딸이(삼륜차) 기사 등 각양각색이다.

오우회는 격월로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매년 1회 단체여행을 다녀올 뿐만 아니라 야유회를 통해 회원 간 친목을 다지고 있다.

5) 용암회

현재 용인에는 오리골 사람들을 포함한 원로들의 모임인 용암회가 있다. 1970년대 지역 주민들의 수가 많지 않고 구역도 세분화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용인읍내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당시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젊은 이들이 모임을 만들어 오늘날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데 그 모임이 용암회이다.

1970년대 중반 20~30대 젊은이 30여 명이 해동양조장 부근 조그마한 음식점에 모여 모임을 결성했는데 당시 명칭은 용조회였다. 상호 친목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순수한 목적으로 결성된 용조회는 4~5년 만에 해산되었다. 그 원인은 회비와 관련된 경영부실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 전 멤버들이 한일회관 2층에 모여 입회비 10만원씩을 내고 모임을 다시 결성하며 명칭을 용암회로 바꾸게 된다. 얼마 후 용인농협 조합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회원이 농협 별관 한 쪽을 용암회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지금까지 그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지역사회 특성상 용암회 회원의 80%가 태성중고등학교 출신이며, 직업도 경찰, 교사, 공무원, 개인 사업자 등 다양하다. 특히 공무원이 가장 많아 용인시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유력 단체로 세인의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회원 중 정치 쪽에 관여한 사람은 없다고 한다.

특히 용암회 회원들은 모두가 장남이어서 부인들의 모임을 만며느리회라 칭하며 별도의 모임을 가져오고 있다. 회원 자식들 간에도 유대관계가 긴밀히 유지되고 있으며 각종 경조사에는 한 가족처럼 마음을 함께하고 있다.

모임이 어느덧 40여 년이 유지되어 오는 동안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 현재는 25명이 모임에 나오고 있다. 용암회의 모임은 용인장 이튿날인 매월 11일이며, 일년에 한 번씩 단체 여행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다.

2-4 오리골, 사연이 담긴 장소

1) 신사(神社)



당시에 만들어진 신궁으로 오르는 계단

오리골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일제 식민지배의 상징으로 오리골 언덕에 조성되었던 신사였다. 신사 조성은 일제가 1910년 조선을 강제 병합한 이후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정신을 개조하기 위하여 서울 남산에 조선신궁(朝鮮神宮)을 세우고 전국 각지에 조성하기 시작한 야만적인 조선 정신문화 말살 정책의 핵심 사업이었다. 특히 대륙진출에 대한 야욕으로 중일전쟁 이후에 크게 늘어나 1936년에 524개였던 것이 10년 후인 1945년에는 1,062개로 증가하였다.

용인신사는 1925년 조선신궁이 건립된 직후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용인읍내가 훗날 내려다보이는 오리골 동쪽 언덕 위에 전형적인 일본식 목조건축물로 만들어졌다. 신사 경내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의식적인 관문인 도리이[鳥居]가 세워져 있었고 건물 앞에는 석등이 있었다고 한다.

용인신사의 위치는 현재 용인중앙감리교회가 들어서 있는 김량장동 85-8번지 인근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감리교회 하단 후문에는 당시 사용했던 시멘트 계단이 아직도 남아 있다.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중 일부는 감리교회 옆 주택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약간 위쪽에 있는 구 보건소 자리였다고도 한다.

오리골 사람들은 이 신사를 신궁이라 불렀는데 이는 신궁(神宮)의 와전된 표현이다. ‘용인신사’가 명확한 명칭이지만 주민들이 ‘신궁’이라 했던 것으로 미루어 신궁이라는 명칭이 함께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의 황민화정책으로 조성된 용인신사는 나라 잃은 주민들에게 사상통제를 강요하는 본거지 역할을 했다. 신사를 중심으로 일제를 위한 애국반이 편성되었고 주민들에게 신사 참배, 궁성요배, 황국신민서사 제창, 근로봉사의 월례행사가 강요되었다. 또한 각 가정에 신봉(神棚) 설치, 신궁의 부적 배포가 강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경찰 안에 감시대를 조직하고 애국반 안에 밀정조직을 만들어 이를 감시하게 했다. 가뜩이나 일제에 의해 혈값

에 토지를 빼앗기고 온갖 공출로 생활이 파탄해진 주민들에게 신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민족혼 말살 획책은 정신적 공황을 가중시키는 일이었다.

1945년 마침내 광복이 되자 용인신사는 폐쇄되었다. 폐쇄된 신사는 몇 년간 그대로 방치되다가 6·25전쟁이 끝난 후 이곳에 전몰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현충비가 세워졌다. 당시 용인지역 전몰자가 1,400여 명에 달했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150여 명이었다. 매년 현충일이면 이곳에서 용인경찰서 주관으로 추념식이 열렸다. 오리골에서도 전쟁에 희생된 사람이 몇몇 있었는데 현충일 행사가 열리면 가족들이 찾아가 분향을 했다.

제보자 이영실 씨의 삼촌도 경찰로 활동하다 희생되어 할머니를 따라 현충일 행사에 매년 참석했다고 한다. 할머니는 현충비에 갈 때면 신궁에 가자고 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를 살면서 ‘신궁’에 익숙했던 할머니에게는 그곳이 신궁으로 각인된 장소였을 것이다. 추념식은 공포탄과 함께 애도의 의식이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의 분향이 끝나면 유족들은 나누어 주는 표를 들고 용인극장으로 향했다. 극장에서는 반공영화가 상영되었으며 가수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아마도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위문공연이었던 것 같다.

2) 현충비

일제강점기에 조성되었던 신사는 8·15광복과 함께 폐쇄되고 6·25 전쟁 직후 같은 자리에 현충비가 세워져 전쟁에 희생된 용인지역 출신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공간이 되었다. 당시 현충비가 세워진 곳은 노구봉의 산줄기 한 자락이 뻗어 내려와 둥그런 모양의 높은 언덕이 형성된 곳이었다. 주변에는 크고 작은 수목이 자라고 50여 미터에 이르는 진입로 계단 양쪽에는 잣나무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일제가 신사를 만들면서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서서는 입구라는 의미에서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 조경을 한 것 같다. 지금도 구 보건소 담장 안쪽으로 꽤 큰 잣나무가 여러 그루 식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이곳은 숲이 우거진 매우 운치 있는 곳이었고, 젊은 남녀들이 은밀히 찾아와 밀회를 즐기기에 최적의 공간이었다. 그때는 별도로 공원이란 것이 없었고 읍내에서도 거리가 꽤 떨어져 매우 한적



지금은 없어진 현충비의 모습
(안병환 소장사진)



아이들의 놀이터였던 용인감리교회 마당

한 곳이었다. 요즈음엔 찻집이 있고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남녀가 데이트를 즐기는데 장소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1960~1970년대만 하더라도 연인들이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흔치 않았고 전통적인 사회 인식 때문에도 남녀가 드러내놓고 만날 수도 없는 환경이었다.

그러니 현충비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데이트 장소로 통했다.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이면 젊은 연인들이 몇 쌍씩 찾아와 계단을 걷거나 나

무릎에 앉아 데이트를 즐기곤 했다. 청춘 남녀의 데이트 명소였던 셈이다. 용인에서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즐기던 명소가 두 곳 있었는데, 또 하나는 용인4거리 지나 마평다리에서부터 태성고등학교 앞까지 이어진 김량천변 화천 독이었다. 화천(火川) 독이란 말은 겨울이면 마른 잡풀이 우거진 천변에 불을 놓았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이렇듯 연인들의 명소였던 현충비가 언제부턴가 불안해지게 되었다. 이유는 짓곳은 오리골 아이들 때문이다. 연인들이 찾아와 밀회를 즐기는 모습을 알아차린 아이들이 몰래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놀리거나 소리를 질러 데이트를 방해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돌을 던지고 도망치는 아이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오리골 아이들 중에는 짓곳은 아이들이 많았다. 달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대체로 드세고 텃세가 심한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였지만 오리골 아이들은 유난히 심했던 것 같다. 특히 현충비는 그들의 놀이터였다. 철조망으로 둘러쳐진 방형의 터 안쪽에는 연필 모양의 현충비가 세워졌고 바로 앞에 분향을 위한 향로가 놓여 있었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 입구에서부터 향로까지 파란 잔디가 깔린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현충일 행사 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다. 아마도 용인에서는 최초로 잔디가 깔린 곳이었을 것이다.

이 잔디밭이 오리골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였다. 철조망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에도 없는 천연 잔디가 깔려 있으니 그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훌륭한 놀이 공간이었던 것이다. 공을 차다 넘어져도 무릎이 까지거나 다치는 일이 없으니 마음껏 뛰고 마음껏 뒹굴 수 있는 공간이었다. 더욱이 이곳은 그들의 전용이었다. 다른 마을 아이들이 얼씬거리기라도 하면 소리를 질러 쫓아버리거나 붙잡아 패기도 하였다니 감히 무서워 근처에 오지도 못했다.

아래쪽에 있는 용인감리교회 마당도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남자들은 자치기나 굴렁쇠

놀이를 했고 여자 아이들은 공기나 고무줄 놀이, 땅따먹기를 했다.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지치거나 재미없어지면 종탑에 들어가 길게 내려진 줄을 잡아당겨 세계 종을 치고 도망치곤 했다. 그러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뛰어나와 어떤 놈들이냐고 소리를 쳤다. 그것이 재미있어 아이들은 심심하면 몰래 들어가 종을 치고 뺑소니를 쳤다.

1970년대 초반 3군사령부가 용인에 들어서면서 현충비는 노구봉 중턱으로 올라가게 된다. 오리골 언덕에도 개발붐이 일어 여기저기 주택이 들어서게

되고 용인군에서도 유희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의 위치로 현충비가 이전되고 그 자리에는 용인보건소가 들어섰다. 물론 현충비는 더 큰 부지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그 명칭도 현충탑(顯忠塔)으로 바뀌었다.

현충비가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을 했지만 연인들의 명소라는 옛 명성은 여전했다. 오히려 규모가 더 크게 확장되었고 주변이 온갖 수목으로 가득한 산 중턱에 위치한 탓에 더 많은 연인들이 찾게 되었고, 휴일이면 가족 단위의 소풍객들도 많이 찾아왔다. 특히 이곳은 남동에 위치한 태성고등학교 뒷산이었고 잠깐이면 오를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주 오르내렸다.

1970년대 영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교통이 편리해짐에 따라 용인에 수백 개의 기업체가 들어서고 젊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찾아 용인으로 밀려들면서 현충탑은 남녀노소 주민들의 중요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간혹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가 되기도 했지만 힘든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이곳은 최고의 휴식처로 각광을 받았다. 1970~1980년대에 용인에서 젊은 나이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충비에 대한 추억이 한두 가지 씩은 있다.

3) 버스터미널

1960~1970년대 용인시외버스터미널은 현재 오리골 입구 길 건너편에 위치한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학원연구소와 시장약국 자리에 있었다. 당시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이 많은 유동인구를 유발하는 특성 때문에 지역의 중심부에 입지하여 상권의 발달을 가져오는 핵심



현충탑(노구봉 자락)

적인 시설이었다. 때문에 용인지역의 중심지가 바로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이었다. 하지만 요즈음에는 도시가 확대되고 교통 혼잡을 야기시키는 등의 문제가 커서 대부분 외곽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용인시외버스터미널 역시 읍내 중심부에 있다가 1970년대 말 용인 4거리 근처로 이전했다가 그곳이 변화하게 되자 1990년대 다시 현 위치(남동)로 이전하였다. 아마도 몇 년 후면 도심과 거리가 떨어진 한적한 외곽으로 또다시 이전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자가용이 일반화되고 시내버스가 구석구석 안 다니는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전철이나 지하철과 같은 대체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버스터미널은 과거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도 시외버스터미널은 농촌 사람들과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거점 기능을 하고 있다.

용인시외버스터미널이 1970년대 읍내 중심부에 있을 때는 버스터미널이 아니라 ‘버스 영업소’라 했고 사람들은 ‘차부’라고 불렀다. 차부에는 늘 버스가 들락거리고 짐을 들고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들로 붐볐다. 농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장에 내다 팔기 위해 보따리를 몇 개씩 들고 내리는 아줌마나 할머니들의 모습이 가장 눈에 많이 띄었고, 농산물을 사가려는 상인들과 흥정을 벌이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한 쪽에서는 손님을 태우고 차장의 ‘오라이’ 하는 소리에 맞춰 덜경거리며 매연을 뿜으면서 떠나는 버스의 뒷모습도 전형적인 차부의 풍경이었다.

또 슬레이트 지붕의 대합실 안에는 표를 사는 사람들, 버스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렇듯 버스터미널은 가장 사람이 붐비는 곳이었다. 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이 거의 없던 그 시절에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버스였기 때문이다.

차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풍경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구두닦이와 라이터 장사, 그리고 오라이(조수)들이다. 이들은 보통 얼굴이 시커먼 데다가 거무티티한 옷까지 입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차부에 나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일을 하다 보니 얼굴이 검고 옷이 더러워 깨끗할 리가 없다. 이들이 바로 오리골에 사는 근로 청소년들이다.

제보자 이영실 씨의 기억에 의하면 1960~1970년대 오리골 아이들은 대부분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마치면 돈을 벌기 위해 산업 현장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상급학교에는 진학할 엄두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오리골은 달동네라 할 정도로 집집마다 가난을 부적처럼 달고 살았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 부모나 자식이나 먹고사는 일이 더 급한 터였다.

많은 사람들이 봄비는 차부에서 생계가 달린 구두닦이나 조수, 신문팔이 등의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역센 성격을 갖게 되고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타지의 아이들을 배타시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차부에서 일하는 구두닦이나 라이터 등의 판매원들은 모두 오리골 아이들로 구성되었다. 다른 마을 아이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터미널 맞은편에 위치한 용인극장도 이들이 점령하여 청소를 하거나 표를 파는 일을 도맡아 했다.

4) 가설극장과 용인극장

용인에 극장이 없던 시절, 용인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설극장이 들어왔다. 가설극장이 들어오는 날이면 운동장에 쳐 놓은 천막 지붕 꼭대기에 달아놓은 확성기에서 노래가 들려왔다.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그 시절 유행하던 노래들이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저녁을 일찍 먹어치우고는 극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가설극장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극장을 찾아오는 관객의 수에 따라 하루 이틀 더 머무는 경우도 있었지만 서둘러 일찍 떠나는 일이 있었다. 그렇게 급히 걷어가는 가설극장이라서 그런지 저녁때쯤이면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저 멀리서 나는 발전기 소리를 들으며 입장료를 내고 천막 속으로 들어가면 축구 골대에 광목으로 영사막을 설치해 놓고 바닥에는 명석을 여러 개 이어서 깔아 놓았다.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빈틈에 앉으면 이윽고 화면이 밝아지면서 영사기에서 나오는 빛의 움직임이 느껴진다.

워낙 어릴 때 일이라 영화제목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꿈은 사라지고’ ‘외나무다리’ ‘럭키모닝’ 같은 영화들이었다. 반라의 여배우가 나오면 “야, 기가 막히다!” 탄성을 지르기도 했고, 19금 장면이라도 나오면 영사기를 돌리던 기사가 손바닥으로



가설극장

화면을 가리기도 했다. 그러면 “뭘야, 손 치워.” 하는 아저씨들의 화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부모를 따라간 아이들은 내용도 제대로 모른 채 영화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았던 시절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용인극장이 생겼다. 현재 롯데 시네마 건물이 들어선 바로 그 자리다. 당시 용인극장은 지나간 영화를 두 편씩 상영하는 소위 3류 극장이었다. 스크린은 가끔 줄이 소나기처럼 내리는 데다가 음향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잡음이 자주 들렸다. 영사기가 꺼지는 일도 잦았다. 필름이 끊어져서다. 그때마다 관객은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영화관에서 ‘와’ 하는 탄성과 ‘우’ 하는 야유를 보냈다. ‘와’ 하는 소리는 아이들, ‘우’는 어른의 몫이었다.

비록 허름한 극장이었지만 용인 사람들의 인기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필자도 초중등

학교 시절 ‘김두환’과 같은 영화가 상영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모현면에서 버스를 타고 영화를 보러 나오곤 했다.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 용인극장은 주민들의 문화적 허기를 달래는 창구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이다.

5) 노구봉과 함박산

가을걷이가 끝날 무렵이면 세찬 북풍이 불어온다. 그 찬바람이 불어오면 노구봉에 서 있는 소나무들은 노란 낙엽을 떨군다. 오리골은 언덕배기에 급조된 듯한 빈한한 마을인데다가 북향을 하고 있어 겨울의 바람은 세차고 유난히 춥다.

겨울이 오면 맨 먼저 하는 일이 지붕을 이는 일이다. 짚을 잘 다듬어 이엉을 엮고 새끼를 꼬는 등의 준비가 끝나면 좋은 날을 받아 이웃들과 함께 지붕을 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거개가 품앗이이며, 비록 넉넉하지 않는 살림이라도 지붕을 이는 날은 작은 잔치가 벌어졌다. 물론 이 때쯤이면 김장도 완료되어 마을은 본격적인 겨울나기로 접어든다.



노구봉(오리골 뒷산)



함박산(동진리 명지대 뒷산)

오리골 사람들의 겨울철에 가장 중요한 일은 땔나무를 하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을 먹고서 지계를 짊어지고 마을 뒤에 있는 노구봉에 오른다. 당시의 노구봉은 거의 민둥산이었다. 한참 자라기 시작한 리키다 소나무와 밤나무, 그리고 아카시나무, 오리나무를 제외하곤 별로 나무가 없는 산이었다. 그래서 노구봉 반대편 동진리 쪽으로 넘어가 나무를 하거나 아예 함박산으로 가는 사람도 많았다. 눈이 소복한 산 능선을 넘어 상대적으로 눈이 적게 쌓인 양지녘의 비탈에다 지계를 받치고 나무를 한다.

나무를 하는 방법과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보통은 낫나무와 갈퀴나무, 그리고 삭장구 나무가 있었다. 낫나무는 나무 할 대상이 마른 풀과 1~2년생의 키 작은 나무들로 불이 잘 붙는 종류의 참나무, 밤나무, 싸리나무 등의 활엽수들이다. 잘 간 낫으로 소나무 아래의 풀들을 촘촘히 베거나 키 작은 나무, 또는 나뭇가지를 베어 지계에 쌓고 지겟줄로 단단히 묶는다.

갈퀴나무를 하기 위해서는 채비부터 다르다. 낫나무를 할 때는 낫 하나 잘 갈아 지계에 꽂고 올라가면 되지만 갈퀴나무를 할 때는 갈퀴를 하나 더 준비한다. 갈퀴로 바닥에 떨어진 솔잎이나 활엽수 입들을 긁어모으고 그것을 나뭇가지로 의지하여 단을 만드는 방식으로 지계에 차곡차곡 쌓아 지겟줄로 묶으면 된다.

그리고 삭장구란 소나무나 참나무 등 큰 나무의 아랫가지 중에 말라 죽은 나무를 말하는데, 당시 노구봉에는 삭장구가 없고 함박산을 넘어가야 삭장구를 할 수 있었다.

숙련된 솜씨로 지계에 실은 나무를 깔끔하게 다듬고 맵시 나게 모양을 만들어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어느덧 점심때가 된다. 이처럼 겨울철의 오리골은 한가로웠다. 당시에는 큰 사건도 없었으며 또한 나무 이외의 할 일 또한 없었다.

6) 데미의 집

6·25전쟁을 전후로 용인 사람이면 모르는 이가 없는 3대 명물이 있었다. 물건이 아니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니 명인이라고 해야 하나 이성적으로 사고하며 살아가는 정상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용인사람들은 그 세 사람을 ‘명물’이라고 불렀다. 오늘날도 특이한 행동을 곧잘 하는 사람을 가리켜 ‘그 사람 물건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유명한 사람’이라는 의미였던 것 같다.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용인장날이면 장터에서 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외지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한 명은 김량장에 사는 ‘데미’라는 여자였고, 또

한 사람은 모현에 살면서 장날마다 나와 허리에 형형색색의 새끼줄을 두르고 장바닥을 돌아다니는 ‘팔레미’라는 여자였다. 두 여자는 이름이 아예 없거나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 사람의 특성에 따라 수식어를 붙여 이름을 부른 반면, ‘김관식’이라는 또 한 사람은 이름도 확실하고 태어난 곳도 잘 알려진 남자였다.

김관식은 장터에서 노숙을 하며 장차(장사꾼들의 물건을 실어 나르는 트럭)가 오면 물건을 번쩍번쩍 들어 옮기던 장사였다고 한다. 마평동 송담대학 부근에서 태어난 그는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빨래간 사이 뜨거운 화롯불 인두에 배를 다쳐 불구가 된 사람으로 지능이 좀 낮았던 것 같다. 하여튼 팔레미와 김관식은 이 정도로 소개하고 이 글의 주인공은 데미다.

용인감리교회 마당 동편으로 큼직한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는데, 아래쪽 거성맨션과 마주하고 있는 나무 주변이 데미의 집이 있던 곳이다. 집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들어가 잠이나 잘 수 있을 정도의 비좁은 움막이었다.

데미는 용인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정신박약 여성이었다. 그래서 데미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까지 유행했다고 한다. 데미란 이름은 뎀짜거리에서 태어났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뎀짜거리’란 용인지역에서 두루 쓰이는 두엄터미의 방언이다. 뎀짜가리는 소 외양간에서 나오는 두엄을 쌓아둔 것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숙성되기 때문에 발효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되므로 그곳에 몸을 기대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도 집 없이 노숙자로 살다가 데미를 그곳에서 낳게 된 것 같다.

데미를 모르면 용인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데미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서 구체적으로 데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데미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를 엮어보겠다.

데미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어렸을 때는 오늘날의 김량장동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부근에 살았다. 김량장을 지나가는 수여선 철로의 다리 밑에 거적을 치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곳에 거지들이 여럿 살았다고 하니 데미도 거지였던 것이다.

OBS 정인방송 <명불허전>에 출연한 사운드 디자이너 김벌래(1941년생, 본명 김평호) 씨가 자신이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데미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용인시장 한 쪽에 살았던 김벌래 씨는 어머니가 아홉 살 때 돌아가시고 돈벌이를 못 하는 아버지 밑에서 세 살짜리 동생과 함께 생활했는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외톨이 생활을 했다. 그가 유일하게 어울리는 사람이 다리 밑에 거적을 치고 사는 거지들이었다. 그들을 찾아가면 캐러멜이나 밀크 등 이것저것 얻어먹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 내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 배불리 먹는 것에 열중했던 거지들 중에 데미도 끼어 있었다. 김벌래 씨 보다 나이가 더 많아 누나뻘이었던 데미는 김벌래 씨에게 매우 잘해주었던 것 같다. 먹을 것도 주고 함께 놀아주고 집에 데려와 자고 가기도 했다고 한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데미와 친하게 지냈던 것이다.

데미 나이가 열다섯이나 열여섯 정도 되었을 때까지도 그녀의 엄마가 살아 있었던 것 같다. 엄마의 등에 업힌 데미가 엄마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며 개피떡을 사 달라고 떼를 부리던 모습을 기억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데미의 어린 시절은 엄마의 보호를 받고 자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중공군이 밀려오던 1·4후퇴 때 대부분의 용인 사람들이 피란을 갔는데 남리 사람들은 해실리(처인구 호동)로 갔다고 한다. 저녁 무렵에 갔는지 그곳에서 모깃불을 피우고 있다가 등화관제를 해야 한다고 해서 불을 끄고 일부 사람들은 마을에 있는 매방앗간(소를 이용해 매통을 돌려 방아를 찧는 곳)에 잠을 자러 갔다. 어두운 방앗간을 들어섰는데 갑자기 발에 툭 걸리는 물체가 있었다. 알고 보니 데미가 그곳에 피란을 와서 명석을 돌돌 말고 자고 있었던 것이다.

데미의 어머니는 6·25전쟁이 끝난 후에는 본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쟁 중에 죽은 것 같다. 휴전 이후 데미만 혼자 돌아다녔다고 한다. 소문에 의하면 전쟁 중 흑인에게 몸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후 경안천 주변이 개발되면서 경찰서 뒤편 움막으로 옮겨가 살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감리교회 옆 데미의 집이었다. 당시에는 경찰서장 관사가 용인감리교회 아래쪽에 있었고 뒤에는 통신대가 있었다. 통신대에서 집 없는 데미를 위해 움막을 지어준 것이다. 전기 불도 없는 외딴 움막에서 수십 년을 살았다.

데미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태성중고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마치고 현재 용인 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 유성희 선생님 댁이었다. 집 한 채 없던 그곳에 땅을 사서 집을 짓게 되니 데미와 이웃사촌이 된 것이다. 선생님 댁에 자주 찾아와 밥도 먹고 된장이나 고추장을 얻어가기도 했으며 화장실도 이용했다고 한다.



데미의 집이 있던 자리

정신박약으로 정상인과 같지는 않았지만 옷은 냄새나지 않을 정도로 빨아 입고 다녔고 마음이 착해 남의 물건에 손을 댄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가는 아이들을 불러 사과나 빵을 쥐어주곤 할 정도로 인정이 많았다고 한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단순하여 남의 집 심부름을 하거나 애기를 봐 주거나 빨래를 해주고 밥을 얻어먹든가 수고비로 몇 푼 받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 특히 동네에 잔치가 있거나 상가가 생겼을 땐 귀신 같이 알고 찾아다녔다. 영험이 있었는지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데미였다. 그래서 동네 굿은 일은 도맡아서 했다.

뿐만 아니라 군수 관사(현 거성빌딩 자리)가 데미의 집 가까이 있어서 군수 사모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대가로 관사의 굿은 일도 열심히 했다. 부임해 오는 군수들마다 온전한 집도 없이 사는 데미를 불쌍히 여겨 온정을 베풀었고 데미 역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청소나 빨래와 같은 관사 일을 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1973년 부임한 윤병하 군수의 사모님에게는 무언가 못마땅한 일이 있었는지 어느 날 유성희 선생님 댁을 찾아와 군수 사모님을 향해 온갖 욕설을 해대며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고 한다. 선생님은 그렇게 남에게 욕을 하면 경찰이 붙잡아 간다고 타일렀는데, 당시 데미가 여기저기 얼마나 떠벌리고 다녔는지 지금도 이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윤병하 군수 사모님 사건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인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공직을 그만두고 약국을 운영했던 박청자 씨의 말에 의하면, 어느 날 데미가 작대기를 들고 약국을 찾아와 군수 사모님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평소 불쌍한 마음에 비كم과 같은 비타민이나 바카스, 원비 등의 드링크를 건네주곤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모습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니 무척이나 놀라고 당황했다. 대체 무슨 일냐고 이유를 묻자 사모님에게 돈을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박청자 씨는 그 길로 관사를 찾아가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데미가 맡긴 돈을 은행에 넣으라고 제일약국을 운영하는 전재선 씨에게 부탁했더니 그러더라는 것이다. 여기 저기서 푼돈으로 받은 것이니 얼마 안 되는 액수였겠지만 당시 사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일약국을 찾아가 확인해 보니 전재선 씨가 이미 통장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고 한다. 박청자 씨는 데미가 난리를 치고 있으니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말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다. 돈을 은행에 맡기고 통장을 만들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저금의 개념을 데미가 이해하지 못한 까닭에 일어난 에피소

드였다.

이로 미루어 데미가 워낙 단순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즉흥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던 것 같다. 사람들은 데미를 ‘일기 예보’라고도 불렀는데 한바탕 난리를 피우면 영락없이 비가 왔다고 한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노인들이 날씨가 흐리면 어깨가 쭈신다고 하듯이 데미도 비가 오려면 기분에 이상 징후가 생겨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1980년대 말, 유성희 선생님은 한동안 데미가 보이지 않아 궁금하던 차에 사모님으로부터 몸이 아파 용인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길 들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병원을 찾아가니 2인실 병상에 누워있었다. 데미는 선생님을 보자 “선생님, 나 나올 수 있어?”하고 묻기에 “그럼, 의사 선생님이 주는 약 잘 먹으면 낫지. 얼른 나아서 동네서 봐요.” 하고 돌아왔는데, 그것이 마지막으로 본 데미의 모습이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70세 정도였고, 용인읍에서는 행려병자로 사후 처리를 했다.

7) 마루보시

일제가 이천, 여주 지방의 곡물을 일본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1930년 개통한 수여선 협궤 열차는 1972년, 영동고속도로의 준설과 42번 국도의 정비로 개통한 지 43년 만에 폐쇄되었다. 지금도 용인에는 수여선이 지나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지만 수여선과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일부이다.

수여선이 통과하던 김량장동에도 역이 있었고, 역 주변에는 기차로 탁송되는 화물을 열차 칸에 싣고 내리는 일을 하던 운송회사의 지점이 있었는데, 이곳을 사람들은 마루보시라 불렀다. 마루보시[丸星]는 일제강점기 각 철도 정거장에서 물자운송 및 하역작업을 전문으로 하던 운송회사였다. 당시 정식 명칭은 (주)조선운송이었고 광복 이후 한국운수주식회사라는 국영회사로 바뀌었다가 1962년 한국미창(韓國米倉)과 합병하여 대한통운이 되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쓰던 마루보시란 말이 더 익숙해 수여선이 폐쇄되던 1970년대까지도 그 용어가 더 많이 쓰였다.



마루보시 건물 일부(처인구청 맞은편)



수여선 회화나무(금학천 공영주차장 옆)

마루보시는 거의 모든 역마다 자리를 잡았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던 택배화물 회사였던 셈이다. 1970년대에 와서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만들어졌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도로 사정이 열악했던 상황에서 열차화물 운송업은 그야말로 돈이 되는 사업이었다.

용인역에서 마루보시를 운영하던 사람이 정보성 씨였다. 그는 대한통운 용인지점을 맡아 각종 화물을 열차로 수송하거나 외지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하역하여 창고에 쌓아두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운송된 미곡을 도정하는 방앗간도 함께 경영을 하여 큰돈을 벌어 용인에서는 제일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오성프라자, 시외버스 터미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등이 정보성 씨 소유이며 오성프라자 뒤편에는 마루보시 건물이 일부 남아 있다.

용인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마루보시에는 일하는 사람이 제법 많았다고 한다. 농지가 없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데다가 특별한 직업이나 기술도 없는 오리골 사람들이 그곳에 잡부로 나가 일당을 받고 화물을 싣고 내리는 일을 했다.

현재 오리골에 살면서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는 이영실 씨의 부친도 마루보시에서 일했다고 한다. 화물을 운반하는 일이 워낙 고되고 힘든 일이라서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내복이 어깨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한 번은 아버지가 일하는 마루보시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고 베니다판(합판)을 밟고 2층 창고를 오르는 모습을 보았는데 여간 위험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일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마루보시에 나가지 않을 때는 다른 일을 찾아야 했다.

이제는 수여선도 사라지고 마루보시도, 방앗간도 없어졌다. 수여선 열차에 물을 공급하는데 쓰였다는 늙은 회화나무 한 그루와 무성한 잡풀 속에 목재 건물로 지어진 일본식 창

고 일부만 남아 있다. 한때는 사람들로 바글거렸던 용인역이 흔적조차 없어졌으니 화물 탁송을 할 사람도 받을 사람도 다 없어져 도심 한가운데 덩그러니 세워진 흉물이 되고 말았다. 이 건물도 언제 철거될지 모르겠다. 그저 하나씩 둘씩 없어지고 사라져 갈 뿐이다.

마루보시! 서민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려있는 이 이름조차도 이제는 점점 잊혀 사람들은 그런 말이 있었는지조차 모른다.



의식주 생활 · 3

3.

의식주 생활

3-1 손바느질부터 세탁소까지

1) 의복 제작

지금은 옷을 만들어 입는다는 것이 더 낯설지만 오리골의 중년 여성들에게는 옷을 지어 입는 것이 낯설지 않다. 시장에서 구입한 천을 가지고 치마, 저고리를 직접 만들어 입었는데 본인의 옷뿐만 아니라 시아버지, 시어머니 옷까지 다 지어 입었다. 조운행 씨는 옷감을 만들던 경성방직회사가 영등포에서 모현면으로 이전해 온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옥양목과 광목을 주로 생산했었다.

“옛날에는 한복도 집에서 빨아서 해 입었어. 옛날에는. 다 바느질해서 두드려서. 지금이니까 한복도 안 해 입고 그러지. 지금은 뭐 다 사 입고 맞춰 입고 그러지 누가 해요. 옛날에는 다 했어. 바느질을. 나도 시어머니 두루마기 시아버지 껌 다 해드렸어. 천은 광목으로 만들지. 옛날에 광목밖에 더 있어? 면바지저고리, 광복바지저고리. 그거밖에 없지. 지금이나 이렇게 좋은 게 난거지. 옛날엔 시아버지가 바지저고리 두벌 밖에 없으면 이불 들춰놓고 빨아서 밤에 해서 입혀야지 돼.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디 그래? 지금은 안 그러지. 옛날엔 그렇게 많이 했어. 애들도 다 바지저고리 해 입히고, 꺼멍물 들여서. 광목에다 꺼멍물 들여서.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지금은 다 양복입지 바지저고리 입어? 환갑 때나 그런 때나 입지.”¹¹⁹⁾

119) 한은순(여, 88) 제보

의복 염색에 대한 조운행 씨의 기억은 제대복과 연결된다. 군대에서 제대할 때 제대복을 주는데 오래된 옷에 검정 물을 들인 옷이다. 당시는 염색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몸에 검은 염색물이 빠졌다.

“지금은 못 봤을걸. 개울가에 가서 솔 걸어 놓고 물감타가지고 물들였었어.”¹²⁰⁾

여자들 사이에서 많이 입었던 몸빼바지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것이다. 한복 이후로 처음 입은 개량복으로 활동하기 편했기 때문에 많이 입었다. 몸빼바지를 사 입는 사람도 있었지만 만들어 입는 사람이 많았다. 옷을 사 입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재봉틀을 가진 집이 많았고 대부분의 여자들은 바느질로 옷을 만들 줄 알았다.

2) 의복 관리

오리골 주민 한은순 씨(여, 88)는 젊은 시절에 빨래는 시장을 지나 있는 금학천에서 했다. 금학천에 대해 오리골 주민들은 냇가, 개울이라고 불렀을 뿐 따로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었다. 마을에서 천변까지 거리가 멀지는 않았지만 빨랫감을 가득 담은 자박지(자배기)를 이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었다.

지금은 세제나 빨랫비누들을 사서 쓰지만 과거에는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잿물가루를 사다가 물에 쌀겨와 함께 섞으면 물이 부글거리면서 덩어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적당한 크기로 뭉쳐서 비누를 만들

어 빨래를 했다. 겨울에는 냇가가 얼어버리기 때문에 비교적 덜 얼어붙은 곳을 깨내고 빨래를 하거나 집에서 물을 데워 미리 한 번 뺀 후에 냇가에 가서 행구었다.

이 후 등장한 ‘팔순이’는 동선이 길었던 과거의 빨래방식을 많이 변화시켰다. 탈수만 되



옛날 오리골 사람들의 빨래터였던 금학천

120) 조운행(남, 82) 제보

는 단순한 기계이지만 추운 겨울 물기가 많아 잘 마르지 않던 빨래를 더 빨리 마르게 해주었고 옷을 일일이 짜내야 했던 수고로움을 덜어주었다. 이후 세탁기능이 있는 세탁기가 출시되었는데 대중화가 된 것은 1970년대 후반 정도이다.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가전제품들이 생산될때 마다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오리골 주민들의 생활은 넉넉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전제품의 혜택을 빠르게 누리지는 못하였다.

옷을 다릴 때는 다리미를 사용했다. 초기에는 불씨를 넣어서 사용하는 다리미와 인두를 사용했다. 인두는 작은 쇠붙이로 다리미나 화로 안의 불씨도 정리하거나 옷깃 등 세세한 부분을 다리는 데 사용했다.

3) 목욕

목욕은 몸을 씻는 행위로 화장실이 지금처럼 편리하지 않고 뜨거운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때에는 자주 목욕을 할 수 없었다. 때문에 일 년에 한두 번 명절 즈음에 목욕을 했다. 오리골과 시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비교적 자주 목욕탕을 이용하는 편이었으나 목욕탕에서는 목욕비를 내야했기 때문에 대부분 목욕탕보다는 하천이나 집에서 목욕을 많이 했다. 여름에는 목욕도 금학천에서 했는데 남자아이들은 여자들이 저녁에 목욕을 하러 가면 그걸 훔쳐보러 갔다가 들켜서 혼이 나기도 했다. 밖에서 씻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도 씻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집에서 물을 데워 씻었다. 쇠죽을 끓이는 데 쓰는 큰 솥에 물을 데워서 찬물과 섞어 목욕을 했다.

“때를 밀려면 그 때는 일 년에 한번 오고 마니까. 그때만 해도 수건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밀었는데 그냥 불려가지고 미는거야. 여기 저 우리 학교 댕길 적 보면은 이렇게 코가 옷이 막 다 그럴잖아. 그러면 코가 막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겨울이 되면 막 다 터져.”¹²¹⁾

일제강점기 용인장에는 현재 용인학연구소 자리에 목욕탕이 있었다. 당시 근방에는 목욕탕이 한 개만 있었고 주변에는 일본식 주택이 드문드문 있었다. 지금과 같이 탕이 많이

121) 조운행(남, 82) 제보

있는 것이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으며 때밀이도 없었다. 이 목욕탕은 해방이 된 직후 없어졌다.

“시방 목욕탕이란은 다르지. 온탕이니 냉탕이니 이런 게 없고 하나 뜨듯한 물 하나 있는 거 그거지. 남탕하나 있고 여탕하나 있고.”¹²²⁾

4) 신발

(1) 게다

조운행 씨의 어린 시절은 일제강점기로 당시에는 겨다(게다)라고 불리는 신발을 신었다. 겨다는 나무에다 타이어를 잘라 만든 끈을 일자로 박아서 고정시켰는데 함석을 이용해 고정시켰다. 그러나 이렇게 고정된 게다를 오래 신다보면 그 함석이 튀어나와 함석의 날카로운 부위에 발을 베이는 일이 많았다. 그 때까지도 짚신을 많이 신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짚신을 만들어보는 시간이 있었다. 조운행 씨도 직접 만들어 짚신을 신었다.

“신발이 제일 곤욕스러웠어. 겨울엔 춥고 게다 끈 끊어지면 신지도 못하니까.

겨울에는 발이 시려워두 그냥 다니고 양말짝이라는 것이 없구 버선 신는 사람두 있구 별 사람 다 있었지. 발이 얼으면 안되니까.”¹²³⁾

(2) 고무신

짚신과 게다를 신던 시절이 지나고 해방 후부터는 고무신을 많이 신었다. 고무의 특성상 싸고 오래 신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고무신은 오랫동안 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다. 특별한 날이 아니면 때가 덜 타는 검정고무신을 신고 외출을 나가거나 특별한 날에는 흰색고무신을 신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배급으로 가끔 운동화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그 수가 매우 적어 한 반

122) 조운행(남, 82) 제보

123) 조운행(남, 82) 제보

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임의로 배급을 해주었다. 고무신에서 운동화로 바뀌게 된 것은 집안의 형편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그 시기가 확실하지 않다.

5) 두발 관리

(1) 이발소

남성들은 정기적으로 머리 손질을 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시장 안에 이발소가 여러 군데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남성들의 두발도 규제하여 길이를 짧게 유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머리스타일이 다양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방이 되면서 새로운 문물의 영향을 받으며 머리스타일이 다양해졌다.

이발소는 지금처럼 머리를 감겨주고 이발을 해주었는데 목욕도 일년에 손에 꼽을 정도로 자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로 이발소애나 가야 감을 수 있었다. 자주 감는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감았는데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 이마저도 힘들었다.

주민마다 단골로 다니는 이발소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영재 씨가 자주 다니던 단골이발소는 ‘홍면장’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이발소이다.

(2) 미용실

미장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하길 해방 전에는 기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 자주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해방 이후부터 미장원이 많아졌는데 이전에는 파마도 하지 않고 동백기름을 발라 머리를 정돈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머리를 자르거나 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 처녀는 땡기머리를 하고 결혼하고는 머리를 쪽을 짓는 것이 여성들의 머리모양의 전부라고 할 만큼 비슷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고데’가 들어왔는데 꼬챙이 같은 것을 불에다 담갔다가 그것으로 머리를 마는 방식의 파마였다. 오리골 주민들은 시장에 있는 미장원에 직접 가서 파마를 했지만 시장과 거리가 먼 마을로 고데용품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파마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6) 교복

교복은 학생들이 입는 제복으로 우리나라 교복의 시초는 1886년 이화학당에서 제정된 다홍색의 무명치마였다. 남학생의 교복은 1898년 배재학당에서 착용된 당복으로 검은 양복에 앞자락 단과 소매끝, 바지 좌우의 겹솔기, 제모에 태극을 상직하는 청홍선을 두른 것이었다. 이후 한복으로 구성된 교복이 대중화되었다가 1920년대부터 많은 학교에서 양복을 교복으로 착용하였다. 여름에는 흰색 또는 회색, 겨울에는 검은 목면을 사용하여 스탠드 칼라에 앞단추를 다섯 개 단 형태의 교복을 많이 입었다. 중등학교 학생은 둥근모자, 전문학교 학생은 사방모자를 써서 차등을 나타내었으며 신발은 구두를 신었다. 1940년대에는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여학생도 남학생도 전시복차림을 하였다. 여학생은 여름에는 블라우스에 바지나 ‘몸빼’라고 불리는 작업복 바지를 입었고 겨울에는 재킷에 몸빼를 입었다. 남학생들은 국방색 교복에 각반을 차고 책배낭을 메고 다녔다. 광복 후에는 각 학교 나름대로 하복과 동복의 옷감과 색을 구분하여 착용하였으나 1986년 중학교 교육의 평준화 정책에 모든 학교의 교복이 획일화되었다. 남학생은 겨울에는 검정색 스탠드 칼라, 여름에는 회색 교복을 입고 깎은 머리에 검정색 둥근모자를 썼다. 여학생은 여름에는 흰색 윙칼라블라우스에 감색 또는 검정색 플레어스커트, 겨울에는 감색 또는 검정색 상하의로 통일되었다. 그러다 교복자율화 조치로 1983년부터 1985년까지는 자유복을 입다가 1985년 교복자율화 보완방침이 발표된 후로는 학교별로 개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교복이 착용되고 있다.¹²⁴⁾

오리골에서도 이러한 교복의 흐름을 따랐다. 조충호 씨의 기억에 일제강점기에는 용인 중학교가 지금의 자리가 아닌 전화국자리에 있었으며 교복은 중학교부터 입었는데 일제강점기 시절에 입기 시작했던 까만색 교복을 거의 모든 학교가 같이 입었다. 학교가 다르다고 해도 옷차림은 똑같았던 것이다. 이후 교복자율화로 교복이 바뀌었지만 조충호 씨가 졸업한 이후의 일이다.

7) 양복과 세탁소

세탁소는 돈을 받고 옷을 빨아주고 다림질을 하는 곳으로 양복과 관련성이 깊다.

오리골 주민 조운행 씨에 의하면 양복은 일제강점기부터도 있었는데 그 때까지는 양장

12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교복’항목 참조.

집에 가서 맞춰 입었다. 때문에 양복 만드는 기술자가 많았다. 가격도 매우 비쌌는데 일제강점기 시절에 양복 한 벌이 거의 쌀 한가마니 값이었다. 조운행 씨는 첫 직장에 들어간 24살에 처음으로 서울 종로에서 양복을 맞춰 입었다.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맞추지 못하고 일한 지 몇 달이 지난 뒤에 맞춰 입었다.

용인에 처음 생긴 양복점은 신신양복점이었다. 조충호 씨가 중학교 때 생긴 양복점으로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생겼다. 그 다음에 생긴 양복점은 문화라사로 신신양복점은 문을 닫았지만 문화라사는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고가였던 양복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기성복이 나오면서부터이다. 여러 기성복 회사 중 ‘한국양복총판’은 용인 출신 박승선 씨가 세운 회사이다. 최초의 기성복회사라 칭하기는 어려우나 초기 신사기성복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기성복 최초로 KS표시 허가를 받은 회사였다.

“기성복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박선생이라고 나 담임하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서울 가가지고, 용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서 한국 무슨 뭐 양복인가 뭔가 만들어서 기성복을 전국에 점포를 만들고 내놔는데 그게 최초일 거야. 기성복이 그게 언제나면 1970년대 초.. 아마 한국총판이라는게 기성복이 최초일 거야. 용인 사람 박모씨야.”¹²⁵⁾

세탁소는 양복을 입기 시작하면서 물빨래를 할 수 없었던 양복의 세탁을 위해 생겨났다. 지금은 한복이나 다른 소재들의 옷도 세탁소에서 세탁을 하지만 당시에는 한복 같은 것은 빨아 입고 양복만 세탁소에 맡겼다. 또한 요새는 수시로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소를 이용하지만 당시에는 세탁비용도 비쌌기 때문에 1년에 1번 정도만 세탁을 했다. 물빨래를 하면 옷이 망가지기 때문에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입었다.

세탁소는 양복의 기성복화로 운영이 어려워진 맞춤양복 제작 기술자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림질이나 양복을 다루어본 기술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세탁소를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에 남아있는 ‘기동차세탁소’도 신신양복점에 양복을 만들던 기동찬 씨가 양복점을 나오면서 연 세탁소로 조충호 씨의 기억에 현재 시장에 남아있는 세탁소 중 가장 오래된 세탁소이다.

125) 조운행(남, 82) 제보



기동차세탁소

“시장의 ‘기동차세탁소’라고 오래 됐어. 원래 이름은 기동찬인데 ‘ㄴ’자를 빼고 기동차세탁소라고 했어. 그 사람이 신신양복점에서 양복을 만들던 기술자였어. 한국양복총판 저 기성복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맞춤복이 죽으니까 세탁소를 차린거야. 기동차보다 일찍이 세탁소 생긴 게 백마세탁소. 백마세탁소라고 그 양반이 이북사람인데 그 양반도 양복점 가공하다가 안 되니까 일찌감치 백마세탁소를 시작한거야. 전부 양복점들이 한거야. 양복을 알고 다뤄보고 했으니까. 양복 만들면서 아이롱(다림질)을 해보니깐 그게 다 있거든 양복 다루는 기술이.”¹²⁶⁾

3-2 시장과 함께한 오리골의 식생활

1) 용인장

시장은 생활에 필요한 많은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마을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공간이다. 용인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오리골 사람들에게 시장은 물품거래뿐만 아니라 생업의 공간으로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126) 조충호(남, 67) 제보

(1) 용인장의 옛 모습

지금도 5, 10, 15, 20, 25, 30일에는 용인전통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상인들이 천막을 치고 평소보다 더 큰 규모의 장이 열리고 있지만 현재의 용인장은 상설장의 성격이 더 크다. 오리골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용인장은 과거보다 그 규모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용인장은 구 경찰서 근처로 지금도 시장에서 큰 골목 역할을 하는 곳에서만 열렸다. 장날이 아닌 때에는 시장골목 안쪽에 지금의 크로바슈퍼 자리에 있었던 싸전이라고 부르는 쌀 창고가 있었는데 이 자리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 때는 시장에 곡물이 많이 나왔어. 곡물시장이었었어 원래는. 원래 공터가 곡물시장 이었고 그 이후에 집이 지어진거여.”¹²⁷⁾

과거 용인장은 수원과 성남의 상인들이 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들일 정도로 장사가 잘되는 시장이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5일장이었는데 중심이 되는 시장골목에는 용인의 상인들이 많았고 천변 시장에는 외부 상인들이 많았다.

오리골 노인회장인 이영재 씨가 처음 용인에 온 1980년대만 해도 인구가 4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용인에서 가장 큰 장이라고 해도 지금보다 시장의 규모는 작았다.

시장에 가게들이 들어선 것은 6·25전쟁 이후부터이다. 옛날에는 장날이 아니면 잡화가 게만 문을 열 뿐 다른 가게들은 없었다. 정미소 같이 가게집을 가지고 하는 곳은 항상 열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 사는 집만 있었다. 마을 주변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조운행 씨의 기억에 중심 되는 골목 이외에는 일본식 가옥 등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섞여 있었다.

용인에서 꼽히는 장이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서도 장을 보기 위해서 용인장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다.

“유방리에서도 장보러는 이 동네로 왔어.

버스로 20분 걸리는데. 옛날에는 걸어 다녔어. (거리가) 십리거든. 그래도 걸어 댕겼어.

127) 조운행(남, 82) 제보

그 전에 난 유방리에서 모현리로 시집갔는데 거기도 걸어 댕겼는데. 삼십리를. 거기서 용인시장 올려면은 삼십리를 걸어와야 돼.

옛날부터 서는 장이라 아주 컸어. 지금은 장날 아니래도 스는데 옛날에는 장날만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 시골할머니들도 오늘날만 나가도 많구.”¹²⁸⁾

지금은 개천가를 따라 길게 시장이 열린다. 과거에는 위쪽으론 없었으나 점점 확장되어서 주공아파트 앞에까지 시장이 이어진다.

(2) 양조장

용인장에는 양조장이 있었는데 현 우리은행 자리에 ‘해동양조장’이 있었다. 용인의 중심 부라 불리는 시절에 운영되던 양조장이었기 때문에 현 우리은행 건물보다 크면 컸지 작진 않을 정도로 큰 규모였다.

“우리은행자리가 옛날 양조장이야. 막걸리공장 양조장. 내가 이집에 입사를 67년도에 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 당시 여기에 입사하기 전에 그전에 내가 어디를 냈냐하면은 성 빈센트병원 원무과에 신청을 했었어. 근무할려고. 그런데 이 양조장 주인의 동생이 나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가 사람을 구하는데 너 그러지 말구 우리 형한테 와서 있으면 안 되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월급을 많이 타도 차비 빼고 하니깐 이게 더 나은거여. 그래서 나 여기 들어가겠다. 그래서 여기를 입사를 한거여. 67년도에. 그 당시에 우리도 잘 사는 것 아니었지.”¹²⁹⁾

양조장에서는 막걸리와 약주를 팔았다. 술 종류는 정종, 소주 등이 있었는데 삼학소주가 유명했다.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었다. 정종은 땃병으로 팔았다. 제사지낼 때 있는 사람들은 정종을 썼지만 형편이 안 되는 집은 막걸리로 제사를 지냈다. 막걸리는 뒷박에 20~30원이고 정종은 1000원이 넘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넉넉한 집안에서만 정종으로 제사를 지냈다.

128) 원정순(여, 80) 제보

129) 김재식(남, 74) 제보

술을 1말 이상 사면 배달을 해주기도 했지만 1말 이하인 경우에는 주전자나 병 같이 술을 담아 갈 수 있는 용기를 직접 가지고 왔다. 막걸리를 큰 술통에서 퍼주었기 때문에 양을 딱딱 맞춰 주는 것이 아니라 덩을 많이 줬다. 한 뒷박을 사고 반 뒷박을 덩으로 주기도 했다. 배달하는 사람은 배달한 술통 개수대로 급료를 주었다. 배달 나갈 때 전표에 배달하는 사람을 표시해서 하루 일이 끝날 때마다 집계를 해서 한 달치 일한 것을 한 번에 지급했다.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멀리까지 배달을 했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가지고 배달했다. 술집들에서도 양조장에서 술을 시켰기 때문에 주로 배달을 가는 집들은 술집인 경우가 많았다.

“내가 운전면허를 7년도에 났거든 운전면허를 7년도에 내가지고 양조장 배달차가 있어. 배달차 운전을 했다고 내가 직접. 술을 실어 나르고. 아침에 내가 4시 반에 출근을 한 거여. 4시 반에 출근을 해서 양조장에 가서 술을 담고 술을 싣고 나가는거여. 나가는 데 어디를 가느냐. 상거리를 먼저가. 상가동 지금 현재 상가동. 상가동에서 한 바퀴 빙 돌고 오면 거의 한 30~40분이 걸려. 그리고 다시 양조장에 와서 또 술을 그만큼 싣고 다시 인저 어디로 가느냐. 유방리를 통해서 포곡으로 해서 전대리로 해서 아주 그 위까지 배달을 했어. 그게 다 없어서 옛날에 군데군데 농사짓느라고 군데군데 그 위에까지 가서 배달을 해서 술을 주고 와서 전대리, 전대리 와서 또 주고 포곡서 주고 가다가 죽 내려주고 그러고 올 때는 계속 싣고 오는거야. 빈통. 하얀 거 있잖아. 하얀 거. 드는 거. 그전에는 뭐가 있었느냐면은 나무통이 있었던 말이야. 술통이. 근데 그게 고 후에 나왔어.”¹³⁰⁾

“(양조장에) 배달하는 사람이 있었어. 통으로 술집에는 배달해 줬어. 통으로 자전거에 달아가지고 배달하는 사람이 있었어. 술집에 부어주고 술독을 묻어놓고 했었거든. 무슨 옥이니 무슨 집이니 그런 거 있잖아. 그런데 가면은 땅에 묻어 놓은데 있고 곁에 놔둔데 있고 그래. 가정집에서는 큰 일 있을 때는 배달시키고.”¹³¹⁾

130) 김재식(남, 74) 제보

131) 이영재(남, 73) 제보

(3) 정미소

현재 시장 주차장 자리와 처인구청 앞 용인도시공사 옆 빈 땅에도 정미소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시장 변두리에 정미소가 있었던 것이다. 인디안 옷집 뒤부터 삼성방앗간까지 정미소였다. 두 정미소 주인은 한 사람이었다. 시장 주차장 자리에 있었던 정미소는 대규모로 운영되는 곳으로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아니고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기업처럼 운영되는 정미소였다.

“정미소는 어디냐면은 시장가면은 주차장 가봤어? 건물로 지어진.. 그 건물자리가 정미소여. 거기 엄청 컷지. 용인서 유명한 양반이여. 정미소사장, 양조장사장, 그 사람들이 기관장에 포함된 거여. 옛날에. 엄청 큰 정미소여. 거기도 정미소고 여기는 어디쯤이나. 지금 구청 바로 맞은편에 저기가 있어 지방공사, 그전에 지방공사고 지역공사. 지역공사 바로 옆에 지금 빈 땅이 있어. 거기도 정미소여. 이 양반이 두 개를 다 했던거야. 어휴 엄청 커. 말도 못 하게 커.

그래서 그 양반은 시장에다 파는 정미소가 아니여. 대대적으로 저런 차때기로 나가. 엄청 커. 아주 대규모로 하는데야.”¹³²⁾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았던 시절에는 정미소와 양조장이 지역별로 있었다. 양조장은 백암, 양지, 용인, 이동, 남사, 모현, 신갈, 수지에 한 군데씩 8개가 있었는데 용인, 원삼, 백암에 남아있고 나머지 5개는 합쳐서 금어리에 있다. 합동양조장이라 부른다. 이동, 남사, 양지, 모현, 신갈의 양조장을 합쳐서 만든 것이다.

(4) 다방

용인장에 처음으로 생긴 다방은 1950년대 후반에 현 용인학연구소 자리에 있던 버스터미널 옆에 생긴 ‘송림다방’이며 그 이후에 현재 제일약국 자리에 두 번째로 ‘화원다방’이 생겼다. 해방 이후 커피가 보급되었지만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조운행 씨의 경우 군대에서 미군이 두고 간 야전식량 속에 들어있는 커피를 처음으로 먹어보았다.

132) 김재식(남, 74) 제보

“용인의 역사를 더듬다 보면 송림다방은 안 잊어 먹지. 송림다방을 떠올리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방이 화원다방. 그 이후는 한참 후에 생겼으니까. 최초다방을 송림다방하고 화원다방. 용인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송림다방을 알아야 해. 지금 65세 이상 70대 사람들은 송림다방 하면 “어~”하고 알아야지. 송림다방 모르면 외지 사람이야. 다방 문화가 그때는 가오마담이 다 한복 입었어. 가오마담이 이빠야 돼.”¹³³⁾

다방에서는 위티, 홍차, 커피, 국산차 등을 팔았다. 주로 커피를 많이 마셨고 쌍화차가 더 고급이었다. 마담들이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쌍화차를 시키는 것을 더 좋아했다. 위티는 위스키를 작은 잔에 한 잔씩 파는 것으로 막걸리, 소주를 주로 마셨던 당시에 위스키 같은 외국술은 다방에서나 마실 수 있었다. 다방에 있는 마담을 ‘가오마담’이라고 불렀는데 마담이 예쁘고 수단이 좋아야 다방 매상이 좋았다. 다방 주인은 따로 있고 가오마담 밑에는 ‘레지’라고 불리는 아가씨들이 있었다.

커피는 배달도 가능했는데 배달을 시켜도 커피가격은 같았다. 모닝커피를 많이 시켜먹었는데 일반 커피와 달리 모닝커피는 날달걀을 함께 주었다. 커피는 프림이 들어가는 커피도 있었고 블랙커피도 있었다.

“(다방은) 내가 55년도에 제대하고 나니깐 여기 딱 한군데가 생겼더라고 경찰서 앞에. 다방이라고 생겼길래 딱 가보니까. 손님도 한 두사람인가 밖에 없고 누가 오지도 않고 그랬어. 그러나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다방에 손님이 하나 둘씩 생기는거야. 다방에서 파는 거는 커피 주로 커피여. 쌍화차 이런 것도 다 있었는데 비싸. 그 때 커피는 몇십원 했어. 내가 1970년도에 커피 한잔에 100원 줬으니까. 1960년 말만 해도 다방이 활성화가 돼서 다방 마담들이 한복입고 했는데. 그 때만 해도 여기 용인에 집을 지으면 지하실이 하나 생겨. 지하실이 생기면 그게 다방이야. 다. 요 시내가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에 한 (다방이) 60군데 있었다는데 다 가보지는 못했어. 가는 데만 가고.”¹³⁴⁾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까지 시장에 다시 건물을 짓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지은 것도 다방의 개수가 늘어나는 데 한 몫을 했다.

133) 조충호(남, 67) 제보
134) 조운행(남, 82) 제보

다방문화가 생긴 초기에는 넉넉한 집 남자들의 사교장소로 다방이 쓰였지만 후에 다방의 수가 늘어나면서부터는 맞선을 보는 장소로 변화하게 되었다. DJ가 있는 다방은 1970년대 즈음으로 처음 다방이 생기고 한참 뒤의 일이다.

(5) 버스터미널과 극장

용인장에는 일찍이부터 극장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때 공회당으로 쓰이던 건물에 영사기를 들여놓고 극장으로 만들었다. 먹고살기도 어려운 시절 어린아이들은 극장에 들어갈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몰래 들어갈 방법을 궁리했다. 조충호 씨는 어린시절 극장구경을 하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재래식 화장실의 인분을 퍼내는 곳을 통해 화장실 구멍 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때 인분이 쌓여있는 곳에 발판이 될 만한 것을 두고 기어 올라갔다. 나중에는 극장 사람들이 이 방법을 알아서 지키고 서 있다가 다시 끌어내곤 했다. 이 때 당시에는 김지미, 최은희, 황해, 박노식이 유명했다. 전쟁영화들이 많았는데 ‘돌아오지 않는 해병’, ‘빨간 마후라’, ‘춘향전’ 등의 영화들이 기억난다.

용인장에는 버스터미널도 많이 있었다. 지금과 같이 운수회사들이 한 곳에 모여 종합버스터미널을 만들기 전에는 운수회사별로 버스터미널이 달랐다.

버스터미널은 자리를 여러 번 옮겼다. 우리은행 바로 밑, 용인학연구소 건물 앞쪽으로 도 버스터미널이 있었다. 당시에는 운수회사별로 터미널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 개의 터미널이 존재했다.

용인학연구소 자리는 평화버스 터미널이었는데 ‘평화28호’라고 불리는 버스가 수원과 용인을 오고갔다. 프로스펙스 자리에는 중앙여객 터미널이 있었다. 현재 외환은행 자리에 있던 버스터미널이 제일 큰 버스터미널로 경남여객에서 운영하는 터미널이었다. 동부고속터미널은 현재 대성빌딩이 있는 자리에 있었다. 이후에는 현재위치에 종합버스터미널이 생기면서 주변에 있던 운수회사들의 터미널이 통합되었다.

2) 장 담그기

장을 담그는 날은 정월의 말날 담근다. 마을에서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목진남 씨는 장 담그는 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닷새날 담그면 달고 뭐 엿새날에는 엿 같고... 뭐 옛날에 내려오는 전통말이지. 고추장도 이런 식이야. 이젠 기억도 잘 안 나네. 이레날은 담그면 왜 이러지 장맛이. 맛이 없단 얘가지.”¹³⁵⁾

박옥자 씨도 옛날 어른들이 말날 담그면 장맛이 좋다고 해서 말날을 찾아 담그고 있다. 말날은 달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날을 잡으며 정월에 말날이면 어느 때나 담가도 된다. 장을 담글 때는 소금물을 만드는데 간을 맞출 때는 날달걀을 물에 띄워서 500원짜리 동전만큼 달걀이 뜨면 간이 맞는 것이다. 장독에 씻어서 말린 메주를 넣고 소금물을 가리얏힌 후 깨끗한 부분을 독에 부으면 된다. 고추와 숯, 대추, 깨 등을 넣고 기다리면 된다.

“메주를 씻어가지고 말라가지고 메주를 항아리 안에 이어. 이어 놓고 소금물을 가라 얹아. 깨끗하게 가라 얹혀가지고 퍼부으면 되는거야. 고추도 넣고. 메주는 주인공이고 숯, 참 숯, 대추, 깨. 그래 넣는거야.”¹³⁶⁾

장의 간은 장을 담그는 시기마다 달라지기도 했다. 장을 담글 때 날씨가 따뜻하면 장의 변질을 막기 위해 소금을 더 많이 넣고 날씨가 선선하면 소금을 덜 넣어도 된다. 장이 잘 담가져 익어 가면 장 위에 하얀 곰팡이가 앉는데 이것을 ‘바우옷(바위옷)을 입었다’고 하거나 ‘꽃이 피었다’고 표현했다.

“간장은 소금을 요렇게 되박에.. 일찍 담그면 서되만 하면 늦게 담그면 다섯되 붓고 되 박으로다. 일찍 담그면 날이 선선하니까 소금을 덜 먹잖아. 늦게 담그면 날이 뜨거우니까 간장이 부글부글 끓거든. 일찍 담그면 간장이 익으면 맛있잖아. 잘 안 익으면 못 먹어. 써서. 냄새나구. 잘 뜨고 익을 적에 노랗게 올라나 가지고선 거가서 이렇게 꽃이 입어. 하얗게 꽃이 퍼. 바웃돌에 있는 그런 것처럼. 그러면 “바우옷을 입었네. 꽃폈네.” 그래. 할머니들이.”¹³⁷⁾

이전에는 직접 콩을 가지고 메주를 만들었지만 요새는 메주를 사다가 만드는 경우가 많다.

135) 목진남(여, 67) 제보
136) 박옥자(여, 74) 제보
137) 한은순(여, 88) 제보

“메주 저기 사가지고. 집에서 쑤기가 힘드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럼 소금물 풀어. 소금비율은 메주 한말 쏘면 소금 양지기로 5개 썩 그럼 돼. 한 바깥스에 다섯 양지기가 부으면 간이 맞아. 물 한 바깥스에 소금 다섯 개씩.

(메주는 주로 어디서 사세요?)

많어. 시골에 시골에 얘기하면. 시장에도 많이 팔지만 속을까봐. 대게 파는 이는 고구마 넣고 많이 썬. 그러니까 콩만 넣고 쏘면 거 살래면 아는 이한테 사야지. 또 수입콩으로 쏘면 거 있고, 그게 더 많아. 콩농사 짓는 이한테 쏘면 거 사는 거지.”¹³⁸⁾

(1) 고추장

고추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춧가루와 물엿, 메줏가루 등이 필요한데 찹쌀가루를 엿기름에 개어두었다가 삭은 뒤에 끓여서 고추장을 만들면 좋다. 찹쌀가루는 고추장 담그기 전날에 개어두었다가 아침에 끓여서 한 김 식힌 후에 고춧가루, 물엿, 메줏가루를 섞어서 고추장을 만든다. 이전에는 찹쌀로 개떡을 만들어 물에 삶은 뒤 고추장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든 찹쌀개떡을 풀기가 어려웠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맛은 더 좋았다.

“그전에 찹쌀로 떡을 해가지고 하면은 엉키는데 얼마나 힘든데 아휴 말도 못해 반대기 쳐가지고 삶아서 그거 푸는데 팔 아퍼.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아이구 고추장 담그는데 딸내미 팔 떨어지겠다 그랬다니까. 찹쌀로 개떡을 요만큼 해 가지고 물에다 삶어 그걸. 그래가지고 그걸 풀어서 고추장을 담갔어. 아휴 근데 그거 힘들어.”¹³⁹⁾

고추장을 만들 때 찹쌀가루 대신 보릿가루를 이용하기도 했다. 찹쌀이 비쌌던 과거에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재배하기도 용이한 보리를 대신 이용한 것이다.

“고추장은 보리쌀을 도르르르 타서 인저 썬. 물에 씻어서 담궜다가. 찹쌀로도 하고 보리쌀로 하고. 그걸 띄워가지고 버무리지. 띄우는 거는 보제기 덮어서 따뜻한데다 뒤서 띄우면 진이 죽죽 나와. 그걸 쏟아가지고 버무리. 그래서 담궜놓으면 맛있지. 메주가루하

138) 원정순(여, 80) 제보
139) 원정순(여, 80) 제보

고 고춧가루하구. 메주는 고추장 만들 때 따로 만들지. 뒀다가 뺏아서 해도 되구 메주콩 띄워가지고 해두 되고. 장메주를 쪼개서 잘 말려 그래가지고 뺏아가지고 써.”¹⁴⁰⁾

3) 김장

김장은 겨우내 먹을 김치를 담그는 일로 입동을 전후해서 담갔다. 김장 때 담그는 김치 종류는 배추김치, 열무김치, 깍두기김치, 동치미, 겉절이 등 다양한데 한은순 씨가 김치를 부르는 명칭이 달랐다. 배추김치는 속배기, 열무김치는 달랭이, 동치미는 싱건지, 겉절이는 마구김치 등으로 불렀다.

지금은 김장을 담그기 위해 여러 집이 모이거나 하지는 않는다. 담그는 김치양도 적어지고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 함께 담그는 경우는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모여서 담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요새는 거의 배추김치만 담그고 다른 김치들은 그때그때 조금씩 담가먹는 경우가 많다.

“김장김치는 달랭이도 하구. 달랭이는 무 달랭이 요만큼 썩 해가지고 잎사귀 채 절꺾다가 양념해서 버무려. 짭조름 하게 버무리서 항아리에 넣지. 새우젓 젓국 좀 넣구 버무리 넣는 이도 있구 비린내 난다고 안 넣는 이도 있구 그려. 소금만 넣구. 마늘, 파만 많이 넣고. 그리고 싱건지. 무로다가 하얀김치 담그는 거. 짬김치는 무로다가 짭조름 하게 해서 항아리에 위에다 꼭 눌러 두면 그게 아주 꼬독꼬독 한 게 봄에 먹으면 맛있잖아. 아작아작 한 게. 짬김치. 이름도 잘 지었어. 옛날 할머니들이. 짬김치. 싱건지, 속배기, 깍대기 그렇게 담그잖아. 깍대기, 무 빨갈게 버무리면 깍대기. 속배기는 속 넣어서 하는 김치. 동치미는 무 씻어서 하얀 김치 담그는거. 봄에 먹는 거는 짬김치. 무 넣고 소금 넣고 꼭 눌러놔다가 봄에 쪼글쪼글 해지면 썰어서 물 부어서 먹어. 겨울에는 동치미, 봄에는 짬김치. 고춧가루 넣는 거는 속배기, 칼로 썰어서 마구김치 그러는거여. 썰어서 하는 게 마구김치. 막김치. 배추를 썰어서 막 버무리면 막김치. 뒀다 먹는 거는 항아리에 넣구. 소금김치는 배추 소금에 절였다가 씻어 먹는 거.”¹⁴¹⁾

140) 한은순(여, 88) 제보

141) 한은순(여, 88) 제보

김장용 배추와 다른 채소들은 구입하기도 하지만 직접 재배하기도 하는데 밭에서 재배하기도 하지만 화분을 이용해 기르는 주민들도 있다.



마을 한쪽에 자리한 텃밭



화분에서 고추를 키우는 한은순 씨



화분에서 자라는 김장채소들

4) 우물

우물은 시장에서 한은순 씨 택으로 올라오는 길 중간에 있었다. 한은순 씨의 경우 집에서 큰 길 너머 산 쪽으로 우물이 있었지만 주로 집에서 더 가까운 시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우물을 이용했다. 물 양이 넉넉한 편이어서 아침 일찍 갈 필요는 없었다. 물동이도 이용했지만 물이 많이 필요하면 물지게를 이용해서 물을 날랐다. 김재식 씨의 경우에는 우물이 집 안에도 있어서 이용하기가 편리했다.



한은순 씨가 이용하던 우물자리.
지금은 건물이 들어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우물은 저 밑에 냇구 있지. 고 밑에. 이런 바가지 우물. 퍼 먹는 거. 저 밑에 자디잔 나무 있잖어. 거기에 도랑이 있었어. 우물 큰 거 있고. 그물 있으면 참 좋은데. 저 아래 사람들이 그 우물을 먹었지. 옛날에는 바가지 우물 저 너머 또 있어. 절 밑에. 거기서 퍼다 여다 먹었어. 지게로 저다 먹고 여다 먹고. 그런데 땀지 인제 집에서. 요 물이 좋아. 맛있어. 저 너머 물도 그렇고 저 너머는 지금도 있어. 절 올라가는데. 물이 좋아.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다 잘 했지. 할아버지는 안 퍼와 할아버지는 회사에 나가기도 바쁘고. 전매국에

다니셨거든. 그런 거 안 하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추울 때는 어쩌다 할아버지가 저다
줘.”¹⁴²⁾

또 다른 우물은 조충호 씨 댁에서 조금 위쪽에 있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신변영이발관’ 앞으로 시멘트로 동그랗게 막아둔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우물 옆으로는 도랑이 흘렀는데 빨래를 하거나 할 정도로 큰 도랑은 아니었다. 아랫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 하나를 사용할 정도로 물이 많고 물맛이 좋았다.

“빨래는 공동우물이 하나 둘, 이 동네도 여기 하나있었고 저 위에 하나 있었어요. 공동 우물터에 가서 물 떠다 빨래하고 그랬어. 공동우물이 두 개 있었어. 요 이발소 앞이 우물자리 거든. 지금도 우물자리 뚜껑을 열어보면 우물이 나와. 거기를 내가 여름이면 한 번씩 들어가 내가 들어가서 우물을 쳐(치워). 그때는 우물이 참 깨끗했어. 옛날엔 오염될 게 없잖아. 산 넘어가서 도랑에 가서 가재를 잡으면 가재도 우물에 넣으면 다 살아있어. 옛날에 명지대 앞에 도랑이 있어. 거기에 가재가 많았어. 돌만 들추면 가재야.”¹⁴³⁾



마을에 있던 두레박우물. 현재는 시멘트로 입구를 막아 놓았다.

142) 한은순(여, 88) 제보

143) 조충호(남, 67) 제보

5) 음식조리와 연료변화

아궁이를 때던 시절은 나무를 해다가 난방과 조리를 해결했다. 아궁이 하나가 산 하나를 잡아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나무를 때던 시절에는 산이 민둥산이 될 정도로 자주 나무를 해와야 했고 한은순 씨도 나무를 매일 하러 갔었다.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더욱 자주 가야 했다. 겨울에는 길이 미끄러워 나무를 운반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무거운 걸 지기 때문에 춥지 않다는 점에서 여름보다 일하기가 좋았다. 해오는 나무는 도끼가 아닌 낫을 이용할 정도의 작은 나무들이었다. 너도나도 나무를 해갔기 때문에 크고 두꺼운 나무는 거의 없었다.

나무하러가던 동네는 동지니, 득골, 까막솔밭 등이 있다. 현재 명지대 근방으로 나무를 하러 가장 자주 가던 곳이다. 동지니 너머에 득골이 있었다. 마을에서 8~10km는 가야 나무를 구해올 수 있었는데 마을 주변 산들의 경우 산 임자가 나무를 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산주인이 잘 관리하지 않는 적산에 가야 나무를 해 올 수 있었다. 나무를 해 와야 취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멀리라도 가서 나무를 해와야 했다.

아궁이에는 물 끓이는 큰 솥을 걸고 조금 더 작은 밥하는 솥 하고 솥을 세 개 걸어서 사용했다.

“낭구도 여다 때고 그랬지. ‘동지니’라는 데 가면.. 거기가 낭구하는데여. 산고개여 저 꼭대기 산고개. 거기 가면 힘들어 아주 거기 가서 낭구 해서 이고 오면 땀이 쥘 흘려. 아우 지겨워.

(동지니가 배르기 있는데예요?)

응. 배르기에서 글로 가야지. 동지니, 덕불 그려. 그런데로 땡기며 낭구도 여다가 또 뒷곁에다 이렇게 싸여. 재미가 나서. 힘든 것도 몰려. 보따리로 해가지고 이고 와가지고는 뒷곁에다 쌓거든. 그런데 모이는 게 재미나잖아. 그러면 또 가고 또 가고, 모여서 쌓여 있는걸 보면 재미가 나가지고 더 잘해.”¹⁴⁴⁾

용인장에는 나무를 해다가 파는 ‘나무장’이 열렸다. 땀감으로 쓸 나무들을 직접 하기 힘든 사람들이 시장에 와 땀감을 구입해 갔다.

144) 한은순(여, 88) 제보

“그 당시에는 나무를 해다가 새벽에 와서 파는 사람이 많았어.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은 초등학교 들어가는 골목에서 나무전을 했어. 나무지게, 마차로 실어왔어. 초등학교 들어가는 골목이랑 순대골목 사이에서 나무전을 했어. 아침에 일찍 식전에 나와서 나무사고 그랬어.”¹⁴⁵⁾

어린이들도 땀 나무를 구해오는 데 예외일 수 없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나무들이 두껍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나무를 해올 수 있었다.

“학교 갔다 와서는 나무 한 짐을 해 와야 돼.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할 새가 없이 가방 놓고 ‘같이 하러 가자’ 해가지고 나무 한집 해왔어. 옛날에 그게 땀감인데 어떻게. 뭐 우리 옛날에 애들이 다 가난한 애들이 부모님 도와주는 거야. 그게. 일요일날은 아침에 가서 또 나무를 한 짐 해 오는 거야. 일요일 날은 잔뜩 한 짐 해오지. 그래서 일요일날은 아침부터 나무해오라고 난리지.

(나무를 하려는 어디까지 가셨어요?)

나무는 여기서 한 20리 가지. 명지대 넘어서 가. 10km정도 가야 돼. 근처에는 나무가 없어. 서로 나무를 하니까. 지금은 나무가 흔해 빠지잖아. 10km정도 가서 나무를 해오고”¹⁴⁶⁾

나무를 해오기도 힘들고 나무를 사기도 힘들게 살던 사람들은 방앗간에서 왕겨를 사다가 연료로 사용했다. 장사 같은 일을 하다 보니 나무를 하러갈 시간은 없으나 땀 나무를 살 만큼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왕겨를 사다 사용한 것이다.

“나는 그때 왕겨같은거 사다 땀어. 왕겨는 방앗간에 가서 사왔어. 그게 싸니까”¹⁴⁷⁾

연탄이 보급되면서 나무를 해오지 않아도 되었다. 그 때 조충호 씨(남, 67)의 나이가 열댓살이었다. 연탄은 시장에 있는 연탄가게에서 구입했는데 배달을 시켜도 가격차이는 없었다.

145) 이영재(남, 73) 제보
146) 조충호(남, 67) 제보
147) 이영재(남, 73) 제보

“연탄을 사러 가면 그 때는 한 두장씩 사면 인제 새끼줄에다 끼워가지고 다녔어. 새끼매듭을 지으면 이렇게 끼면 될 꺼 아니야.”¹⁴⁸⁾

음식조리와 난방 모두 연탄을 사용했다. 연탄위에 물을 올려두면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 물로 세수도 하고 몸을 씻었다.

연탄은 더 이상 산에 가서 나무를 구해오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주었지만 연탄가스 중독이라는 위험한 상황을 불러오기도 했다. 김재식 씨의 어머니는 연탄가스 때문에 돌아가셨다. 양조장 옆에서 슈퍼를 운영하셨는데 어느 날 슈퍼 문을 열 시간이 지나도 문이 닫혀 있어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어머니가 누워 계셨다. 그래서 둘째 동생을 불러서 문을 들어 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연탄가스 냄새가 나서 그게 문제였던 것을 알게 되었다. 급히 어머니를 업고 현재 ‘동경구락부’라는 가게가 있는 자리 맞은편에 있던 대동병원에 갔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

“입사를 하고 보니까 양조장 한 귀퉁이에 구멍가게가 있었어. 근데 어머니가 그 구멍가게를 판다니까 나 좀 사줘라 해서 그걸 샀어. 그리고 몇 년을 장사를 하다가 여름에 비가 오는데 비가 오니까 이 양반이 연탄을 핀거여. 연탄을 피던 자리데 비가 오고 하니까 연탄을 핀거야. 어머니 돌아가신 게.”¹⁴⁹⁾

이후 석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면서부터 음식조리에 가스레인을 사용하는 집들이 생겨났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전까지 가스통을 사다가 사용했다. 가스가 보급된 때에도 계속 연탄을 사용하는 집들이 많았다. 연탄을 석유보일러나 가스로 교체하는 데 120만원이 들기 때문에 돈이 없는 집에서는 하지 못했다.

6) 명절음식과 잔치음식

먹고살기도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즐거운 일들이 생기면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려고 했다. 한은순 씨는 딸을 연달아 4명 낳고 아들을 둘 낳았기 때문에 첫 아들을 낳았

148) 이영재(남, 73) 제보
149) 김재식(남, 74) 제보

을 때 아주 기뻐다. 이러한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마을사람들과 함께 국수잔치를 했다.

“국수잔치 하면은 김치도 해구 속배기김치도 해구 물김치도 한 항아리 해구. 국수는 가
마솔에도 삶구 양은솔에도 삶구. 요새는 손님이 많으면 가마솔에 국수 한관 삶구. (국수
를) 큰 광으로 너댓개씩 삶지.”¹⁵⁰⁾

명절에는 각 명절에 맞는 음식과 함께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만들었다. 설날에는 떡
국을 끓이고 추석 때는 송편을 만들었는데 쌀가루를 구하기 힘들 때는 당시 많이 재배했
던 감자를 발효시켜 녹말을 만들어 송편을 만들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인들이
쌀을 공출해갔기 때문에 쌀이 없어 설날에도 떡국을 끓여 먹기 힘들었다. 쌀을 조금 감추
어 두었다가 집에서 절구를 가지고 만들어 먹는 집들은 사정이 나은 편이고 다른 집들은
먹고 살기도 급했기 때문에 명절에 따로 음식을 해먹기 어려웠다.

명절에는 흰 떡하지. 하얀 가래떡. 그거 해가지고 꾸둑꾸둑 하면 칼로 썰어서 떡국 끓이
고, 썰어 놔다가 명일날 끓여서 지사지내고 먹구. 그러는 거여. 두부 부치고 누리미 부
치고, 갈랍하고, 갈랍은 요마냥게 부치는 전이여.

추석 때도 부치고, 송편하구. 송편 만들어서 찌가지고, 속은 팔. 맏돌에다 도르르르 타가
지고 물에 담궜다가 껍데기 죄 까서 행귀 내뿜고, 솔에다 우르르 끓여가지고 폭 뜸들여.
그거 인제 하얗게 뽕아가지고 손갈로 속에 넣지. 팔도 넣고 콩도 넣고, 깨는 볶아가지고
설탕 조금 넣구 소금 조금 넣고 콕콕 찌여가지고 손갈로 송편에다 요렇게 넣지.”¹⁵¹⁾

10월 고사나 집집마다 하는 비정기적인 고사들도 많이 지냈으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 서서히 사라졌다. 고사떡은 동네사람들과 함께 나눠먹는 것이었기 때문에 형편이 나
은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다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이 하고 형편이 좋지 못하면 주변
이웃들끼리 나눠먹을 정도만 했다.

150) 한은순(여, 88) 제보

151) 한은순(여, 88) 제보

“팔시루떡을 하는데 거기에 찹쌀두 들어가는 거 있구 멍쌀두 하고 또 이제 거기다 또
옛날에는 시방은 그런떡 못봤을 꺼야. 옛날에는 쌀이 귀하다 보니까. 무 있지. 무. 무를
생채로 썰어가지고 그거를 버무려가지고 함께 심거. 그거를 무시루떡이라는 하는 거야.
그거 구경도 못했을 거여. 그게 소화두 잘되고 참 그 영양가치가 많은 거여. 그렇게 해
서 동네사람들 다 나눠주지.”¹⁵²⁾

7) 음식에 얽힌 오리골 주민들의 추억들

(1) 우물에서 찾은 미군식량

김재식 씨가 초등학교 2학년 때 6·25전쟁이 발발했다. 김재식 씨는 친척집으로 피란을
다녀왔는데 피란을 갔다가 돌아온 집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장롱에 있었던 옷들
이나 다른 세간들이 남아있지 않았고 아랫목에 대변뭉치만 남아있었다. 먹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집 우물 속에 남아있던 간스메깡통(미군깡통)은 끼니를 연명
할 중요한 식량이었다.

“피난 갔다 오니까 집 내부에 있는 게 싹 없어 진거야. 두고 갔던 게. 장롱이고 옷이고 싹
다 없구 뭐만 있느냐 아랫목에 대변 싸놓은 것만 두 뭉치가 있어. 그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거야. 우리는 그 전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 깊이가 한 10m도 더 돼. 깊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었느냐면은 간스메깡통 있지? 미국꺼. 미군들꺼. 간스메깡통이.. 깡
통이라고 간스메있잖아. 옛날꺼.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거를 고기루다 만든 거 아니야
그게. 그거를 간스메라고 했어 깡통고기 있는 거. 크기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
러 가지야. 근데 그게 우물에 반이 있는거야. 우물에. 그게 다 먹을 거야. 전부다 생거니
까. 새거. 미군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그거를 다 버리고 그 사람들은 간거여. 그니까 우리
는 갔다와서 그거를 꼬내서 엄청 잘 먹었어 두고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¹⁵³⁾

152) 조운행(남, 82) 제보

153) 김재식(남, 74) 제보

(2) 서리와 콩청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던 어린시절, 군것질거리는 상상도 못했지만 마을 곳곳의 밭에서 나는 작물들은 주린 배를 채울 귀중한 식량이었다. 지금은 도둑질이라 불리겠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한 인심은 조충호 씨에게 서리라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우리 어릴 적에는 지금은 남의 밭에 가서 농작물을 마음대로 못 채취하잖아. 옛날에는 우리 개울에 어디 놀러갔다 오다가도 농작물 참외 토마토 뭐 오이 가지 무 배추 농작물도 눈에 띄면 먹고 싶으면 다 따먹고 그랬어. 어릴 적에는 배가 고프니까 오다가 무도 뽑아먹고 그랬어. 참외서리도 하구 그랬어. 참외밭에 가서 몰래 숨어있다 따오고. 옛날 기억에 동네애들이 모이는 집이 있었어. 거기서 ‘야 어디 수박 있고 참외 있어’. 그러면 저녁에 몰래 간다구. 자루를 하나 구입하고는 수박서리, 참외서리하고, 수박서리를 하러 한번 갔는데 큰 것만 막 따가지고 왔어. 자루에 킁킁매고 왔는데 전부 맹탕이야. 전부 안 익은 것만 따 와가지고, 그래서 다 버리고.”¹⁵⁴⁾

다 익지도 않은 콩이지만 구워먹으면 맛이 좋았던 콩청대는 어린시절 기억나는 군것질거리 가운데 하나이다.

“농사 때면 콩청대 알아? 콩청대라고 어머니 아버지들은 아실 꺼야. 이맘때여 가을에 콩이 완전히 익기 전에 약간 퍼럴 때 뽑아서 불을 피워. 거기다 막 익혀 그럼 새카맣지 그걸 막 비벼서 먹으면 주둥아리 까맣고 그게 콩청대. 콩이 완전히 단단하게 여물기 전에. 그럼 콩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 콩이 엄청 맛있어.”¹⁵⁵⁾

(3) 새우젓장사집 친구

“우리 이웃집에 사는 애는 그 형제가 오남맨데 그 중에 셋째가 나하고 동창인데 친구데. 개네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오남매가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새우젓장사

154) 조충호(남, 67) 제보

155) 조충호(남, 67) 제보

를 했어요. 옛날에 새우젓을 동네마다 다니면서 팔았어. 새우젓 팔구. 돈 없으면 곡물로. 쌀도 받고 콩도 받고 이렇게 곡물로 받아 오고 그랬어. 그 집이 가난해서 어려워서 저녁에 밥을 하면 반찬도 없어 간장하고 김치 어떻게 하면은. 김치를 이맘때면 김장 다 끝나고 남의 밭에 배추 남은 거 그거 다 캐다가 그걸로 고춧가루도 넣는 등 마는 등 하고 이냥 소금만 버무려서 김치를 만들어. 그러면 먹을 게 김치하고 새우젓하고 간장이여. 반찬이 없으니까 내가 저녁에 가끔 가보면은 지 엄마 밥을 퍼서 주면 밥에다 구멍을 파 구멍을 파고 김치를 꾸겨 넣는거야. 욕심이지 뭐 동기간들이 모자르니까 서로 더 먹겠다고, 그런게 생각이 나.”¹⁵⁶⁾

(4) 보리밥에 숨겨둔 쌀밥 한 덩이

6·25전쟁 중에는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고 전쟁통에 혼란했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 고생을 많이 했다.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아 끼니는 주로 콩죽과 보리밥이었는데 김재식 씨는 지금까지 콩죽과 보리밥은 먹지 않을 정도로 질리도록 그 두 가지 음식을 먹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김재식 씨의 어머니는 말아들 김재식 씨를 가장 챙기고 돌봐주었다.

“어머니가 하두 보리밥을 먹으니까 쌀을 찌끔 따로 넣어서 내 밥에다가 속에다가 파가지고 집어 넣은거야. 나는 그걸 몰랐잖나. 다섯명이 먹는거야. 밥을. 다섯명이 먹다보니까 쌀이 나왔어. 근데 나는 쌀 생각은 조금도 못 했걸랑. 이게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려고 있는데 동생놈이 봤어. 엄마! 왜 형님은 쌀밥을 줬느냐 그 얘기여. 아 그게 난감하더라. 요만큼인데. 차라리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막아놓는데 (모르고) 먹다보니까 딱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어머니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애 이다음에 커봐라. 엄마아버지가 돌아가면은 형이 느덜 도와줘. 근데 만약에 형이 못 도와주면 느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형아 조금 더 잘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어. 형아가 더 잘 먹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그 쌀밥이 지금도 기억이 눈물 나게 나. 보리밥 속에 쌀밥 준게. 우리어머니가 대단했었구나. 그래도 큰 아들이라고 이다음에 나이 먹어서 동생들 잘 관리하라는 뜻에서 어머니가 거기다 쌀을 넣어 준거야.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 어머니 사랑이. 생각을 해봐. 다섯명이서 먹는데 보리밥 속에 쌀이 조금 있었다는

156) 조충호(남, 67) 제보

게 참 어려운 애기지. 지금도 동생이 얘기를 해 그 때 기억나냐고. 그럼 이눔아 그러지.
6·25(전쟁) 때 우리가 힘들게 산걸 지금 사람들은 너무 몰라.”¹⁵⁷⁾

(5) 질리도록 먹었던 밀가루음식들

본인 소유의 농토가 거의 없었던 오리골 사람들은 민둥산에 나무심기와 같은 사방공사를 할 때 가서 일을 해주고 그 품값으로 받은 밀가루로 살았다. 때문에 지금은 밀가루음식이 별미이지만 어려운 시절에는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을 주로 먹었다. 봄에는 쭈을 이용해서 쭈버무리를 해먹고 여름에는 국수를 많이 먹었는데 밀가루반죽을 만들어 시장에 가서 국수가게같이 국수틀을 가지고 있는 가게에서 국수를 뽑아 먹었다. 국수 뽑는 비용은 수공비 명목으로 지불했는데 돈이 없으면 국수로 대신 받기도 했다. 국수를 만들 때는 멸치같이 육수를 낼 재료가 있으면 육수를 내서 먹고 아니면 맹물에 호박 등 채소를 넣고 끓여 먹었다. 국수 이외에도 수제비도 많이 만들어 먹었다. 이영재 씨의 기억에 1960~1970년대까지도 이러한 형태로 밀가루를 받아 음식을 해먹었다.

(6) 고구마 캐주고 받은 고구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집안에 먹을 것을 구해 오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일손이 부족한 수확기에는 어린이들의 손을 빌려서 수확을 했는데 대표적인 작물은 고구마이다.

“그 넘어 동네 가면은 시골동네 가면은 가을에 고구마를 캔다고. 한 이맘때지 뭐야. 그럼 여기서 ‘야 누구네 고구마 캐러 와.’하고 연락이 와. 그러면 닛명이 자루를 들고 일찍 가. 그러면 고구마밭 주인이 여기 캐라고 가르켜 줘. 그걸 한나절, 오후 늦게 까지 고구마를 캐줘. 그러면 니들이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간 자루에 양껏 담어. 그게 하루 인간비여. 그걸로 수고비를 받는거여. 그걸 미고 어두워지면 온단 말이야. 집에 오면 고구마가 그 때는 귀했잖아. 우리 기억에 고구마를 캐주고 샅품으로 얻어 오고 그랬어. 그게 옛날 먹거리여.

그 때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거리하고 집안에 도움이 되는 걸 해 와야 돼. 수확을

157) 김재식(남, 74) 제보

해 와야 돼. 그런 시대야 그 당시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 생활에 패턴이 그랬어.”¹⁵⁸⁾

3-3 오리골의 옛 가옥

오리골에 지어진 주택들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가장 최근에 신축된 주택들로 도로망이 격자형으로 갖추어진 오리골 서쪽 별학 방향의 다세대 주택들이다. 일반적으로 3~4층 내외의 건물들로 9~10세대가 모여 사는 주택유형으로 도시의 일반적인 주택형식으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형태로 오리골만의 특징적인 주생활을 찾아보기 어렵다. 두 번째 유형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단독주택들이다. 박공형태의 지붕을 한 단독주택, 또는 옥상이 2~3층 규모의 슬래브지붕집이나, 1층에 상가가 있고 2~3층에 2가구 이상의 세대가 있는 집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 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1980~1990년대 지어진 주택으로 당시 도심근교에 지어진 주택과 다르지 않고, 주생활 역시 이 지역의 특색보다는 현대화된 일반적인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66년 항공사진에서도 보이는 오래된 단층주택들이 있는데, 대부분 도로의 이면이나, 막다른 골목에 면해 있는 경우가 많다. 도로에 면해 있지 않아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집들의 구조는 당시의 초가집이나 농가주택과 같이 비교적 가는 목조기둥 위에 보와 서까래를 얹어 틀을 짜고, 그 위에 슬레이트를 올린 주택들로 벽체는

158) 조충호(남, 67) 제보



오리골에 지어진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



오리골에 남아있는 오래된 주택들

흙벽이고, 집 주위를 시멘트블록 담장을 둘러쳐 집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개발에서 벗어나 오리골 주민의 삶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오래된 주택의 주생활일례를 살펴보는 것이 사라져가는 경기도의 옛 마을을 기록하는 데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1945년 전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영실 씨 댁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는 사전 탐방조사를 통해 조사가옥을 선정하였고, 이후 사진촬영과 약실측을 진행한 후 세대주인 이영실 씨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¹⁵⁹⁾

1) 가옥의 현황

이영실 씨 댁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06번길 51-13번지에 위치해 있는데, 오리골 옛길의 서편에 면해 있는 필지에 위치한 가옥이다. 증언에 따르면 오리골에서 가장 오래된 가옥이며 (1966년 항공사진에도 이 집이 확인됨), 오리골의 중심도로(금령로 90번길과 106번길) 변에 위치해 있다.

가옥의 좌향은 오리골 길을 동쪽에 둔 남서향인데, 지형상 경사진 내리막(김량장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사가 가파른 노구봉(용인중앙공원)을 향해 자리 잡고 있어 일조에 중심을 둔 가옥 배치임을 알 수 있다. 오리골 옛길에서 살짝



‘이영실 씨 댁’ 1966년/2014년 위치도

비켜 자리 잡은 골목 초입에 위치한 남서쪽 대문을 들어서면 집 지키는 개와 개집이 있고, 그 뒤쪽에는 제법 수령이 오래된 오동나무 한 그루가 자리 잡고 있다. 마당에는 작은 평상과 가건물이 마련되어 있고, 별채와 인접한 마당의 한쪽에는 장독대도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다. 별채의 뒤편에는 2칸 규모의 변소도 있다.

집의 배치는 ‘ㄱ’자형 안채와 ‘1’자형 별채가 있어 전체적으로는 ‘ㄷ’자형 배치이며, 비교적 넓은 마당을 두고 있다.

안채의 가옥구조는 목조기둥 위에 서까래를 올린 전통목구조방식이고, 벽체는 흙벽이며, 지붕은 석면슬레이트를 올려 마감하였다. 기둥과 서까래는 초가집에 쓰일 법한 수장목이 작은 목재를 사용하였는데, 안채 바깥쪽 외벽은 시멘트블록으로 증축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별채는 후대에 지은 건물로 시멘트블록조 건물이다.

159) 이영실 씨(남, 56)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리골에 살아온 이 지역 터줏대감으로 지금은 개인택시를 운영하면서 친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 환경운동연합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2) 이곳으로 이사 온 내력과 가옥의 건립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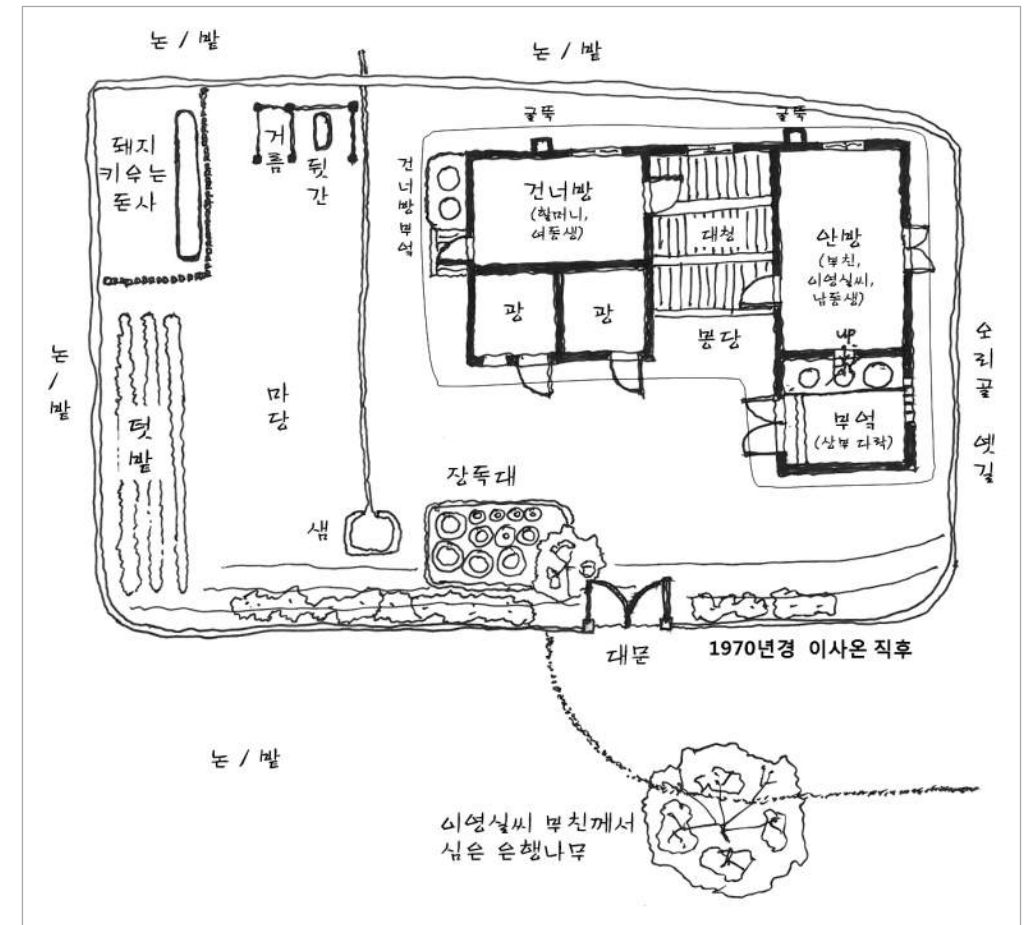
이영실 씨 덕 이사 전후 및 오리골 우물 위치

당시 오리골에는 우물이 3곳 있었다고 하는데, 한 곳은 지금의 중부대로(산업도로) 윗 마을에 있었고(이사 오기 전 이곳 물을 길어다 먹었다고 함), 다른 한 곳은 오리골 중간에 있었으며(이사를 온 후 이곳 우물을 사용했다고 함), 마지막 한 곳은 지금의 중앙동주민센터 인근에 있었다고 한다. 이영실 씨도 당연히 이사를 오기 전 윗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는데, 아래로 이사를 오면서 중간우물을 이용했다고 한다. 한 우물 당 10여 호 내외의 주호가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를 중심으로 마을의 커뮤니티도 형성되었다고 한다.

1970년경 아랫마을로 이사 올 당시에는 ‘ㄱ’자형 안채만 있었다고 하는데, 실의 구성은 중심에 대청마루가 있고, 좌우에 안방과 건넌방이, 그리고 안방에서 꺾인 부분에 재래식 부엌과 광 등이 있었다고 한다. 이 집의 건립연대에 대해서는 현재 천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대청마루 대들보에 천구백사십 몇 년이라는 상량문이 있었다고 하고, 확실히 6·25전쟁

오리골은 여느 시골마을처럼 집성촌이 자리 잡은 오래된 마을이라기보다 외지인들이 들어와 형성된 마을이라고 한다. 이영실 씨 집안도 타지에서 이 지역으로 들어와 자리 잡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증조부께서 충남 공주에서 사시다가, 일제강점기 용인 구성면(지금의 분당선 구성역 일대) 지역으로 옮겨 오셨다고 한다. 이후 해방 전 오리골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의 중부대로 위쪽 마을에 자리를 잡으셨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이영실 씨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무렵인 1970년대 초 지금의 집을 사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올 당시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형제자매(2남 4녀)로 구성된 가족 구성이었다고 한다.



1970년대 초반 이영실 씨 부모님과 함께 이사 오던 당시

이전에 지어진 집으로 이영실 씨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40년대 중반에 지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¹⁶⁰⁾

3) 이사 올 당시의 주택 배치와 실의 쓰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영실 씨가 이 집으로 이사를 오던 당시에는 총 9식구였는데, 위로 누님 3분은 돈을 벌기 위해 외지로 나가셔서 6식구가 이사를 왔다고 한다. 이사 올

160) 1945년 해방 전후시기에도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한다.

당시 집은 초가집이었고, ‘ㄱ’자형 안채에는 안방과 건넌방, 부엌과 광 2개가 있었다고 한다. 안방은 부모님과 남자형제(이영실 씨, 남동생) 4명이 사용하였고, 건넌방은 할머니와 여동생이 사용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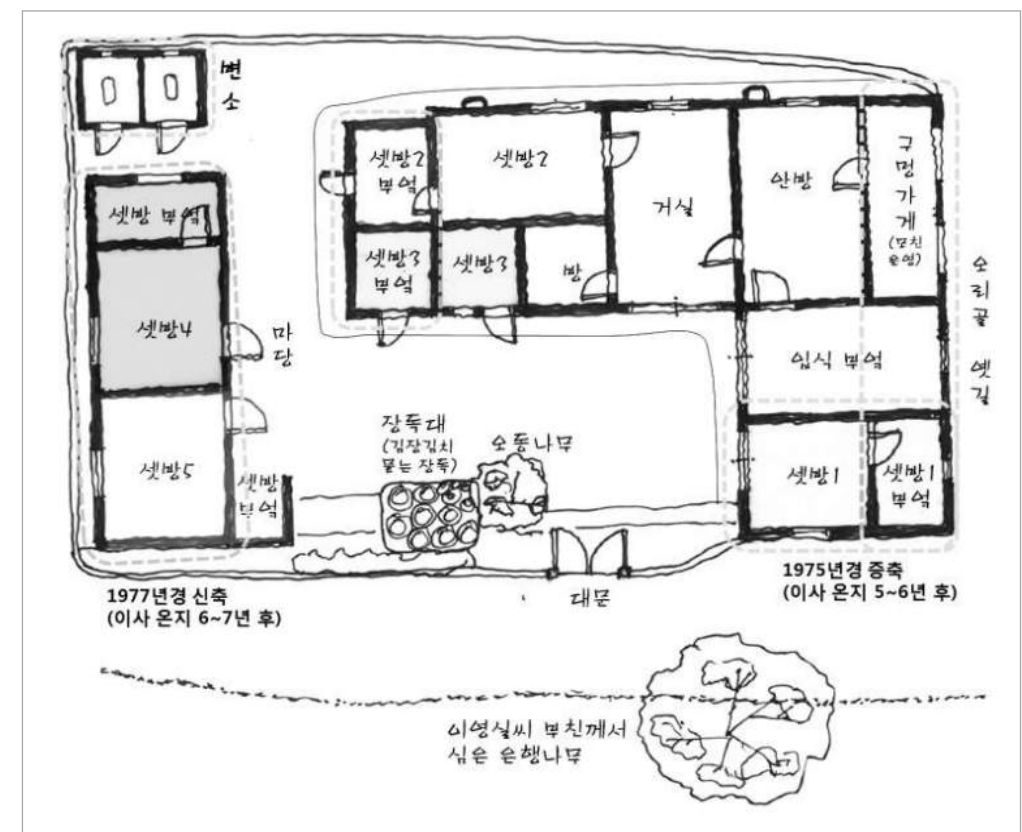
가운데 대청마루는 전통 마룻바닥이었는데, 지금과 같이 안채외부와 일치하지 않고, 1.0m 정도 짧았다고 하는데, 그 앞은 지붕으로 덮인 봉당이었다고 한다. 건넌방 전면에는 광이 2칸 있었고, 광에 불을 넣는 조그마한 아궁이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부엌은 안방의 남쪽에 연달아 있었는데, 2단 정도 내려가는 재래식 부엌이었고, 부엌 위에는 안방에서 연결되는 다락이 있었다고 한다. 부엌에는 작은 솥을 거는 가마가 2개, 큰솥을 거는 가마가 1개 있었다고 하며, 빨감은 장작은 비싸서 못쓰고, 산에서 나무를 하거나, 왕겨를 얻어다가 때기도 했다고 한다. 불이 잘 붙지 않으면 풍구를 돌려 불을 지피곤 했다고 한다. 건넌방 바깥쪽에도 작은 부엌이 있었는데, 솥을 2개 정도 걸 수 있었으며, 건넌방으로 통하는 쪽문이 있었다고 한다. 작은 부엌과 가까운 거리에 큰 독을 묻은 뒷간도 있었고, 그 바로 옆으로 거름을 만드는 작은 공간도 있었다고 한다. 건넌방 전면에는 한 칸 규모의 광 2개가 연달아 있었다고 한다.

남서쪽 넓은 마당에는 대문 옆 장독대(현재 오동나무가 있는 자리, 김장항아리를 묻는 자리도 있었는데, 겨울에는 짚으로 고깔을 만들어 씌워놓았다고 함)와 그 옆으로 샘이 있었다고 한다. 샘은 폭이 50~60cm 내외로 작았는데, 이곳 샘물은 식수로 사용하지는 않고, 설거지를 하는 등의 물 쓰는 일에 사용했다고 한다(식수는 우물에서 길어다 먹었다고 함).

이곳으로 이사를 오자마자 이영실 씨 부친께서 집 지붕을 수리하셨다고 한다. 이영실 씨 부친께서는 기와 공사나 지붕 공사 등을 하는 목수(기와공) 일을 하시며 근근이 생활하셨는데, 남들에 비해 집을 짓거나 개·보수하는 기술이 있으셨다고 한다.¹⁶¹⁾ 지붕 수리는 우선 초가를 다 걷어내고 그 자리에 함석슬레이트를 얹는 것이었다고 한다. 1~2채만 빼고 주변 집들이 모두 초가집이던 시절에 번쩍이는 함석슬레이트로 지붕을 올렸으니 아주 볼 만했었다고 한다. 이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초가지붕을 슬레이트지붕으로 고쳐 달 때도 이영실 씨 집은 용인 전체를 통틀어도 몇 집 없는 값비싼 함석지붕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이영실 씨는 자신의 집이 부자인 줄 알았고, 주변에서도 부잣집으로 오해하곤 했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자랑하길 좋아하는 부친께서 무리해서 달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161) 한국민속촌 건립 당시 이영실 씨 부친께서도 전통가옥 기와 얹는 일을 하셨다고 한다.



1970년대 중반 ~ 1980년대 초반
안채 증축 및 별채 신축(셋집 놓던 시절)

한편, 남서쪽의 넓은 마당 한쪽에는 텃밭이 있었다고 하는데, 식생활에 필요한 먹을거리를 이곳에서 생산했다고 하며, 뒷간에 인접하여서는 돼지를 키운 작은 축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돼지는 윗마을 살 때부터 기르던 것이라고 한다. 당시만 해도 돼지를 길러 학비나 생활비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

4) 1975년경 안채 증축과 별채 신축(점포와 셋방 운영)

이곳으로 이사를 온 지 5~6년이 지나 집을 증축하여 세를 놓기 시작했다고 한다. 건넌방에 접하여 광을 작은 방으로 개조하고, 그 옆에 부엌을 만들어 세를 1집 놓았고, 안채 부엌에 연달아 방과 부엌을 만들어 세를 놓았다고 한다. 한편, 안방 옆 큰길가(오리골 중심도로) 쪽으로는 담장을 헐고 증축하여 구멍가게를 운영했다고 한다. 당시 가게에서는 두

부, 콩나물 등 반찬거리를 비롯해서 빵, 사이다, 라면, 소주, 담배 등 부식거리와 풍선, 장난감 등 학생들 놀거리도 취급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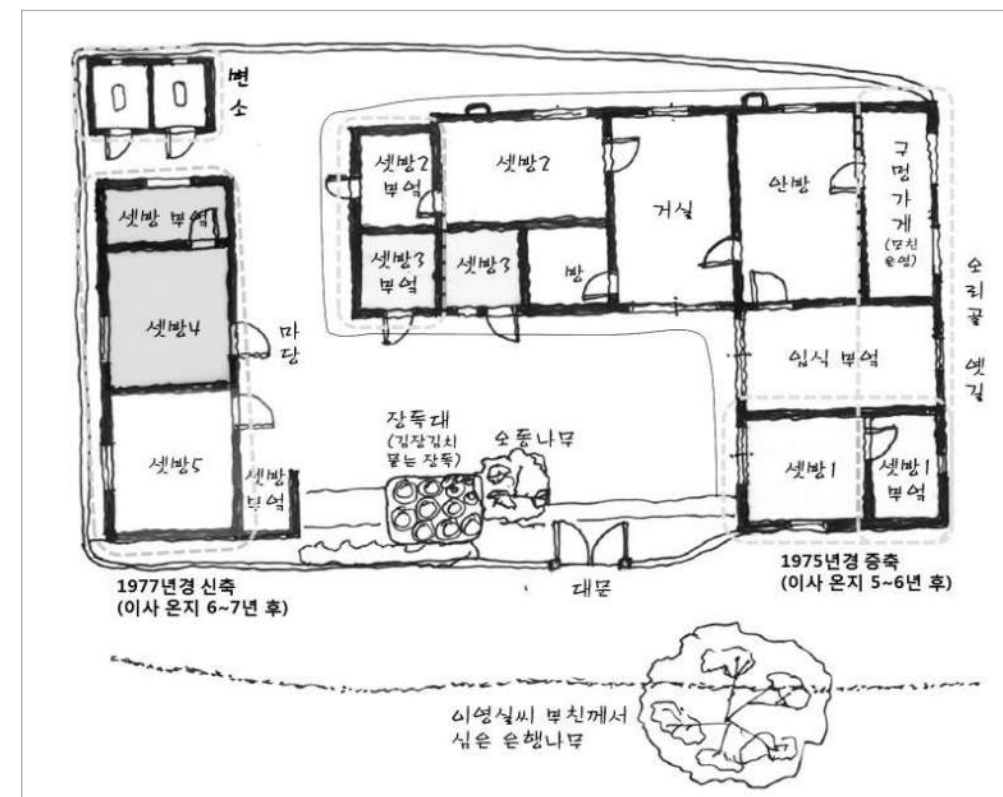
그리고 채 1~2년이 지나지 않은 1977~1978년경에 텃밭과 돼지축사가 있던 자리에 별채를 만들어 세를 놓기 시작했는데,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규모로 2집을 더 세를 놓았다고 한다. 세를 가장 많이 놓았을 시기에는 건넌방과 작은 부엌에도 세를 놓아 총 5집을 놓았다고 한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부부와 자녀들이 한방에서 지내던 시절이었다고 한다. 당시 난방은 연탄보일러를 사용했다고 하며¹⁶²⁾ 이때 대청마루도 증축했다.

1970년 후반에서 1980년 초반만 해도 오리골 인근에 셋집 수요가 매우 많았었다. 오리골이 시내에서 가까웠고, 다들 가난한 시절이라 좀 오래된 집이라도 찾는 사람이 많았다. 셋집을 찾는 사람들은 김량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이 일대 관공서, 학교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집을 거쳐간 세 들어 살던 사람들의 직업 면면을 보면, 학교 선생님, 군인(3군사령부), 보건소직원 등도 있었지만, 술집아가씨, 깡패, 노숙자 등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 인근의 태성중·고등학교, 용인중·고등학교, 용인상고(현재 용인정보고)에 다니는 학생들도 다수 자취를 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남사면, 모현면, 원삼면, 이동면 출신 학생들이 상급학교가 있는 용인으로 진학하면서 생긴 수요라고 한다. 당시 이 지역 대부분 사람들이 노동일로 생활비를 충당하던 시절 세를 놓는 것은 커다란 수입원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이영실 씨에 따르면 어머니가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고 한다.

요약하면 이 시기 이영실 씨 덕은 기존의 안채를 증축하여 가게를 열고, 세를 놓고, 더 나아가 별채까지 만들어 세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당시 가게 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음은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이렇게 안채를 증축하거나, 별채를 신축하여 세를 놓는 현상들은 이영실 씨 덕뿐만 아니라 이 시기 오리골 여느 집들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었던 경향으로 판단된다.¹⁶³⁾

162)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던 시절 연탄가스가 방으로 스며들어와 중독되는 일도 몇 차례 있었다고 한다.

163)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인근 빈집(금령로 90번길 7번지)에서도 방과 부엌이 각각 2개씩인 별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이영실 씨 덕 배치평면도

5) 현재의 가족구성과 실내공간의 쓰임

1980년대 중반을 즈음하여 오리골 주택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 기존 초가집을 헐고 2~3층 규모의 양옥집이나 다세대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오래된 이영실 씨 덕에는 세입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하며, 지금은 세를 놓지 않고 어머니와 이영실 씨 부부 내외, 딸 그리고 이영실 씨 남동생이 거주하고 있다.

안방에는 모친이 기거하시고, 기존의 점포(구멍가게)는 입식 화장실과 보일러실¹⁶⁴⁾로 개조하였으며, 기존의 재래식부엌은 입식 주방으로 고쳐서 사용하고 있다. 기존에 세를 주었던 부엌 남쪽으로 딸린 방은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대청마

164)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했다고 한다. 지금은 입식부엌과 안방, 거실까지는 2000년 경 들어온 도시가스로 교체되었다.



대문 및 가옥전경



마당 전경



안채 현관(주방과 거실 입구)



입식 주방



안채 안방(이영실 씨 모친 한은순 씨)



안채 거실



안채 건넌방에 딸린 부엌(현재 보일러실)



별채와 장독대

그림 이영실 씨 댁 주요 사진

루는 보일러를 깔고, 전면에 미닫이문을 설치하여 거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넌방은 이영실 씨 부부가 사용하고 있다. 건넌방 전면에 작은 방은 딸이 사용하고 있다. 한편, 2집에 세를 주었던 별채 큰방은 이영실 씨 남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작은방 역시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대문이 있는 담장과 인접한 곳에 사각형의 가설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은 앞에서 언급하였던 장독대와 김장김치를 묻어 두었던 자리이다. 원래 김장독은 짚으로 삼각형 고깔을 만들어 씌워 놓았었는데, 이후 삼각형 시설물을 만들었다가 지금의 사각형 시설물로 바뀐 것이라 한다. 또한 길에서 대문을 들어오는 골목 초입에 있는 은행나무는 이영실 씨 부친께서 심으신 나무라고 하며, 대문 안에 있는 오동나무는 언제부터인가 자라기에 그냥 놔두었더니 지금처럼 자랐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영실 씨 댁은 해방 전후로 지어진 산기슭의 작은 초가집이었으나, 이영실 씨 부모님들이 이사를 오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집짓는 기술이 있었던 부친으로 인해 지붕이 초가에서 함석지붕으로 바뀌었으며, 이후 점포와 셋집을 놓기 위해 안채가 증축되고, 별채가 신축되는 변화를 겪었다. 이로 인해 가옥의 배치는 ‘ㄱ’자형 배치에서 ‘ㄷ’자 형태로 바뀌었으며, 마당은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었고, 안채의 바깥쪽 외벽이 (담장 없이) 길과 직접 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난방 및 취사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입주 당시 나무를 태고 솥을 거는 아궁이였다가, 이후 1970년대 후반 연탄아궁이를 쓰다가 1980년대 중반에 기름보일러로 교체했다. 2000년 초반 용인시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안방과 거실, 주방은 도시가스난방으로 교체하였다.¹⁶⁵⁾

1970년대 초반 6명의 가족구성원을 수용했던 이 집은 이후 셋집까지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인원을 수용한 때도 있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셋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남는 방들이 생기게 되었고, 몇몇 방은 현재 창고로까지 사용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지금은 안채에 모친과 부부 내외, 딸이 생활하고 있고, 별채에서는 남동생이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 구성원의 변화와 다양한 시대적 요구 등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집도 그에 따라 실의 용도와 공간의 쓰임이 변화하며, 적응해 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집의 구조와 기본 틀은 유지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65) 건넌방과 딸이 쓰는 작은방, 별채는 아직까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안방 부분과 건넌방 부분이 별도의 난방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두 집 분량의 설치비가 요구되어 어쩔 수 없이 안방, 주방, 거실만 도시가스를 설치했다.



생업과
생활용구
·
4

4. 생업과 생활용구

4-1 마을주민들의 생업

오리골은 노구봉 골짜기 끝자락에 취락이 형성된 까닭에 다른 곳에 비해 농경지가 많지 않은 편이다. 땅을 소유하고 있는 몇몇 가구는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만 자기 땅 한 평 없이 남의 집 일을 해주고 품을 팔아먹고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었다. 특히 6·25전쟁 이후에 피난을 오거나 가족을 잃어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이 마을에 정착하다 보니 마땅한 직업도 없이 여기저기 전전하며 품을 팔거나 막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이곳을 가리켜 용인의 달동네라 부르기도 했다. 그렇다고 오늘날처럼 막노동이라도 할 만한 곳이 흔치 않았다.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준설하고 다리를 놓는 등의 건설 현장이 있다면 벌어먹고 사는 데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용인의 근대화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꽤 어려웠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전통적으로 농업에 종사해 온 마을 주민들은 벼농사가 중심이었으며 지대가 높아 물이 적은 농지에는 콩, 보리, 수수 등 밭농사를 지었다. 마을의 오래된 관행으로 봄에 가래질을 하거나 모내기를 할 때와 여름철 김매기, 논매기, 그리고 가을 추수 때는 품앗이를 하면서 서로 일손을 도왔지만 농지가 없는 사람들은 일당으로 쌀이나 콩을 몇 되씩 받고 일을 해주었다.

오리골 사람들은 용인장이 가까워 여름철에도 각종 채소 등을 길러 내다 팔기도 하였으며, 가을 추수가 끝나면 생산된 곡식을 팔아 자녀 학자금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하였다. 가을 농사일이 끝나고 겨울철 농한기가 오면 마을 주민들은 마당에 명석을 깔고 앉아 새끼를 꼬거나 가마니를 짜 장에 내다 팔았는데 농사일이 없는 겨울철에는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농지가 없는 사람들은 미투리를 삼아 생계를 꾸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젊은이들 중에는 해마다 남의 집 머슴을 살다 오는 사람도 있었다. 머슴은 음력으로 정월 보름께쯤 자기 집을 떠나 농지가 많은 부잣집에 기거하면서 가을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일을 하고 새경[私耕]을 받는 것으로 이를 ‘머슴살이’라 했다.

머슴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매일 산에 올라가 일년 동안 땀 나무를 해 오는 것이다. 갈퀴나무와 닳나무를 해서 지게에 지고 내려와 나뭇광에 쌓거나 장작을 패서 집 뒤켠에 차곡차곡 쌓아 놓는다. 봄바람이 불 때쯤 마른 눈에 쟁기질을 하는 것으로 농사일이 시작된다. 법씨를 물에 담갔다가 눈에 뿌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자라면 갈아놓은 눈에 물을 대고 씨레질을 한 후 모를 심는다. 이후 논매기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논매는 것을 애벌매기, 두 번째를 두벌매기, 세 번째를 세벌매기라고 한다. 보통 가정에서는 세벌매기까지 논을 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큰 부잣집에서는 네벌매기까지 하기도 했다. 요즘에는 유기농약 제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논매기가 사라졌지만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논매기를 하면서 북 장단에 맞춰 일꾼들이 소리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논매기가 끝날 때쯤이면 더운 한여름이 되고 음력 7월 15일 백중이 된다. 예로부터 백중을 가리켜 ‘머슴의 명절’이라 할 정도로 농사일에 지친 머슴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열어 술과 음식을 실컷 먹이는 관습이 있었다. 하지만 이곳 오리골 주변에서는 백중이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행사는 없었던 것 같다. 노자 몇 폰 얻어 자기 집에 며칠 다녀오는 정도였다고 한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게 되는데, 벼 타작을 비롯하여 콩, 깨 등 밭작물을 수확하고 그것들을 명석에 말려 방앗간에 가지고 가서 방아를 찧어 오는 일을 마치면 머슴일도 끝나게 된다. 머슴이 돌아갈 때는 쌀이나 보리 등을 새경으로 받아 자기 집으로



나무꾼의 모습¹⁶⁶⁾

166) 사진 출처 : <http://cale.daum.net/wsgb20>

지고 갔는데 증언자의 말에 의하면, 1970년대에 쌀 8가마니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小作農)도 여러 집 있었다. 보통은 땅이 전혀 없거나 여러 식구가 먹고살기엔 부족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는 소작은 필수였다. 소작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병작반수라 하여 토지를 가진 사람과 농사를 짓는 사람 간에 수확량을 반반씩 나누는 관행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병작반수인 5:5가 주로 행해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작농이 수확량의 40%를 갖는 6:4, 또는 30%를 갖는 7:3에 이르기까지 도지(賭租)가 지주 중심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퇴비와 씨앗 등 농사에 필요한 재료의 부담을 누가 하느냐, 짚과 같은 부수적인 수확물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기도 했다.

수확량을 어떻게 나누든 생각하면 고단하기 짝이 없는 형편이니 절대 강자는 가진 자요, 절대적인 약자는 경작자인 현실은 어딜 가나 다르지 않았나 보다. 그래도 비록 남의 땅이지만 그 땅을 경작하는 소작인의 노력은 결코 소홀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농사를 잘 지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작농 중에는 토지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남의 묘를 관리해 주는 묘지기인 경우가 그러했다. 묘를 관리해 주고 제사나 가을 시향(時享) 때 제물을 준비해 주는 대신 일정 면적의 땅을 부쳐 먹도록 한 것이다. 이런 경우 문중에서 묘지기가 살 수 있는 집까지 마련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60년대 말이나 1970년대 초반 쯤 오랫동안 오리골에 살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 이웃 마을 묘지기로 이사를 간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땅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여기며 대대로 살아온 오리골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일제강점기였을 것이다. 일제는 조선을 강제로 침탈하고 조선의 문화와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 혈안이더니 1939년 대흥작으로 식량 사정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태평양전쟁에 조달하기 위한 전시군량 확보를 위해 공출(供出)이라는 이름으로 조선 각지의 양곡과 가축, 물품의 강탈을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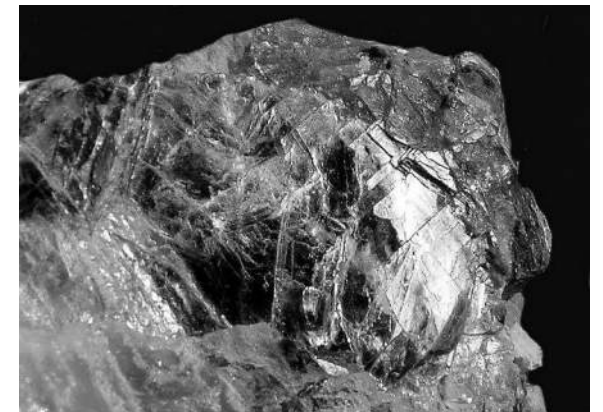
일제가 빼앗아 간 공출 품목에는 조선 땅에서 나는 거의 모든 생산품이 포함되었다. 80종에 달하는 공출품목을 작성하고 그것들을 사실상 그냥 빼앗아 갔다. 법제상으로는 일정한 대가를 지불토록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공짜로 빼앗다시피 한 것이다. 농산물의 경우 생산비 이하의 헐값으로 가져갔다. 게다가 마을에서는 생산량보다 많은 공출 할당량을 받으면 이를 감당하느라 다른 마을에서 비싸게 사들여 할당량에 충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할당량을 공출하지 못하면 군, 면서기와 경찰서의 합작으로 수색대가 편성되어 집집마다 뒤져서 빼앗아 갔다. 어떤 사람은 관혼상제에 대비하여 부엌바닥에 묻어 둔 것까지 철

장으로 쭈셔가며 모조리 빼앗아 갔다. 소를 공출로 빼앗기기도 했고, 구루마를 끌고 다니는 면서기에게 낫그릇이나 수저, 대야, 쟁반, 화로, 심지어는 안방의 요강까지도 강탈당했다. 총독부는 조선인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낫그릇이나 요강 등의 원료가 주석임을 착안한 후부터는 강탈에 혈안이 되었다. 주석은 탄피용으로 없어서는 안 될 자재였던 것이다.

좁은 농지에 농사를 지어 근근이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일제의 잔혹한 수탈은 그야말로 혈뺏고 굶주린 생활을 강요하는 야만적인 행위였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생활이 몹시 피폐해지고 일부는 거지가 되어 떠돌기도 하자 일제는 배급소를 통해 옥수수, 수수, 엿 등을 나눠줬다. 한 번은 동남아시아 쌀인 안남미(알랑미)를 배급받았는데 온통 석유 냄새가 나서 수차례 물에 씻어도 소용이 없었지만 배가 고파 억지로 먹었다고 한다.

이렇듯 일제의 강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지역 주민들에게 돈벌이를 제공해 준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일제가 수탈의 일환으로 만든 운모공장이다(이 이야기를 해 주신 분은 ‘우무공장’이라고 표현함). 운모공장은 수여선 철도가 지나는 김량장동 중앙시장 공용화장실 부근에 있었다. 운모¹⁶⁸⁾는 표면이 생선의 비늘처럼 생겨 ‘돌비늘’이라고도 불리는 화강암 계통의 광물질로 내화성(耐火性)이 강하고 전기의 부도체이므로 전기 절연물이나 내화재로 쓰인다. 운모공장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둘러 앉아 기차로 실어다 쌓아 놓은 화강암에서 돌비늘처럼 붙어 있는 운모를 떼어내는 작업을 했는데, 채취된 운모는 다시 기차에 실어 어디론가 가져갔다고 한다. 운모도 당시 공출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아 일제는 채취한 운모를 일본으로 가져가 가공을 한 후 전기 절연체나 탄약 등 군용물자의 재료로 썼을 것이다. 당시 운모공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미루어 오리골에 사는 여성들도 상당수 이곳에서 일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량장동에 오랫동안 거주했



화강암에 붙어있는 운모(돌비늘)¹⁶⁷⁾

167) 사진출처 : <http://cafe.naver.com/goldphoenix>

168) 1906년에 함경남도 단천군 포수광산에서 대형의 운모광산이 발견되었고, 그 뒤 평안남도 평원군 금강운모광산과 함경북도 길주군 임동 운모광산이 발견되어 1909년에 채굴되기 시작하였으며, 1933년까지는 생산량이 35t 정도였으나, 1934년에는 수요가 급증하여 생산량이 100t에 달하였고, 1938년에는 운모광업의 전성시대를 이루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수요가 많지 않으며, 생산량은 극히 적은 편이다.

던 분의 증언에 의하면 금학천 주변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땅을 파면 지금도 운모 조각들이 나온다고 한다.

또한 수여선 열차가 들어서면서 김량역이 생기고 역 주변에는 화물 창고가 들어섰다. 지역에서 생산된 각종 농산물을 운반해 쌓아뒀다가 기차에 싣기도 하고 외지에서 실어온 목재 등 각종 물류를 하역하여 보관했다가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 창고는 일본 식 목조 창고로 현재 김량장동 오성프라자 뒤편에 건물의 일부가 남아 있다. 이곳 창고를 당시 사람들은 ‘와루보시’라 했는데, 증언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했다.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특히 이들은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토가 없거나 아무런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몰렸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오리골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노동이 무척 힘들고 고단했다고 한다. 무거운 쌀가마나나 목재를 운반하고 쌓고 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으며, 물건을 어깨에 메고 2~3층 되는 높이의 건물 꼭대기까지 잇대어 놓은 나무 패널을 밟고 오르내리는 일이 여간 위험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 어깨에 퍼렇게 멍이 들 정도였다고 하니 그들의 힘겨운 노동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이곳에는 창고와 함께 대형 방앗간이 딸려 있었다. 이 방앗간은 기차로 실어온 벼나 곡식을 찧고 다시 기차로 실어가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곳에 세워진 것 같다. 방앗간에도 주로 오리골 사람들이 다니며 일을 했다. 하지만 방앗간의 경우 가을 추수 후 몇 개월이 지나면 일이 없기 때문에 짧은 기간 한시적으로 다닐 수 있는 일자리였다. 창고도 마찬가지로 방앗간이 성시를 이룰 때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므로 늘상 일자리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때 대체로 안정적인 직업이 자동차 운전자였다. 당시에는 차가 많지 않았지만 운전을 배운 사람은 어디에서든 괜찮은 보수를 받고 일할 수 있었다. 오리골이나 인근에도 운전을 배워 트럭이나 관용차를 끌다가 운수업을 시작하여 꽤 돈을 번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보험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칫 인사사고를 내기라도 하면 모은 재산을 한꺼번에 날리는 경우도 있었다.

6·25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오리골 사람들의 삶은 더욱 어렵고 힘들었다. 용인의 달동네라는 별칭이 말해 주듯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땅이 있는 사람들은 김량장동이나 인근 도심에 건물을 짓거나 집을 사서 이사를 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남게 되었다. 여기에 전쟁 피해로 주거를 잃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오리골 주변에 모여들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1950년대에 오리골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 대다수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이다. 아무래도 궁핍한 환경에서는 자식 교육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이 당시 부모들의 입장이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나서서 생활고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니 공부는 뒷전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시 오리골 끝자락 맞은편에 공용 버스 터미널이 있었다. 지금은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학연구소와 시장약국이 자리하고 있다. 차부라고 불렸던 버스 터미널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분주히 오가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구두를 닦거나 담배 라이터와 같은 잡다한 물건을 파는 아이들이 대부분 오리골 출신이었다. 즉 버스 터미널은 산업 전선에 나선 오리골 아이들의 생계를 위한 아지트였던 셈이다. 구두닦이를 비롯하여 오라이(버스 조수)까지도 오리골 아이들이 아니면 누구도 감히 열썬거리지 못했다. 이후 맞은편에 용인극장이 생기면서 극장기도(극장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오리골 아이들의 차지였다. 그만큼 오리골 아이들이 싸움도 잘하고 드세어 용인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버스 터미널 일원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했던 것이다.

오리골 주변에는 보따리 장사를 하는 아줌마도 있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여러 명의 자식을 키우기 위해 보따리에 갖가지 옷과 생활용품을 싸들고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다. 그런데 보따리 장사 아줌마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가 이산가족을 상봉시켜 준 경험담이 전해 온다. 이 아줌마는 1970년대 용인과 광주, 이천 등지로 장사를 다녔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전해준 제보자의 기억에 포곡면인지 모현면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아줌마가 어느 집에 장사를 갔는데, 그 집 주인 얼굴을 보자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았다고 한다. 심지어 목소리까지 기억이 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낮이 익은 것으로 보아 어디서 본 듯하니 자신을 아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주인은 모른다고 했다. 실제로 그 주인은 다른 곳에서 이사를 온 사람도 아니고 젊었을 때 이 마을로 시집을 와서 20년 이상 살고 있었다고 했다. 보따리 장사 아줌마는 머리를 가우똥 하며 그 집을 떠났다.

1~2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광주군 곤지암으로 장사를 나갔는데, 어느 집에 들러 깜짝 놀라고 말았다. 몇 년 전 용인에서 본 낮 익었던 여자가 여기에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짜고짜 용인에서 똑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자 어렸을 때 엄마를 따라 광주장에 갔다가 잃어버린 언니가 있다고 하여 두 사람을 극적으로 상봉시켰다는 이야기다. 참 감동적인 스토리다.

어느 지역에서나 보따리장사 아줌마는 반가운 존재였는데 시골에서 새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이다. 옷값은 외상이었는데 농촌에서는 평소에 돈이 귀하기 때문에 가을 추수를 해서 콩이나 쌀로 옷값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70년대 들어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고 산업화의 물결이 밀려들면서 용인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우선 도심의 가로(街路)가 넓어지고 다층 건물들이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으며 각종 산업시설이 들어섰다. 이는 오리골 사람들의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은 일자리가 많아졌다는 얘기다. 용인에 최초로 들어선 공장이 고림동의 (주)고려 피혁과 남동의 (주)동광통상인데 각각 수백 명의 근로자를 채용한 두 공장을 필두로 여기 저기 제조업 공장들이 들어섰고 오리골의 젊은이들도 산업시설에 취직을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외지에서 몰려든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오리골에 들어와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한 가족처럼 지내오던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고 오밀조밀한 취락구조에 이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삭막한 도시형 마을로 변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오늘날 오리골 사람들의 생계수단도 여느 도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천차만별 헤아릴 수가 없게 되었지만 과거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가난의 대물림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 오히려 마을이 시내와 인접한 까닭에 지가 상승 폭이 높아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었다.

4-2 오리골의 생활용구

오리골은 용인군 군청소재지가 구성에서 수여면의 소학동(巢鶴洞)으로 옮겨오면서 치소가 있던 지역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후 1960년대까지 용인 행정의 중심지역 역할을 했던 곳이다. 김량장동이 용인 행정과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면서 일제 가옥, 관청 건물, 새마을주택과 아파트 등이 혼재된 근현대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리골은 비교적 서민들의 밀집지역으로 남아 있는 공간이다.

또 대부분 도시권역이 도로망과 각종 도시 기반시설을 갖추고 계획적인 성장을 해 나가는 데 비해 오리골은 북쪽으로 중심상권을 벗어나면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건축물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형편이다. 이런 여건은 도심재개발 사업의 가장 적지이자 우선순위로 꼽히는 이유가 됐다. 주민들은 2006년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토지

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용인시는 2009년 <용인시 고시 제2009-222호>를 통해 오리골 일대를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일제강점기를 포함한 근·현대화 과정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 지역이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따라서 마을이 사라지기 전에 마을지를 통한 총체적인 생활문화 민속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도구를 생활용구라 할 때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여기에선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오래도록 사용했던 용구를 한 범주로 다루고 나머지를 별도로 묶어 소개하기로 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전통사회를 엿볼 수 있는 생활용구를 수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오리골이 전형적인 농경문화를 간직한 농촌마을이 아닌데다 직업적으로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 비중 역시 낮았던 곳이다. 더구나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간 간직했던 생활용구를 버리거나 처분하는가 하면 다가구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변화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옛 것들은 더 빠르게 사라져 갔다.

여기에선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대대로 오리골에 자리 잡아 살고 있는 이영실 씨¹⁶⁹⁾ 님을 중심으로 생활용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생활용구에 대한 이해

(1) 농기구

농기구는 흔히 농사에 필요한 도구로서 ‘연장’이라는 말을 주로 쓴다. 농기구라는 말은 개별 사물에 대한 구체적 지칭보단 농사에 필요한 일반적인 그릇이나 도구를 가리키는 개념어로 볼 수 있다. 쓰임새에 따른 농기구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⁷⁰⁾

가는 연장(혹은 같이연장)으로는 쟁기, 파비, 가래, 썰이, 쇠스랑 등이 있다. 거름 주는 연장은 오줌장군, 거름통, 똥바가지, 삼태기 등이며, 매는 연장은 호미가 대표적이다. 거두는 연장은 낫이 있다. 물 대는 연장은 두레, 용두레, 두레박 등이 있고 터는 연장은 도리

169) 남, 54세,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06번길 51-13 거주

170) 『한국 농기구』 김광연, 문화재관리국, 1969

깨, 벼훅이, 홀태, 탈곡기가 있다. 말리는 연장은 명석, 도래방석, 발, 거적 등이며 고르는 연장은 풍구, 바람개비, 키, 체가 쓰였다. 운반 연장은 길마, 발채, 지게, 쟁기지게, 바소 거리, 망태기, 바구니, 광주리, 파리 등이다. 알곡 또는 가루를 내는 연장에는 물레방아, 연자매, 디딜방아, 절구, 맷돌, 맷방석, 맷돌다리 등을 들 수 있다.

갈무리 연장으로는 가마니가 대표적이고 소쿠리와 뒤옹박도 많이 쓰였다. 가마니틀, 기름틀, 베틀, 물레 등은 농산 관련 제조 연장으로 구분된다. 그 밖에도 갈퀴, 넉가래, 도롱이, 샷갓, 메, 말, 되, 비, 바가지, 함지 등의 농업용 생활용구가 있다.

(2) 일반 생활용구

• 의생활 용구 :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입는 일상의례복과 일상복으로 크게 나뉜다. 일상의례복에는 출생 직후 포대기에서부터 출생 3일 후 첫 목욕을 시키고 처음으로 옷을 입히는 배넛저고리, 삼칠일(21일간), 백일, 돌을 거치는 동안 입게 되는 출생의례복이 있다. 혼례복으로는 신랑이 입는 관복, 사모관대, 목화 등이 있으며, 신부가 입는 노랑색 삼희장저고리, 청·홍색 스란치마, 원삼, 족두리 등이 있다. 통과례의 끝인 죽음에 이르면 입는 수의 역시 의례복이다.

일상복은 평소에 입는 옷으로 보통 계절이나 상황에 맞춰 입는다. 1960년대까지는 주로 한복을 입었으며 점차 서양식 의복이 확산되어 지금은 보편화되었다.

• 식생활 용구 : 식생활이 집중되는 공간은 부엌이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 장작이나 짚으로 불을 붙이는 아궁이, 부뚜막, 가마솥, 선반, 화로, 풍로 등은 식생활 공간의 중심인 부엌을 상징하는 구성요소들이다. 세간으로는 주전자, 찬장, 뒤주, 탁자, 쟁반, 함지 등이 있고, 조리기구로는 가마솥, 국자, 주걱, 숟, 바가지, 조리, 도마 등이 사용된다. 집 뒤편에 있는 장독대는 장류 보관 장소로서 기능하며 다양한 용기들이 놓여졌다.

광은 작물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장소로서 쌀, 각종 작물, 채, 대야, 키 등이 그 자리에 위치했다. 곡물 중심의 식생활을 유지하던 전통사회에서는 곡물을 다루는 도구 역시 많았다. 맷돌, 광주리, 체, 채반, 조리, 절구, 키, 시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뚝배기, 독, 항아리, 자배기와 같은 용기류 역시 식생활에 빼 놓을 수 없는 용구들이다.

• 주거생활 용구 : 오리골의 주거양식은 대개 다가구 양옥의 모양을 띠고 있다. 개인 단

독 주택은 드물고 2~3층 다세대가 각기 독립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마당이나 정원공간을 따로 갖추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다. 지붕은 초가는 없어졌고, 슬레이트와 기와가 간혹 있으며, 대다수는 평면 슬래브 형태를 띠고 있다.

내부 공간도 용인지역만의 독특함을 찾아내기 어려운 일반적인 구조이며, 옛 삶을 지탱하던 침구, 조명구, 난방구, 문방구, 화장구, 위생용구, 재봉구 등도 이제는 현대화되어 옛 생활양식과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드문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주거생활에 필요한 용구는 안방을 차지하는 장과 농이 가장 우선이고 이불·요·포대기·베개·목침·죽부인과 같은 침구류, 책장·책상·반닫이·궤·함·상자·햇대·문갑·사방탁자·연상·고비·문서함·돈궤·필목궤·처네·평상·보로·방석·돛자리·팔걸이·안석·장침·좌장 등이 있다.

2) 오리골 생활용구

(1) 농기구

사실상 직업으로서의 농업종사자가 거의 없는 오리골에선 농기구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더러는 텃밭을 일구기 위해 현장에 연장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집에 보관하고 있는 주민들은 드물다. 다양한 농기구를 찾기는 더욱 어려웠다. 다행히 이영실 씨(남, 54) 댁에 보관중인 농기구를 몇 가지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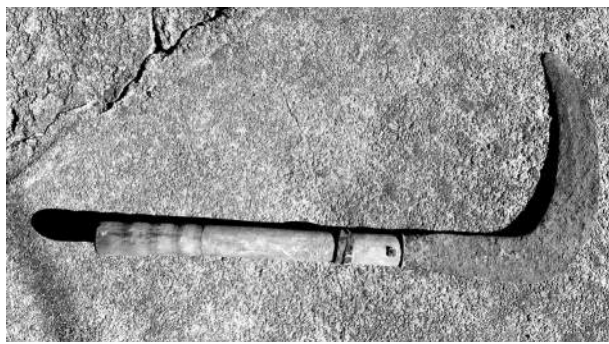
① 삽 : 가는 연장에 속하며 흙을 떠서 던지는 용구다. 그나마 오리골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 그 형태는 여러 가지다. 과거에는 자루 끝에 손잡이 구조가 없어 불편함을 느꼈지만 지금은 형태의 다양성은 물론 소재도 삽날의 소재가 쇠에서 플라스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삽 - 이영실 소장



숫돌 - 이영실 소장



낫 - 이영실 소장



나무절구와 절구공이 - 이영실 소장



돌절구 - 이영실 소장

② 숫돌 : 칼이나 낫 또는 도끼 따위를 갈아서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이다. 예전에는 농가는 물론, 도회지의 가정에도 숫돌 한두 개는 반드시 갖추고 있었다. 갈 때는 물을 뿌려 주어야 하며, 나름 기술이 필요했다. 요즘에는 자연산 돌숫돌보다 인조숫돌을 더 많이 쓴다. 쓰임에 따라 가정용과 목공용 그리고 공업용으로 나눈다.

③ 낫 : 나뭇가지를 절단하거나 풀을 베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농촌에선 쓰임새가 높은 농기구다. 낫에는 ‘조선낫’과 ‘양낫’이 있는데, 전자는 재질이 단단해 나무를 베는 등에 사용한다. 양낫은 재질이 약해 주로 풀을 베는 데 쓴다.

④ 절구 : 곡식을 빻거나 찧는 데 쓰는 용구다. 요즘은 크기와 재질이 다양한데 예전엔 주로 통나무 절구나 돌절구를 사용했다. 각각 속을 파낸 구멍에 곡식을 넣고 절굿공이로 찧는다. 요즘에는 쇠절구와 사기재질의 작은 것도 쓴다. 주로 용도는 양념을 다지는 데에 쓴다. 절구에는 반드시 공이가 필요한데 쇠절구에는 쇠공이를, 나무절구에는 나무공이를 쓰는 것이 보통이다.

⑤ 명석 : 곡식을 넣어 말리는 데 쓰는 짚으로 만든 자리로 농촌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던 깔개다. 큰일이 있을 때 마당에 깔아 손님을 모시기도 한다. 가난한 집에서는 장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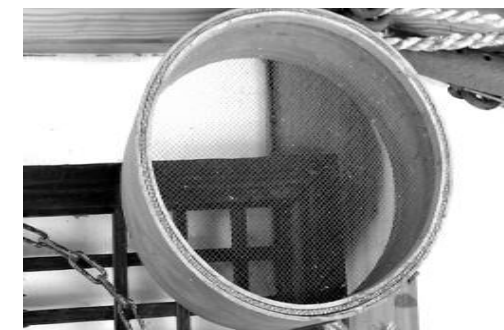
신 깔고 지내기도 했다. 통풍이 잘 되는 장점이 있으나 짚으로 만든 것이어서 물기에 취약하다. 무거운 편이어서 가볍고 얇은 화학제품으로 된 깔개가 널리 보급되면서 그 용도는 축소되고 있다.

⑥ 체 : 곡물·모래 등의 알갱이를 거친 것과 미세한 것으로 선별하는 용구지만 냇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도 쓰는 등 다용도였다. 체는 구멍의 크기에 따라 고운 체, 중체 등으로 나뉜다.

체의 모양은 얇은 원형·사각형의 나무테 바닥에 말털·철사·대나무·등나무 등의 망 또는 삼·명주 등으로 팽팽하게 친다. 사용할 때는 흔들어서 망의 눈을 통과하는 입자와 통과하지 않는 입자로 나눈다. 옛날에는 체장인들이 돌아다니며 요구하는 대로 만들거나 수선하였다고 한다.



명석 - 이영실 소장



체 - 이영실 소장



챗다리 - 이영실 소장

⑦ 채광주리·채반

채반은 싸리나 대나무 껍질로 울이나 춤이 없이 둥글넓적하게 엮어 만들며 그릇 용도로 쓰인다. 요즘은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화학제품이 주로 쓰이지만 여느 가정에서 한두 개 정도는 구경할 수 있는 용구다. 채반에는 주로 기름에 부친 전·빈대떡 등을 담는데, 공기가 잘 통하고 기름도 잘 빠져 음식을 덜 상하게 한다. 나물 등을 말릴 때나 김장 때에는 갖

은 양념을 썰어 담아놓기도 한다. 채광주리는 크고 둥글게 엮은 그릇으로 바닥이 평평하
되, 바깥둘레는 세워 바구니와 같은 구실을 한다.



채광주리 - 이영실 소장



채반 - 이영실 소장

(2) 생활도구

① 장독대 : 우리나라 음식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는 간장·된장·고추장 등의 장류와 젓갈
등을 담은 질그릇을 두는 장독대는 대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한다. 항상 정갈하게 관
리되며 돌을 층층이 쌓아서 높다란 대를 만든다. 앞쪽에는 작은 항아리를 놓고 맨 뒷줄로
갈수록 큰독이 차지한다.



장독대 - 이영실 소장

장류는 몇 년씩 묵혀가며 먹을 수 있는데, 항아리
표면의 작은 숨구멍을 통해 드나드는 공기로 인해
장맛을 신선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항아리 사이에
도 공간을 두어 통풍이 잘 되게 하여 음식물이 쉽게
상하지 않게 하였다. 요즘 항아리는 덮개가 속 안이
다 보이도록 유리로 설계되어 있어 예전과 달리 뚜
껍을 열지 않고도 장류의 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되
어 있다. 이영실 씨 댁 장독대도 투명한 덮개가 여
럿 눈에 들어온다.

② 항아리 : 서영미 씨(여, 44)는 마을에서 일심슈퍼라는 작은 잡화가게를 운영한다.
2002년부터 했으니 십수년 이곳을 지키고 있다. 얼마 전 된장 항아리를 따로 사는 형제들
로부터 받아 슈퍼 안에 두고 있다. 서씨의 된장 항아리는 일반 용기류에 비해 크기가 작고

아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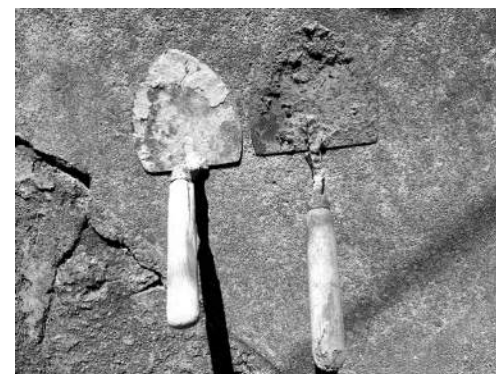
그릇의 아래위가 좁고 배가 볼록 나온 모습
을 한 항아리는 입과 목부분의 특징에 따라 입
큰항아리, 목긴항아리, 목짧은항아리로 나뉜
다. 크기에 따라서 용도가 대개 나뉘는데 고추
장이나 간장, 된장을 담은 항아리가 가장 큰
편이다. 대개 질그릇 항아리가 쓰이나 요즘은
유리 등 소재도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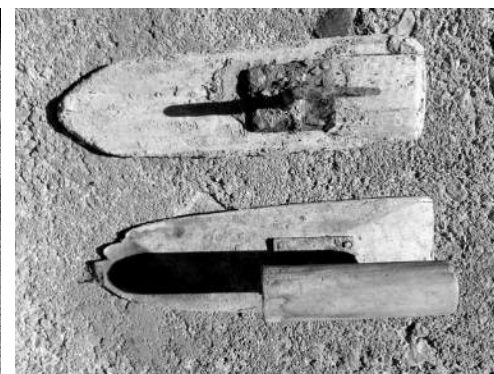
된장 항아리 - 서영미 소장

③ 건축용구

이영실 씨 아버지는 건축수리와 관련된 일
을 했다고 한다. 지금은 쓰지 않아 녹이 슬거
나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지만 손때 묻은 연장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건축
과 관련된 용구들은 대패, 줄자, 먹통, 손자구, 크고 작은 톱, 드릴, 쇠와 나무로 된 망치,
끌과 정 등이 있다. 이 댁에 남아있는 연장들은 그 가운데 일부다. 미장도구로 사용되는
흙손은 많이 낡았는데, 특히 나무흙손은 찾아보기 어려운 도구다. 벽돌 조적용으로 사용
하면서 시멘트를 개거나 뜸 때 쓰는 냉가고대(냉가삽)도 이채롭다.



냉가고대(냉가삽) - 이영실 소장



나무흙손 - 이영실 소장



장도리 - 이영실 소장



정 - 이영실 소장



손목망치 - 이영실 소장

④ 무늬 항아리류

질그릇과 달리 무늬 항아리는 가볍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생활용구다. 아가리가 넓어 꽃병으로 쓰였을 항아리가 있는가 하면 뚜껑이 있어 액체류를 담아 두었을 항아리도 있다. 꽃무늬가 제법 화려한데 전통 가마에 구워 낸 것이 아니라 값싸게 대량 생산된 제품들로 요즘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반무늬 항아리 - 이영실 소장



무늬 도자항아리 - 이영실 소장



꽃무늬 도자항아리 - 이영실 소장



뚜껑 없는 꽃무늬 항아리 - 이영실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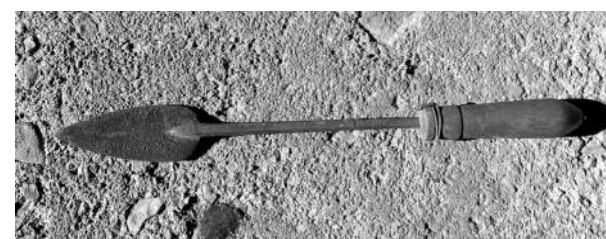
연꽃무늬 항아리 - 이영실 소장

⑤ 요강 : 방에 두고 오줌을 누는 그릇으로 낫쇠나 양은(스테인리스), 사기 따위로 단지처럼 만든다. 옛날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는데 방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던 시절엔 한 밤 중 화장실 가는 것이 곤욕이었다. 필수 혼수품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대개 낫쇠나 사기 등으로 만들었는데, 고유의 낫요강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사기요강으로 대체되었다. 편의성과 위생을 많이 고려하는 현대 주거공간 구조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추억으로만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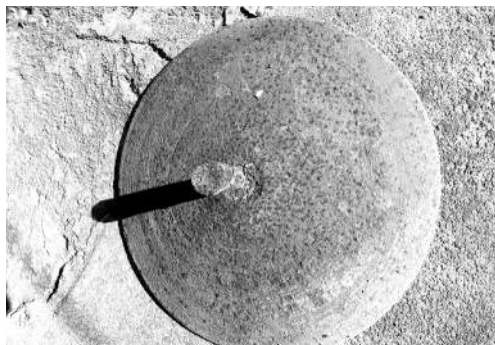
요강 - 정구선 소장

⑥ 인두 : 흔히 '규방칠우'라 함은 바늘, 실, 가위, 자, 골무, 다리미 그리고 인두를 합해 이르는 말이다. 남녀 간의 사회적 역할이 엄격히 구분되던 시절, 부녀자들은 주로 가사를 돌보면서 틈틈이 규방에서 바느질을 벗 삼았다. 인두는 바느질할



인두 - 이영실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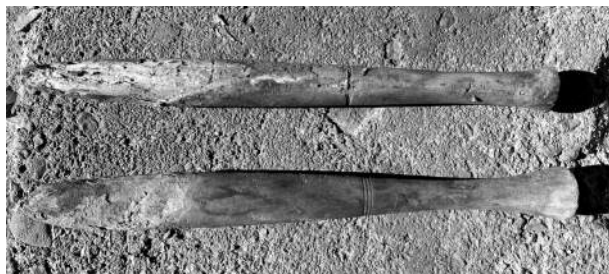
때 불에 달구어 천의 구김살을 눌러 펴거나 솔기를 꺾어 누르는 데 쓰는 기구다. 쇠로 만들며 바닥이 반반하고 긴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중년이상이면 겨울철 벌건 화로에 꽂아 둔 인두를 사용해 저고리 동정을 갈던 어머니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다. 이영실 씨 댁 역시 할머니부터 사용하던 물건이다.



솔뚜껑 - 이영실 소장



찬합 - 이영실 소장



다듬이 방망이 - 이영실 소장

⑦ 솔뚜껑 : 솔과 짝을 이루어 솔 아가리를 덮는 뚜껑이지만 요즘 들어선 독립적인 기능으로 인기가 높다. 솔뚜껑 삼겹살은 여전히 인기다. 이영실 씨 댁에서도 가마솥은 사라지고 솔뚜껑만 남아있다.

⑧ 찬합 : 반찬을 여러 층으로 담는 찬합은 야외 나들이나 소풍 때 흔히 사용하던 그릇이다.

목재로 만든 것이 많았는데, 요즘은 스테인리스나 플라스틱이 많이 보급되어 있다. 꽃 문양이 이채롭다.

⑨ 다듬이 방망이 : 할머니와 어머니가 마주 앉아 다듬잇돌에 깨끗이 땀 옷을 올려놓고 다듬이질을 하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주고받는 박자가 정확했을 뿐 아니라 경쾌하기 이를 데 없었다. 빨랫감에 풀을 먹인 옷감의 구김살을 펴고 부드럽게 하는 다듬이질도 추억 속에만 남게 되었다.



세시풍속과 놀이 · 5

5.

세시풍속과 놀이

5-1 오리골의 세시풍속

1) 설날과 정월의 음식과 세시

설날 차례상에는 다식, 산자, 약과, 전, 포, 나물 등을 준비한다. 다식은 콩, 깨, 쌀로 만들었다. 산자는 조청을 만든 다음에, 쌀을 튀겨 굳은 것에 콩가루를 끼얹어서 만들었다. 한은순 씨는 시어머니께 산자 만드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약과도 만들었다.

전은 녹두를 갈아서 녹두전을 만들었다. 그리고 소고기를 다진 고기전, 두부로 만든 두부전도 만들었다. 조기는 양념을 넣고 찌서 상에 놓으며, 북어포도 놓는다. 나물은 대개 무나물, 숙주나물, 고사리나물의 3가지를 쓴다. 때에 따라 도라지나물을 쓰기도 하며, 시금치나물은 절대 쓰지 않았다. 설날에는 가래떡을 한다. 남자들이 떡메를 치며, 인절미를 하는 경우도 있다. 설날에 인절미를 하지 않으면 정월달에 인절미를 해 먹는다. 인절미를 많이 할 때에는 찹쌀을 넣어 떡메로 쳐서 만들지만, 조금 할 경우에는 절구에다 찧어서 만들어 먹었다. 용인시청 가는 삼거리 쪽에 웃어른들의 산소가 있어 성묘를 간다. 그리고 정초에는 여자들이 널뛰기를 했다. 주로 동사무소 뒤 상범이네 집 마당에서 널을 많이 뛰었다.

2) 정월대보름의 세시

오리골에서는 정월대보름 세시에 달맞이(망우리), 쥐불놀이와 강통돌리기, 돌싸움, 편

싸움, 척사대회 등이 있다. 그리고 제웅만들기, 널뛰기와 농악 등도 있었다.

달맞이는 ‘망우리’라고도 하며, 조, 수수대를 나이 수대로 묶어서 햇불을 만들어 뒷산 현충탑 주위에 올라가 불을 붙이면서 달에게 기원을 했다. 달을 향해서 햇불을 위아래로 흔들며 절하면서 소원을 말한다. 대개 1960년대 후반까지 이것을 했으며, 햇불 안쪽에 쑥을 넣으면 쑥향이 나면서 오래 타기도 한다.

서구인 오리골과 별학이 한 편이 되어 남구 아이들을 상대로 돌쌈(돌싸움)도 했다. 이 돌쌈은 정월대보름에도 했지만, 겨울 방학 때에도 이웃 동네 아이들과 시비가 벌어져서 싸움을 한 적도 있으며, 이것은 나중에 동네 편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오리골에는 주먹을 쓰거나 싸움을 잘 하는 아이들이 있어 이웃 동네에서 쉽게 넘보지를 못 했다.

정초부터 정월대보름 사이에 논두렁에 불을 붙이거나 강통을 이용한 강통돌리기도 했다. 강통은 1970년 전후의 시기에 많이 했는데, 강통의 옆과 밑에 구멍을 뚫어서 나무토막에 불을 붙여 돌리며 놀았다. 이것을 불놀이라고 하는데, 햇불놀이라고도 한 점에서 예전에는 강통 이전에 햇불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정월대보름의 불장난과 불놀이는 매우 재미있는 아이들의 놀이였다. 동네에서는 자주는 아니지만, 1960년 전후로 1~2번 정초에 척사대회를 한 적이 있다. 주로 동네 어른들이 윷놀이에 참여했다.

오리골에는 1950년대에 아이들이 운세가 좋지 않을 때에 어머니들이 제웅이라는 짚인형을 만들어 태워버리기도 했다. 이것은 아이들 나쁜 액을 떠나보낸다는 의미로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세시풍속이다. 목과 허리춤을 묶었으며 다리는 하나였다. 집 안에서 직접 만들어 밖에 나가 태워버렸다. 이것을 제웅이라 했으며, 할머니께서 자식이 잘 되게 해 달라는 뜻에서 만들었다. 당시 다른 지역처럼 짚인형에 동전을 넣지는 않았다. 구술자가 6~10살 즈음으로 기억한다는 걸로 보아, 대략 1950년대 중후반의 시기로 보인다.¹⁷¹⁾

“짚으로 사람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할머니께서 나가서 거기다 불 태웠지요. 안에 동전을 넣었던 기억은 없어요. 어린 시절이죠. 짚으로 목에 하나 묶고, 허리춤에 하나 묶고, 다리는 하나예요, 양쪽으로 갈라지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정월 열나흘날에 이거 했지요. 쥐불놀이도 열 나흘날 했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만들어 나가서 태웠어요. 그거는 까마득하게 잊었는데, 지금 질문하시니 기억이 나네요. 우리 할머니는 집안에 액운이 있어서 그런 거 한 게 있는 것 같고, 아버지 잘 되게 해 달라고 했어요. 내가

171) 안병환(남, 65) 제보

여섯 일곱 살부터 열 살 그 즈음에 그런 거 했으니까, 당시 아버지가 30살 초반이었어요. 오리골은 옛 풍습은 일찍 없어진 거 같아요.”¹⁷²⁾

한편 정월대보름에는 농악을 하기도 했다.

3) 3월의 세시

장은 봄철에 주로 손 없는 좋은 날을 골라 담갔다. 주로 음력 3월에 간장, 고추장, 된장을 담갔다. 간장을 담글 때에는 독안에 숯, 고추, 대추를 넣는다. 숯은 간장이 잘 익으라고 넣으며, 고추와 대추는 간장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 넣는다. 그리고 원새끼를 꼬아서 거기에 숯 3개, 고추 3개를 끼워 간장 독의 주둥이에 두른다. 이것은 부정타지 말라고 하는데, 한은순 씨의 친정이나 시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였다.

간장독 옆에는 창호지로 깨끗한 버선 모양을 오려서 붙인다. 이것은 탈이 생기지 말라는 뜻에서 붙이는데, 왜 버선을 붙였는지는 잘 알지 못하며, 다만 예전 시어머니가 하던 방식대로 장을 담갔다. 된장은 메주를 띄워서 향아리가 질척하게 익으면 먹는다. 고추장도 3월에 담그는데, 용인 고추가 좋은 편이다. 고추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사다가 뿔아서 담갔다.

봄철에는 인근에 나물이 많이 났다. 한은순 씨 시어머니께서는 봄철에 나물을 자주 캐서 음식으로 해 먹었다. 나물로는 냉이, 쑥, 씀바귀를 켜다.

4) 5월의 세시

5월 단오 때엔 처녀들이 그네를 뛰었다. 그 외에 특별한 행사는 없었다. 오리골 향우회 모임인 오우회에서는 예전에 주로 봄이나 어버이날 전후로 야유회를 갔다. 회원들이 회비를 모아서 부모와 어른들을 모시고 야유회를 간 적이 있다. 충주와 단양팔경 등을 다닌 기억이 있다. 근래에 노인들이 몇 분 안 계시고, 회원들이 생업에 바쁘면서 야유회는 거의 가지 못하고 있다.

172) 안병환(남, 65) 제보

6) 6~7월의 세시

백중 때에는 오리골 인근 마평다리 아래에서 씨름대회가 열렸다. 동네 큰 잡화상회인 마린상회에서 후원하기도 했다. 당시 동네의 힘쓰는 젊은이들이 모두 참석했지만, 손기술 좋은 타동네의 김종술이란 분이 주로 송아지를 타갔다. 아이들을 위한 씨름대회도 열려서 학용품을 상으로 주었다.

안병환 씨의 어린시절에는 여름철이 되면 참외와 수박서리를 많이 했다. 주로 명지대 쪽 동진마을에 나무하러 갈 때에 주변 참외나 수박 밭에 가서 서리를 했다. 서리를 많이 하니 까 주인이 수박을 땅에 묻기도 했으며, 간혹 서리 하다가 걸리더라도 야단만 치고 그냥 보내 주었다. 오리골에는 참외나 수박을 재배하지 않아서, 주로 멀리 가서 서리를 했다.

7) 8월과 추석의 세시

8월 추석에는 차례를 지내기 위해 송편을 했다. 송편 속은 대개 팔고물을 넣었다. 콩을 담갔다가 찬물에 불린 다음에 집에서 절구에 넣고 찼어서 송편을 만들었다.

추석의 놀이로는 남자 아이들이 중심이 된 거북놀이가 있는데, 거북이 장난하자고 제안을 한다. 오리골에는 아랫동네와 윗동네가 거북놀이를 따로 했다. 대략 1960년대 중후반까지 거북놀이가 전승되었다.

거북의 형태나 놀이 방식은 아래 윗동네가 유사하다. 거북은 주로 어른들이 만들어 주었다. 수수깥과 수숫잎으로 거북의 형상을 만드는데, 이 마을에는 수수를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명지대 아래쪽 마을인 명진마을에 가서 수숫잎을 따온다.

거북의 몸체는 수숫잎으로 목과 어깨 등에 도롱이 형태로 엮어 걸치고, 다리에 각반 식으로 찬다. 등에는 이엉을 엮는 방식으로 만들어 그 안에 3~4인 정도가 들어갔다.

거북머리는 위아래 동네 모두 큰 소쿠리(대바구니)로 만들었다. 흰 종이에 덧붙여서 이곳에 거북의 형상을 그리는데, 아랫동네는 도깨비 흉내를 내기도 했다. 꼬리는 수수깥 사이에 작대기를 연결해 뒤에서 흔들며 나아간다.

대장은 말 잘 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을 정한다. 각 마을을 다니면서 ‘거북아, 거북아 놀자’ 또는 ‘~놀아보자’고 노래를 부르고, “거북이 왔습니다. 거북이가 강원도 금강산을 거쳐 오느라 배가 몹시 고프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녔다.

마루에 올라가기도 하고, 일제히 마당에 쓰러져서 먹을 것을 더 달라고 떼를 쓰다가 떡

과 돈이 나오면 더 신명나게 놀이를 벌이기도 한다. 그리고 마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오면 돈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모든 마을 가구 수대로 다니지는 못하며, 여유 있는 집을 대상으로 다녔다.

마부는 쌀바가지에 눈, 코, 입 구멍을 뚫어 탈 형태로 만들어 고무줄로 연결해 머리에 썼다. 마부는 노래를 부르며 거북을 인도한다. 거북놀이가 끝난 다음에 모여서 같이 먹으며, 동네 집집마다 다니며 밥을 훔쳐 먹기도 했다.

추석이 지나면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다. 용인초등학교 운동회는 릴레이, 기마전, 오재미 던지기, 장애물 통과하기, 학부모와 같이 뛰기, 동네 대항 달리기 등으로 진행되었다. 학교 운동회는 모두가 즐기는 동네 잔치였다.

한편 8월부터 10월 사이에 냇가에 가서 천렵을 하기도 했다. 김량장동 인근 하천에는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뱀장어, 붕어, 잉어, 피라미, 참모지 등이다. 족대로 잡기도 하고, 투망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여름 장마 이전에 보를 만들어 잡기도 했다. 나중에는 찜찜이라는 자전거 배터리로 고기를 잡기도 했다.

8) 9월의 세시

9월에는 메주를 쑤다. 한은순 씨의 경우에는 대략 콩 1~2말 정도를 쑤다. 메주는 둥글거나 길쭉하게 만들어서 양쪽의 막대기에 줄을 매달아 걸거나, 벽에 걸어서 말린다. 메주 형태를 찍는 틀은 남편이 나무로 짜주어, 여기에 삶은 콩을 찧어 담아 메주 형태를 만들었다. 가을에는 메주를 밖에서 띄우다가, 겨울에는 방에서 띄운다. 메주를 잘 띄워야 장맛이 좋다.

9) 10월의 세시

음력 10월엔 김장을 담근다. 한은순 씨의 집에서는 식구가 많지 않아서 대략 30~40포기 정도를 담갔다. 젓갈은 새우젓, 육젓을 사용했다. 김장 담그기 전에 파와 마늘을 미리 준비해 둔다. 김장은 배추김치, 깍두기, 막판지, 시레기짬지, 무달랭이(총각김치), 동치미 등을 담갔다. 막판지는 배추를 썰어 여러 양념을 해서 담근 배추김치이다. 이곳에서는 총각김치를 무달랭이라고 한다. 이때는 무의 모양을 일정하지 않게 막 잘라서 담근다. 그 대신 동치미는 모양이 좋은 무를 골라 담근다. 짬김치는 봄에 늦게 먹기 위해서 짜게 담근 김치로 외

무를 사용했다. 파를 넣고 짜게 무쳐 담는다. 김장독은 땅에 묻었다. 김칫독을 대개 3~4개 정도 묻었으며, 5개 묻은 적도 있다. 김장독 묻는 일은 남편이 도와주었다.

10월 상달에는 시루떡을 했다. 시루떡을 해서 시루째 떼다가 장광(장독)의 터주가리 있는 데 갖다 놓는다. 그리고 떡을 썰어서 접시에 나누어 방마다 갖다 놓고, 성주님 계신 마루, 조왕님 계신 부엌, 그리고 대문간에도 갖다 놓는다. 조왕을 특별히 위하지는 않지만 떡을 하면 부엌에 갖다 놓았다. 대문간의 상에는 물 한 그릇과 떡 한 그릇을 갖다 놓았다.

10) 11월 세시와 월동 준비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땀감을 준비했다. 11월쯤 되면 월동 준비를 위해 동진마을 쪽으로 가서 나무를 했다. 이곳에서 8길로 정도 떨어진 ‘들골’이라는 곳의 검을 솔밭에 가서 나무를 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 오면 3~4명씩 짝을 지어 지계를 지고 나무하러 갔다.

한은순 씨는 동진마을 쪽으로 가서 나무 한 짐을 이고 오는데, 대략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한다. 이웃집 나뭇단을 높게 쌓은 것을 보고 샘이 나서 여러 날에 걸쳐 나무하러 계속 간 적이 있다. 시어머니께서 야단을 쳐도 옆집 엄마를 불러내 같이 가서 나무 쌓는 재미로 시어머니 몰래 나무를 계속 했다. 때에 따라 하루에 2번, 3번씩 나무를 하러 갈 경우도 있었다. 바쁠 때에는 간혹 나무를 사서 때기도 했다. 예전에 용인 읍내에 수여선 기차가 다녔을 때에는 학교 난로의 연료로 쓰기 위해 역 근처에서 갈탄을 주워서 땀감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동지 때에는 팔죽을 끓여서 먹는데, 안에 옹심이를 넣었다. 팔죽은 고사떡을 할 때처럼 각각 그릇에 담아 대문, 방, 장광 등에 갖다 놓았다.

11) 겨울 세시

겨울철에 썰매를 많이 탔는데, 안병환 씨는 주로 서서 타는 외발 썰매를 잘 탔다. 주변에 눈밭이 많아 그곳에서 썰매를 탔다. 두발 썰매는 속도에 있어 외발 썰매를 당해내지 못한다. 외발 썰매의 날은 처음에는 가는 철사를 사용했다. 그런데 철사는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연탄 집계를 망치로 두들겨 돌로 나눈 다음에, 이것을 갈아서 날을 만들었다. 그리고 썰매 꼬챙이는 대못을 박아서 사용했다. 스케이트를 타는 분이 날이 닳으면 주었기 때문

에 이것으로 외발 썰매를 만들기도 했다.

겨울철에 묵내기 옷놀이나 화투를 하기도 한다. 옷놀이를 해서 지는 사람이 묵값을 내는 방식이다. 겨울철 밤에는 메밀묵 장사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먹기 위해 일부러 옷놀이를 했다. 나중에 화투를 이용해서 묵내기 뽕, 묵내기 민화투를 치기도 했다. 대략 1960년대에 묵치기 내기를 많이 했다.

겨울에는 개떡을 해서 아이들이나 식구들의 군것질로 먹었다. 썩을 삶은 다음에 물에 담갔다가 멧쌀 가루를 섞어 개떡을 해 먹는다.

5-2 오리골의 놀이와 여가

1) 오리골의 집단놀이

(1) 오리골 거북놀이

오리골에는 아랫동네와 윗동네가 나뉘어 8월 추석에 거북놀이를 했다. 아랫동네는 비교적 평지에 가깝고, 윗동네는 산 위쪽에 위치하였다. 생활환경도 윗동네는 매우 빈곤했지만, 아랫동네는 비교적 여유 있는 편이었다.

① 오리골 윗동네 거북놀이 : 오리골 윗동네의 거북놀이는 마지막까지 이 놀이를 놀았던 이영실(남, 56)이 주로 구술했다. 그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마지막 참여했다는 점에서 1960년대 중후반까지 거북놀이가 전승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윗동네에서는 거북놀이를 ‘거북이 장난’이라고 했다. 거북놀이를 하기 하루 전날인 8월 14일에 아이들이 미리 현 명지대 아래쪽에 있는 명진마을로 가서 수숫잎을 따온다. 당시 오리골에서는 수수를 재배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에 따온 수숫잎으로 어른들이 거북을 엮어주는데, 특히 예전 서당 훈장이셨던 학근 선생님께서 거북이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셨다. 이 마을에는 서당은 없었으나 그 분은 구성 지역의 동네에서 글을 가르치다 오신 훈장 분이라 오리골에서도 선생님이라 불렸다. 그분은 당시에 고령이었는데, 구성 쪽에 비슷한 거북놀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분 덕분에 거북놀이가 명맥을 유지했다.

학근 선생님이 짚으로 용마루를 엮어 주셨고 거북이 몸체 안에는 3명이 들어갔다. 그리

고 거북의 얼굴은 소쿠리(대바구니)에 종이를 덧붙이고 여기에 거북의 형상을 그려 머리에 쓰고 다녔다. 그리고 긴 장대 끝에 꿩털을 매달고 글씨는 농사가 잘 되게 해 달라는 뜻으로 ‘농자천하지대본’ 이렇게 썼다. 거북이의 마부가 별도로 있었다.

거북이 대장은 말을 잘 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을 정한다. 그는 각 집에 다니면서 집안이 운수가 좋게 해 달라고 기원도 한다. 그러면 각 가정에서는 떡을 내주는데, 동네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돈이 나오기도 한다. 당시 동네 가구 수대로 모두 다니지는 못했다. 예전 용인학연구소 소장이고, 현 이사인 정영화의 집이 이곳에서는 큰 집이어서 거북놀이 할 때에 꼭 방문했다.

마을은 가난하니까 주로 시장 쪽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농악을 치면서 거북이와 함께 대서소, 양조장, 용광당, 여관, 오리골 제일약국, 중국집 등을 두루 다녔다. 용광당은 잡화 가게로 용인에서 가장 큰 잡화상이었다.

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10대 남자들이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1~2학년까지 참여했다. 거북놀이가 끝난 다음에 밥을 흠쳐 먹으러 동네 집집마다 다녔다.¹⁷³⁾

② 오리골 아랫동네 거북놀이 : 아랫동네도 8월 추석에 거북놀이를 했는데, 안병환 씨(남, 65)가 마지막 대장을 했다. 그리고 이전에는 용인양조장 사무장으로 있는 김재식 씨(남, 73)가 대장을 많이 했다.

이곳은 만중 부친과 복군 부친이 이영 엮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거북이 모습은 수숫잎으로 목과 어깨 등에 비가 올 때 입는 도롱이 차림으로 만들어서 걸쳤다. 다리는 수숫잎으로 꾸미는데, 각반식으로 찼다. 거북이 등은 이영을 엮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거북 머리는 큰 소쿠리로 만들었다. 흰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데, 도깨비 흉내를 냈다. 꼬리는 수수깥 잎사귀 사이에 작대기를 연결해 뒤에서 흔들며 나아갔다.

마부는 얼굴에 쌀바가지로 탈을 만들어 썼다. 이 바가지에 눈, 코, 입 등을 구멍을 뚫는다. 그리고 고무줄로 연결해 머리에 썼다. 타령 식으로 ‘거북아, 거북아 놀자’ 또는 ‘~놀아



오리골 윗동네 거북놀이를 구술하는 이영실 씨

173) 박만호(남, 64), 이영실(남, 56), 정기섭(남, 55) 제보

보자'고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아리랑, 도라지 등의 노래를 불렀다.

대개 3~4인이 “거북이 왔습니다. 거북이가 강원도 금강산을 거쳐 오느라 배가 몹시 고프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녔다. 그리고 마루에 올라가기도 하고, 아래 마당으로 내려가 한바탕 놀다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서 한꺼번에 팍 쓰러진다. 그리고 떡과 돈이 나오면, “신명나게 놀아보자.”하면서 다시 놀이를 한다. 걷은 음식은 나중에 층층대 아래에서 아이들과 동네 어른들이 같이 나누어 먹었다.¹⁷⁴⁾

(2) 김량장동 줄다리기와 별학마을



오리골 옆 작은 별학에 살며 줄다리를 구술하는 조운행 씨

정월대보름에 오리골 옆의 큰 별학(別鶴) 마을에서 줄다리를 했다. 당시 별학은 약 100호 정도 되는 마을로서, 오리골에 비해 규모가 컸다. 후에 두보건설 대표였던 이해동¹⁷⁵⁾이란 분의 집 마당이 상당히 넓었는데 그곳에서 줄을 당겼다.

조운행 씨(남, 82)의 말에 의하면, 해방 전인 일제 말기에는 줄다리를 한 적이 없으며, 14살 해방되던 해에 딱 한 번 보았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억압으로 줄다리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

고, 또는 해마다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줄은 암줄과 수줄을 연결한 쌍줄 형태였다. 줄을 당길 때에 농악이 있었으나, 특별히 오리골에는 농악이 없었다. 그 당시에는 규모가 꽤 컸지만, 줄의 굵기나 길이, 그리고 편을 어떻게 갈랐는지는 어린 나이였기에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해방 이후에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다음 해에 줄을 당겼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피난 이후 다시 고향에 정착했다는 점에서 1950년 이후에는 줄이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김량장동은 크게 방위에 따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앙구로 나뉜다. 동구는 김량장동 사거리 동쪽이며, 북구는 냇가 북쪽이다. 남구는 길 남쪽 편이며, 서구는 별학, 오리골이 중심이다. 그리고 중앙구는 읍내의 가운데와 시장통을 말하는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174) 안병환(남, 65) 제보

175) 당사자는 사망했으나, 그 형님이 춘천의 모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생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살았다. 중앙구는 인구가 한정되었으며, 다만 시장 쪽에 사람들이 몰려 살았다. 서구는 일찍 개발되어 한때 인구가 가장 많았는데, 그곳의 일본 사람들은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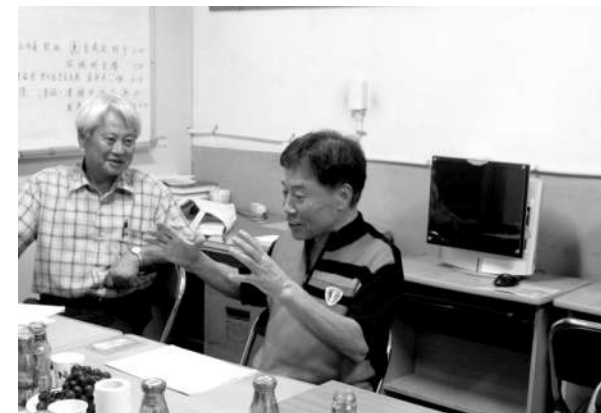
줄다리를 주도한 별학은 오리골 바로 옆 동네로 꽤 큰 마을이다. 현재 문화회관 쪽까지 거의 다 집이었는데, 약 100호 정도의 마을이다. 작은 별학도 약 50호 정도 되었다는 점에서 큰 별학과 작은 별학의 크기는 별 차이가 없었다고 본다. 동네 사람들은 별학을 벼래기라고 말을 한다. 예전에 작은 별학(벼래기)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가뭄에도 마른 적이 없었다. 그곳에서 학이 날아갔다고 해서 별학이라고 이름지었다는 말이 전해진다.

조운행 씨는 작은 별학에 살았다. 그의 집은 산업도로에 있어 작은 고개를 넘으면 바로 오리골이다. 거의 오리골과 별학의 경계라고 할 수 있다. 별학은 처인구청 있는 곳까지 뻗어 있다.

별학은 터가 넓었으며, 대체로 전주 이씨 마을이라 할 정도로 이씨가 많이 살았다. 그리고 한양 조씨네가 약간 사는 정도이다. 조씨들은 땅이 많이 있었으며, 생활은 대체로 부유했다. 그래서 별학은 조씨와 이씨 이외에 타성바지들은 거의 발을 못 붙였다.¹⁷⁶⁾

(3) 정월대보름 석전과 편싸움, 달맞이

① 달맞이(망우리) : 오리골에서는 정월대보름날 저녁에 햇불로 달맞이를 한다. 조 수숫대를 나이 수만큼 묶은 다음에 이것에 불을 붙였다. 이영실 씨는 동네의 용범 조부께서 조 짚대를 엮어 주셨다고 한다. 당시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땀감으로 사용하던 시절인데, 솔잎을 죽 벌여놓고, 짚으로 나이 수만큼 묶는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달이 떠오르면 “망월이여, 달님보고, 달님보고 절합니다.”라고 하면서 현충탑 주위의 밭에서 달맞이를 했다. 이것을 ‘달맞이’라고 하며, ‘망우리’, ‘망우리’라고도 했다.



예전 놀이에 대해 구술하는 안병환 씨

176) 조운행(남, 82) 제보

② 돌쌘(돌싸움) : 돌을 던지면서 싸우는 석전을 이곳에는 ‘돌쌘’이라고 하는데, 김량장 동에서 주로 서구와 남구 사이에 했다. 서구는 오리골과 별학이 중심이다. 주로 방학 때에 아이들 사이에 시비가 벌어지면서 돌싸움을 했는데, 정월 대보름 때에도 이 놀이를 했다.

③ 쥐불놀이 : 쥐불놀이는 원래는 논두렁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당시 불장난은 매우 재미있었다. 그리고 망우리를 한 다음에 햇불을 위아래로 흔들거나 머리 위로 돌린다. 이 놀이를 할 때에 ‘불놀이하자’, ‘햇불놀이 하자’라고 말했다. 대략 70~80cm 정도의 짚으로 묶는데, 안에 쑥을 넣는다. 그래야 탈 때에 냄새가 나면서 오래 타게 된다. 아마 나이 수대로 묶었던 것 같다. 햇불은 그리 오래 타지 않아 20~30분 지나면 다 타게 된다.

깡통돌리기는 안병환 씨(남, 65)가 어릴 적에는 오리골에 없었으며, 좀 커서 알게 되었다. 나중에 초등학교 3~4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이 놀이를 하는 것을 보았다. 이영실 씨(남, 56)는 ‘국민학교’ 초기에 깡통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대략 깡통을 이용한 쥐불놀이는 1960년대 후반부터 한 것으로 보인다. 깡통 곁에 못을 이용해 아래 쪽과 옆쪽에 구멍을 뚫는다. 그 안에 나무조각을 넣어 불을 붙여 돌리며 노는 것이다. 오리골에서는 햇불이나 깡통으로 싸움을 하지는 않았다.

④ 편싸움 : 편싸움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학교에서 ‘한 번 붙을래?’ 하고 서로 이웃 동네끼리 싸움을 건다. 그래서 날을 잡아 이웃 마을과 집단 편싸움을 벌인다.

인근에서 오리골이 가장 센 편이었다. 오리골에는 인근에서 꽤 알려진 학생들이 있었는데, 주먹을 켜던 전○남 씨, 4년 선배인 이○중 씨 등이 당시 편싸움을 주도했다. 전○남 씨는 오리골 아랫동네에 살았으며, 안병환 씨의 2년 선배로서 주먹으로 인근에 꽤 알려졌다. 한편 이○중 씨는 윗동네에 사는 4년 선배로서 공부도 잘 하고, 축구도 잘 했다. 그는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방첩대에 근무했다. 당시 이들이 오리골의 편싸움을 주도하면서 이웃 동네에서도 쉽게 넘볼 수가 없었다. 이들은 용인초등학교와 태성중학교 동창들이다.

⑤ 농악 : 마을회관 완공이나 사방공사, 거북놀이를 할 때 농악을 했다. 일년 중에 추석 때와 정월대보름 시기에 농악을 주로 했다. 당시 고깔과 비슷한 세모난 모자를 쓰고, 상모를 돌리기도 했다.¹⁷⁷⁾

2) 오리골의 개인놀이

(1) 놀이공간

예전 오리골 아이들의 놀이공간은 현충탑 주위, 그리고 전매소 옆 낭떠러지 숲속이다. 지금 5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까지 어린 시절에 주로 그 놀이장소에서 놀았다. 대략 그 시기는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이다.

당시 현충탑 주위에서 주로 놀았는데, 놀이터 주위에 계단이 원래 3칸 있었다. 김재식 씨(남, 73)는 지금은 2칸만 남아 있지만, 그 계단이 신궁(신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신궁은 일제강점기에 신사가 있던 곳이다. 이 신궁에는 한 계단이 20개 정도로 전부 4계단이 있었다. 거의 100계단에 가까울 정도로 꽤 계단이 높았다. 현재 장로교 교회 십자가 높이 정도에 신궁이 위치해 있었다.

이영실 씨(남, 56)에 의하면, 예전에 3칸 위에 흰 예배당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중앙감리교였는데, 지금은 시장 쪽으로 교회가 이전했다. 12시에 종탑을 올리는데, 계단 위에 올라가서 몰래 종을 치고 도망가기도 했다고 한다. 교회 옆으로 신궁 가는 길이 있었으며, 양쪽에 잣나무와 소나무가 많았다. 이곳 길에는 잔디가 있었으며, 주위에 큰 나무들이 많아 음침했기 때문에 많은 젊은 남녀의 연애장소로 알려졌다. 오리골은 텃세가 심했는데 다른 동네 아이가 오면 때리기도 해서, 주로 오리골 아이들만의 놀이터였다.

한편 전매소 옆에 깎아 세운 낭떠러지 길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그곳에서도 놀았다. 한쪽에 숲이 있었으며, 낭떠러지는 15m 이상 되는 절벽이었다.¹⁷⁸⁾



신궁(신궁)이 있었던 계단 근처 놀이공간

177) 이영실(남, 56), 박만호(남, 64), 정기섭(남, 55) 제보 (2014.9.15)

178) 김재식(남, 73), 박만호(남, 64), 이영실(남, 56), 정기섭(남, 55), 제보

(2) 윷놀이

오리골에서 동네의 상범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1~2번 척사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안병환 씨(남, 65)가 대략 초등학교 3~4학년 시기로 기억한다는 점에서 1960년 전후로 여겨진다.

한편 그는 1960년대에 친구들과 묵내기 윷놀이를 많이 했다. 윷을 놀아 지는 사람이 묵을 내는 것으로, 당시 이것을 묵치기 윷놀이라 했다. 당시 메밀묵을 잘 만들어 돌아다니며 파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겨울철 밤에 출출하면, 친구들과 윷놀이를 해서 지는 사람이 묵값을 내는 묵내기 윷놀이를 많이 했다.

한편 김재식 씨(남, 74)는 양조장에 근무하던 시절에 윷놀이를 많이 했다. 그 때에 양조장 작업장의 술 항아리 있는 곳에서 밤을 새워가며 윷놀이를 한 적이 있다. 사장이 아침에 와서 “김 총무, 그렇게 윷놀이가 좋아?”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시 약간의 돈을 걸고 내기를 하기도 했다. 당시 윷의 승부는 각자 말이 4개 모두 나가야 이기는 건데, 만약 상대방이 하나도 못 나가면 내기의 배를 내는 방식이었다.¹⁷⁹⁾

(3) 구슬치기(댕구치기, 다마치기)

구슬치기를 당시 다마(구슬의 일본말)치기라고 했다. 작은 다마, 큰 다마를 가지고 상대방 다마를 맞히는 놀이로 눈앞에 놓고 던지거나 팔 아래로 던지기도 했다.

또한 댕구치기라고 해서 땅에 구멍 여러 개를 만들어 한 바퀴 돌아오는 방식의 다마치기도 있었다. 당시 돌을 갈아서 다마를 만들었다. 그리고 돌맹이를 벽에 세우고 다마를 떨어뜨려서 가까이 가는 사람이 모두 따먹는 방식도 있었다. 이때 잘못 맞히면 오히려 벌금을 냈다. 안병환 씨가 주로 초등학교 시절에 이 놀이를 많이 했다는 점에서 대략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¹⁸⁰⁾

김재식 씨는 여동생을 업고 댕구(댕고라 발음, 다마)치기를 한 기억이 있다. 중1 시절에 학교에 갔다오면 어머니께서 여동생을 가리키며 “애 줘, 업어줘라.”해서, 등에 업고서 댕구(다마)치기를 했다. 당시 댕구치기를 좋아해서 양 손에 한 주먹씩 다마를 쥐고 놀이에

179) 김재식(남, 73), 안병환(남, 65) 제보

180) 안병환(남, 65) 제보

열중했다. 아이를 업고 놀이를 한참 하다 보면, 허리가 뜨끔하다. 그러면 업은 동생이 오줌을 싼 것인데, 한 2시간 동안 놀이에 열중하다보면 오줌이 다시 말랐다.

그는 원래 댕구치기를 매우 잘 하는 편이어서 다마를 많이 따서 주머니에 넣을 데가 없을 정도였다. 당시 다마는 유리로 되어 있었으며, 색깔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다. 편을 갈라서 노는데 인원은 2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었다. 땅에 구멍 3곳을 파고 다마를 구멍에 넣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마로 상대방 것을 맞히는 방식도 있다. 2~3m 정도 거리로 떨어져서 던져서 맞춰 상대방 다마를 먹는 방식이다. 댕구는 주로 가게에서 돈을 주고 구입했다.¹⁸¹⁾

(4) 썰매타기

겨울철에 썰매를 많이 탔는데, 안병환 씨는 주로 주변의 논밭에서 서서 타는 외발 썰매를 탔다. 두발 썰매는 속도에 있어서 외발 썰매를 당해내지 못했다. 외발 썰매의 날은 처음에는 가는 철사를 사용했다. 그런데 철사는 자꾸 넘어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연탄 집계를 망치로 두드려 둘로 자른 다음에, 이것을 갈아서 날을 만들어 사용했다. 그리고 썰매 꼬챙이는 대못을 박아서 사용했다.

예전에 산림계장을 하던 백승찬이란 사람이 집안이 부자였으며, 스케이트를 잘 탔는데 그분이 스케이트를 타다 날이 다 닳으면 그 날을 어린 안병환 씨에게 주었다. 그것으로 외발 썰매의 날을 만들면 썰매가 매우 잘 나갔다.

(5) 학자원수놀이

학자원수놀이를 대장원수놀이라고도 한다. 대장원수를 우선 뽑고, 각각 계급을 정하며, 또한 술래를 정한다. 그리고 마분지로 된 딱지에 각각 역할을 적는다. 한 팀이 10여 명인데, 줄병은 대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한다. 그래서 한 친구를 똥통이 있는 곳에 세워놓은 적도 있고, 집안의 짚을 쌓은 울타리 뒤에 숨기도 했다.¹⁸²⁾

181) 김재식(남, 73) 제보

182) 안병환(남, 65) 제보

(6) 씨름

백중날에 주로 마평다리 밑에서 씨름대회가 있었는데, 주변에 힘을 쓴다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했다. 송아지를 상으로 내걸고 대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마린상회에서 후원했다. 당시 씨름대회에는 오천에 사는 김종술이란 사람이 워낙 손재주가 좋아서 송아지를 많이 타갔다. 한편 아이들 씨름대회도 있었는데, 상으로 공책과 연필을 주었다.

“씨름은 우리 동네에 인재가 없어서, 백중 때 구경은 갔지. 마평 다리 밑에서 했어요. 제일 처음에 부영약국 있는 데에서 하다가, 주로 마평 다리 밑에서 많이 했지. 백중 씨름이 썰지요. 우리 어려서는 오천 김종술이라는 사람이 주로 송아지를 다 타 갔어요. 오천 김종술이라고, 키도 크지 않고 작은 체구에 손기술이 뛰어났어요. 기술 좋은 씨름 선수 최옥진처럼 그런 기술이 있어. 지금도 그 사람 기억이 나는데, 오천은 이천쪽 양지 가기 전에 있어요. 차지철이 고향이지. 그때 종술이, 종술이 하면 유명했지요. 나중에 원유학이 큰 형이 유도를 했는데, 그 사람은 씨름으로 맞붙었는데, 상대를 돌리는 거예요. 휘 휘 돌리다 메치지도 않고, 딱 내려놓으니까, 그냥 제풀에 픽 쓰러지더라고. 이성수 교장 선생님 아들, 그 형님도 유도를 했어요. 이인형씨 큰 형, 그들 세 양반들이 나오면서 종술이라는 분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어. 힘이 좋고 유도를 해서, 씨름을 잘 했어요. 일수 아버지, 이승업씨도 그 후에 씨름을 장악했어. 나중에 60년대에는 충남 홍성, 강원도에서도 사람들이 왔지요. 그때 백중 때에 아이들 씨름도 있었어요. 나도 씨름 대회에 참가해서 공책하고 연필 한 타스 타고 그랬어.”¹⁸³⁾

(7) 널뛰기

오리골에서 널뛰기를 많이 했는데, 주로 동사무소 뒤의 상범이네 집 마당에서 했다. 여자들이 주로 널을 뛰었고, 남자들은 별로 하지 않았다. 한은순 씨(여, 88)는 시집오기 전에 정초에 친정인 방축골에서 널을 뛰었다. 시집 와서는 널뛰기를 하지 않았다.

183) 안병환(남, 65) 제보

(8) 그네뛰기

단오 때에 처녀들이 그네를 뛰었다. 여자들이 주로 그네뛰기를 했다.

(9) 곤지

안병환 씨는 예전에 곤지를 많이 했다. 그래서 한 번은 신공(신사) 올라가는 계단의 시멘트 바닥에 못으로 곤지를 직접 그리기도 했는데,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다. 곧 감리교회 층층대 바닥에 망치와 징을 가져가서 곤지그림을 직접 새긴 적이 있다. 구체적인 곤지놀이의 종류와 놀이 방식은 하도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10) 자치기

어릴 적에 자치기를 많이 했다. 긴 것은 자치기라고 했으며, 긴 나무를 깎아서 홈을 만들었다. 작은 것은 십자가 치기라고 했다. 작은 것으로 긴 자를 쳐서 멀리 보내면 이기는 것이다.

(11) 해골 공차기

어릴 적인 1950년대에 신공(신사) 주위에서 사람의 해골로 공을 찬 적이 있다. 전쟁 시기로 기억하는데,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 멋모르고 해골바가지로 공을 찼던 것으로 기억한다.¹⁸⁴⁾



안병환 씨가 계단에 새긴 곤지놀이판

(12) 엇치기

엇장사가 오면 엇치기를 했다. 엇을 잘라서 구멍이 가장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현

184) 김재식(남, 73) 제보

신발, 빈 병, 양은 찌그러진 것, 심지어 할머니 머리카락까지 엇과 바뀔 먹었다. 당시 엇은 흰엇, 갱엇(붉은 엇), 깨엇이 있었으며, 엇장사는 가위를 두드리며 돌아다녔다.¹⁸⁵⁾

3) 여가생활과 유흥

(1) 운동회

용인초등학교 운동회의 종목은 릴레이, 고학년의 기마전, 오재미 던져 바구니 터뜨리기, 부모님·어른들과 같이 뛰기, 장애물 통과하기 등이 있었다. 오재미로 바구니를 터뜨리면 안에서 색종이가 날렸다. 동네 주민 대항 달리기가 있었는데, 대략 부모들의 편가르기는 자식들에 따라서 청군, 백군 편으로 나뉜다. 운동회 때에 주민들이 대부분 음식을 싸가지고 왔기 때문에 장사치들은 별로 오지 않았다. 당시 김밥에 ‘오렌지’가 가장 인기가 있었다. 오렌지는 오란씨 음료가 나오기 전에 나온 음료수이다.¹⁸⁶⁾

(2) 화투치기

안병환 씨는 초등학교 시절에 처음에는 묵내기 윗놀이를 하다가, 나중에 좀 커서는 화투치기 묵내기를 했다. 당시 묵내기 뽕, 묵내기 민화투를 주로 쳤다. 그 때의 화투는 종이 화투였으며, 치다가 벗겨져서 회가루가 날리기도 했다.

김재식 씨는 양조장 근무 시절에 돈내기 윗놀이를 하던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용인 자연농원에서 나오는 음식물로 돼지농원을 했는데, 노름 화투를 좋아했다. 한 번은 서울 마장동에 가서 소와 돼지 판 돈을 한 자루 메고 와서 노름 화투를 한 적도 있다.

(3) 안병환 씨의 사진찍기

안병환 씨는 태성중학교 졸업 직후에 150원을 주고 작은 카메라를 사서 사진을 많이 찍었다. 그가 이번 조사에 내놓은 본인과 동생, 모친 사진 등은 당시 구입한 카메라로 찍은

185) 안병환(남, 65) 제보
186) 안병환(남, 65) 제보

것이다. 당시 등록금이 400원이었는데, 중학교 시절 살림이 어려워 등록금을 내지 못하자, 강창희 교사가 3년 치 등록금을 대납해 준 적도 있다. 태성중학교는 사립학교로 그는 20회 졸업이며, 당시 졸업식은 용인극장에서 했다. 용인초등학교는 45회 졸업생으로 학교에 갈 때에 굴렁쇠를 굴리며 학교에 간 기억이 있으며, 각 학년은 1~2반만 있었다.



1957년도 말 집 앞의 모친, 아래 동생, 안병환 씨(오른쪽부터)



1957년도 집 앞 울타리의 안병환 씨의 모친과 아래 동생

(4) 용인극장 몰래 들어가기

영화를 보기 위해 용인극장 뒤쪽 화장실로 몰래 들어간 적도 있다. 이것을 아이들은 ‘극장 썰비해서 들어간다.’고 말한다. 극장엘 몰래 들어가려다 들켜 매를 맞은 적도 있다. 한 편 화장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니까 극장 주인이 화장실의 창문에 창살을 만들기도 했다. 나중에 극장 뒤쪽 변소의 똥을 푸는 곳으로 들어간 적도 있을 정도로 짓궂었다. 그때 변소는 재래식으로 이것을 퍼서 봄에 밭의 거름으로 사용했다.¹⁸⁷⁾

187) 안병환(남, 65) 제보



어릴 적 놀기 좋아하고 놀이에 뛰어났던 안병환 씨

(5) 무 흠쳐 먹기

과거 용인극장 뒤에 무밭이 있었는데, 학교 다녀오다가 배가 고파 그냥 무를 뽑아 먹기도 했다. 무를 뽑아서 무청을 끓고, 무는 푹 잘라서 실컷 먹은 다음에, 가슴에 3개를 안고 나오는데, 당시 무 밭의 주인인 시장 부친께서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던 기억이 있다. 이 동네에서는 참외나 수박 농사를 짓지는 않았다.¹⁸⁸⁾

(6) 천렵

용인 시내에서 오리골 인근 하천은 금학천이고, 다른 쪽 하천은 김량천이다. 김량천은 경안천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물이 만나는 곳에는 고기가 많다. 그래서 이 냇가에서 천렵을 하기도 했다.

이곳 김량장동 냇가에는 뱀장어가 많았다. 처음에 그물로 잡다가, 나중에 ‘징징이’라는 자전거 배터리로 잡기도 했다. 배터리로 잡으면 주변 고기가 몰살을 하지만, 예전에는 이것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작은 개울에서는 족대로 고기를 잡았다. 그리고 냇가에 보를 만들어 잡기도 했는데, 장마 때에 다행히 보가 안 떠내려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다. 물고기는 붕어, 뱀장어, 잉어, 피라미, 참모지(참마자) 등 한강에서 잡히는 것은 이곳에서 다 잡힌다. 지금도 참마자가 많이 잡히는 편이다. 당시 어른들은 ‘천렵간다’고 했는데, 아이들도 어른들 천렵에 따라가서 얻어먹은 적도 있다. 대개 8월부터 10월 사이에 천렵을 가며, 겨울철에 삼으로 논두렁을 옆으면 미꾸라지가 많이 잡히기도 했다.

용인은 경기도에서 지대가 높은 곳으로, 모든 하천의 발원지가 이곳에 있다. 대략 해발 100미터 정도로, 다른 시군보다 지대가 훨씬 높다. 경안천의 발원지는 용인의 석유비치기 지 쪽이고, 탄천은 시청 뒤 물푸레마음이 발원지로 성남을 거쳐 한강으로 빠진다. 진위천은 평택을 거쳐 서해바다 쪽으로 빠지는데, 용인이 발원지이다. 청미천도 이곳에서 발원하여 장호원을 거쳐 남한강으로 빠진다.¹⁸⁹⁾

188) 안병환(남, 65) 제보

189) 이영실(남, 56) 제보

(7) 개구리 잡기

개구리는 잡아서 뒷다리를 구워 먹었다. 논개구리보다는 산과 평지의 밭이 연결되는 지역에 큰 개구리가 많이 있었다. 싸릿가지로 야구선수보다 정확하게 때려서 잡았다. 소금하고 성냥만 가져가서 철사줄에 끼워가지고 불에 구워먹었다. 당시 동네에 소나 돼지를 키우는 집이 별로 없고, 가난해서 고기를 먹기 힘들었다. 그래서 어릴 적에 개구리라도 많이 먹어서 영양을 보충한 거 같다.¹⁹⁰⁾

(8) 꿩, 토끼 사냥

예전에 오리골 인근 산에는 꿩이나 토끼가 많이 있었다. 동네에서 훈장을 했던 학근 선생님이 꿩이나 토끼를 잘 잡았다. 주로 겨울철에 사냥을 하는데, 어른들이 주동하고 아이들도 함께 가서 사냥을 했다. 당시 뒷산에 가면 토끼가 막 돌아다닐 정도로 많이 있었다.¹⁹¹⁾

190) 안병환(남, 65) 제보

191) 안병환(남, 65) 제보

오리골
사람들의
삶과 일생
·
6



6. 오리골 사람들의 삶과 일생

일생의례(一生儀禮)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시간동안 경험하는 의례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과의례(通過儀禮)라고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생을 살다가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생의례는 건강, 행복, 자손번성, 마을안녕, 집안평안 등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일생의례를 통해서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며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전통사회에서는 태어나고 자란 마을을 떠나는 경우(여성의 경우 혼인을 통해 출생지를 떠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일생의례는 대부분 출생지를 기반으로 형성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일생의례는 마을의 인문,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 마을의 일생의례는 마을 사람들이 주변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적응하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오리골은 일제강점기부터 용인시의 중심지에 속한 마을로, 김량장이라는 상업지역의 배후지로 존재하였다. 자연히 생업을 위한 전출입이 현재까지도 상당한 곳이다. 이에 따라 가까이는 용인군내와 경기도 남부지역부터 멀리는 경상도 지역에서 이주해 온 경우까지 다양한 출신지(이주 초기 세대)의 사람들까지 어울려 사는 곳이 오리골이다.

오리골은 일제강점기 군청, 경찰서, 신사 등의 일제 통치기관이 몰려있던 곳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관습의 변화와 약화가 있었던 곳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부터 가난한 사람이 모여 살던 마을이기 때문에, 가정형편과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전통적인 일생의례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지인 오리골을 전통적인 농경 위주의 마을과 달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일생의례에서 다루는 출생, 결혼, 상장례, 제례 등과 함께 이사, 직업선택 등의 시기도 다루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대표적인 이사의례인 ‘떡돌리기’와 ‘집들이’와 첫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을 추가하여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출신지역에서 온 주민들이 마을에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 출생, 결혼, 죽음, 추모의례를 통해 가족과 마을사람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는 과정을 살필 것이며, 다양한 생업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6-1 오리골에 거(居)하다

“그 당시에는 오리골이라는 동네는 아주 못살았어. 제일 못 살은 동네가 여기야. 그다음에 이게 하천이지? 하천. 요기 은덕골. 여기 은덕골. 산 있잖아. 산 밑에 교회하나 있지? 교회니까. 요 두 군데가 제일 못살았던 동네야. 용인시 중에서.”¹⁹²⁾

오리골은 용인에서 용인시장 북쪽의 응덕골과 더불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한다. ‘가난한 사람이 이사를 와서 돈을 벌고 나가는 동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다른 전통마을과 달리 오리골에서는 집안 대대로 현재까지 살아온 집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과거에는 대대로 오리골에 거주하였던 집안이 존재했을지는 모르나, 현재는 전부 오리골을 떠나 제보자를 찾기 힘들었다. 현재 오리골에 거주하거나 최근에 인근 지역으로 떠난 주민 중에서 장기간 마을에 거주한 집안은 일제강점기에 조부모 혹은 부모 세대에 오리골에 이주를 해온 경우이며, 길게 잡아도 100년 미만의 거주기간을 가지고 있다.

이중 오리골에서 현재까지 거주하는 집은 부친이 초당골(현 동백지구) 출신인 김량장동6통 통장을 맡고 있는 조충호 씨 댁과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한은순 씨 댁이다. 2000년대 후반 마을을 떠났지만 마을에 거주했던 주민으로서 오리골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김재식 씨(삼박골 거주)가 있다.

일제강점기 시기 오리골에 이주해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

192) 김재식(남, 73) 제보

었다. 오리골은 당시 행정기관과 상업시설이 몰려있던 용인의 중심지의 배후지로서, 담배 전매소, 면사무소, 경찰서, 김량장, 양조장, 정미소 등이 인근에 몰려있어 직업을 구하기가 쉬웠다. 또한 김량장에서 직접 장사를 하여 생계를 이어나갈 수도 있었다.

1) 이사와 집들이

생업을 이유로 한 오리골 이주는 해방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7살에 오리골에 이사를 온 김재식 씨 집도 생업환경을 이유로 오리골로 이주해 온 경우이다. 1919년생인 김재식 씨의 부친은 29살에 당시 살고 있던 용인군 원삼면 사암리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김량장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김재식 씨 부친은 당시 김량장에서 자전거로 쌀 배달을 하였다고 한다.

“(아버지는 왜 이사를 오셨어요?)

원삼면에서 산다는 게 농사(자기 소유 땅)가 없으니까 맨날 남의 것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용인으로 나가자’ 그래서 이사온거야. 내가 그때가 대여섯 살 때니까. 아버님도 젊잖아. 그러니까 아예 나온 거여.

(그때 아버지 연세는 어떻게 되었어요?)

글쎄...아버님이 19년생이걸랑. 19년생. 스물여덟살정도 될거야. 19년생이니까.

(오리골이 살기 더 나았어요?)

여기? 원삼보다는 나으니까. [지도에서 용인시장 부근을 가리키며] 중심은 여기가 중심이지. 여기가 다. 왜냐면은 4개동이 삼가동. 남동. 역북동. 고림동. 이게 다 있잖아. (당시 용인 전체)중심이 이거야. (일자리도) 그 당시에는 많아. 일자리가 용인 밖에 없었지.”¹⁹³⁾

1940년 대 후반의 오리골에는 면사무소, 경찰서 등의 행정기관과 경찰관사, 군청관사 등과 일본식 함석집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가 초가집이었다. 초가집과 개량집의 구분은 오리골의 공간배치와 명확하게 일치하는데, 김량장과 접해있는 아랫마을에는 주로 신식가옥이 있었고, 신사를 기준으로 윗동네는 초가집 십 여 채가 오리골의 중심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193) 김재식(남, 73) 제보

당시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현재 중앙동주민센터 자리에 있던 과수원 주인과 갈영사라 불리는 갈경수 씨 댁, 함석집이나마 가지고 있었던 김재식 씨 부친 등 아랫마을에 거주하던 3~4명이 전부였고, 오리골에 거주하던 대부분의 집들은 남의 소유의 초가집이나 창고방 등에 세를 들어 살고 있었다고 한다.

현재 이영실 씨 가족이 어머니 한은순 씨를 모시고 사는 집을 통해 과거 오리골의 가옥 구조를 알 수 있다.

“요 당시에 사는 집 주인이. 요게 요기 요거 갈경수 집이야. 갈영사라고. 갈경수, 요게 백씨, 김씨, 요거 세 집이. 여기 세 집이 있었어. 우리 집하고. 여기는 거의 없는 사람이 살았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사는 집은 우리 집하고 과수원집, 요집 셋 넷. 요정도고 나머지는 다 세주고 사는 사람들이야. 여기는 다 있었는데 거의 다 셋방집이고. 요런데다가 뭐 하나 창고 식으로 지어서 살고 그렇게 한 거야. 다 요렇게. 요거 밖에 없었는데 요기다가 창고 식으로 지어서 세를 주고 살은 거야.”¹⁹⁴⁾

김량장에서 별학(배래기)으로 이어지는 마을의 중심길 양옆으로만 가옥 십여 채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주로 가옥이 형성되어 있던 곳은 현재 김량장 6통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다가 한국전쟁 이후 시기부터 밭, 논, 산지였던 땅에 무허가로 집을 짓거나 땅주인에게 도지를 주고 집을 지어 살면서 마을의 인구가 늘기 시작하여, 현재는 오리골 전역에 걸쳐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다.

한국전쟁 후 오리골은 빈촌이었다고 한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무허가집도 많았고, 주인이 있는 터에 도지(밭의 사용료)를 주고 들어와 사는 경우가 많았다. 집터에 대한 도지는 일 년에 쌀이나 보리와 같은 곡식을 한 말로 지불하였다고 한다. 현재 집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산이나 논, 밭이었던 곳으로, 집을 지어 살다가 나중에 땅주인에게 집터를 구입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가옥의 등기가 나곤 했다.

김재식 씨 부친은 소규모의 일본식 함석집을 구입하며 오리골에 이사를 왔다. 당시 국가가 압류하고 있던 일본인 소유의 가옥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보여진다.

194) 김재식(남, 73) 제보

“거기서 (오리골에) 이사 왔을 때에 우리 집이 일본집이야. 함석으로 이렇게 만들은 집이 있어. 옛날에, 그거를 우리가 싸게 사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거 아마 압류해서 없는 사람마다 싸게 줬나봐.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없었을 때니까, 그거를 사가지고 찌그매요, 집이. 그래서 거기서 살았어.”¹⁹⁵⁾

세간살이 등의 이삿짐 나르기는 친척 혹은 친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가족의 힘만으로 이루어졌다. 당시로서는 가난한 집이 많아 이사를 와도 집들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리골에 원래 살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로 하는, ‘이사 떡 돌리기’ 풍습만은 하였다. ‘이사 떡 돌리기’를 통해 이사 온 사실을 알리고 서로 얼굴을 익혀, 왕래가 가능하였던 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사 떡의 종류는 집에서 만든 팔 시루떡이었다.

가정 형편에 따라서 집과 먼하고 있는 이웃 몇 집에만 떡을 돌리는 수도 있었고, 마을 전체나 거의 한 마을이나 마찬가지로였던 별학(배래기)까지 떡을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그때 와서 바로는 집들이를 못하지. 왜냐면 함석집에 와서 살고 그러는데 그 집들이를 할 새가 어디 있어? 먹고사는 것도 힘 드는데. 그렇잖아? (떡?) 왜? 떡도 많이 해. 떡을 많이 돌려. 시루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줘.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큰놈은 어느 집, 어느집 가라. 둘째는 어느 집 가라 다 이렇게 정해줘.”¹⁹⁶⁾

“이사 오면 이사 왔다고 ‘아무네 집에 왔소’ 하면서 아무개집에 이사 왔으니까 동네사람들한테 다 인사치레로 돌리고 그랬다고. 그러면 (떡을 직접 받지 않은 사람도)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그러면 (떡을 받은 집안 사람이) ‘아니 여기 새로 이사 온 집에서 (보내) 온 거여’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우선 떡 받아먹고 했으니까 사람이 오고가고 왕래가 있지. 시방은 이사를 가는지 오는지를 알지를 못하는데.”¹⁹⁷⁾

195) 김재식(남, 73) 제보
196) 김재식(남, 73) 제보
197) 조운행(남, 82) 제보

2) 집짓기와 집들이

오리골에 거주하는 마을사람들이 생업전선에서 열심히 일을 해감에 따라 마을의 풍경도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한다. 1960~1970년대를 거치면서 돈을 모아 오리골 내에서 이사를 하기도 하였고, 낡고 오래된 집을 수리하거나 아예 헐고, ‘한옥’이나 ‘양옥집’으로 새로 짓는 경우도 늘어났다.

당시 용인에는 양옥집이 별로 없었다. 현재 오리골에서 무당이 살고 있는 삼거리의 가옥이 오리골에서 첫 번째로 지은 양옥집이다. 당시에 건축 설계소 소장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자신 소유의 집을 양옥집으로 지은 것이었다. 두 번째로 지은 양옥집은 현재 조충호 씨가 거주하고 있는 가옥이다.

현재 통장을 맡고 있는 조충호 씨의 아버지는 초당골(현 동백지구) 출신이다. 아버지가 초당골에서 오리골로 이사를 와서 현재까지 조충호 씨가 이어서 살고 있다. 조충호 씨 아버지가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오리골 윗마을 안쪽에 살았다. 그 후 오리골 삼거리에 있는 초가집(현재 무당집)으로 옮겨와 세를 살다가 아버지가 초가집 한 채를 구입하면서 오리골 안에서만 3번의 이사를 하게 된다.

조충호 씨 가족은 조충호 씨가 군에서 제대할 때까지 3번째 이사를 한 초가집에서 살았다. 조충호 씨는 제대 후 더 이상 초가집에서는 살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초가집을 헐고 건축회사에 의뢰를 하여 2층 양옥집으로 새로 지었다. 오리골에서 두 번째로 지은 양옥집이었다. 이때가 1972년경이었다. 이때 지은 가옥에서 조충호 씨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요 워여 워. 조 워 살다 여기 살다 여기 세 번째 온 거야. 조금 위로, 삼거리 좀 위에 살다가 삼거리 절집 있지? 절집이 짓기 전에 헌집이 있었어. 거기서 세 살다가 이리 온 거야. 아버지가 초가집을 샀어. 아주 옛날에 초가집이었어. 이거 살다가 내가 제대하고 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걸 다 헐고 집을 지은거야. 옛날에 여기 양옥집이 용인에 별로 없었어. 저 집에 은행나무 큰 거 있지? 양옥집 2층. 그게 성씨라는 건축 설계소 소장이 사는데 그 사람이 건축 설계사니까 자기 집을 그렇게 지은 거야. 그게 양옥집 최초로 이 동네 지은 거고, 양옥집 용인에 몇 개 안 돼. 없었어. 그러다 내가 두 번째 이거 한번 지은거야. 설계할 게 뭐있어? 방 몇 개 이렇게 지은거지. 목수를 불러했지. 내가 제대하고 25, 26살에 지었나? 한 42년 넘었다고.”¹⁹⁸⁾

이보다 조금 이른 시기인 1966년 무렵, 김재식 씨 댁은 20년 가까이 살던 일본식 합석 집을 부수고 본채와 창고로 구성된 한옥집으로 지었다. 김재식 씨는 1981년에 3층 건물을 새로 지어, 1966년에 지은 한옥집의 모습은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아있다. 김재식 씨는 당시 상량식과 집들이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짓기 시작하면 상량식을 마지막으로 집짓기는 끝이 난다. 상량식은 고사식으로 진행된다. 음식은 팔시루떡, 돼지머리, 북어, 사과, 배, 대추 등을 올리고 절을 한다. 이때는 가내평안과 집안번성을 빌며 절을 올렸다고 한다.

상량식에서 상량문을 쓴 대들보를 목수들이 양쪽에서 줄을 매어 제자리로 들어올리기 시작하면 목수들이 일부러 중간에 멈추기도 하였다. 이때 대들보에 ‘여비’라고 하는 돈을 붙여야만 대들보가 다시 움직인다. 이때 갇힌 여비는 목수들이 나누어 가진다고 한다.

“(상량식은) 그건 집 지을 때 하는 거지. 집 지을 때 (대들)보를 언제 언제 했다고 써가지고 그걸 올리면서 양쪽에서 잡아 당겨. (대들보를) 걸어놓고 저 위에서 잡아 당겨. 양쪽에서. 그래놓고 거기다 딱 걸어놓는 거야. 그때 돈 안 붙여놓으면 안 올라가. 여비 안 붙이면 이게 안 올라가. (보를 올리는) 그 사람들은 목수결랑. 그 사람들이 갖는 거야. (음식은) 그건 떡 하는 거지. 떡, 돼지머리. 시루떡. 팔 시루떡. 북어도 올리지.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천주교 신자기 때문에 (...) 먹는 것도 하고 다 하는데 무슨 가서 절한다고 그런 건 안하니까. 북어도 갖다놔. (과일 사과, 배) 그걸 다 그대로 하고, 절도 해. 하는데 그렇게 누구여 불교 신자들 마냥 그렇게 빌어가면서 그렇게 안하고, 우리는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절하는 것뿐이야.”¹⁹⁸⁾

상량식 이후로 짓 집기가 마무리되면 세간살이 등을 새 집에 옮겨놓는다. 이사는 트럭을 빌려다가 친구들이 도와서 하였다고 한다. 세간이 새 집에 자리를 잡고나면 가까운 친지와 동네 사람들을 불러 집들이를 한다.

집들이는 보통 적당한 날을 정해 만나질 정도로 하였다. 집들이 음식은 찌개 같은 국물이 있는 음식을 주로 하는데, 김재식 씨는 동태찌개를 손님들에게 대접하였다. 집들이 손님 수는 집주인의 친분에 따라서 결정되었고, 친구, 친척, 동네사람들을 동시에 초대하여

198) 조충호(남, 67) 제보

199) 김재식(남, 73) 제보

집들이 날은 집이 북적북적하였다고 한다.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간 경우에는 집들이에 동네사람들을 부르지 않는다고 한다. 집들이 손님에게는 선물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처음 본 것이나 마찬가지로인 동네사람을 부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집들이 손님들은 갑작스럽게 방문하게 된 경우가 아니면 빈손으로 오는 일 없이 선물을 하였다. 집들이 선물은 현금이 아닌 집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물건으로 많이 하였다. 당시에 가장 많이 하던 집들이 선물은 거울, 시계였다. 당시에는 먹고 살기에도 여의치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선물이 시계였다. 당시 시계의 가격은 5천원 미만이었다. 이외에 화분, 생화, 세제, 휴지 등도 가정집 집들이에 많이 하는 선물이었다.

“집들이 하는 거지. 첨에 집을 지으면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고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시작해서 상량을 하고 그 다음에 (지붕) 덮고 다 끝난 다음에는 동네사람들 또 친구들 다 불러서 한잔씩 먹이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하루가 아니고 몇 시간이야. 먹고 뭐 하고 그러면 몇 시간이야. 친척들도 같이 해. 다 한 날 다 하는 거야. 빈손은 거의 안와.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네가 가져왔는데 나하고 둘이 쫓아가 그런 건 빈손으로 와. 근데 그 사람이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쫓아간 사람도 얻어먹는 거야. 그냥. 그렇지 찜겨 가는 거야. (음식은) 그러니까 어느 뭐냐에 달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은다고 그러면은 무슨 저 찌개 같은 거로 하고 고다음에 무슨 저 잔치를 한다고 그러면은 국수 같은 거 많이 하고, (한옥집) 그때는 찌개로 했지. 찌개로 해서 따뜻하게 국물로 해주고.”²⁰⁰⁾

3) 1970년대 이후 오리골의 변화

이후 오리골은 용인시장을 중심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여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다. 현재 김량장 6통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이영재 씨도 1960년대 용인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며 살다 1970년대에 오리골에 이사를 한 사례이다.

이영재 씨는 경상북도 봉화 출신으로 1962년 영주에서 결혼을 한 후 첫째 아이를 낳은 뒤에 1963년에 용인으로 이주를 하였다. 삼거리 쪽에 살던 어머니 외삼촌의 소개로 용인에 정착하게 되었다. 용인에 와서 몇 번의 이사를 반복하였다. 시장, 건너편 산동네, 시장,

200) 김재식(남, 73) 제보

오리골 순으로 이사를 하였다. 오리골에 들어온 것은 1970~1971년으로 이때 이영재 씨 나이가 31세이다. 당시 형편에 맞추어 지인의 소개를 받아 집을 구입하였다. 이영재 씨 맥이 이사를 올 때 용인감리교회도 현재 자리로 이사를 왔다. 또한 오리골에서 새생활 슈퍼를 운영하는 집도 용인시장 사거리에서 갑빠와 천막을 파는 천막사를 운영하다 원래 슈퍼가 있던 자리에 들어오면서 오리골에 정착하였다.

이후 오리골의 과수원, 논, 밭이었던 곳과 노고산 아래 산비탈에 집들이 들어서며 주택가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1980년 6월에 오리골 밭이 있던 땅을 구입하여 새로 집을 짓고 들어온 집이 있다. 제보자는 고림리 출신으로 전대리로 시집을 갔다가 1980년에 오리골로 들어왔다. 당시 남편이 군청 공무원이었다. 아이는 셋으로, 첫째 딸이 용인중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막내가 용인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오리골 인근에 군청이 있고, 아이들의 학교도 가까워 오리골을 선택하였다. 그때는 운행하는 버스가 적어 항상 만원인 버스에서 아이들이 힘들어했고, 신발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때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던 자녀의 표현으로는 ‘오징어가 된다’고 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첫째 딸은 ‘처음 오리골에 집을 짓고 왔을 때는 주변이 전부 논밭이었고, 그나마 있는 집들은 초가집이 많았다.’고 하며 가옥의 눈높이가 낮았다고 기억하고 있다. 오리골이라는 명칭은 원래 오리골에 사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에서 자신의 거주지를 말할 때 오리골에 원래 살고 있던 아이들은 ‘오리골 산다’라고 하였는데, 자신은 ‘군청 뒤 산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제보자의 집이 이사온 이후로 차츰차츰 논밭이 있던 곳에 집이 들어서고, 오리골 초입에도 3층 이상의 건물이 생겨났다고 한다. 군데군데 있던 작은 집들이 헐리고 본격적으로 집이 생기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라고 한다.

1990년대에 오리골 내에 주택지와 빌라 등이 조성되면서 주민의 오고감이 빈번해졌다. 그에 따라 오리골에는 용인 출신에서부터 경상도, 충청도 등 다양한 출신 성분의 거주자가 다양한 이유로 이사를 와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한 한 예로 충북 음성 출신의 79세 제보자를 들 수 있다. 20년 전 아들이 살고 있는 오리골로 이주를 한 제보자는 매일 삼거리 공터에 앉아 마을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지낸다.

“여기에서 한 20년 됐어. 있다 보니까. 내가 나와서 있고. 이렇게 잘해주니까 아는 사람도 많아요. 잘해주니까. 나쁘단 소리는 안 해요. 고향을 이별하고 와서 그러니까 좀 외

로워서 그러지만 고향생각 하느라고 앉아있어.”

이러한 외중에 오리골에서 짧은 거주 이력을 가지고도 오리골 거주민과 활발히 교류하는 경우도 있다. 유방리에서 태어나서 모현으로 시집간 79세 제보자는 시장에서 만두와 백반을 팔며 4남 1녀의 자식들을 키웠다. 생애 대부분을 역북리에서 살았으며, 현재는 다시 유방리로 거처를 옮겼다. 오리골에 있는 빌라에서 2년 정도 밖에 살지 않았으나 김량장 6통의 부녀회에도 참여하며 봄·가을 관광, 노래교실 등에 활발히 참여한다. 제보자는 오리골 사람들의 인심이 참 좋다고 거듭 말했다.

“인심이 좋아. 이 동네는 진짜 살만한 동네야. 서로 돕고 잘 살고 사람들이 참 좋아. (저 아주머니도) 옆에 집에 박스 좁는 이가 사는데 (아주머니) 두 내우 분이 맨날 주워다 그 집에 쥐 갖다 팔으라고.”

최근에는 오리골의 빌라나 다세대주택으로 이주해 오는 중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김량장 6통의 중국인들의 거주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전체 주민의 30% 정도의 중국인이 김량장 6통에 살고 있다. 대부분의 중국인 주민들은 셋방살이를 많이 하고 있다. 김량장 6통에서 본토박이는 집주인뿐이고 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중국인이라고 할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이 없으면 세를 못 놓는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한 명이 정착한 이후에 중국에 있던 가족을 불러들여 같은 지역에 함께 사는 이주형태를 보인다.

“저 봐. 중국 사람이 저렇게 온다고. 중국 사람들이. 또 뭐가 오네.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와. 바리바리 싣고 오잖아. 또, 저렇게 와요. 하나가 오면 저렇게 떼로 와. 돈 벌러. 또 누가 오는구만. 어메. 세상에. 한두명이 아니야. 저렇게 떼가 몰려서. 옷 끌고 가방 들고. 하나가 오면 그냥 어디 이모 맥 뭐. 고모 동생 사돈 네돈 저렇게 다와. 짐 가지고 오는 게 중국서 오는 거야. 돈 벌러 나와 저렇게 돈들 잘 벌어.”

6-2 오리골에서 성(成)하다

일생의례에서 관례는 관혼상제 중 첫째로 겪는 의례로 성인이 되는 의식에 해당된다. 관례라는 특정한 의례를 겪음으로써 성인으로서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1950~1960년대의 오리골 출신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집안일과 생업을 거들며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다.

예로부터 용인에서는 오리골 사람들이 없으면 용인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여, 용인의 버스안내원, 구두닦이, 버스기사, 공사현장, 용인시장 등지에서 오리골 사람들은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였다. 그 결과 구두닦이 출신으로 공장의 사장을 할 정도까지 성공한 사람도 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리골 출신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이번 '성장과 첫 직장'에서는 오리골에 정착한 1세대들의 생업환경과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2세대들의 일상, 그리고 2세대들의 직업선택 사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오리골은 주변에 김량장이라는 상업지역과 면사무소, 담배전매소 등의 행정기관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생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골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농사일은 중요한 생업 중 하나였다.

오리골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소유의 논이나 밭이 없었다고 한다. 그에 따라 농사는 다른 사람의 논밭에서 품팔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품팔이는 남의 농지에서의 모내기, 김매기, 수확 등의 농사일을 함께 해주고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을 말한다.

또한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도지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한해 농사를 다 지은 이후 전체 수확량의 일부를 땅의 주인에 주는 방식이다. 벼의 경우 타작한 이후에 수확량 전체의 절반 가량을 도지로 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오리골 농사꾼들은 오리골 내부에 있던 논밭이외에도 베레기뜰, 구미평, 물방아뜰, 오생이뜰 등 김량장동 곳곳에 있던 농지에서 농사일을 하였다.

과거에는 농사를 짓는 집이 많아 정월대보름에 지신밟기를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적힌 농기를 앞장세우고 북, 팽과리 등의 악기를 치며 오리골 내부의 가정을 돌아다니며 가정의 안녕과 풍농을 빌었다. 또한 추석에는 아이들이 농기를 앞세우

고 거북놀이를 하는 풍습이 1960년대 후반까지 남아있었다고 하니 오리골 주민들의 중요한 생계 기반이 농업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록 처음에는 농토가 없었던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이후에 돈을 모으면 농토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도 많았다.

김재식 씨는 젊은 시절에 아버지를 도와 고림리에서 벼농사를 오랜 기간동안 지었다고 한다. 김재식 씨의 부친은 원삼면 사암리에서 농토가 없어 남의 농사만 지어야 해서, 용인 시내로 나가 장사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오리골에 가족과 함께 정착했었다. 이후 자전거로 쌀을 실어나르며 장사를 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었다. 김재식 씨는 양조장에 취직하기 전 2~3년 동안 농사일을 도왔고, 김재식 씨 부친은 1983년까지 벼농사와 밭농사를 하였다고 기억한다.

농사 이외에 일제강점기부터 있었던 담배전매소도 오리골에서 주요한 별이수단이었다. 오리골에 있던 담배전매소에는 경기도의 인근 지역의 담배수납을 전부 담당하였기에 담뱃잎수납을 하는 가을철이면 담뱃잎을 실은 우마차와 지게, 트럭이 줄을 섰다고 한다. 오리골 사람들은 담뱃잎을 내리고 창고에 쌓는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았다. 이는 오리골 사람들에게 가을철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업으로 담배전매소가 수원으로 옮겨 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해방이 되고 전쟁을 겪는 힘든 시절이 지나고 용인과 오리골 주변의 생업환경은 다양해졌다. 오리골에 정착한 초기 세대는 산업의 역군으로서 다양한 직업에서 활약했다.

우선 건축현장에서 목수, 미장이, 벽돌을 쌓는 일을 하거나 그들 옆에서 일명 데모도(기술자를 돕는 작업보조)를 하는 사람도 많았다. 목수인 형님을 쫓아다니며 목수일을 배운 김재식 씨 부친은 이후에 자식들과 한옥집을 직접 짓기도 했고, 전매소 감시과에 있었던 이덕환 씨도 집 짓는 기술이 있어, 전매소를 그만 두고 집과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하였다.

이영실 씨 부친인 이덕환 씨는 담배전매소 감시과 직원으로 일하기도 하였고, 안병환 씨 부친은 시외버스 기사로 일하며 다른 집에 비해 조금 풍족하게 살았다. 안병환 씨 맥은 오리골에서 최초로 텔레비전을 구입하였다고 한다. 조충호 씨의 부친은 음식점의 주방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김량장에서 장사를 하고자 해도 장사할 여윌돈이 있어야 가능했다고 한다.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는 초반에는 직접 용인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떼와 장에 팔거나 장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돌아다니며 팔 수밖에 없었다.

김재식 씨 부친은 자전거를 타고 용인 각지를 돌아다니며 생산지에서 쌀을 구입해 김량장의 싸전에 약간의 이익을 붙여 팔았다. 이렇게 모은 장사밑천 덕분에 김재식 씨 부친은

김량장에 쌀가게를 열 수 있었다.

보따리 장사는 오리골의 부녀자들이 많이 한 장사이기도 했다. 오리골에 살던 조충호 씨의 친구는 홀어머니와 형제자매 4명과 살았는데, 친구의 홀어머니가 새우젓 장사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었다. 새우젓을 머리에 이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팔았다. 새우젓은 돈과 교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쌀이나 보리, 콩과 같은 곡물과 맞바꾸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마을에서 제일 오래 살고 있는 한은순 씨도 머리에 물건을 이고 다니며 생활용품을 판적도 있으며, 자녀 2남 4녀 중에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도 보따리장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오리골 정착 1세대의 부모들은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라면 가리지 않고 많은 일에 종사하였다. 가정의 수입을 위해서는 부모들은 맛벌이를 하다시피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환경에서 부모들이 힘겹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들은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터득했다.

오리골에서 자란 집안의 맏이들은 바쁜 부모님을 대신하여 동생들을 돌봐야 했다. 학교를 다녀오면 막내여동생을 맡아서 돌봐야 했던 김재식 씨는 친구들과 놀고 싶어 여동생을 업은 상태로 다마치기를 하러 나갔었다. 한참을 다마치기에 열중하던 김재식 씨는 등이 따뜻해지는 느낌에도 여동생의 기저귀를 갈 틈이 없이 놀았다고 한다. 집에 돌아온 김재식 씨는 어머니에게 ‘애가 오줌을 쌌다.’고 하소연을 하였는데, 오히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니가 알아서 해야지.’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오줌을 쌌다 해서 빨리 집에 가서 애를 내려놓고 옷 갈아입히고 그럴 새가 없는 거여. 안 돼. 말도 안 돼 그거는. 그래서 그 오줌 싼 거를 그대로 업고 그대로 다마 치기 하고 나서 한 두어 서 너 시간하잖아? 그래 그게 말러. 내가 내 운기에 지 운기에 뜨듯하니까 그 오줌싼 게 마르는 거여.”²⁰¹⁾

또한 1950~1960년대의 오리골 동네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가정의 생계를 일부 담당하며 성장하였다. 그 당시 아이들의 일상생활 중 하나는 집안 식구들 먹을거리와 땔감을 구해오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남의 밭에서 일해주고 농작물을 샅으로 얻어오거나, 나무를

해오는 일 등을 매일같이 하였다. 조충호 씨는 그러한 일상을 ‘그 당시에는 그게 오락이자 의무였다’고 회상하였다. 당시에는 공부보다 먹을거리를 구해오는 것과 집안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나라도 더 하는 것이 중요하던 시절이었다.

당시에는 학교에 다녀오면 으레 하는 일이 나무를 해오는 것이었다. 그것이 가난한 아이들이 부모님을 돕는 방법이었다. 난방과 취사에 필요한 땔감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지만, 넉넉지 않은 살림에 구입을 할 수가 없었다. 오리골의 아이들은 가족을 위하여 방과 후, 일요일 아침에 동진(현재 명지대)이나 득골, 까마솔밭이 있는 곳까지 8~10km를 걸어 나무를 해왔다고 한다. 가까운 곳에는 민둥산이라 나무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여자아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오리골에서 성장하여 21살에 결혼한 이후, 시장에서 줄곧 서울상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영자 씨는 동진까지 나무를 하러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밭에서 무를 뽑아 먹었던 일이 있다고 한다.

이영자 씨와 13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 이영숙 씨도 아버지를 따라 나무를 하러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나무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어김없이 무밭에서 무를 뽑아먹었다고 하니, 당시 오리골의 아이들에게 동진에서 나무를 하고 오는 길에 무를 먹는 것이 일종의 통과의례가 아니었나 한다.

“나무를 하러 지금 명지대. 명지대 거기가 옛날에 꼬부랑 길이야. 그 고개 너머로 나무 하러 갔어. 이고 오다가 오면 그 밑에 산이었었거든. 그 밑에 무밭에서 무들도 많이 뽑아먹었고. 많이 그랬어.”²⁰²⁾

“그리고 동진이까지 다 이렇게 길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나무 하러 거기까지 갔었어요. (여자들은) 자루만 가지고, 나무는 아버지들이 하고 우리는 그걸 갈퀴로 땔감 있잖아요. (굵어서) 자루에 (담아서) 거기서 하나씩 하고 이렇게 왔어. 오면서 무 막 뽑아서 먹고 그랬었어요.”²⁰³⁾

무서리 이외에도 참외, 토마토, 오이, 가지, 무, 배추 등의 농작물이 눈에 띄면 먹고 싶은 대로 뽑아 먹었다. 지금이야 절도죄이지만 당시에는 다들 먹고살기 힘든 시절이라 심

201) 김재식(남, 73) 제보

202) 이영자(여, 62) 제보

203) 이영숙(여, 49) 제보

하지만 않으면 발주인들이 눈감아 주었다고 한다.

아이들은 동네에 모이는 집에 모여 참외서리, 수박서리 가는 계획을 짜곤 하였다. 집에 모이면 ‘수박은 어디에 있고, 참외는 어디에 있어. 저녁에 가자.’ 하고는 저녁에 몰래 자루를 들고 참외밭, 수박밭으로 출발하였다고 한다. 조충호 씨는 친구들과 수박을 서리해서 무조건 큰 것만 자루에 담아서 힘들여 왔는데, 그 중에 제대로 익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서 도로 다 버린 적도 있다고 한다. 가난하던 시절을 자란 오리골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서리였다.

또한 다른 사람의 농사 수확을 돕고 수확한 농작물의 일부를 받는 방법으로 먹을거리를 구하기도 하였다. 가을이면 고구마밭에서 일손이 달리면 동네아이들을 불러 일을 시키고 하루 품삯으로 고구마를 주기도 하였다. 동네아이들은 인근 마을의 고구마 밭에서 수확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루를 들고 아침 일찍 발주인을 찾아간다. 그러면 발주인이 수확하라고 한 밭에서 오후 늦게까지 고구마수확을 하는 것이다. 하늘이 어두워지면 발주인은 하루 수고비 명목으로 자루에 마음껏 담아가라고 하였다. 고구마를 자루에 한가득 담아오면 식구끼리 며칠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고구마도 귀해 가족들이 무척 맛있게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와중에도 남자아이들은 대체로 중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마친 것 같다. 남자아이들은 용인초등학교를 거쳐 태성중·고등학교를 많이 다녔다. 용인중학교, 용인상고나 용인고등학교를 가거나 수원까지 통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집은 별학(베레기)에 있던 서당에 다니는 경우도 있었다.

“안다녀봐야 초등학교는 다 나왔는데. 서당도 저기 베레기(별학) 쪽에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다니는 사람 별로 많지도 않고, 없는 사람만 불러서 하고 그런 거 같아. 학교 못 다니고 그러는 사람들.”²⁰⁴⁾

반면, 오리골의 여자아이들은 용인초등학교만 졸업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은순 씨는 집안형편 때문에 첫째부터 셋째 딸까지는 용인초등학교까지밖에 보낼 수가 없었다고 한다. 여자아이들은 1970~1980년대까지도 집안형편에 도움이 되기 위해 중학교까지만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중학교만 졸업한 여자아이들은 당시 용인에 생기기 시작하고 있던 공장에 취업을 했다고 한다.

204) 조충호(남, 67) 제보

“용인초등학교, 결혼할 동안까지 나는 우리집이 너무 없이 살아가지고 나까지는 초등학교 밖에 못 가르치셨어. 아예 돈 벌러 나간거지. 땀 데로 가서 돈 벌다가 와갖고 결혼한 거고. 우리 옛날에 인제 저기 다 나가서 세 딸들이 나가서 돈 벌고 훨씬 나아진 거지. 지금 내 밑에 남동생서부터는 다 고등학교 졸업 마치게 만들어 놓은 거지.”

“중학교 다니다가 우리 선배언니들은 해동산업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많았거든요. 거기도 있고 군자산업 그런 데로 보내고 이러셨던 것 같아. 중학교(만) 다니고, (남자들은 고등학교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빠들은, 근데 언니들은..(남녀 차이가..) 있었죠. 있었어요.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 많이.”²⁰⁵⁾

오리골에서 나서 성장한 아이들은 이른 시기부터 자신의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오리골 인근에 위치한 용인시내 상업시설 등에 취업을 하거나, 직업을 위해 수원이나 서울 등지로 나가기도 하였다. 또한 용인이 발전하면서 늘어난 건설현장과 공장 등에도 많이 다니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1) 해동양조장에 취업한 김재식 씨 사례

김재식 씨는 김량장에서 쌀가게를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장남으로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기도 했고, 어머니를 대신하여 동생들을 보살피기도 하였다. 첫 직장인 해동양조장에서 양조, 배달, 총무 등의 일을 맡아 하였고, 이후 해동예식장에서 근무하였다.

(1) 성장과 부모의 직업

6세에 오리골에 이주해 와서 용인초등학교, 태성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농사일과 동생들을 보살피며 자랐다. 아버지는 오리골에 이주해와 인근 농촌에 자전거를 몰고 다니며 쌀을 구입하여, 김량장의 싸전에 이익을 남겨 파는 일을 하였다. 자전거를 이용한 쌀장사로 돈을 번 이후에는 김량장에서 쌀가게를 운영하였다.

205) 이영숙(여, 49) 제보

(2) 계기와 선택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동생들 몰래 김재식 씨의 보리밥 속에 쌀밥을 넣어주었다. 이것을 동생들이 먼저 발견하고 섭섭해하자 어머니는 ‘형은 아버지·어머니가 없을 때 너희들을 돌봐줄 사람이다. 그러니까 형이 잘 먹어야 해.’라고 말하였다. 동생들과 쌀밥을 조금씩 나누어먹으며 김재식 씨는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다.

김재식 씨는 아버지의 쌀가계를 물려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버지는 쌀 한 가마니를 자전거에 가뿐히 싣는 분이었고, 자신은 힘들어서 못했다고 한다.

대신 학교를 졸업한 김재식 씨는 성빈센트 병원 원무과에 원서를 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초등학교 동창인 양조장 주인의 동생으로부터 해동양조장에서 일할 것을 부탁받고 양조장에 다니게 되었다. 성빈센트 병원에서의 일이 월급을 많이 받아도 차비를 계산하니 양조장을 다니는 것이 더 나았다고 한다.

(3) 직장과의 일

양조장에서 배달일을 도맡아 하였다. 군대에서 배운 운전으로 신진자동차에서 나온 배달트럭을 몰면서 아침부터 삼거리, 전대리, 포곡 일대로 배달을 하였다.

양조업이 앞으로 유망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당시 양조장 사장이었던 이영란 씨와 상의하여 용인 최초의 결혼식장인 해동예식장을 만들었다.

2) 신신양복점에 취업한 조충호 씨 사례

조충호 씨는 음식점 주방일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장남으로 자랐다. 어린 시절 오리골의 꼬마대장 노릇을 하면서도 나무하기, 고구마 수확 등 집안에 필요한 일을 하며 자랐다. 용인중학교 졸업 후 용인시내에 있는 신신양복점에서 5년 정도 일을 하였다. 이후 양지컨트리클럽에서 일했다.

(1) 성장과 부모의 직업

오리골에서 태어나 용인초등학교를 거쳐 용인중학교를 나왔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형

편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하였다. 아버지는 음식점 주방일을 하였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국전쟁이 터져 피난을 갈 때 4살배기인 조충호 씨가 ‘내 짐은 내가 진다.’며 자신의 몫은 했다고 동네사람들이 신기해했다고 한다.

(2) 계기와 선택

조충호 씨는 어려서부터 장남으로서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술을 좋아하고 낙천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며, 자신이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수입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하였다.

조충호 씨는 자신이 많이 배우지는 못하였으니, 장사 쪽으로 해서 수입이 되는 일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조충호 씨는 어려서부터 의상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칭찬을 들었고, 앞으로 양복제작기술이 유망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신신양복점에서 양복 만드는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3) 직장과의 일

조충호 씨보다 먼저 들어간 기동찬 씨(현재 시장에서 기동차세탁소 운영)에게 양복 기술을 배우다 ‘기성복 바람’이 부는 바람에 맞춤양복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양복점 일을 그만 두게 되었다. 양복제작기술 전부를 배우지는 못했다. 양복점을 다니고 처음 받은 첫 월급은 집안 살림에 보태라고 부모님에게 전부 주었다고 한다.

조충호 씨는 신신양복점을 그만 두고 ‘양지컨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에서 일을 하였다. 두 번째 직장인 골프장을 다니기 시작한 것이 1970년이였다. 골프장에서 받는 수입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골프장에서 번 돈으로 현재 살고 있는 2층 양옥집을 건축하였다. 집과 골프장은 버스를 타고 오고 갔다.

3) 서울식품을 운영하는 이영자 씨 사례

이영자 씨는 담배전매소 감시과에 다니는 이덕환 씨 밑에서 2남 4녀 중 셋째 딸로 자랐다. 용인초등학교를 마치고 수원의 신발가게에서 일을 했으며, 21살에 결혼한 이후부터 40여년 간 용인시장에서 서울식품을 운영하고 있다.

(1) 성장과 부모의 직업

아버지가 담배전매소 감시과 일을 그만 두면서부터 공사일과 방앗간에서 짐 나르는 일을 하였고, 어머니인 한은순 씨는 보따리 장사를 하기도 하였다. 넉넉하지 못한 집안형편으로 용인초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어려서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2) 계기와 선택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고생을 하는 부모님과 객지로 나가 일을 하는 두 언니들을 보고 자랐다. 용인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원의 재래시장에서 신발가게를 크게 하는 집에 보내졌다.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였다. 이렇게 일하며 받은 월급은 집으로 보냈다.

(3) 직장과의 일

수원 재래시장에서 일을 하다 결혼할 때가 되면서 용인으로 돌아왔다. 당시 용인시장 쪽에 거주하고 있던 한양 조씨 집안의 남성과 결혼을 하고부터 현재까지 서울식품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 용인시장은 건물이 없이 너른 장마당만 있었는데 그곳에서 식재료와 잡화를 파는 노점으로 장사를 시작하였다. 지금은 용인시장 내부에 매장을 두고 장사를 하며, 용인에서 서울식품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6-3 오리골과 연(聯)을 맺다

혼례는 한 가정과 마을의 일원을 다른 가정과 마을의 일원으로 변모시키는 의례이다. 혼례를 통해 한 개인이 하나의 공동체에서 나가고 들어온다는 점에서 혼례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소속되어 있던 그리고 소속될 가정과 마을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오리골에서도 이사로 인한 드나들편만 아니라 혼례를 통한 주민의 이동은 지속적으로 있었다.

오리골에서 들을 수 있었던 가장 이른 시기의 혼례 사례는 1950년대 후반에 있었던 김

귀남 씨 손윗누이의 혼례이다. 조충호 씨는 이 혼례 잔치가 본인의 나이 열 살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혼례는 오리골 안쪽의 신부의 집에서 치렀다고 한다. 현재 절집이라고 불리는 무당집이 있는 집이 바로 김귀남 씨 가족이 살았던 집이다. 삼거리(사거리)의 조금 편평한 길에 동네사람들과 손님을 대접하는 잔칫상이 차려졌다고 한다.

반면 현재 오리골에 살며 가장 이른 시기에 오리골로 시집을 온 여성은 유방리 방축골에서 태어나서 17살의 나이로 오리골에 거주하는 이덕환 씨와 혼례를 치른 한은순 씨이다. 한은순 씨는 신랑의 얼굴도 혼례날 처음 본 상태로 사륜거를 타고 오리골로 시집을 왔다. 그리고 70여 년을 한결 같이 오리골을 지키며 살고 있다.

한은순 씨가 혼례를 치른 곳도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집 마당이었다. 당시 전통혼례(제보자들은 ‘구식’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함)에서는 주로 신부의 친정집을 혼례장으로 많이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혼례 장소는 혼례 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혼례 장소의 등장으로 점점 신부의 친정집에서 멀어져 간 것 같다.

한은순 씨의 자녀 결혼 장소를 통해 그 변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첫째 딸은 구식으로 오리골의 한은순 씨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둘째 딸은 신랑의 연고지인 인천의 예식장에서 신식으로 하였다. 셋째 딸은 당시 문화원 2층 강당에서 웨딩드레스를 갖추고 하였다. 큰 아이들의 결혼식은 당시 용인에 처음 생긴 예식장인 해동예식장에서 거행되었다. 막내딸은 수원의 한 결혼식장을 이용하였다.

이처럼 오리골 출신의 결혼 장소는 시대에 따라 신부집, 대도시의 예식장, 공공장소(문화원, 성당 등)의 대여공간, 용인의 첫 예식장, 대중화된 결혼식장의 순으로 변화해갔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역시 결혼식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점점 혼례가 소속된 마을의 일원을 떠나보내고 받아들이는 중요한 마을 잔치에서 점점 혼례 당사자들의 두 집안만의 행사로 변모해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혼례가 마을 전체의 행사였다는 사실은 오리골에서 행해진 ‘재꾸러미’와 ‘잔치국수’를 통해서 살필 수 있다.

재꾸러미는 오리골 청년들이 동네의 처녀를 데려가는 신랑에 대한 장난의 일종으로 행해졌다. 신랑이 자신의 마을에서 나귀, 자전거 등을 타고 오리골의 길을 오를 때 길 양쪽에 대기하고 있던 동네 청년들은 재를 뭉쳐서 신랑을 향해 던졌다.

재꾸러미는 동네청년들의 짓궂은 장난이지만, 그 안에는 동네의 소중한 일원인 신부를 데려가는 신랑을 향한 경고와 함께 격려의 의미가 섞여있다고 할 수 있다. 신랑은 재꾸러미 의식을 통해 다른 마을의 가정 구성원을 모셔간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신부와 함께 잘 살아보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장난이 심할 경우

에는 신랑은 인분이 섞인 재를 맞아야 할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니, 혼례를 하는 책임감과 각오가 얼마나 막중했는가를 새삼 알 수 있다.

혼례 날 먹는 국수를 흔히 ‘잔치국수’라고 한다. 지금도 결혼을 한다는 표현으로 ‘국수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혼례 날 먹는 국수에 대한 인식이 각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리골에서도 동네의 혼례 날은 국수 먹는 날로 통했다. 혼례가 끝나면 신부 집에서는 하객으로 온 손님들에게 국수를 대접했다. 그때 먹는 국수는 멸치와 간장으로 육수를 내고 호박을 간단히 엮은 국수였다. 멸치가 없을 때에는 끓인 물에 간장으로만 국물 맛을 내었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맛이 일품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든 국수를 신부 집에서는 혼례 당일과 신부의 신행 날 이틀에 걸쳐 줄곧 끓이며 동네사람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국수대접이 2~3일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과연 동네잔치라고 할만 했다.

과거 동네사람들은 신부 집에 부주로 돈이 아닌 국수와 막걸리를 주었다. 대부분 한 관(貫)의 국수를 부주로 내었고, 한 관은 3.75kg이니 국수 1인분을 100g으로 계산하면 국수 한 관은 40명이 먹을 수 있는 상당한 양인 것이다.

동네사람들은 국수와 막걸리를 신부 집에 제공하고, 음식장만을 돕고, 떠들썩하게 며칠을 즐기면서 축하의 마음과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신부 집은 부주로 들어온 국수를 아낌없이 잔치 음식으로 사용함으로써 큰일 치르는 것을 도와준 동네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혼례를 통해 마을주민들 간의 끈끈한 정을 확인한 것이다.

지금 오리골에서 재꾸러미의 짓궂음과 며칠 동안 이어지던 잔치국수의 맛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마을 구성원들이 바뀌면서 예전과 같은 협력관계는 느슨해져 갔다. 현재 오리골에서도 과거와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혼례를 통해 나뉘는 축하와 상부상조의 정신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오리골의 혼례장소의 변화와 재꾸러미와 잔치국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오리골의 혼례 모습을 대략적이거나 떠올려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 김귀남 씨 손윗누이 혼례 사례 – 1950년대 후반 오리골에서 노루실로

김귀남 씨 손윗누이는 오리골에서 1950년대 후반에 구식으로 혼례를 올렸다. 오리골에서 첫날밤을 보낸 후에 노루실로 신행을 갔다. 이때 혼례잔치가 3일간 이어졌다.

(1) 친영(親迎)

김귀남 씨 손윗누이의 시택은 전대리 노루실이다. 혼례 날 아침 신랑은 집안의 하객과 함께 오리골에 왔다. 이때 신랑은 나귀를 타고 있었다.

(2) 재꾸러미

오리골의 청년들은 친영을 위해 오는 신랑을 향해 재를 뭉쳐 던졌다. 이러한 풍습은 동네 청년들이 신랑에게 텃세를 부리는 것으로, 남의 동네 신부를 찾아가는 신랑을 향한 심술을 부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오리골에서는 재꾸러미라고 하였는데, 원래는 재에 물을 묻혀 뭉쳐 던지는 것이다. 일부 청년들은 재 뭉치에 인분을 섞기도 하였다. 동네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신랑을 향한 신부 동네 사람들의 장난은 대부분의 마을에 있었다고 한다.

(3) 신랑신부의 복장

신랑은 사모관대를 차려입었고, 신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화장을 한 얼굴에 곤지뻘지(연지곤지)를 찍었다.

(4) 대례(大禮)

혼례는 김귀남 씨 댁 마당에서 하였다. 중앙에 선 주례의 ‘신랑신부 맞절’, ‘신랑 세 배’, ‘신부 세 배’ 라고 하는 외침소리에 맞춰 대례가 진행되었다. 신랑과 신부는 외침에 따라 술을 마시고, 맞절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제보자의 어린 시절이라 대례상에 올린 물건과 음식에 대한 기억은 명확하지 않다. 다

만 대례과정 동안 신랑과 신부 양편에 각각 닭 한 마리를 들고 있던 사람만은 기억하고 있다. 대례를 마치면 닭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닭을 공중으로 날려 보냈다.

(5) 첫날밤

대례를 마치고 나면 신랑과 신부는 신부 집에서 첫날밤을 보낸다.

(6) 신행(新行)

대례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신랑과 신부는 신랑의 집이 있는 노루실로 떠난다. 신랑은 전날 타고 온 나귀에 오르고, 신부는 가마를 탄다.

(7) 부주

국수 한 관, 막걸리 한 말, 닭 한 마리, 계란 한 꾸러미 등의 음식으로 부주를 했다. 국수 한 관이 가장 많이 하는 부주음식이었다. 집안 형편에 여유가 있는 집은 막걸리 한 말을 가져오기도 한다.

(8) 잔치

집에서 혼례를 올리면 동네사람들을 불러 2~3일에 걸쳐 잔치를 했다. 신부 집 앞 편평한 길에서 동네사람들과 하객들에게 국수와 음식을 대접했다. 손님들이 계속 방문을 하여 국수를 쉬지 않고 삶아 내왔다. 이때 대접하는 국수를 ‘잔치국수’라고 했고, 멸치로 간단하게 육수를 낸 것이지만 맛이 매우 좋았다. 부주로 들어온 국수가 남으면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대접할 정도로 혼례 잔치는 떠들썩하고 인심이 후했다.

2) 한은순 씨 혼례 사례 – 1943년에 방축골에서 오리골로

한은순 씨는 고향인 방축골에서 구식으로 혼례를 올렸다. 혼례 날 신랑인 이덕환 씨는

자전거를 타고 자신의 하객들과 방축골에 왔다. 한은순 씨가 17살, 이덕환 씨가 20살이었을 때의 일이다.

(1) 혼례 나이

할머니는 한은순 씨가 17살이 되자마자 시집을 보냈다. 할머니가 ‘계집애가 오래 되면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은순 씨는 기억한다. 주변 사람들보다 일찍 혼례를 올린 편이다. 자신보다 더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예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2) 혼담

중매를 통해 오리골에 사는 이덕환 씨를 알게 되었다. 혼례 올리는 날까지 신랑의 얼굴을 사진을 통해서도 본 적이 없었다. 신랑에 대해 아는 것은 오리골에 산다는 것, 전매소 감시과 직원이라는 것, 3형제 중 장남이라는 형제관계, 생년월일시 정도였다. 한은순 씨의 부모님은 이덕환 씨가 전매소 감시과 직원이라는 것을 알고 딸을 굶기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3) 납폐

신랑이 함진아비를 데리고 왔다. 함진아비는 등에 함을 메고 있었는데, 함 속에는 사주, 청실홍실, 한복 옷감 보따리(재봉하지 않은 치마저고리)가 들어 있었다. 따로 함값을 받지는 않았고, 함진아비는 상을 잘 차려 먹게 하였다고 들었다.

(4) 친영(親迎)

신랑인 이덕환 씨는 오리골에서 방축골로 가는 10리 길을 자전거를 타고 갔다. 한은순 씨는 이때 신랑을 처음 보았다. 신랑이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니 예뻐서 안심했다.

(5) 신랑신부의 복장

한은순 씨는 대례 때 입는 옷을 한복으로 새로 지어 입었다. 부모님이 혼례 전에 혼례복을 지어주었다. 머리에는 족두리를 쓰고 얼굴에 연지곤지를 찍었다. 이덕환 씨는 잔치 때 입는 바지저고리를 입었다고 한다.

(6) 대례

대례상에는 용떡, 과일, 술, 담배 등이 올라갔다. 대례를 지내는 동안 살아있는 닭 두 마리를 신랑신부 양편에서 들고 있었다. 술을 부어 놓고 맞절을 하는 등의 대례 절차가 끝나면 양편에서 들고 있던 닭 두 마리를 하늘로 날린다. 신랑 쪽 닭은 수컷이고 신부 쪽 닭은 암컷으로 혼례를 올리고 앞으로 잘 살라는 의미가 담긴 풍습이라고 한다. 용떡은 그릇에 가득 담아 사람모양처럼 보였으며, 두 그릇으로 나누어 대례상의 좌우에 놓았다.

(7) 첫날밤

혼례 첫날밤은 신부 집인 방축골에서 보냈다.

(8) 신행

첫날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신랑과 함께 오리골로 향했다. 신랑은 전날 타고 온 자전거를 타고 앞장섰다. 당시 택시를 타고 신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부인 한은순 씨는 친정 동네의 사륜거에 올라 신랑을 뒤따랐다.

사륜거는 일반 가마보다 크며 4명의 장정이 들었다. 일반 가마는 지붕을 둥그랗게 만들고 간신히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인 반면에, 사륜거는 네모반듯한 커다란 집 모양이며 내부 공간이 넓어 편했다.

사륜거를 든 장정 4명은 모두 방축골 동네 사람이다. 방축골에서 오리골로 가는 10리 길 도중에 1~2번 사륜거를 내리고 쉬었다. 사륜거는 방축골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은순 씨를 내려주고 다시 돌아갔다. 이때 한은순 씨의 후행으로 왔던 큰아버지도 함께 돌아갔다.

(9) 폐백

한은순 씨는 처음에 오리골에 도착했을 때 유방리보다 동네가 좋지 않아 걱정했다. 골목길도 작고 농토가 적어 보였다고 한다. 시댁어른들의 지시에 따라 신랑 집 대문 앞에서 바가지를 발로 밟아 깨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나쁜 액을 떠나보낸다는 의미라고 했다.

처음에 시부모에게 절을 하며 예를 보이고, 다른 친척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첫인사를 드렸다. 이후에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고, 시댁에서 주는 음식상을 받았다.

(10) 혼인신고

신행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오리골에 있던 면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유방리 부모님 밑에 있던 호적을 오리골 남편 밑으로 옮겼다.

(11) 근친

한은순 씨는 신행을 오고 오랫동안 고향마을의 가족들을 그리워했다. 처음 방축골에 간 것은 명절이었고, 가족의 생일날에도 친정을 방문했다. 친정과 시댁이 멀지 않아 비교적 왕래는 잦았다고 한다.

3) 김재식 씨의 성당 결혼 사례 – 만남과 결혼의 장소, 성당

김재식 씨가 오리골에 온 것은 6살 때였다. 천주교의 집안에서 자라 현재 청한상가 자리에 있던 천주교 성당에서 성가대를 지휘하던 도중 아내를 만나 성당에서 신부님을 통해 부부의 연을 맺었다.

(1) 인연의 계기

김재식 씨 결혼 당시에도 중매가 일반적인 방식이었지만, 김재식 씨는 부인과 용인성당 성가대에서 만나 인연을 맺었다. 당시 천주교인의 수가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인성당을 크게 지었다. 당시 미사 때 반주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한 대학생이 밴드부 경력이

있는 김재식 씨를 지목하여 피아노를 배우게 했다. 김재식 씨는 중·고등학교 때 밴드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금방 피아노를 배웠다. 이후 노래를 배워 성가대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성가대 단원 중의 한 사람이 부인이었다. 김재식 씨의 부모도 두 분 다 천주교인으로 중매로 인연을 맺어 결혼을 하였다고 하니, 천주교인들 간의 결혼은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2) 혼례 복장

김재식 씨는 양복을 입었고, 신부는 미장원에서 빌린 드레스를 입었다. 미장원에서 머리와 화장도 하였다.

(3) 혼례 장소

천주교인들은 성당에서 혼례를 올린다. 당시 김량장 장터 인근에 있던 용인성당에서 신식으로 혼례를 올렸다. 지금 결혼 하는 방식과 큰 차이는 없다. 주례는 용인성당에 두 번째로 부임한 신부님이 맡았다. 김재식 씨의 남동생들도 성당에서 결혼을 하였다.

(4) 하객과 잔치

하객으로 천주교인들과 동네사람들, 친구가 왔다. 동네사람들은 성당에서 하는 혼례에 어색해하지 않게 자리에 앉아 있었다. 부주는 주로 현금으로 받았다. 성당에서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오리골에 있는 김재식 씨의 집으로 와서 음식을 먹으며 즐겼다.

(5) 첫날밤

혼례를 올리고 신랑집에서 첫날밤을 보냈다.

(6) 신혼여행

첫날밤을 보내고 다음날 온양온천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가까운 곳에서 온천욕을 하자

는 마음이었고, 중류 호텔에서 묵었다. 당시에는 신혼여행을 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었다. 그래도 신혼여행을 간다면 주로 경주로 갔고, 서울 남산도 많이 갔다.

4) 한은순 씨 자녀들의 혼례 – 혼례장소의 변화를 한눈에 보다

한은순 씨와 이덕환 씨는 슬하에 2남 4녀를 두었다. 첫째 딸은 집, 둘째 딸은 인천의 예식장, 셋째 딸은 용인문화원 2층 강당, 첫째 아들은 용인의 첫 예식장인 해동예식장, 막내 딸은 수원의 예식장에서 결혼을 했다. 둘째 아들은 미혼이다.

(1) 오리골의 신부 집

한은순 씨의 첫째 딸은 혼례를 올린 지는 50년 가까이 되었으며, 그때까지도 신부 집에서 혼례를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 인천의 예식장

한은순 씨의 둘째 딸이 인천의 예식장에서 식을 치른 지는 40여 년 되었다. 이 때만 해도 서울, 인천 등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예식장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3) 용인문화원의 강당

한은순 씨의 셋째 딸인 영자 씨는 21살의 나이로 용인문화원 건물 2층 강당에서 결혼식을 하였다. 당시 문화원에서 용인시민들을 위해 강당을 예식장으로 대여해 주었다고 한다.

남편은 현재 용인시장 쪽에 살던 한양 조씨 집안의 사람이었고, 중매로 만났다. 신랑이 함을 진 친구와 함께 오리골에 왔으며, 함을 파는 장난을 하였다. 함진아버가 함값을 넣은 봉투를 발로 밟으며 집안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혼수로는 농, 밥 해먹을 그릇, 입을 옷 정도였다. 신랑은 양복,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신식으로 결혼을 하였다. 주례는 당시 용인에서 주례를 주로 맡아서 하던 사람으로, 용인에서 여러 쌍의 부부를 맺어주었다고 한다.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다.

(4) 해동예식장

첫째 아들 영실 씨는 1985년 해동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5) 수원의 예식장

막내딸 영숙 씨는 수원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신랑이 친구들과 함을 팔러 오리골에 왔으며,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5) 용인 최초의 결혼식장 – 해동예식장

1981년에 용인 최초의 예식장인 해동예식장이 해동양조장이 자리 잡고 있던 곳에 생겼다. 1990년대 중반까지 용인 유일의 결혼식장으로 많은 용인주민들이 활용하였다고 한다. 전체 4층 건물에 2층에는 식당, 3, 4층에 예식 공간을 배치하였다. 예식장의 소속으로 피아노 치는 여자직원, 신부의 드레스를 잡아주는 직원들이 있어, 신랑신부의 결혼식을 도왔다.

당시 해동양조장의 총무였던 김재식 씨가 점점 사양길로 접어드는 양조업의 상황과 혼례 장소로서 늘어나는 예식장의 수요 증대를 파악하고, 양조장 대표였던 이영란 씨의 도움으로 예식장이 문을 열게 되었다. 김재식 씨는 용인성당에서 신식으로 혼례를 올렸다.

“81년서부터 1995년까지. 그때는 많이 했어. 그리고 용인에는 또 예식장이 없었으니까. 그것밖에. 그거 하나야.”²⁰⁶⁾

6-4 오리골에 생(生)하다

동네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가족뿐 아니라 동네 전체가 반가워하는 소식이었다. 아이는 앞으로 한 가족과 동네를 이끌고 나가는 소중한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오리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과거 어려운 집안형편 때문에 지금처럼 백일과 돌을 챙기지는 못

206) 김재식(남, 73) 제보

했어도, 떡과 음식을 나누며 아이의 탄생과 건강을 기원하였다.

이러한 가족과 동네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한 아이가 무사히 성장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병원이나 예방주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거에는 지금으로서는 작은 질병에도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허다했다. 그래서 일부러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재식 씨도 실제 출생일로부터 일년 뒤에 호적에 이름을 올렸다.

오리골 사람들은 주로 삼가고 조심하며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바랐던 것 같다. 17살에 결혼하고 3~4년 뒤에 첫 아이를 낳은 한은순 씨는 미역국과 청수로 상을 차리고 삼신할머니를 위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아이를 낳은 집에서는 대문에 금줄을 걸고 아이의 탄생을 알리고, 마을 사람들은 금줄을 보고 아이를 낳은 집의 출입을 되도록 삼가는 풍습은 오리골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지키는 금기에 속했다. 수십 년 전 한은순 씨의 시아버지는 손주의 건강을 바라며 원새끼를 꼬았다.

아이와 엄마를 이어주는 탯줄과 태를 조심히 잘라 깨끗한 곳에 묻는 것도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탯줄과 태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용한 사례도 있다. 오리골 출신은 아니지만, 봉화 출신의 이영재 씨의 어머니는 탯줄과 태를 정성스럽게 말려서 보관했다고 하는데, 아이가 아플 때 달여서 먹이기 위험이었다고 한다.

한은순 씨는 손자의 백일에 동네의 나이 많은 노인을 불러 음식을 대접하였다고 한다. 마을에 장수한 노인을 아이의 백일 날에 잘 대접하면 아이도 건강히 장수한다는 이야기가 전한다고 했다. 형편에 따라 규모는 다르지만 오리골 사람들이 대부분 했던 백일 떡으로 백설기를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도 아이의 무병장수를 위함이었다.

돌잔치에 했던 돌잡이도 아이의 건강을 빌며 아이의 미래를 점치는 의례이다. 이영재 씨는 자녀들의 돌잔치에서 실, 돈, 연필 등 생계와 연관된 것을 놓고 아이가 첫 번째로 무엇을 잡는지 보았다고 한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나면서 스스로 자신의 복을 비는 풍습으로, 정월 대보름에 한 망우리가 있다. 짚을 자신의 나이 수만큼 매듭을 묶고 불을 붙여 태우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빌었다. 이때 하늘에 뜬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었다고 한다.

이처럼 오리골에서 태어난 아이는 가족, 동네의 보살핌과 소망 속에서 건강한 아이로 자랐다. 아이의 성장은 가족 전체와 동네의 관심을 받지만, 아이의 탄생 순간만큼은 가정의 안방에서 소규모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과거 오리골에서 출생이 이루어진 장소는 대부분 집의 안방이나 산모가 원래 기거하던 방이었다. 이영재 씨의 부인이 넷째 아

이를 오리골에서 낳았을 때는 단간방에서 여섯 식구가 살았던 때였다. 이영재 씨의 부인이 진통을 하자 시어머니는 다른 가족을 밖으로 내보내고 아이를 받을 준비를 하였다.

아이를 받는 것은 시어머니, 곧 할머니가 될 사람의 몫이었다. 예비 할머니는 자신의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식구들을 조심시키며, 손자손녀를 받을 준비를 차분하게 해나갔다. 아이를 씻길 물 끓이기, 탯줄을 자를 가위 준비, 삼신상에 올리고 산모가 먹을 미역국과 밥 짓기 등의 일도 준비과정 중 일부이다. 한은순 씨는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보살핌을 받은 지 40여 년이 지나서 자신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 일을 돌보았다. 한은순 씨가 첫 아이를 낳은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들 내외가 기거하는 방에서였다.

집에 아이를 받을 시어머니나 집안 어른이 없을 때에는 동네에 알고 지내는 여성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재식 씨는 자신의 막내여동생을 직접 받은 소중한 경험을 생생히 떠올린다. 자신의 진통에도 주위에 마땅히 부탁할 어른이 없었던 김재식 씨의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맡긴다.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방과 부엌을 오간 김재식 씨는 진통에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서 ‘힘 더 줘. 힘 더 줘.’라고 하며 힘을 보탤다고 한다.

아이를 받을 사람을 구할 수 없었던 가정은 보건소에 소속된 산파에게 부탁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1960~1970년대 정도에 보건소 소속의 산파가 있었다. 보건소는 현재 반딧불이 학교가 있는 건물이었고, 산파는 역북리 쪽에 살았다. 산파의 연락처를 아는 지인이 전화를 해주거나 직접 산파의 집으로 찾아가서 부탁을 하였다. 산파의 나이는 당시 60대 후반이었다고 한다. 젊은 사람들끼리만 살거나 산모와 아이의 상태가 위중할 경우에 산파를 많이 불렀는데, 아이가 거꾸로 나오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아이를 집에서 낳아 동네 전체의 축하와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나는 것은 이제는 드문 일이 되었다. 지금은 흔해진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요양을 하고, 뷔페에서 돌잔치를 하는 일이 흔한 광경이 되었다. 그래도 동네사람들과 친지들에게 출생을 알리고,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만은 오리골에 그대로 이어오는 중이다.

지금까지 오리골에서 행해진 과거 출산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오리골의 출산 모습을 구체적인 출산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한은순 씨의 출산 사례 – 20여 년 동안 7명의 아이를 낳다

한은순 씨는 17살의 나이에 오리골로 시집을 와 194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아들 셋, 딸 넷을 낳았다. 두 번째로 낳았던 큰아들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이를 받고 산간을 해주는 일은 시어머니가 주로 맡아서 하였다.

(1) 출산

집에서 시어머니가 아이를 받았고, 출산 후에 미역국과 밥을 먹었다.

(2) 금줄과 탯줄

탯줄은 소독한 가위로 시어머니가 잘랐다. 금줄은 시아버지가 원새끼를 꼬아서 1주일 정도 나무에 걸어두었다. 1주일 후에 금줄을 걷어서 밖으로 가지고 가 태웠다.

(3) 삼신상

시어머니가 삼신상으로 미역국과 청수를 올렸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웅크리고 앉아서 삼신할머니를 위하였다.

2) 김재식 씨의 아이 받은 사례 – 어머니를 도와 동생을 받다

김재식 씨는 4남 1녀의 장남으로 오리골에서 자랐다. 중학교 1학년 일 때 막내여동생을 직접 받았다. 가난한 형편이라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도와 아이를 받았다. 김재식 씨는 방을 드나드는 일을 도맡아 하고, 아이를 씻기고 탯줄을 자르는 일은 어머니가 직접 하었다고 한다. 어렵게 낳은 여동생은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잃었다.

(1) 출산

남자가 자기 어머니의 아기를 받는 일은 거의 없지만, 당시 시부모가 멀리 살고, 아버지

도 일을 하러 나간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막내여동생을 김재식 씨가 받았다. 당시에는 다들 먹고살기가 바쁘고 일을 하던 때라 주변에 부탁할 수가 없었다.

출산 전에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가위를 준비하고, 물을 데우고, 미역국을 끓였다. 아이가 나오는 순간까지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엄마 힘 더 줘.’라고 하면서 아이 나오는 것을 도왔다.

“애가 머리가 나오더라고. 머리가 나오고 엄마 손을 꼭 쥐고서 “엄마 힘 더 줘. 힘 더 줘.” 이러니까 쪽 나오더라고. 나온 다음에 나는 빨리 밖으로 나가서 가위를 준비하라고 그랬으니까 가위를 엄마 옆에다 놓고 (물을 뜨러) 나갔지.”

아이가 나오고 따뜻한 물을 뜨러 간 사이에 어머니가 탯줄을 가위를 이용하여 잘랐다. 이후 김재식 씨는 고무통에 따뜻한 물로 아이를 씻겼다. 그 사이 김재식 씨는 미리 해놓은 미역국과 밥을 데워서 들고 들어왔고, 어머니는 출산 후 첫 식사를 하며 영양을 보충하였다. 그때는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라 음식을 가려먹거나 안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먹는 걸 가려서 먹는다.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뭐를 먹는 걸 가려 먹어? 먹을 게 없는데. 내가 이야기했잖아. 먹을 게 없어서 콩죽, 보리밥 이거를 계속 아주 주식으로 먹는데”

깨끗이 씻긴 갓난아이는 작은 이불로 돌돌 말아 포대기 위에 눕혀놓았다. 포대기, 이불, 배냇저고리 등은 어머니가 출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다.

(2) 탯줄과 금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탯줄과 태를 땅에 묻었는데, 어디에 묻었는지 정확한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 천주교 집안이기 때문에 금줄은 매지 않았다.

“애기가 낳으면 낳나보다 하지 사람이 들어와서 죽는다. 뭐 한다 병 걸린다. 절대 그런 것은 안 믿어.”

(3) 삼신상

다른 집에서는 삼신상을 차렸지만, 천주교 신자라 삼신할머니를 위하지는 않았다.

3) 한은순 씨의 아이 받은 사례 – 귀한 손주를 직접 받다

한은순 씨는 자신이 첫 아이를 낳은 지 40여 년이 흐른 뒤인 1986년에 아들내외의 방에서 첫 손자를 받았다. 손자의 백일에 동네에서 장수한 노인을 불러다 잘 차려 대접하며 손자의 무병장수를 빌었다.

(1) 출산

아들 내외가 기거하던 방에서 한은순 씨가 받았다. 손자를 낳은 며느리에게 미역국과 밥을 해주었다. 출산을 하면 김치는 잘 먹지 않았는데, 원래 출산을 하면 짜고 매운 것을 피한다고 한다.

아이를 낳기 전에 배냇저고리, 기저귀, 깔포대기, 덮는 이불을 미리 만든다. 포목점에서 부드러운 천을 끊어다가 손바느질로 직접 만들었다. 아이가 조금 커서 업을 때가 되면 그때 아이를 업을 때 사용하는 포대기를 만든다. 배냇저고리는 소매가 길게 하는데, 아이가 손으로 얼굴이나 몸을 꼬집고 할퀴는 경우가 많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배냇저고리를 손바느질로 만드는 데 반나절 정도 걸린다. 배냇저고리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2) 탯줄

탯줄은 중간부분의 피를 손으로 훑어 양쪽으로 밀고 양쪽을 실로 붙들어 맨 다음 그 가운데를 잘랐다. 태와 탯줄은 깨끗한 곳을 찾아서 정성을 담아 묻었다. 정확히 어디에 묻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3) 삼신상

삼신상을 차렸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4) 백일

손자 백일에 백설기, 수수팥떡, 국수 한 사발, 미역국, 밥으로 상을 차렸다. 백일상에 실타래, 돈, 쌀을 담아 올렸다. 동네에 오래 산 노인들을 불러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다. 백일에 장수한 노인을 불러다 같이 먹으면 아이의 명이 길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 방식이다.

(5) 돌잔치

손자 돌잔치에 백설기, 수수팥떡, 국수, 미역국 등 상을 차리는 것은 백일상과 같다. 백일에는 동네에 오래 산 노인만 부르는 반면 돌잔치에는 동네 사람들을 초대한다. 돌잡이로는 실, 쌀, 떡, 돈, 연필, 책을 놓고 아이가 처음 잡는 것으로 아이의 운명을 점친다. 책은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이고, 실은 장수를 한다는 의미이다.

“실 놓고, 쌀 놓고, 떡 놓고, 돈도 놓고, 연필 놓고, 책 놓고 그래. 책 잡으면 공부잘한다고. 하하하 실 잡으면 명 길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부자 되라고 그러고, 다 잡으면 좋지. 돈 집으면 돈 잘 번다고 그러고 노인네들이 그랬지. 옛날에.”

4) 박옥자 씨의 출산 사례 – 셋방살이라 금줄도 못 걸다

이영재 씨의 부인인 박옥자 씨는 영주에서 첫 출산한 이후, 용인 이주 후 두 명의 아이를 더 낳고, 막내를 오리골에 이사한 이후에 보았다. 자녀들의 출산은 전부 시어머니가 맡았다. 셋방살이를 하던 시절이라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 금줄을 걸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아이가 아플 때 약으로 쓴다며, 아이의 땃줄을 말려 보관하였다.

(1) 출산

이영재 씨는 1남 3녀를 두었는데, 그중 막내만 오리골에서 태어났다. 첫째는 경북 영주, 둘째와 셋째는 시장과 건너동네에서 낳았다. 막내가 현재 44세이다. 막내는 오리골에 이사를 오자마자 낳았다. 이영재 씨 어머니가 아이 넷을 전부 받았고, 산간을 도맡아 하였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진통을 오래 하지만, 옛날에는 진통을 하는 줄도 모르고 일을 하다보면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게 아이를 출산하기도 하였다. 예전에 연탄불을 난방으로 이용할 때는 항시 물을 끓여놓았다. 그렇게 데운 물을 떠다가 아이를 씻겼다. 이영재 씨는 집에 있을 때는 물을 끓이는 등 산간을 돕지만 일이 바빠 집에 없을 때는 도울 수 없었다.

(2) 땃줄과 금줄

이영재 씨는 태와 땃줄의 처리는 어머니가 하여 잘 모르나, 어른들이 옛날부터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였다고 했다. 이영재 씨의 부인은 시어머니의 땃줄 처리 방법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이의 땃줄을 말려서 보관하였다고 한다. 아이가 아플 때 가루를 내어 달여 먹이기 위한 것이었다.

금줄은 당시 셋방살이를 하던 상황이라 눈치가 보여 걸지 않았다.

(3) 삼신상

시어머니가 방의 동쪽 방향으로 미역국과 청수를 차려 삼신상을 올렸다.

(4) 백일떡

이영재 씨는 백일떡은 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백일은 잘 챙기지 않았고 돌만 챙겼다. 삼신상에 미역국과 청수를 차려 올렸다.

(5) 돌잔치

첫돌에는 마을에서 크게 부르지는 않고 집에서 조금 해서 가족끼리 먹었다. 오리골에서

아는 사람 몇 명을 불러서 아침식사를 같이 하는 정도였다. 식사는 평소 먹는 음식에 미역국과 떡만 추가하였다.

떡은 조금만 해서 2~3집의 이웃에게 돌렸다. 돌떡은 백설기와 수수팥떡을 하였다. 떡은 시장의 떡 방앗간에서 곡식을 가루를 내어 집에서 만들었다. 집에서 술에 시루를 엮고 떡을 찼다. 돌잡이는 미역국을 끓여놓고 한다.

실, 돈, 연필 등 주로 생계에 연관되는 물건을 놓고 아이가 무엇을 잡는지 보는 것이다. 무엇을 잡는지 바라기보다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방식이니까 하였다고 한다.

돌에도 미역국과 청수를 차린 삼신상을 올린다.

5) 1970년대 산파와 산부인과

(1) 산부인과

1970년대에도 김정란 산부인과라는 산부인과가 있었다. 오리골에서 산부인과를 가는 경우는 드물었다.

(2) 산파

1970년도에는 보건소 소속의 산파가 있었다. 보건소는 현재 반딧불이 학교가 있는 건물이었고, 산파는 역북리 쪽에 살았다. 산파의 연락처를 아는 지인이 전화를 해주거나 직접 산파의 집으로 찾아가서 부탁을 하였다. 산파의 나이는 당시 60대 후반이었다. 젊은 사람들끼리만 살거나 산모와 아이의 상태가 위중할 경우에 산파를 많이 불렀다. 아이가 겨꾸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대부분은 시어머니나 집안 어른이 아이를 받았다.

6-5 오리골과 별(別)하다

오리골에서 행한 삶과 관련된 의례 중에서 상·장례가 가장 늦게까지 전통적인 형태로 남아있었던 모양이다. 혼례가 대체로 1960년대부터 예식장과 공공 공간 등에서 신식으로

행해지기 시작한 것에 비해서, 상·장례는 1990년 중반까지도 망자가 살던 집에서 상·장례와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상여로 망자를 오리골에서 장지로 떠나보냈다.

망자가 생전에 살던 집과 마을을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장소로 생각했던 것 같다. 모든 장례 절차를 병원에서 처리하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망자를 모신 영구차가 장지로 떠나기 전에 오리골에 잠시 들렀다 가기도 한다. 2011년 12월 29일, 오리골에서 101세의 일기로 임종을 하였던 이영재 씨의 어머니는 병원 장례식장에서의 절차를 마치고, 12월 31일에 망자를 모신 영구차가 고향 봉화로 떠나기 전 망자가 50년 가까이 살던 오리골에 정차했다. 망자와 가족, 마을사람들에게도 망자가 오리골에 살던 모습을 떠올려보는 순간이다.

1990년대 이후부터 병원 장례식장이나 전문장례식장이 생기기 시작하여, 차츰 집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행하는 상·장례는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병원에서 모든 것을 편하게 처리하는 지금과 달리, 1990년대 이전에는 집에서 직접 모든 일을 담당해야 했다. 오리골에서는 망자가 돌아가신 날부터 집에서 장지까지 모시는 것을 3일 안에 하는 3일장이 보통이었는데, 김재식 씨는 망자가 숨을 거둔 시간이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라면 초상을 치르는 집은 할 일이 많아 무척 바쁘다고 말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제 밤 11시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게 고생이야. 하루 그냥 먹었잖아. 하루를 그냥 먹었으니까 장례가 고 다음날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 아휴 할 일들이 많기만 해. 아니 사람을 연락을 할래도 하루 만에 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야.”²⁰⁷⁾

3일 동안 큰일을 치러야 하는 상갓집을 위해 오리골 전체가 자신의 일처럼 나섰다. 마을 사람들은 상·장례에 능한 집안이나 마을 어른의 조언에 따라 부고 돌리기, 음식 장만, 상여를 들 때 사용하는 동아줄 꼬기, 상복 준비, 같이 밤 새워주기 등의 일을 맡아서 하였다고 한다. 마을의 여성들은 음식 장만이나 상복 준비를 하였다고 하며, 남성들은 상여가 나갈 때 사용하는 동아줄을 제작하였다고 한다. 상여의 동아줄을 새끼를 꼬는 수고로움을 덜하기 위해, 나중에는 간단하게 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한다.

부고는 동네의 청년들이 맡아 먼 곳은 우편이나 전보를 하였고, 용인 인근의 지역은 직

207) 김재식(남, 73) 제보

집 찾아가서 전했다. 부고를 받은 망자의 친척과 지인들은 망자의 시신이 집을 떠나는 3일 동안 상갓집을 찾아와 문상을 한다. 조충호 씨에 의하면 3일 안에 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삼우제 때 산소로 찾아와 문상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상갓집에는 빈손으로 가는 일은 없고 부주를 하였다. 예전에는 부주할 일이 있을 때면 국수나 술로 하였다. 김재식 씨는 1950~60년대까지는 국수나 막걸리를 하였고, 1970년도 이후부터 돈으로 부주를 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 1972년 모친상을 당했을 때 3천원, 5천원의 부주 돈을 받았다고 한다.

상이 나면 망자의 시신을 곧게 펴서 고정하고, 시신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등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오리골과 인근 마을에서는 고승덕 씨와 시장에 살고 있던 이종국 씨가 주로 시신수습을 맡아서 하였다. 상을 당한 집에서 부르러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이 나면 동네에 소문이 나기 때문에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달려왔다고 한다. 이들은 전문적으로 염습을 하는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상을 잘 마치고 나면 상주로부터 소정의 사례를 받았다고 한다. 이들 이외에도 염습에 대한 지식이 있는 마을사람이 맡아 치르기도 하였다.

상·장례 절차는 각 가정이나 문중마다 내려오는 풍습에 준하여 행하였다. 하지만 집안의 방식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상·장례 절차에 능한 사람이 도왔다. 이때도 고승덕 씨와 이종국 씨가 많이 수고를 하였다고 한다. 망자가 임종을 하면 처음에 좋은 곳으로 가라는 의미로 망자의 옷을 흔들고 던지며 초혼을 불렀다고 하지만, 40여 년 전, 조충호 씨가 부친상을 당했을 때는 사자상은 차린 기억은 나지만 초혼을 부르지는 않았다고 한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상·장례 절차가 간소화되기 시작한 것 같다. 1950년대까지도 집안이 넉넉한 경우에는 전통적인 상·장례 절차를 제대로 지킨 것으로 보인다.

조충호 씨에 의하면, 시내에 좀 넉넉히 사는 집에서는 망자가 죽은 지 3년이 되면 3년상을 마치고 모시던 조상을 내보내는 ‘큰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큰제사’ 때는 제사 음식을 차리는 규모가 컸으며, 이때 무당도 와서 신에게 고사를 지내는 과정도 있었다고 한다. 동네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큰제사’가 있는 집에서 제사뭇을 타먹기 위해서 기다리곤 했다. 제사가 있는 집에서는 밤늦게까지 참석한 사람들마다 음식을 한 꾸러미씩 싸서 나눠주었는데, 떡, 옥춘, 대추, 약과, 빈대부침이 등이다. 제사가 끝나면 사람마다 하나씩 뭇을 챙겨준다고 해서 ‘뭇제사’라고도 부르며, 오리골 동네 아이들은 시장 바닥에 잘사는 집의 제삿날을 잊지 않고 있다가 ‘내일 누구네 뭇제사래!’, ‘가자, 가자!’ 라고 하면서 몰려갔다고 한다. 밤늦게까지 기다려 받아온 자신 뭇의 음식은 집에 돌아가 식구들과 함께 먹었는데,

오리골과 시장건너 동네인 은덕골 아이들은 잘 사는 집 제삿날 등은 반드시 기억해 놓았다고 한다.

오리골은 별학(베레기)과 상여를 같이 썼으며, 상여를 보관하는 창고는 별학에 있었다. 평소에 상여는 북이나 기타 용품과 함께 창고에 보관했다가 일이 있을 때에만 꺼내어 사용하였다. 별학에 거주하는 조운행 씨는 공동 상여를 부인상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20여 년 전 조충호 씨 모친상에서는 꽃상여를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상·장례 절차 전부를 마친 후 꽃상여를 불에 태워버렸다고 한다.

지금까지 오리골에서 행한 상·장례의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1970년대 있었던 두 가지 상·장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두 사례 모두 망자의 자택에서 전통적인 방식에 준하여 치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두 번째는 천주교 신자의 사례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조충호 씨 부친상 사례

조충호 씨의 양친은 모두 오리골에서 돌아가시고, 오리골의 자택에서 초상을 지냈다. 부친은 40년 전, 모친은 20년 전에 오리골을 떠났다. 20년 전까지도 병원에 장례식장이 없었고,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두 분 다 집에서 모신 후, 마평리 말구리의 공동묘지에 매장하였다. 부친은 별학(베레기)과 함께 쓰던 옛날 상여를 사용하였고, 모친은 꽃상여를 구입하여 사용한 뒤 태워버렸다고 한다.

(1) 임종

조충호 씨는 직장에 출근하였던 중이라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동생이 집에 있다가 아버지를 모시고 수원에 있는 큰 병원에 가는 도중에 동백지구 쪽으로 있던 구 길에서 아버지의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했다. 수원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돌아가셔서 오리골로 돌아와 장례를 지냈다.

“임종 못했지. 나는 그때 뭐 어디 내 어디 일 갔던가. 직장에 있었는데 별안간 (그랬지). 그때 용인에 큰 병원이 없어서 내 동생이 모시고 수원병원에 가는데, 가다가 가는 중간에 정신병원길이 없었고, 저쪽 동백지구로 구 길이 있었어. 거기 넘어갈 때 숨이 끊어지

니까 허리가 축 처지더라. 그러니까 수원에서는 뭐 돌아갔으니까 모시고 가라.(해서) 모시고 용인 와 가지고 장례식 했지.”

(2) 초혼과 사자밥

초혼을 부르는 것은 하지 않았다. 이 동네에서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사자밥을 차려서 대문 앞 한쪽에 놓았다. 밥 한 그릇, 국 한 사발, 청수 한 사발을 숟가락 한 쌍과 함께 상에 올리며 매일 아침 갈아준다. 노잣돈으로 돈 한 꾸러미와 짚신도 올린다. 사자를 위하는 상이기도 하고, 상을 당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근대에 와서는 지붕까지 올라가서 뭐 이렇게 신을 부르고, 신을 내모시고 그런 건 옛날이야. 그런 건 이 동네는 없었어. 그때는.”

“짚신도 올리지. 사자한테 죽었으니까 저승사자가 잘 모시고 가라고 노잣돈을 올리는 거야. 신한테 제사 올리는 거야. 짚신 신고, 그게 멀리 출타하니까 (짚)신을 갖다 올리는 그런 유래가 있겠지.”

(3) 등과 부고

대문에 상을 알리는 등을 건다. 촛불에 불을 붙여 상을 당했다는 것을 표시하고, 문상 오는 사람들에게 초상집을 알린다. 망자의 시신을 집안에 안착해 놓고 부고를 썼다. 동네 분들 모여서 집안의 연락처와 부고 내용을 손으로 썼다. 그때는 전화 같은 통신수단이 없어서 손으로 부고를 써서 우체국을 통해 급행으로 보냈다. 가까운 곳은 직접 가기도 하고, 먼 곳은 우편을 통해서 보냈다.

“거기 등이 있어. 촛불로 상을 당했다는 것을 표시해 놓는 거야. ‘이 집에 상 했습니다.’ 하고”

(4) 염습

염습은 돌아가신 분의 생년월일시를 따져서 돌아가신 날 저녁이나 그 이튿날 아침에 한다. 동네 어른 중에 생년월일시를 잘 따지고 장례 절차에 능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이 염습과 관련된 것을 담당했다.

“대개 저 염을 거울에는 좀 늦게 해도 되고, 여름이나 날이 뜨거울 때는 바로 해야 돼. 시신이 인제 훼손되니까 바로 한다고. 여름 같은 날, 날이 따뜻할 땐 염을 열른 해가지고 한다고 수의를 입히는 거야.”

몸을 물수건으로 닦고 미리 준비한 수의를 입힌다. 귀와 코는 솜으로 막고, 입에는 쌀을 채워 넣었다. 수의가 없으면 깨끗한 옷으로 하는데, 보통 시장의 상포집에서 수의를 사다가 사용한다.

(5) 성복과 상식

상주가 입는 옷도 상포점에서 사다가 사용했다. 상주들은 모두 대나무 지팡이를 들었다. 염을 하고 문상객을 받기 전에 상주들은 상복을 착용한다.

대청에 청을 내두고 아침마다 음식을 올리고 제사를 지냈다. 조충호 씨 아버지 때는 삼오(삼우제)까지만 하였다.

“삼오를 끝내고 나는 건너치웠어. 다른 사람들 저 아래 지방엔, 100일 뭐 49일 하는데도 많아. 3년 하는데도 있어. 저 아래지방은 3년 해. 나는 삼오지내고 끝냈어.”

(6) 음식과 상부상조

음식은 밥과 국을 준비한다. 술은 막걸리를 준비하는데, 동네에서 모아서 갖다 주었다. 부주로 개인들이 막걸리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음식이라고 할게 있어? 그때는 밥이지. 밥. 음식이라고 해봐야. 국에다 밥이야. 술은 막 걸리고, 부주로 들어와. 막걸리도 동네에서 갖다 줘. 개인별로도 가져오고, 동네 모여서 갖다 주고 그래.”

상이 나면 마을 전체에서 적어도 한 가지 씩의 일은 도와주었다. 상이 나면 상주 외의 집안 어른이 장례절차를 총괄하여 진행한다. 이를테면 ‘장례 절차 위원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일을 할당해 준다고 한다. 부고돌리기와 상여 드는 것은 젊은 청년들이 주로 한다.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산악을 주로 담당했다.

“산악한다고 그래. 아침에 동네 어른이 그게 상주 어. 요즘으로 말하면 장례 절차 위원장이야. 그 사람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누구누구는 뭐하고, 누구누구는 뭐하고 그런다고. 대개 가족대표가 하지. 집안 어른이 장례 절차를 다 총괄하지.”

조충호 씨도 본인이 도움을 받았던 것만큼 다른 집에서 상을 당했을 때 앞장서서 도왔다고 한다.

“그럼 했지. 그때는 동네 친목회도 있고, 친구들끼리 친구 아버님 부모님들 상당하면 간다고 친구들이 그러면 간다고. 가서 친구들이 상당하면 가서 상여도 메고 일도 해주고 그러는 거지.”

(7) 문상과 곡

염을 하고 수의를 입히기 전까지는 문상은 하지 못한다. 염을 하고 상주들이 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문상객을 받기 시작한다. 문상을 오면 곡을 반드시 한다. 문상객이 망자에 절을 할 때 엎드려 곡을 하다가, 상주와 맞절을 할 때에는 곡을 그친다.

(8) 발인과 상여

삼일 째 되는 날 아침에 발인제를 지낸다. 집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다. 망자를 방에서 운구하고 나와 상여에 태운다. 운구는 대개 결혼 한 동네 청년 여덟 명

이 하였다.

상여는 별학(베레기)에 있던 것을 사용하였다. 별학에서 보관하던 옛날 상여로 조립을 하여 사용한 뒤 다시 분리해서 창고에 보관하였다. 반면 모친상 때는 일회용 꽃상여를 사용하고 매장한 뒤 불태웠다.

“어머니 때는 또 틀려. 그때는 저 일회용이라고 사다가 (했어). 꽃상여라고 그건 일회용이야. 갖다 사다가 조립해서. 운구 나가면 노제하고 매장하고 그걸 태워버렸어. 우리 어머니 장례 때는 그때부터 그 일회용이 나왔어.”

(9) 장례행렬

영정사진이 행렬의 처음에 선다. 영정사진은 집안의 사위가 들었으며, 사위가 없으면 집안에서 아무나 든다. 영정사진 뒤로 만장기가 따른다. 만장기에는 망자의 이름과 약력과 추모의 글을 담았다. 동네마다 잘 아는 어른이 있어, 그분이 만장기를 만들었다. 만장기 뒤로 요령잡이와 상여가 나가고, 상주, 가족, 마을 사람들 순으로 상여를 따른다.

“사진이 앞에 가지. 그 다음에는 만장기가 있어. 사진하고 만장기가 따라가고, 고다음에 요령잡이가 요령하고 상여 나가는 거야. 상주부터 가족들 마을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야.”

상여 앞에서 방울을 흔들며 상여를 이끄는 사람을 요령잡이라고 불렀다. 조충호 씨는 요령잡이 외에 부르는 다른 명칭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요령잡이는 ‘어허’라고 추임새를 넣으며 ‘딸랑’ 방울을 흔들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허’ 라는 가사가 포함된 노래를 부른다. 이에 상여를 든 상두꾼들이 ‘어허, 어허’라고 뒤통리를 받으며 박자를 맞추며, 상여를 옮기는 발을 맞추는 것이다.

“그 사람이 노래하고 박자 맞추고 나간다고. ‘어허’ 딸랑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냥 그런 구슬픈 노래가 있잖아. 노래한다고. 그러고 나가는 거야. (상여 든 사람이) 맞춰가지고 ‘어허, 어허’ 맞춰가는 거지. 발맞춰가면서 하는 거야. 상주가 뒤따라가는 거야. 곧바로 가고, 또 다리가 있으면 안 건너가. 요령잡이가 이제 가면 마지막인데 이 다리 건너가면 마지막인데. 이러면서 상주보고 바닥에 돈 깔으라고 그래. 돈을 깔으면 그걸

밟고 가면은. 인제 요령잡이가 그계 하루 일당 수입을 챙기는 거야. 인제. 거기서 돈 나 오고.”

오리골에서 요령잡이는 보통 일명 곰보라 불린 고승덕 씨가 하였다. 요령잡이 외에도 장례절차에 능해서 염습, 만장기 등의 일을 도맡아서 하였다. 용인에서 초상이 나면 일단 연락이 가고, 고승덕 씨는 어김없이 찾아오곤 했다고 한다. 상갓집을 방문하여 상주와 장례절차를 의논하고 알려주었다고 한다.

“응. 고승덕 씨가 용인서 유일하게 인간문화재야. 그 양반이. 전부다 동네 초상나면 고승덕이한테 연락이 가. 그럼 그 양반이 와서 해. 다. 다 해. (염습, 만장, 노래) 요령잡이까지 다해. 모르는 사람이 없지. 곰보야. 곰보. 얼굴이 곰보라. 고 씨에다 얼굴이 곰보라. 곰보라고 불러. 으레 곰보가 와. 벌써. 누가 연락했는지 연락이 가. 고승덕이한테. 그럼 곰보가 영락없이 오지. 인제 장례절차를 알려주고 의논하고 그러지.”

마평리 말구리에 있는 공동묘지에 아버지의 장지를 마련했다. 10리 넘는 길로 상두꾼들은 가다가 힘들면 쉬고 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교대를 하기도 하였다.

(10) 노제

상여가 장지까지 가는 길에 길에서 노제를 지냈다.

“가다가 노제라고 길에서 제사 지내는 거 있어. 노제를 지내면 상주들이 거기다 돈을 놓는다고 그것도 요령잡이가 챙기고. 가다가 인제 요령껏 집안에 상주가 많고 부자는 방울로 시간 끌고 그냥 장난치고 그런다고. 요령잡이 곰보가. 돈 많이 나오라고. 자꾸 나오라고. 돈 안 되면 그냥 가고. 집안이 좀 부자고 그러면 그냥 장난치고 안가고 장난치고 그런다고. 그래 돈이 많이 나오면은 상여 멘 사람들하고 달구질한 사람들하고 노놔 가져요.”

(11) 매장

마평리 말구리에 있는 공동묘지에 아버지를 매장했다. 나중에 어머니도 아버지와 합장을 하였다. 장지에서 흙을 파는 준비를 하는 것은 ‘산악(산역)한다’라고 한다.

땅은 아침 일찍 땅 파는 사람들이 가서 미리 파놓는다. 이때는 지관의 지시를 따른다. 지관이 땅 지리와 태양이 뜨는 방향, 음양을 망자의 것과 따져서 머리의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 매장절차는 지관이 알아서 했고, 지관에게는 일당을 주었다.

“그리고 또 지관이라는 사람이 있어. 지관이 인제 동네도 있고. 어디서 와. 지관이 누가 연락하고 오면은. 그 사람이 동서남북 봐. 땅 지리를. 해서 태양이 어디서 뜨고 음과 양을 또 가려요. 죽은 사람 뭘 따져서 머리가 이리 가냐 이리 가냐. 이걸 지관이 정해.”

땅을 파고 하관이 끝나고 나면 3번의 달구질을 하였다. 관 넣은 후와 흙을 덮은 후, 봉분을 엮은 후 각각 한 번씩 하였다. 봉분을 세운 뒤에는 잔디를 입혔다. 달구질을 할 때도 여러 명이 골고루 발로 밟을 수 있게 요령잡이가 박자를 맞추어 노래를 부른다. 이때도 달구질을 잠시 멈추며 상주와 집안식구들에게 돈을 놓게 한다. 이때는 돈을 매달았다. 이때 나온 돈은 요령잡이인 고승덕 씨와 땅을 팠던 사람들, 달구질을 한 사람들이 나누어 가진다. 매장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쯤이었다고 한다.

“이래서 가서 산소에서 다 매장 끝나고 달구질 했지. 어허 하면서 그것도 요령잡이가 해요. 부추기면서 맞춰서 매장을 흙을 덮어놓고 다진다고 발로. 여러 명이 하는 거지. 밟으면서 상주들이 집안 네들이 다 와서 거기다 또 돈을 놓는거. 돈을 매다는 거야. 멈춰다가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곰보가 요령잡이가 가져가는 거야. 땅 팠던 사람들이랑 나눠가지는 거야.”

(12) 삼오

삼오는 장례를 치르고 2일째 되는 날에 산소에 가서 한다. 삼오는 복어, 사과, 배, 술 등을 올리고 성묘하듯이 한다. 첫 번째 성묘하는 셈이다. 이때 장례를 치르는 동안 문상

하지 못했던 친척, 친지들이 술을 올리고 절을 한다. 조충호 씨는 삼우제까지 상복을 입고 있었다.

(13) 자리걸이

삼오를 마치고 집에 오면 자리걸이라는 곳을 한다. 아주 좋은 곳으로 편안하게 잘 가라는 의미로 오리골이나 이웃마을에서 무당을 불러 곳을 하였다고 한다.

곳은 징을 두드리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곳이 끝나면 망자가 쓰던 물건을 태운다고 한다. 조충호 씨는 군에서 제대하고 사회경험이 없던 때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자리걸이를 못 했다고 한다.

“망자 굶도 해. 그러면 있는 집은 삼오 갔다 오면은 또 저 자리걸이라고 있어. 자리걸이라고 해서 또 곳을 한다고. 아주 좋은 데로 잘 가라고 편하게 가라고 자리걸이라고 있어 삼오 갔다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대개 삼오지내고 자리걸이 바로 하지. 불태워 가지고 집안에서 완전히 나가는 거니까. 좋은 데 가시라고. 무당이 와서 다 끝나면 하는 거지.”

2) 김재식 씨 모친상 사례

김재식 씨 어머니는 여주 학동 출신으로 천주교인이다. 1972년 5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연탄을 잘못 피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에는 집에서 모시고, 매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후 김재식 씨가 화장을 하여 아버지와 함께 선산에 모셨다. 김재식 씨의 어머니의 상장례 모습은 사진 한 장에 남아있다.

“이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야. 30년 넘은 거야. 나는 맨 처음이니까. 이게 아버지야. 아버님. 나, 동생들 넷. 아버지는 (상복을) 안 입어. 그럼. 참 귀한거야. 여간해서는 볼 수가 없어.”

(1) 임종

김재식 씨가 삼가동에 막걸리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의 가게가 문을 열지 않아 가게에 가보니 어머니가 자고 있었다. 어머니를 불러도 대답이 없자 넷째 동생을 불러 가게 문을 여니 연탄가스 냄새가 났다. 황급히 어머니를 모시고 대동병원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

(2) 초혼과 사자밥

김재식 씨 집안은 천주교를 믿어 초혼을 부른다거나 사자밥을 두는 풍습을 따르지 않았다.

“그런 동네도 있지. 전체가 다 그렇게 아니고 그런 동네가 있어. 집안 마다 또 다르고. 우리는 그런 걸 안하니까. 천주교인들은 그런 걸 안 하잖아.”

(3) 부고

부고는 마을사람들의 손을 빌려 돌렸다. 마을사람들은 자신의 분량을 할당받아 인근마을을 돌아다니며 부고를 돌렸다. 당시에는 친척과 친지가 인근에 사는 경우가 많아 발품을 팔아도 충분했다.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은 우체국을 이용해서 돌리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부고를 돌렸어. 봉투에 써가지고. 봉투에 써서 우체국을 통해서 다 했어. 마을사람들도 돌리지. 그러니까 근처 마을에는 자네가 우리 마을에 살아 그러면 ‘아이 이것 좀 전해줘. 열 장이야. 여기 이름 다 적었어. 누구누구한테 가.’ 이렇게 사람의 손을 통해서 또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서로서로 연결해서 전달했다. 전화국이나 우체국을 많이 못 통해. 옛날에는 다 가지고 다니면서 돌리다시피 했어.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사는 게 아니고 거의 가까운 지역에서 사니까 (직접 가는게) 훨씬 빠르지.”

(4) 염습

인근에 사는 염습에 능한 사람을 불러 염습을 마쳤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만든 수의를 입혔다. 수의를 미리 준비를 해놓는 사람도 있다.

“염은 하는 사람이 있어. 그 고장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 성당에서도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동네에서 잘하는 사람이 불러서.”

(5) 상복과 상식

상주가 입는 옷은 동네마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도움을 받아 만들었다. 남자는 건과 베옷을 착용하고 지팡이를 짚었다. 아버지는 상복을 입지 않고 양복을 입었다.

대청에 염습을 마친 시신을 눕히고 앞에 병풍을 쳤다. 병풍 앞에는 상을 놓고 영정사진을 놓았다. 또한 과일, 떡 등의 음식을 차리고 향에 불을 붙여놓았다.

“상복은 지금이랑 똑같아. 옛날에도 베옷을 입었고. 옛날에는. 지금은 양복이나. 검은 양복이나 치마 같은 걸 입잖아. 똑같아. 옛날에는 다 누구든지 상복을 입었어. 베로 만든 상복을. 근데 언제부터지 바뀌어가지고 전부다 양복을 바뀌었어.”

(6) 부주와 상부상조

부주로는 국수와 막걸리를 받았고, 부잣돈이 들어오기도 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음식, 상복, 수의 제작, 상여를 드는 일 등을 도와주었다.

(7) 문상과 곡

대청에 염습을 마친 어머니를 모시고 문상을 받았다. 문상을 받을 때 곡은 하지 않았다.

“곡은 안해. 근데 몰라. 우리 나 죽었을 때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곡하고 그러지는 않았어. 그냥 문상을 받았지. 근데 곡을 누가 하느냐면. 아들이 곡을 하는 거야. 아들

들이 곡만 하는 거고. 아유아유 이렇게 하잖아. 아유아유 하면 조상은 사람이 절을 하고 세번 절을 할 동안에 아유아유아유 이런 식으로 운다고. 그게 우는 거야. 따지고 보면은 그냥 앓 우는 게 아니고. 아유아유 우는 식으로 하는 거야. 그다음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한테 절을 할때는 딱 그치고 같이 절을 하는거야. 그게 곡이야.”

(8) 연도

천주교 장례의 특징은 연도를 한다는 점이다. 천주교 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병풍을 쳐놓고 그 뒤에 얹혀놓은 다음 연도라는 책을 읽는다. 책의 순서에 따라 음을 맞춰 읽는다. 천주교 신자인 손님이 많으면 연도를 외우는 사람이 많은데, 연도를 외우는 사람을 ‘연도꾼’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연도를 읽는 것은 장례 날까지 언제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거를 아들이나 남편이 얼마만큼 열심히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에 따라서 손님이 좌우돼. 손님이 많으면 연도꾼들이 많고. 연도꾼들이라고 그래. 연도하는 사람이 많고. 손님이 적으면은 연도하는 사람도 적은거야. 그렇잖아. 이름이 없는데 누군지 알아? 잘 안가지. 그런데 교회에서는 와. 공동으로 오는 거는. 근데 뭐 지금도 그래. 지금 사회도 잘 모르고 그러면 잘 안가잖아. 그거는 24시간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바쁜 사람이 많으면은 낮에만 하고, 바쁘지 않은 사람이 많으면은 올 수가 있으면은 저녁때까지도 하고 밤새워서 하기도 해. 시간이 따로 있지를 않아. 장례 날까지는 그냥 아무 때고 할 수가 있는 거야.”

(9) 상여

별학(베레기)에서 보관하는 상여를 사용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그때는 상여로 했어. 그때는 동네가 상여가 있었어. 꽃상여가 아니고 그냥 상여야. 그때는 베레기(별학) 하고 공동으로 했어.”

(10) 장례행렬

방울을 든 사람이 상여 앞에 섰다. 상여 뒤에는 영정사진이 따르고, 그 뒤로 아들, 며느리, 하객이 순서대로 섰다. 방울을 든 사람이 장례행렬을 이끌며 노래를 부른다. 원래 상여에 쓰는 노래에 망자의 살아온 내력을 담아 고쳐 불렀다. 방울을 든 사람은 노래 한 마디가 끝나면 ‘어허’라고 말했고, 상여를 멘 8인이 ‘어허’라고 받았다. 고승덕 씨가 방울을 들고 장례 행렬을 이끌었다고 한다.

“그게 상여에 쓰는 노래가 있어. 곡이. 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잘하는 사람은 그 곡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거기다 ‘누구는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살았고,’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면서 끝에 가서 ‘어허’ 그러잖아. 그때 가서 (상여를 든) 8명은 또 ‘어허. 어허.’ 이렇게 받아서 치는 거야. 탁구를 공을 치면은 받아서 치듯이.”

“용인에는 그거 하는 사람이 별명이 곰보야. 곰보, 별명이. 그 양반이 계셨는데 그 양반이 다 그걸 하신거야. 오리골만이 아니라. 용인시내 여기까지. 베레기(별학), 오리골, 은덕골, 역북리, 삼가리, 남리. 아주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야. 와서 그날도 해주지만은 대개 보면은 그 집안에서 다만 얼마 용돈도 줘.”

(11) 노제

장지는 용인대 가기 전에 있는 선산에 마련되었다. 김재식 씨 집을 나온 상여는 오리골 입구를 지나 어머니가 생전에 운영하고 임종을 맞은 가게에 잠시 멈췄다. 이곳에서 상여 앞쪽을 든 사람이 몸을 숙이게 하여 상여가 인사를 하는 모양을 하였다. 이런 식으로 노제는 지내지 않고, 의미 있는 장소에 잠시 멈추었다 가곤 하였다.

“우리는 제가 아니고 내가 꼭 여기를 가야겠다고 할 때는 상여가 그쪽 가서 그냥 잠깐 섰다가 가는 거야. 여기서 가게를 오래했었는데 거기를 좀 지나가지 그러면 상여가 가면서 (방울) 하는 사람이 딱 서면서 노래하고 그런다고. 그때 거기서 하면 이렇게 앞에 (상여 멘)사람이 인사를 해. 그러면 뒷사람은 서있으면 인사가 되는 거야.”

(12) 미사와 성묘

기일에 제사는 지내지 않고, 성당의 신부님에게 미사를 부탁한다. 과거에는 조부까지 미사를 드렸으나, 지금은 부모님까지만 미사를 드렸다. 성당 미사 후에 가족이 모여 산소에 성묘를 간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사를 안지내잖아. 시장에 가서 과일 사서 상 차려 놓(는) 대신 우리는 신부님에게 제사 지낼 정도의 돈이 5만원이라면 한 2만 원 정도를 봉투에 담아서 신부님에게 부탁을 드려. 내일이 우리 어머니 기일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공개적으로 기도를 해줘. 오늘은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일 날 성당 가서 미사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산소 다녀오고. 그때는 차려서 절하는 것만 안하는 거지. 다른 것은 똑같아.”

3) 이영재 씨 모친상 사례

이영재 씨 어머니가 2011년 12월 29일에 101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집에서 임종을 한 뒤 영안실로 옮겨 병원장례식장에서 발인을 하였다. 병원에서 수세를 하였고, 화장을 해서 봉화에 모셨다. 장례기간 동안 동네분들이 와서 문상을 하고 일을 도왔다. 운구는 영안실에서 차까지 가는 것이라 가족이 맡아서 했다. 운구차가 오리골에 와서 잠시 멈추고 갔다.



신앙과 민간의료 · 7

7. 신앙과 민간의료

오리골은 일제강점기 건립된 신사에서부터 크고 작은 절과 용인성당, 천막교회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들 종교시설은 오리골 주민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민간신앙과 더불어 각 가정의 무사와 안녕을 비는 신앙의 존재로서 오리골 주민들에게 의지가 되어왔다. 또한 각 가정에서 행한 민간요법과 속신도 오리골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삶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7-1 용인신명신사(龍仁神明神社)

신사의 정식명칭은 용인신명신사(龍仁神明神社)인 것 같지만, 오리골 사람들은 대부분 ‘신공’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신공 가는 계단’, ‘신공자리’ 같은 표현을 들을 수 있었다. 오리골 내에 신사가 설치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한국 내 거주 일본인을 위한 시설설치와 한국인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1930년대에 건립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사건물은 전형적인 일제강점기 일본식 건물로 고야지붕을 얹었다고 한다. 지붕의 소재는 함석이었다. 원래는 기둥에 세우고 벽을 막은 건물이었지만 한국전쟁을 겪으며, 폭격으로 벽이 부서지고 기둥에 지붕만 있는 상태로 한동안 존재했다. 조충호 씨에 따르면 10살까지도 신사건물이 남아 있었다고 하니, 1950년대 후반까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별학(베레기) 마을 출신인 조운행 씨는 학생 때 강제로 신사를 참배한 적이 있다. 용인

사람이 전쟁에 징용으로 끌려갈 때마다 신사 참배를 하였는데 한 달 동안 6~8번을 한 적도 있었다.

신사는 일본 특유의 신관 복장을 한 1~2명이 관리했다고 하며, 신사의 내부는 일본인에게 신성한 곳이어서 건물 내부에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기둥나무는 일본에서 가져온 것 모양으로 전부 곧았고 지붕에 기와를 올리지는 않았다니, 해방 후에 남아 있던 함석지붕의 건물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일본의 조상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모셨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신을 믿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신사는 용인의 면마다 하나씩 존재했는데, 일제의 1면 1신사 정책에 따른 것이다. 조운행 씨는 수여선 기차를 타고 가던 중 신갈에서 신사를 본 기억을 가지고 있다. 용인의 전체 신사 중에서 오리골에 있던 신사의 크기가 가장 컸다고 한다.

해방 후 신사를 불태운 지역도 있었지만, 오리골에 있던 신사는 해방 후에도 한동안 온전히 남아있었다. 신사를 때려 부수자는 노래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오리골에 있던 신사만은 무슨 이유에선지 남아있게 되었다.

1950년대 중후반까지도 존재했던 신공과 건물이 사라지고 남은 신공자리는 오리골 아이들에게는 동네놀이터였다. 아이들은 병정놀이를 하고 놀았으며, 신공 터 주변으로 있던 밤나무에서 가을에 밤을 줍기도 했다.

1955년 신사자리 인근에 현충비가 세워져서, 현충일마다 사람들이 모여 순국선열들에게 제사를 올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현충비의 설계는 교육청의 한기사라는 사람이 맡았고, 크기는 1층 정도 높이였다. 현충비는 신사자리 조금 아래에 있다가 지금은 중앙공원에 새로 만들어 옮긴 상태이다.

해방되면서 신공이 있던 자리 뒤에 교회가 천막을 치고 들어왔다. 조운행 씨 기억에 1955년도에도 천막교회가 있었다고 한다. 이때는 이름도 없이 그냥 ‘감리교회’라고 불렀다. 천막교회는 1960년대 초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오리골 동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에 과자를 얻어먹기 위해 한두 번 천막교회에 간 적이 있다. 조충호 씨도 천막교회에서 과자를 받아먹은 적이 있다고 한다.

오리골 사람들을 포함한 일반 대중들은 신사를 신앙적 의미보다는 강제 통치의 수단으로써만 받아들였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오리골 사람들의 전통적인 민간신앙을 통해 마을과 가정의 평화를 빌어 왔던 것 같다.

7-2 민간신앙

1) 마을신앙

오리골에는 경기도의 여타 지역에서 나타나는 산제사, 동제 등과 같은 마을제의를 존재하지 않는다. 이곳에 원래부터 마을제이가 없었는지 아니면 마을주민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가 특정시기에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다만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 일제강점기, 적어도 1930년대 이후부터는 오리골 주민이 주도 혹은 참여한 마을제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방 후 별학 주도의 줄다리기가 확인되고, 1960년대까지 정월 지신밟기와 추석 거북놀이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오리골의 공동체 의례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제이가 없었던 것에 대한 몇 가지 추측은 가능한데, 주민구성, 생업적 이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오리골을 포함한 김량장리가 행정, 상업의 중심지가 되면서 인근 마을에서 이주해온 주민이 늘어나면서 주민들 간의 유대가 마을제이를 할 만한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이 주민구성에 관한 추측이다.

일자리 획득의 용이성 때문에 오리골로 이주해 오는 이사배경과 주민들의 생업이 다양하다는 점은 농업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마을제의를 행할 근거가 부족해지는 환경이 되어 갔다고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오리골 내에 '용인神明신사'가 있었다는 점도 마을제이를 유지하거나 시작하는 데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오리골에서 조사된 공동체 신앙적 행위는 정월에 한 지신밟기이다. 과거에는 농사를 짓는 집이 많아 동네에서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적힌 농기가 있었다. 정월대보름에 농기를 앞세우고 농악을 치며 집집마다 돌아다녔다. 이것을 '지신밟기'라고 하였다. 당시 풍물패는 마을마다 있었고, 오리골에도 농악악기를 보관하고 있으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꺼내어 사용하였다. 지신밟기 일행이 방문한 집에서는 막걸리와 고기 등의 음식을 내와서 대접을 하였고, 한상 거하게 먹은 일행은 장구, 팽과리, 북 등을 치며 다음 집으로 향했다. 옛날에는 없이 살아도 이와 같은 풍습을 지키며 마을과 가정의 무사안녕을 빌었다.

2) 가정신앙

(1) 상달고사

① 조충호 씨의 상달고사떡 - 추석이 지나고 가을걷이가 끝나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고사떡을 많이 하였다. 고사떡은 마루, 부엌, 장독대에 올리고 나서 먹었다. 고사떡을 하면 이웃 간에 나눠 먹었다. 조충호 씨는 동네 간에 음식을 나누는 것을 옛날 우리의 정(情)이고 문화라고 추억하였다. 상달고사떡은 무채와 호박을 넣어서 만들어 무척 맛있었고, 예전에는 먹을거리가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고사떡이 더 맛있고 귀하게 여겨졌다.

② 조운행 씨의 시월고사(상달고사) - 음력 시월을 상달이라고 하는데, 시월고사는 어느 집이든지 하였다. 상달고사는 상달에 집안에서 고사를 지내며, 떡을 해먹는 것이다. 고사떡은 팔 시루떡을 집에서 만들어 사용한다. 찹쌀과 멥쌀을 사용하였고, 예전에는 쌀이 귀해 쌀가루에 채 썬 무를 섞은 무시루떡을 하기도 했다. 고사를 지낸 떡은 동네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시월고사를 지내고 떡을 나누었기 때문에 음력 시월이면 집안에 떡이 쌓였다. 오리골과 베레기도 한 동네나 마찬가지로 떡을 나누었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없어졌다. 고사떡의 양은 형편에 따라 조절하여, 넉넉한 집은 많이 해서 마을 전체에 다 돌리고, 여유가 없는 집은 집 주변에 가까운 이웃에게만 돌렸다.

고사는 우선 대청에서 시작하였다. 집안 대청에 청수와 떡을 놓고 절을 하며 집안 잘되게 해달라고 고사를 드린다. 이후에 부엌, 안방, 장독대 등 집안 곳곳에 떡을 조금씩 갖다 놓는다.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를 하고 조상들에게 '농사를 올해 아주 잘 지었습니다.'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서양 사람들이 가을에 하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의미라고 한다.

③ 이영재 씨 댁 집 고사 - 시월달이 되면 집 고사를 지냈다. 떡을 해서 우선 '중양'이라고 부르는 마루에서 고사를 지낸다. 이후에 삼신을 시작으로 각 방마다 그릇에 떡을 담아서 가져다 놓았다. 장독대에도 놓았다.

(2) 삼신

① 한은순 씨 댁 삼신상 - 아이를 낳은 후 시어머니가 미역국과 청수를 올린 삼신상을 차리고 삼신할머니를 위하는 모습을 보았다.

② 이영재 씨 댁 삼신상 - 이영재 씨 어머니가 손자를 받은 후 방의 동쪽을 향해 삼신

상을 올렸다. 삼신상에는 미역국과 밥, 청수를 올렸고, 백일과 돌에도 삼신할머니를 위하였다.

(3) 초사흘 고사

한은순 씨는 초사흘에 집에서 고사를 지냈다. 떡을 해서 안방 다락, 부엌, 장독, 화장실 등에 놓아두었다.

(4) 정월 집안 고사

조충호 씨 댁은 정월에 장독대에 떡을 놓고 고사를 지냈다. 정월 보름인지 보름 이전 시 기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5) 음력 2월 할머니

봉화 출신의 이영재 씨의 어머니가 음력 2월이면 ‘무슨 할머니가 오신다.’고 하여, 장독대에 청수를 올렸다.

(6) 천장에 걸어둔 소코뚜레

한은순 씨는 결혼하는 넷째 딸 이영숙 씨에게 집안에 걸려있던 소코뚜레를 주었다. 신혼집에 소코뚜레를 가장 먼저 걸어두었다고 한다. 이사할 때 소코뚜레를 가져다 놓으면 나쁜 액이나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속신이 있다.

처음에 이사할 때, 처음에 시집해서 결혼해가지고 갈 때 엄마네 원래 있던 거 준거니까 되게 오래된 거야. 엄마 네도 계속 있던 거니까. 그거 이사 갈 때 마다 가지고 가잖아. 꼭. 엄마가 준 유물이야.²⁰⁸⁾

208) 이영숙(여, 49) 제보

3) 개인신앙

(1) 재수굿

집안 형편이 넉넉한 집은 일년에 한 번 재수굿을 한다. 집안의 번성과 안녕을 비는 곳으로 돈을 들여서 일부러 한다. 재수굿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부유한 집에서만 하였다.

(2) 천도굿

① 망자굿 – 일반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가면 죽은 다음 한 3~4일 후에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굿을 하였다. 망자굿을 하며 망자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라는 식으로 하였다.

② 자리견이 – 장례를 마치고 삼오날에 무당을 불러 자리견이를 한다. 오리골이나 가까운 마을에서 온 무당은 징을 두드리며 경을 읽는다. 한나절 정도 지속된 자리견이는 망자의 물건을 불태워 버림으로써 끝이 난다.

(3) 병굿

① 목살경과 토살경 – 굿이라기보다는 경을 읽고 주문을 외우는 식으로 하였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무당을 찾아가 원인을 찾는데, 무당은 목살 혹은 토살이 들었다는 식으로 진단을 한다. 목살은 나무를 잘못 다루어서 드는 것인데, 짐수리를 하면서 나무, 목재를 잘못 건드려 병이 생겼다는 것이다. 목살굿은 목살귀신을 내쫓는 굿이다. 원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복숭아를 안 놓고 지내는데, 이때는 동쪽으로 뻗은 참복송아나무 세 가지를 갖다 놓고선 목살경을 외운다고 한다. 복숭아가지를 부러뜨려 그것으로 바닥을 두드리면서 주문을 외운다. 목살경은 목살이 들었을 때 외우는 주문이다. 목살경은 원래 세 번을 읽어야 해서 오래 걸린다. 세 명이 동시에 외울 경우에는 한 번만 읽어도 된다. 토살경은 흙을 잘못 다루었을 때, 즉 집에서 흙 같은 것을 바를 때 잘못 돼서 탈이 난 것으로 토살경만의 주문이 따로 있었다.

조운행 씨는 목살경과 토살경은 병굿이라기보다는 사람에게 탈이 났을 때 그것을 달래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경을 읽는 사람은 마을마다 경을 소유하고 있거나 외

우고 있는 사람이 하였다. 같은 동네 사람으로 막걸리 한 잔, 음식 한 그릇을 수고비 삼아 무료로 경을 외웠다. 직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경을 아는 사람, 동네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다. 옛날에는 목살경과 토살경 읽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조운행 씨가 어렸을 때도 집안에서 2~3번 정도 동네사람을 불러다가 목살경을 읽은 적이 있었다. 조운행 씨는 바로 옆에서 목살경 읽는 것을 들었으므로 목살경 처음 몇 구절을 외웠었는데 지금은 잊어버렸다고 한다. 목살경이 한자로 되었다는 것만은 기억하고 있다.

② 한은순 씨 댁 병굿 - 남편과 아이들이 아팠을 때 무당을 불러 병굿을 하였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무당을 부른다. 떡과 나물 같은 음식을 상에 차려놓는다. 한밤중에 무당은 땅에 앉아서 징을 두드리면서 주문을 외웠다. 아플 때 무당을 불러 병굿을 하면 얼른 나을 때가 많았다.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다. 무당은 동네에 살던 사람을 불렀다. 예전에는 마을사람들이 아프면 병굿을 많이 하였으나 언제부터인가 사라졌다.

7-3 종교신앙

1) 무속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무당이나 만신을 불러서 굿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예전부터 무당이 오리골 근처에 몇 군데 있었다. 가정의 재수굿과 천도굿, 병굿을 해주었다.

오리골에는 굿을 요란하게 하는 무당은 살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에 자신을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神通하게 무당역할을 했다가보다는 집집마다 지내는 고사의 준비, 절차 등의 일을 맡아서 하는 정도였다.

현재는 조충호 씨 뒷집과 삼거리에 있는 절집에 무당이 살고 있다. 삼거리 절집은 오리골에 들어온 지는 20년 정도 되었고, 최근에 용하다는 소문이 나서 외부 손님들이 많이 방문한다.

(1) 일년고사굿

시내에 큰 음식점에서 일년에 한 번씩 무당을 불러 굿을 하였다. 일진옥, 용강옥, 춘일옥 등 '옥(屋)'자가 붙은 음식점은 기생들이 상주하며, 주로 고관들이 드나드는 큰 영업집

이었다. 일년에 한 번씩 무당을 불러 음식점의 안녕을 빌며 이틀에 걸쳐 굿을 하였다. 이것을 일년고사굿이라고 하는데, 무당이 밤을 새서 굿을 하고 떡과 음식을 구경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2) 시영엄마

한은순 씨의 넷째 딸인 이영숙 씨는 오리골에 살던 무당을 ‘시영엄마’(수양엄마)로 삼았다고 한다.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나봐. 내가, 뭐 인제 자식이 명이 뭐 어떻게 저렇다 이러면 시영엄마를 삼아주면 애가 좋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니까 그렇겠지. 우리 시영엄마였었어. 나한테 시영엄마를 걸어. 엄마가 그렇게 데려갔던 거 같아. 거기를.”²⁰⁹⁾

(3) 초파일 치성

한은순 씨는 초파일에 떡과 과일 중 좋은 것만 골라 머리에 이고 가서 오리골에 살던 무당집을 찾았다. 이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무당집에 모여 치성을 많이 드렸는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 치성을 올린다. 무당은 가정의 평안을 빌어주는 말을 했고, 한은순 씨는 옆에서 절을 계속 했다고 한다. 어머니를 따라 자주 갔던 이영숙 씨는 마을 사람들끼리 밥을 같이 해먹고 북적북적해서 잔칫날 같았다고 기억한다.

초파일 치성의 방법은 무당이 징을 두드리면서 축원의 말을 하면 한은순 씨는 계속 절을 하는 식이었다. 무당이 식구들 이름을 한 명씩 말하면서 식구들 이름을 적은 창호지를 촛불에 태워서 공중에 날렸다고 한다. 한은순 씨가 보리원이라는 절에 다니면서부터 초파일 치성은 보리원에서 하였다고 한다.

2) 불교

오리골에서 종교라고 하면 절에 많이 갔다고 한다. 자주 가는 것이 아니라 일년에 한두

209) 이영숙(여, 49) 제보

번 정도 나가서 집안이 무고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정도였다. 조운행 씨에 의하면 에버랜드 쪽에 있는 백련암, 천리 꼭대기의 용덕사, 해방 직전에 생긴 화운사가 일제강점기에 오리골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가던 절이었다.

절에는 주로 사월 초파일과 칠월 칠석에 집안 무고를 바라며 많이 다녔다. 또한 정월 설 명절을 쇠고 나서는 일년 신수를 보기 위해 절을 찾았다. 이때는 스님들이 점을 쳐 주는데, 돈은 받지 않았다고 한다. 조운행 씨의 할머니는 정월, 사월 초파일, 칠월 칠석날에는 어김없이 절을 찾았고 절에서 과일, 절편 등을 가져왔다. 한은순 씨는 스님이 남편 이덕환 씨의 증풍을 완화시켜준 것을 계기로 해서 보리원이라는 절에 다녔던 적이 있다.

3) 천주교

용인에는 천주교 성지가 많은 편이지만, 오리골 주민 중에 천주교를 다녔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리골에서 천주교 집안인 김재식 씨를 포함하여 한두 집 정도만 용인시장 쪽에 있던 용인성당에 다녔다. 지금은 용인에 성당이 많지만 해방 직후에는 용인과 양지 두 곳 뿐이었다. 용인시장에 있던 용인성당을 사람들은 ‘천주교’라고 불렀다. 용인성당에서는 신부님이 일년에 1~2번 정도 천주교인들이 사는 곳을 방문하여 식사를 했다.

용인성당은 후에 별학(베레기) 쪽에 건물을 새로 짓고 옮겨왔다.

4) 개신교—용인감리교회

일제강점기 신사가 있던 터에 천막교회로 들어와 운영을 했다. 그러다 같은 자리에 작게 건물을 짓고 있다가 이후에 현재의 붉은 벽돌의 건물을 지었다. 오리골에서 성장한 주민들은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나가 선물과 과자를 받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7-4 민간의료와 속신

과거 용인에는 일반 병원이 별로 없었다. 큰 병원으로 가려면 수원까지 나가야 했다. 용인시장에 있던 대동병원이 그나마 큰 병원이었다고 하며, 한은순 씨는 식구들이 아프기만 하면 대동병원에 달려갔다고 한다.

과거 오리골에서는 대부분 한의원에 찾아 감기약 지어먹거나 뼈에 이상이 있으면 침을 맞았다고 한다. 또한 뼈가 부러지면 접골원 같은 곳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오리골 사람들은 간단한 민간요법이나 속신으로 질병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리골에서 들은 민간요법과 속신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민간요법²¹⁰⁾

- (1) 예전에는 회가 많아서 배가 아픈 경우가 많았다. 자다가 회충이 목구멍으로 넘어오기도 하였다. 이때는 회충약을 먹어야 했는데, 학교에서 회충약을 주었다.(이영재)
- (2) 감기나 열이 나면 파뿌리를 달인 물로 꿀물을 타 먹었다. 꿀이 없을 때는 파뿌리 달인 물만 먹었다.(이영재)
- (3) 장질부사(장티푸스)같은 전염병이 많아 잘못하면 한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설사, 피통, 윤감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병막에 보내어 살게 했다. 병막에서 살다가 저절로 병이 낫는 경우도 있다.(이영재)
- (4) 홍역을 앓고 죽는 아이들도 많았는데, 홍역에 걸리면 땀을 많이 내게 한다.
- (5) 이덕환 씨가 증풍에 걸렸을 때, 일본에서 침 공부를 하고 온 보리원 스님에게 침을 맞고 증상이 완화되었다.(이영숙)
- (6) 볼거리로 인해 부은 곳에 계란 노른자, 치잣가루, 밀가루를 반죽하여 붙여놓는다.(이영숙)
- (7) 바닥에 넘어져서 찢어진 상처에는 담배필터를 가루를 내어 뿌린다.(이영숙)
- (8) 소다는 만병통치약이었다. 배가 아플 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소다 한 숟가락을 먹었다.(이영숙)
- (9) 항상 집에는 마이신이 구비되어 있었다. 열이 나거나 감기가 걸렸을 때 마이신을 쪼개어 먹었다. 아이들은 작게 쪼개어 먹었다.(이영숙)
- (10) 아이가 태어나면 땃줄을 말려서 보관한다. 그 아이가 경기를 할 때 달여서 먹이면 낫는다.(이영재)

210) 이영재(남, 73), 이영숙(여, 49) 제보

2) 속신²¹¹⁾

- (1) 부모가 죽었을 때 딸들이 많이 울고 곡소리가 커야 부모의 황천길이 밝다.(이영숙)
- (2) 자식의 명을 길게 하기 위하여 무당을 시영엄마로 삼는다.(이영숙)
- (3) 산모가 김치를 먹으면 이가 상한다.(이영재)
- (4) 장사를 지낼 때 해를 넘기면 좋지 않다.(이영재)
- (5) 새로 이사하는 집에 소 코뚜레를 걸어두면 나쁜 액이 들어오지 않는다.(이영자)
- (6) 장사를 지내고 자리걸이를 하면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간다.(조충호)

211) 이영숙(여, 49), 이영자(여, 62), 이영재(남, 73), 조충호(남, 73) 제보

오리골
인물의
생애사
·
8



8. 오리골 인물의 생애사

8-1 가난과 고달픔을 이겨내며 살아온 한은순의 삶²¹²⁾

(1) 방축동 고향마을과 어린 시절



살아온 삶을 구술하는 한은순 씨

한은순 씨의 고향은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²¹³⁾ 방축골이다. 오리골에서 대략 10리 정도의 거리인데, 그곳에는 청주 한씨가 많이 살고 있다. 원래 용인정 신병원 아래쪽 민제궁(수원동) 한씨 마을에 살다가 한은순의 조부 때에 유방리로 들어왔다. 그곳에 조카들이 아직도 살고 있다.

부친은 4형제로 이름이 ‘한이봉’으로 봉자가 돌림자이다. 형제간에 일봉, 이봉, 삼봉, 사봉이었으며, 아버지는 이봉으로 둘째였다. 방축골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매우 착하고 얹전하신 분으로 기억한다.

방축골은 마을이 크며, 아랫말·윗말로 나뉘었는데, 고향마을은 아랫말로서 그 마을이 윗

212) 한은순 씨는 현재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 기억력이 많이 감퇴되었다. 그래서 큰아들 이영실 씨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보완하여 정리하였다. 따라서 한은순 씨의 개인생애사는 본인의 구술과 아들의 구술이 혼재되어 있다.

213) 유방동은 유곡리의 ‘유’와 방축리의 ‘방’의 글자를 하나씩 따서 만든 동명이다.

말보다 더 컸다.

그는 큰딸로 태어나서 정식 학교는 다니지 않았지만, 야간 강습학교에 다니면서 글을 깨우쳤다. 이에 대해 한은순 씨는 일제강점기에 유방동에서 다녔다고 말을 하나, 아들 이영실 씨는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함경도 함흥의 친척집에 살면서 그곳 강습소의 야학에 다닌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말한다. 대략 1940년대 초반에 함흥에서 잠시 살았던 것 같은데, 당시 유림동 방축골의 친정은 살기가 괜찮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왜 외가에서 큰딸을 어린 시절에 함흥 친척집에 보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해방 이후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도로 집으로 불러 들었다.

“유방동에 사실 때 방축골인데, 거기 사실 때에 함흥에 친척이 사셨는가 봐요. 어려서 큰딸이고 그러니까 그리 보낸 것 같아요. 할머니가 보내신 것 같아요. 생활하다 해방 되기 바로 전에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도로 보내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일제시대이고, 거기서 글을 배울 수 있는데 다녔대요. 강습소 같은 데를 다니는 바람에 한글과 숫자를 쓰실 수 있지요.”²¹⁴⁾

한은순 씨가 기억하는 야학 건물은 초가집이었으며, 약 1~2년간 다니면서 이름과 한글 정도를 깨우치는 정도였다. 주로 ‘가갸거교, 너녀노뇨---’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등을 책으로 배웠다. 당시 강습학교는 나이 지긋한 남자 선생님이 가르쳤으며, 방안에 10여 명이 빙 둘러 앉아서 공부를 했다. 소학교는 기성회비가 비싸 딸들은 보내지 않았으며, 아들들은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시켰다.

어린 시절에 친정에서도 큰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모두 술을 좋아해서 심부름으로 주전자에 술을 받아온 적이 많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니 남편도 술을 좋아해서 술 받으러 간 적도 자주 있다.

(2) 혼인과 시댁

한은순 씨는 17세에 오리골로 시집을 왔다. 남편은 이덕환 씨로 3살 위였으며, 전주 이씨로 조부 시절에 오리골로 들어왔다. 당시 신랑은 쥐띠(1924년생)이고, 신부는 토끼띠

214) 이영실(남, 56) 구술

(1927년생)로 만났다.

혼인을 할 때에 함은 신랑과 함께 함진아비가 지고 왔는데, 함 안에는 한복 옷감이 있었으며, 사주, 청실과 홍실도 들어 있었다. 다른 것은 특별히 기억이 없다. 당시는 함 값 같은 것은 받지 않았으며, 함진아비는 상을 잘 차려 먹인 다음에 보냈다.

신랑의 얼굴은 혼인날에 처음 봤다. 신랑은 키가 크고 잘 생겨서 처음 보고 안심이었다. 신랑이 뭐를 타고 왔는지, 중매는 누가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때 17살의 어린 시절이라 정신이 없었다. 신랑은 3형제 중에 장남이었다.

초례상 위에는 청실홍실을 걸고, 용떡을 놓았다. 그리고 살아 있는 암탉과 수탉을 같이 상 위에 놓았다. 용떡은 멍쌀을 뺏아서 주먹 크기로 둥그렇게 만들었는데, 사발마다 3~4개 정도씩 올려놓았다. 술을 붓고, 맞절을 한 기억은 있는데, 절을 몇 번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시집 올 때에 가마 타고 왔지. 가마도 사륜교 있고, 가마 메는 사람은 젊은이들이 4사람이 메고 오지. 유방리 거기가 고향이에요. 유방리 한씨네. 오라버니들 다 돌아가셨어.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시집왔어요. 17살에 왔는데. 초례 치르는 날 신랑 얼굴 처음 보는데, 그래도 키도 크고 잘 생겼어요.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잘 생겼어요. 초례상에 청실, 홍실 걸고, 용떡 올려놓고, 닭도 살아 있는 거 암탉, 수탉 같이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늙은 거요. 용떡은 멍쌀로 틀어서 만들어 담아 놓잖아. 둥그렇게 사발에다 담아놓지요. 크기가 이만해요. 꽤 크지요. 그때 함은 함진애비가 지고서 왔어요. 함 속에 치마 두 끝밖에 없어. 거기다 사주, 청실홍실도 있고, 다른 거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 그때는 함값 달란 거 그런 거 없어유. 한 상을 잘 차려서 주었어요. 신랑은 한 열시 반쯤해서 왔을 거예요. 초례 치르고 당일날 바로 신랑 집으로 왔는가봐. 그래서 여기서 썩었어. 신랑 집에 오는 것을 시집온다고 그랬어요. 큰아버지가 쫓아 왔는데, 하루 안 자고 바로 갔어요. 시댁에서 바가지 밟고 들어가라고 해서 깨고 갔어요. 나쁜 거를 어디로 가라고 그러던가, 그거 밟으라고 해서 밟았지. 17살인데 무얼 알아?”

오전 10시 30분 경에 방축골에서 초례를 치르고 당일로 바로 오리골 신랑 집으로 가마를 타고 갔다. 신랑 집에 가는 것을 신행이란 말은 안 쓰고 ‘시집온다’고 말했다. 신부의 후행으로 큰아버지가 가마 뒤로 따라 왔으며, 그 날로 바로 되돌아갔다. 가마는 4인교(사륜교)를 타고 왔는데, 유방리 고향의 한씨네 젊은이들이 가마를 뺐다. 특별히 가마 멀미는 하지

않았다.

신랑의 집에 들어갈 때에 대문 앞에 바가지를 발로 밟아 깨고 들어갔다. 당시 시댁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것은 나쁜 액을 떠나보낸다는 뜻이다. 처음에 시부모에게 절을 한 다음에 다른 친척들에게 절을 했다. 당시 시조부모님은 안 계셨으며, 시댁의 친척은 많지 않았다. 가만히 앉아서 눈치만 보다가 나중에 상을 받았다.

시댁은 윗대에는 공주에서 살다가, 시조부 시기에 인근 구성으로 이사를 왔다. 그곳에서 남편 형제가 태어났으며, 이후 오리골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윗 오리골의 이발관이 있는 집에서 살았으며, 뒤에 남의 터에 집을 지었고, 산업도로가 생기면서 현재의 아래 집으로 내려왔다. 이영실 씨는 증조부와 조부께서는 전주 이씨 양반 집안이라 특별히 일을 하시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며, 이런 이유로 이씨네 집안에 시집온 여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을 한다.

(3) 혼인 이후 출산과 집안 살림

시댁은 자식이 귀한 집안이다. 시집을 왔더니 시부모님은 딸이 없이 아들만 둘이었다. 대체로 이 집안은 손이 귀한 집이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를 잘 대해 주셔서 힘든 일을 안 시켰으며, 따라서 시집살이를 특별히 하지는 않았다. 시어머니는 전주 최씨 집안이다. 특히 시부모님이 암전하시고 착하신 분이래 며느리를 잘 위해 주었다. 시댁에 간 지 삼일 켜 되는 날에 행주치마를 넣어 주어서 부엌으로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혼인 3년 쯤 후에 큰딸을 낳았으며, 올해 큰 딸은 70세가 되어 칠순 잔치를 했다.

출산을 한 후에 대문에 금줄을 쳤다. 시아버지께서 원새끼를 꼬아서 1주일 정도 걸어 놓았으며, 이후 이것을 걷어 밖에 나가서 태웠다. 출산 이후에 미역국을 먹은 기억이 있으며, 미역은 시아버지께서 사오셨다. 첫딸의 태몽은 특별히 꾸지 않았다.

출산은 전부 집에서 했으며 시어머니가 아이를 받아 주었다. 태줄은 소독한 가위로 잘랐다. 시어머니께서 삼신할머니에게 미역국과 청수를 올렸다. 시어머니가 웅크리고 앉아서 삼신할머니를 위하는 모습이 기억에 있다.

산모가 아들과 딸을 미리 예지하는 방법을 들은 적이 있다. 산모가 왼쪽을 돌아보면 아들이고, 뒤탈가 예쁘면 딸이란 말을 들었다. 그리고 배가 둥글면 아들이고, 엉덩이가 뒤편 돌아앉으면 한 해에 동생을 다시 본다고 한다. 또 애기를 무릎에 안기듯이 끌어안으면 제집에 동생을 둔다고 한다. 큰딸을 낳고 이어 큰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집안 살림은 시어머니께서 계속 맡으셨다. 시어머니는 장사를 하셨는데, 80세가 되기 전에 집안 살림을 며느리에게 물려주셨다. 당시 집안이 가난했어도 집에 쌀이 떨어진 적은 없었다. 한은순 씨가 시집을 올 때에 처음에 살았던 집은 시아버지가 직접 지은 오래된 집이었다. 시아버지는 일제시대에 집 짓는 일을 하러 다녔으며, 돈을 잘 벌어들였다.

(4) 남편의 군 생활, 짧은 전매국 근무, 이후의 노동

남편은 군대를 3번 다녀왔다. 큰아들 이영실 씨에 의하면, 부친은 일제시대에 징병에 끌려 갔는데, 일본의 어느 섬에 가서 해방 이후 일년 만에 가까스로 돌아왔다. 당시 용인 사람들과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끌려가서 배를 타고 일본에 갔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또 한 번 군대 비슷한 곳에 계셨으며, 나중에 정식으로 군대에 다시 갔다 왔다. 전쟁에 참전 했는지는 기억이 없다.

“일제시대에 징병 갔다가 일본 어디 섬으로 갔대요. 섬으로 갔다가 거의 1년만에 왔다고 그러던가. 살아서 온 것만도 다행이지요. 용인 사람들이 기차 타고 한꺼번에 갔대요. 그리고 아버님은 징병 갔다 오시면서 다시 정식 군대에 갔대요. 해방 이후에 어디에 다니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군대를, 어머니 얘기로는 세 번을 갔다 왔대요. 예전에 정식 군대 갔을 때 계급장옷 입고 흑백으로 사진 찍은 게 있었거든요. 다시 찾으니까 없더라고요. 전쟁 때 참전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요. 세 번째는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²¹⁵⁾

남편은 결혼 이후에 용인에 있는 전매국 감식과에서 약 5년쯤 근무했다. 골련으로 쓰는 연초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감식하는 것이다. 본인은 남편이 중학교를 나와 전매국에 취업하게 되었다고 하나, 큰아들 이영실 씨는 부친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마 경찰에 계셨던 작은 아버지의 인맥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닌가 여기고 있다. 작은 아버지는 용인 경찰서와 송진 지서 등에 근무하였다.

남편은 출장을 자주 다니고 대접을 받다보니 술을 많이 먹게 되었다. 출장은 주로 여주,

215) 이영실(남, 56) 구술

이천, 장호원 등지로 수시로 다녔으며, 당일로 다녀오기도 하지만 1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남들이 어려운 시기에 남편이 전매국에 다니던 젊은 시절에는 대체로 잘 사는 편이었다. 남편은 월급봉투로 술을 먹는 경우도 많았으며, 막걸리, 약주 등을 가리지 않았다. 집안의 시아버지도 술을 매우 좋아했다.

큰아들 이영실 씨에 의하면, 부친은 전매국에 5년도 채 다니지 못했다. 부친은 전매국에 다닐 때에 상사인 계장이 뇌물 받은 사건에 같이 연루되었다. 상사와 같이 뇌물을 받은 것이 발각되어 몇 달간 옥살이를 하시고 결국 전매국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전매국을 그만 두고 두 사람이 동업으로 트럭을 몰며 소금장수를 했다. 돈은 부친이 대고, 같이 장사를 했는데, 한동안 장사가 잘 되어 돈을 좀 벌었다. 그런데 동업자가 이틀간 노름방에 박혀서 노름으로 돈을 다 잃고 말았다. 그래서 부친은 트럭을 팔아서, 잃은 돈을 따기 위해 같이 몇 달간 노름을 하다가 돈을 전부 탕진했다.

이후 남편은 노동일을 하며 어렵게 생활했다. 큰아들 이영실 씨(남, 56)가 초등학교 시절이니 대략 1960년대 말 쯤이다. 당시 냇가 옆에서 블록 찍는 일을 하셨으며, 본인이 도시락을 써서 큰아들과 같이 남편이 일하는 곳에 간 적도 있다. 그 때는 집안 살림이 힘들었다.

한때 남편은 대한통운 창고에서 쌀을 나르는 일도 했다. 용인에서 정보성이라는 사람이 가장 부자였는데, 대한통운 창고가 있는 곳에서 방앗간을 했다. 그 큰 창고에는 쌀이 쌓여 있었으며, 이곳 쌀을 남편이 지고 날랐다. 지금의 오성프라자 옆 건물이다.

이영실 씨는 학창시절에 아버지께서 겨울 뒤집어쓰고 쌀가마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과 함께 가다가 아버지가 창피해서 피한 적도 있다. 왜 그때 철없이 행동했을까 나중에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속이 상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 기억이 나거든요. 그 개울에 가서 아버님이 브로크 찍으시더라고. 어머니 따라 도시락 가져가서, 같이 먹고 하면 아버지께서 물 주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굉장히 힘들게 사셨지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힘들게 일하신게, 용인에 제일 부자였던 정보성 씨라고, 용인 기차역에서 대한통운 차 갖고 있으면서, 방앗간하면서, 그것이 그냥 방앗간이 아니고 대한통운에 쌀을 갖다 쌓던 엄청 큰 창고가 있어요. 거기서 아버님이 쌀을 지고 날르는 거예요. 하루에 수백개 쌀가마 지고 나른 거예요. 지금도 오성 프라자 옆에 그 창고가 다 남아 있지만 아직도 있어요. 엄청 그 높는데 지고 올라가시는 거 보면, 고등학교 때 제가 지

금은 많이 후회되지만, 친구 아버지는 넥타이 매고 그러시는데, 제 아버지는 노동일을 하시니까 땀피해서, 길에서 친구들과 같이 가다가, 저기서 아버지가 오면은, 뭐 쌀 짚어 지고 오니 엄청나지요. 겨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멀리서 봐두 금방 알지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말도 안 하고, '아, 나 저기 잠깐 갖다올게,' 그러면서 피해 있다가 다시 오고 그랬지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 자식들이 크고 보니까, 속상하지요. 너무 몰랐던 게.”²¹⁶⁾

남편은 술을 거의 매일 마셨다.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술을 먹은 것 같다. 이영실 씨에 의하면, 부친은 의리가 있고 싸움도 잘 했다. 당시 오리골 동네는 용인의 유일한 달동네이기 때문에 매일 술주정하고 싸우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다음 날이면 다시 웃으며 만나서 화해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한은순 씨는 남편이 무척 성실한 사람이라고 기억한다. 남편의 월급으로 아이들을 다 키워서 크게 고생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한다. 따라서 특별히 농사를 짓거나 베를 짠 적은 없다.

남편은 아들만 있는 집안의 장남이다. 이영실 씨는 경찰이었던 작은 아버지가 6·25전쟁 때에 총상을 입고 치료하느라 고생하다가, 전쟁 10여 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작은 아버지에 대한 말만 들었지 본 적이 없다.

(5) 전쟁의 고초와 집안의 우여곡절

전쟁 중에는 두 번 피난을 갔는데, 모두 가까운 곳으로 갔다. 처음에는 인근 양지면으로, 두 번째는 명지대 쪽 동진리로 갔다.

이영실 씨에 의하면, 전쟁이 나자 어머니와 할머니는 첫 번째로 인근 용인의 양지면 대대리 한터마울로 피난을 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린 둘째 누나가 미군 폭격에 한쪽 다리가 절단되어 고생하다가 얼마 후에 죽고 말았다. 이런 연유로 처음 피난은 고생도 많이 했고,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두 번째 1·4후퇴 때에는 인근 명지대 쪽의 동진리로 피난을 갔다. 당시 아기가 2살 때였는데, 어린 아기를 업고 멀리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피난을 갔다. 동진리로

216) 이영실(남. 56) 구술

피난을 갔을 때에는 집주인이 잘 해 주어 별 고생을 하지 않았다. 경찰이었던 둘째 작은아버지께서 오셔서 부탁한 덕분인지 편안하게 지냈다.

“아버지 안 계신 상태로 피난을 가는데, 첫 번째 피난은 대대리 한터마울로 갔어요. 두 번째는 동진리로 갔대요. 동네가 포격이 떨어지니까 집을 버리고 산 넘어 가까운 데로 피난을 간 거지요. 아기가 있으니까 멀리도 못 갔지요.

한터로 갔을 때에는 두번째 난 애가 다리에 폭격을 맞아서 다리 하나가 절단되어서 얼마 만에 죽었대요. 일사후퇴 때는 동진리로 갔는데, 동진리 간 집 주인이 상당히 잘 해 주어 편안하게 있었다고 그래요. 작은 아버지가 한번 와서 잘해 주라고 해서, 당시 경찰이면 꽤 힘이 있었으니까, 미역국도 먹으면서 잘 지냈다고 하더라고요.”²¹⁷⁾

전쟁 당시 중공군이 밀려 내려올 때에 시장에서 인민재판이 이루어졌다. 당시 머슴을 살던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죽창을 들고 다니며 경찰 가족을 밀고했다. 당시 어머니가 경찰이었던 작은 아버지의 형수로서, 경찰가족이라 해서 끌려가 죽을 뻔했다. 당시 이영실 씨의 할머니께서 그들 밑에 가서 밥을 해 주고 사정을 해서 겨우 살아났다고 한다. 할머니는 그때 고생을 크게 하셔서, 당시 밀고를 한 집안에 대해 평생 미움을 갖고 계셨다.

이영실 씨의 큰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8살 초등학교 들어가던 시기에 감기에 걸렸다가, 이것이 폐렴이 되어 집에서 죽고 말았다. 병원에 못 가니까 그냥 앓다가 죽었다고 한다. 바로 위에 형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에 함께 연날리기를 한 기억이 있다.

남편은 전매국에서 나온 이후에 노동을 했다. 버는 돈이 시원치 않자 한은순 씨도 돈벌이에 나섰다.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물건을 팔러 다녔다. 주로 운암리, 한터마울, 유방리 등의 인근 시골 마을로 다니며 팔았다. 생활용품을 주로 팔았으며, 새우젓도 판 적이 있다. 당시 힘이 들어서 친정인 유방리 동네에 가서 울기도 했다. 그러면 외할아버지께서 짐을 지게에 지고 오리골까지 데려다 주셨다. 이영실 씨는 모친의 보따리 장사는 누님들이 어린 시절로, 대략 10여 년 간 장사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가댁에도 저희 어머니 시집보내고 엄청 후회했대요. 아버지가 노동일을 하고 그러시니까, 어머니가 좀 더 버실려고, 물건을 머리에 이고 팔러 다니셨어요. 파는 물건은 잘

217) 이영실(남. 56) 구술



한은순 씨가 45년간 살고 있는 집과 골목길

모르지만, 머리에 이고 새우젓도 파시고, 생활용품 그런 거 파시고 그러셨던 거예요.

운암리, 한터, 유방리, 그런데 다니셨는데, 그때 완전히 시골길이지요. 먼지 풀풀 나고 진흙탕인 길이지요. 힘드니까 친정 동네는 자주 갔던가봐요. 올라가셨으니까, 많이 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유방리 친정집에 가서 울고 그러면, 외할아버지가 지게에다 저다 주고 그러셨대요. 그것이 제 어렸을 때가 아니고, 누나들 어렸을 때에 그랬으니까 오래 되었지요. 아마 그런 장사는 10년도 안 했을 거예요. 그

이후로 집에 조그만 구멍가게를 내게 되면서 보따리 장사는 그만두시게 되었어요.”²¹⁸⁾

원래 오리골 위쪽 동네에 살다가 산업도로가 나는 바람에 현재 사는 집으로 이사 왔다. 이 집은 처음에 방 둘에, 부엌 하나인 ㅁ자 집이었다. 그런데 어려운 시절에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 옆에 방을 새로 들여 전세를 주었다. 그래서 집의 형태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나무로 불을 때는 아궁이였는데, 이후에 연탄아궁이로 고쳤다가 다시 보일러로 바꾸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시기는 이영실 씨가 초등학교 때인 대략 10살 정도로 45년 정도 살고 있다. 어릴 적에 돌봉치 산을 배경으로 여동생과 셋이 찍은 사진은 원래 살았던 윗동네의 집을 배경으로 찍은 것이다.

맨 처음에 이사 올 때에는 초가집이었으며, 나중에 함석집으로 바꾸었다. 당시는 산에서 나무를 해서 땔감으로 사용하던 시기였으나, 나중에 연탄으로 바뀌면서 연탄가스에 의해 함석지붕이 점차 삭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슬레이트를 입혔다. 현재 사는 집을 지은 시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아마 전쟁 이전에 지은 집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집으로 이사 오고 나서 약 1년쯤 후에 집의 골목 쪽에다 구멍가게를 냈다. 이영실 씨가 기억하기에 초등학교 4~5학년 시절이었다. 이곳은 시장의 물건을 떼다가 파는 작은 구멍가게였는데, 대개 비누, 과자, 술, 담배 등을 팔았으며, 가게에서 아이들을 상대



집 옆 동네 골목을 내려가는 한은순 씨

로 뽑기도 했던 기억이 있다. 그 당시 여름철 하드가 나와 처음 팔았으며, 이후에 아이스끼기가 나왔다. 모친이 주로 가게를 봤으며, 이전의 보따리 장사하던 시기보다 덜 힘들게 되었다. 한편 큰길 난쪽에 남의 땅을 빌려 밭농사를 지은 적도 있다. 주로 무, 배추, 감자, 콩 등을 심어 먹었다.

이영실 씨는 모친이 매우 엄격하고, 무서운 분으로 기억한다. 중학교 졸업 이후에 고등학교에 다니기 싫다고 공장에 다니자, 직접 어머니께서 공장에 쫓아가서 아들을 붙잡아다 다시 학교로 데려갔다.

자식이 잘못하면 몽둥이로 때릴 정도로 자식 사랑이 크신 분이다. 그리고 절약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돈도 움켜쥐고 함부로 쓰지 않는 성격이었다.

이에 비해 부친은 자식에게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매를 대지도 않은 분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 앞에서는 힘든 티를 내지 않았다. 다만 모친에게만은 가끔 큰소리를 내기도 했다. 대체로 호탕한 편이고 웃음이 많았으며, 때에 따라 다소 허세도 부렸다. 돈이 없으면서도 남에게 돈 빌리러 오라고 큰소리치기도 했다.

예전에는 물동으로 우물의 물을 길어다 먹었다. 우물은 고개 넘어 별학 쪽에 있는 우물의 맛이 좋았다. 집 아래의 상나무 있는 곳에 바가지로 푸는 우물이 있었는데, 이곳 물도 좋았다. 시동생이나 남편이 물 뜨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으며, 양쪽에 통이 있는 물지게를 사용하기도 했다. 시어머니께서 일을 잘 시키지 않아 물동이 이는 일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

이영실 씨는 부친(1924년생)의 환갑잔치를 1984년에 집에서 해 드렸다. 예전에 오리골은 대개 집에서 잔치를 했다. 큰누나도 집에서 구식혼례를 치렀다.

부친은 중풍과 고혈압으로 1~2년간 고생하시다 1988년 10월에 세상을 떠나셨다. 부친이 세상 떠나기 전에 중풍에 걸려 고생하셨는데, 결혼 직후라 집사람이 중풍에 걸린 시아버지 병간호하면서 너무 힘들어 울기도 했다. 당시 큰손자가 3살 때에 돌아가셨다. 집에서 3일장을 치렀으며, 부친은 조부모의 산소 인근에 같이 모셨다.

218) 이영실(남, 56) 구술

(6) 가난한 오리골 산동네와 어려운 시절



예전 오리골 아랫동네 우물터

오리골은 예전에 어려운 사람들이 살던 동네인데, 그래도 아랫동네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공무원, 약국(제일약국) 운영하는 분, 토지 소유주 등도 있어서 비교적 잘 사는 편이었다. 그런데 윗동네는 거의 달동네로, 목수, 방앗간 일 등이 비교적 나은 편이고 대부분 막 노동을 하며 사는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 살았다. 먹고사는 것이 힘들어 술을 먹고 싸움이 잦았다. 싸움이 나면 오리골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거칠게 살았으나, 싸운 다음 날에 다시 화해하며 지냈다. 예전에는 한때 오리골에 산다는 것이

창피하게 생각된 적이 있으나, 어려운 시절을 딛고 지금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사는 게 힘드니까 술을 거의 매일 먹는 거예요. 저희 동네가 원래 술 먹고 막 싸우고 그런 동네예요. 용인에서 유일한 달동네이기 때문에. 술 먹고 싸우고, 큰 소리가 많이 나지요. 술 먹다가 싸우고 그 다음날 웃으면서 화해하고, 항상 스트레스 받으며 사니까, 조금만 싫은 소리 나오면 서로 싸움하고, 의리는 있었어도 싸움은 잘 했지요.”²¹⁹⁾

한은순 씨가 사는 집을 기준으로 대략 위쪽은 오리골 윗동네인데, 이영실 씨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1960년 중후반에는 아래, 윗동네 아이들이 서로 같이 놀지도 않았다.

당시 큰 별학에 가려면 험한 고개를 넘어야 된다. 이영실 씨에 의하면, 냄비와 각종 생활용품을 리어카에 싣고 장사하는 분이 고갯길이 험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할 정도였다. 그는 어릴 적에 뒤에서 리어카를 밀어준 적도 있다. 그 분은 “왔어요, 왔어요” 큰소리를 지르며 오리골에서 물건을 팔러 다녔다. 지금은 많이 깎여서 언덕이 거의 평지처럼 느껴진다. 산업도로로는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10년 가까이 단계적으로 길을 넓혔다.

당시 오리골 사람들이 용인극장의 입구에서 기도를 보거나, 시외버스 대합실에서 조수

219) 이영실(남, 56) 구술

를 하기도 하고, 구두를 닦는 일도 했다. 따라서 그쪽 지역에서 싸움을 해도 이들이 나서서 오리골 사람들을 적극 옹호해주었다. 어린 시절에 그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리고 터미널 인근에 오래된 옛날식 다방으로 은하다방이 있었다. 이곳은 예전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래된 다방이다.

오리골 사람들은 인근 제재소에서 톱밥을 얻어다 뿔감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국일관을 운영하고 용인 초대 의원 최○철 씨가 우체국 바로 뒤에서 제재소를 운영했다. 박만호 씨(남, 54)의 부친이 지엠시 트럭으로 강원도에 가서 목재를 실어 나르는 일을 했다. 당시 강원도에서 아름답리 통나무를 실어왔는데, 제재소에서 잘라서 합판을 만들었으며, 이때 톱밥이 생기게 된다.

한편 오리골에는 전매소가 있어 옆에 전매 창고 큰 것이 2개 있었다. 여기에서 모든 담배를 수매했다. 1970~1980년대에 와서 담배는 점차 없어지고, 인삼 조합만 남게 되었다. 이 지역과 모현, 원삼 등지에 인삼 밭이 많았다. 오리골의 70~80대 사람들은 인삼 일하는 데에 와서 일을 많이 했다. 일하다가 몰래 인삼을 조금 훔쳐온 적도 있는데, 집이 가난하니까 이것을 모아서 팔아 용돈으로 쓰기도 했다. 당시는 이런 일을 알고도 눈감아 준 것 같다.

이영실 씨도 군대에 갔다와서 1985~1986년쯤에 인삼 나르는 일을 했다. 당시 여자들은 인삼을 고르는 일을, 남자들은 8톤 트럭에 인삼을 싣거나 내리는 일을 주로 했다. 인삼 관련 일은 1970년대 말부터 1990년 초까지 이어졌다. 여기는 수원, 이천, 여주, 용인 쪽의 인삼을 관할했으며, 당시 오산, 평택, 안성은 평야가 많아서 인삼밭이 거의 없었다.

오리골에서 결혼식과 환갑잔치는 대개 집의 마당에서 했다. 잔치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와서 국수와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다. 이영실 씨는 어머니가 남의 잔치에 가서 부침개를 부치면 옆에 얼씬거리며 얻어먹은 적도 있다. 그는 부친의 환갑 잔치도 집에서 해드렸다.

(7) 계절별 오리골의 생활

예전 한은순 씨의 집에서는 명절같이 떡을 많이 할 경우엔 남자들이 떡메를 쳐서 했고, 조금 할 경우에는 절구통에 찧어 만들었다.



아직도 남아 있는 오리골 동네 옛 골목

명절 때에 시어머니와 함께 다식은 콩, 깨, 쌀다식을, 산자는 조청과 쌀가루로 만들었으며, 녹두전, 소고기전, 두부전, 찐 조기, 각종 무, 숙주, 고사리나물 등을 함께 준비했다.

정초에 놀이로는 친정인 방축골에서 그네를 뛴 기억이 있지만, 시집을 와서는 널뛰기를 하지 않았다.

음력 3월에 손 없는 좋은 날을 잡아 장을 담갔다. 간장 안에 숯, 고추, 대추 등을 넣으며, 시아버지가 끈 원새끼에 숯과 고추를 3개씩 끼워 간장이 부정 타지 않게 금줄도 둘렀다. 간장 항아리에 탈이 생기지 말라고 창호지로 버선을 만들어 붙인 기억도 있다. 간장은 소금의 양에 따라 간을 달리했다. 그리고 된장, 고추장도 이 시기에 같이 담갔다.

봄철에는 시어머니께서 각종 냉이, 씩, 씬바귀나물을 캐서 음식을 해 먹었으나 본인은 시어머니의 만류로 나물 캐러 잘 다니지 않았다.

음력 9월에는 1~2말 정도의 메주를 쑼어 네모난 덩어리로 만들어 가을철에 밖에서, 겨울에는 방 안에서 띄웠다. 이때 남편이 나무로 메주 찌는 태를 만들어 주어 사용했다.

김장은 음력 10월에 담그는데, 식구가 많지 않아서 대략 30~40포기 정도를 담갔다. 젓갈은 새우젓, 육젓을 사용했으며, 배추김치, 깍두기, 막짬지, 시레기짬지, 무달랭이(총각김치), 동치미 등을 담갔다. 김장독을 3~5개 정도 묻었는데 남편이 도와주었다. 고사떡을 할 때에는 집안 곳곳에 떡점시를 갖다 놓아 집안의 신들을 위했다. 특히 10월 상달에는 시루째 떼다 장광의 터주가리 있는 데 갖다 놓고, 이어 떡을 찢어서 접시에 나누어 성주님 계신 마루, 조왕님 계신 부엌, 대문간의 상에는 물 한 그릇과 떡 한 그릇을 갖다 놓았다. 겨울에는 쑥과 뽕쌀로 개떡을 만들어 아이들이나 식구들에게 군것질로 해 주었다. 동지 때에는 팔죽 안에 옹심이를 넣어 끓여서 먹었다. 이때 고사 때처럼 집안 곳곳에 팔죽 한 그릇을 떠다 놓았다.

예전에 두부도 집에서 만들어 먹었다. 콩을 담갔다 갈아서 만드는데, 간수의 양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콩을 담갔다가 이것을 시루에 넣어 콩나물을 직접 길러서 먹기도 했다.

한은순 씨는 젊은 시절에 땀감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 오리골은 땀감을 명지대 쪽 동진네 마을에 가서 했는데, 그녀도 자주 그곳에 가서 나무를 했다. 이웃집 나뭇단 쌓은 것이 샘이 나서 시어머니의 야단을 맞으면서 몰래 산에 나무하러 갔다. 그래서 뒤꼍에 나무 쌓는 재미로 하루에 2번, 3번 간 적도 있다.

그리고 오리골에 시집을 와서 산에 밤 따러 가고, 칩도 켜다. 그리고 명지대 쪽의 동진리, 현충비가 있는 앞산에 가서 나무도 해 왔다. 큰아들 이영실 씨는 중학교 1~2학년 시

절에 모친을 따라 나무를 하러 산에 같이 갔다.

오리골의 윗동네에서 아랫동네로 이사를 온 다음에 돼지, 토끼, 닭 등을 길렀다. 돼지는 현재 집의 화장실 옆에서 길렀으며, 돼지는 윗동네에서도 길렀다. 고등학교 다닐 무렵까지 1~2마리를 키웠다. 음식점에서 구정물을 얻어다 겨를 섞어서 돼지를 키웠다. 그래서 사료값이 들지는 않았다.

“저희도 중학교 1~2학년까지 어머니 따라서 나무하러 다녔어요. 예전에는 위쪽 오리골 동네 살 적에, 산업도로 나기 전에 살 때에는, 조그만 집에서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대개 1~2마리 정도 키웠어요. 돼지우리는 화장실 옆에 있고, 토끼는 집 식구 잡아먹으려고 키우고, 닭은 계란을 얻을려고 키웠어요. 돼지는 이 집 아래에 이사 와서도 키웠어요. 아버지가 키우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까지 키웠을 거예요. 옛날에 돼지 키우는데 사료가 안 들어가잖아요? 구정물이나 겨 조금 섞어서 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음식점 하는 곳에서 얻어다 먹이면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한 두마리 정도 키웠지요. 계속 팔았고요. 마지막 돼지는 아버님 회갑 때 잡았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지금 저희 사는 집에서 회갑잔치를 했거든요. 희한하게 사진 같은 게 없더라고요. 아버님이 1988년도 10월에 돌아가셨으니까. 환갑잔치 하시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십몇년 되었으니까 어머니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시지요.”²²⁰⁾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이것을 팔고 다시 새끼 돼지를 길렀다. 돼지는 부친 회갑 때까지 마지막으로 길렀으며, 이것은 살림 밑천이었던 것 같다. 토끼도 길러서 가족들이 잡아 먹었으며, 닭은 길러서 달걀을 얻었다.

(8) 큰아들 이영실 씨의 환경운동

큰아들 이영실 씨는 1985년에 결혼을 했으며, 1986년, 1988년에 자식을 낳았다. 결혼 직후 서울 가락시장에 일자리를 얻어 분가를 해서 성남 은행동에서 두 달간 생활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부친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성남 생활을 접고 다시 용인으로 돌아왔

220) 이영실(남, 56) 구술



개인택시를 하면서 환경운동을 하는 큰아들 이영실 씨

다. 현재 운전을 15년째 하고 있으며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그는 1995년부터 거의 20년을 지역 환경운동에 열중하고 있다. 환경이나 자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꽃을 매우 좋아하는 큰누나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오리골 사람들은 매우 거칠고 짓궂은 편이었다. 호박에 말뚝을 박고, 도둑질하는 아이도 있었으며, 사람들에게 해코지[害]를 하기도 했다. 오리골 아이들과 같이 다니면서 나쁜 짓에 휩쓸리지 않은 것은 모친의 엄격함과 꽃을 좋아하는 큰누나의 영향이 컸다.

최열 선생이 이끈 환경운동연합에 초기부터 참여했다. 1993년 중앙에 환경운동연합이 생기고 다음 해에 용인에 지부가 생겼다. 그리고 다음 해에 이 단체에 가입했다. 단체가 하는 일은 주로 환경 감시를 위주로 했다. 용인에 있는 회사나 공장 등의 폐수 문제, 시골의 쓰레기 등을 감시하는 일이었다. 주로 공장을 대상으로 폐수 감시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골프장 반대운동에도 앞장섰다. 직접 문제 제기를 하면 해당 업체는 비록 뒤에서 욕을 하더라도 그들은 환경 단체 앞에서는 일단 받아들인다. 잘못을 인정하고 각서를 쓰게 하지만, 같은 용인 사람으로서 마음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리고 댐, 변전소 건설 반대 운동에도 참여했다. 이런 식으로 환경 감시활동을 5~6년간 계속했다.

그러다가 같이 환경운동을 하던 양춘모 씨의 권유로 용인의 제21의 자연생태분과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용인의제는 세계 121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환경단체²²¹⁾이다. 양춘모 씨는 환경운동연합 용인지부 초기부터 참여하면서 직접 시청에 들어가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으며, 최근 세월호 문제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그러나 환경 감시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용인의제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양춘모 씨와 함께 용인 석성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이름표를 붙이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서 용인의제 21에서 도록을 만들었다. 용인의제에서는 주로 교육에 힘쓴다. 환경활동가를 육성하고, 숲이나 생태 해설사 등을 키우

221) 의제21은 1992년 6월 리우지구정상회의를 통해 채택된 21세기 범지구적인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이다. 이것은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통해 모든 국가와 집단들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천행동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지침서이다. 사회경제부문, 자원의 보전과 관리부문, 주요 집단들의 역할 강화 부문, 실천 수단 등 4부문으로 나누어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기도 한다. 최근에는 환경운동연합에도 참여하지만 용인의제 자연생태분과 활동이 더 좋아 주로 이곳에서 활동을 한다. 용인의 자연학교가 근래에 여러 개 생겼는데, 길 토래비 어린이 자연학교가 그 중의 하나이다.

분과는 자연생태, 산업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농축산, 도시환경 분과 등의 6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교육문화 분과에서는 어린이교육도 실시한다. 이영실 씨는 현재 자연생태 분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근래 양춘모 씨와 함께 나무 이야기, 풀꽃 이야기, 들꽃 이야기, 곤충 이야기, 새 이야기, 경인천 이야기, 습지 이야기, 거미 이야기 등의 도감을 만들었다. 주로 용인 팔당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올해 지원이 중단되어 이 시리즈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경비뿐만 아니라 간사와 사무요원의 급료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어 일부에서는 관변단체라는 손가락질을 하기도 한다.

자연생계 분과의 회의는 1주일에 한 번 야외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다. 정양화(전 용인 향토문화연구소장, 현 용인학연구소 고문) 전 소장도 용인의제 21의 위촉위원으로 활동하며, 김강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

(9) 자식 근황, 최근 건강과 생활

한은순 씨는 슬하에 2남 4녀를 두었는데, 큰 아들은 영실, 작은 아들은 영호이며, 딸은 정숙, 정옥, 영자, 영숙이다. 큰딸과 둘째 딸이 인천에 살고 있으며, 셋째 딸은 용인시장에서 식품 가게를, 막내딸은 미용실을 한다. 가끔 인천의 딸들이 와서 데려가면 이틀 정도 다녀오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은 건강이 좋지 않아 잘 가지 않는다.

늦게 아들 둘을 두었다. 큰아들 위로 원래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어릴 적에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큰딸은 19살에 낳았으며, 막내는 40살이 넘어 출산했다. 얼마 전에 용인의 셋째 딸 집 마당에서 큰딸의 칠순 잔치를 했다. 가족 간에 우애가 있고 화목하다. 한은순은 같이 살고 있는 만며느리가 잘 대해주어 큰 걱정 없이 살고 있다고 말한다.

큰아들은 개인택시 운전을 하면서 사고 한 번 낸 적이 없고, 매우 얌전하고 효자라고 칭찬을 한다. 현재 본인, 아들 부부, 손자 둘, 작은 아들 이렇게 6식구가 예전 집에 살고 있다. 작은 아들은 천막과 쉼 등을 파는데, 40살이 넘어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노인회의 야유회에는 가지 않는다. 예전에는 더러 갔지만 근래에는 힘들어 참가하지 않는다. 특별히 종교는 없는데, 예전에 성당에 조금 다녔으나 지금은 다



동네 골목에 앉아서 무료함을 달래는 한은순 씨

니지 않는다.

현재 무릎과 허리가 좋지 않지만, 몸은 대체로 건강한 편이고 식사도 잘 하는 편이다. 이영실 씨는 모친이 4~5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심한 건망증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래도 당시에는 평상시처럼 활동하고, 마을 경로당에도 가서 노인들과 같이 화투도 치며 놀이를 했다. 식구들은 모두 고스톱을 치지 못하는데, 모친은 경로당에 가서 고스톱을 배워서 노인들과 화투를 치며 같이 어울렸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정도가 더하더니, 2년 전부터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금방 한 일에 대해 기억을 잘 못 해서, 밥을 태우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자식들이 가스불을 만지지 못하도록 했다. 전기밥솥이 아닌 일반 압력

밥솥을 쓰기 때문에 밥을 태우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병원 진찰도 받고 약도 드시지만 점차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요즘 조금 좋아져 한 달 전부터는 다시 별 문제없이 가스레인지 사용하기도 한다.

요즘은 경로당에도 가지 않는다. 경로당 노인들이 나이가 훨씬 아래이고, 심지어 딸들 나이 격인 경우도 있다. 본인 말로는 귀찮아서 안 간다고 하지만, 나이 많은 늙은이가 왔다고 눈치가 보이고, 치매 증상도 있어 대화가 잘 되지 않아 가지 않는 것 같다.

근래 집에서 혼자 화투로 ‘재수따기’를 하다가 심심하면 집을 나와 100여 미터의 삼거리 길에서 우두커니 앉아서 2~3시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무료함을 달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현재 꺼져가는 지난 삶의 기억들을 힘들게 되살리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하고 있다.

8-2 생존을 위해 강인하게 싸워온 김재식 씨의 삶

(1) 집안 내력과 만아들로서 힘든 시절

조부는 이천의 호법면에서 사시다가 아들을 데리고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로 옮겼다. 사암리에는 지금도 큰아버지께서 살고 있으며, 큰아버지의 집과는 약 300m 거리의 가까운 곳에 있었다. 큰아버지는 예전에 사랑채가 있는 큰 한옥에서 살 정도로 부유했는데, 노름에 빠져서 많은 땅을 다 팔 정도로 재산을 탕진했다. 그러나 아직도 큰아버지는 잘 사는 편이다.

오리골에는 5살 때에 들어왔다. 당시 태성중·고등학교 앞의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2년 정도 살다가 김량장리 87번지 오리골로 이주했다. 대략 전쟁 이전의 1948년 경이다. 그래서 오리골에는 66년 살았다.

김재식 씨는 어머니께서 낳고 나서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않았다. 당시 어린 나이에 죽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아이가 죽을까봐 1년 있다가 출생 신고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1941년 출생인데, 호적에는 1942년생으로 되어 있다.

어머니께서 막내 여동생을 출산할 때에 큰아들로서 옆에서 간호해 드렸다. 어머니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딸이 없었기 때문에 옆에서 출산을 도왔다. 당시 중학교 다닐 때인데, 아기 나올 때에 힘을 주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드렸다. 그리고 출산 직후에 나가서 물을 데워 오고, 부엌에 가서 미역국을 끓여 드리기도 했다. 당시 부친은 장사하느라 바빴으며, 조부모님도 멀리 떨어져 있어 도와줄 수가 없었다.

“어렸을 때, 정확히 날짜를 모르는데, 어머니가 막내를 낳았을 때, 제가 간호를 했어요. 제가 그때 중학교 다닐 때일 거예요. ‘엄마 힘줘, 힘 꼭 줘.’ 피가 쪽 흐르잖아요. 애기가 나왔어요. 그래 나가서 뜨거운 물을 가져오고, 부엌에 가서 미역을 끓여다가 드렸어요. 제가 만이니까. 딸이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버님 장사 하느라 배달 나갔죠. 친척들은 다들 멀리 있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건강을 되찾은 최근의 김재식 씨



김재식 씨가 그린 오리골 아래 뒷동네

그때 처음 여동생을 보았으며, 무척 잘 돌봐주었는데, 안타깝게도 5살 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하루는 시장을 가는데, 어린 여동생이 “오빠” 하고 부르며 한길을 건너 쫓아오다가, 해동양조장 부근에서 군인 스리쿼터에 치이고 말았다. 급히 대동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병원장이 3시간이 지나면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2시간 57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애가 여동생이에요. 이 아이가 몇 살 때 죽었냐면, 5살 때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냐면 해동양조장 바로 그 대로 변에서 그러니까 군인 스리쿼터 차에 치었어요. 내가 시장에 있는 아버님 가게로 가는데, 애가 나를 무척 쫓아다녀요. 나를 보고 막 쫓아온 거예요. 한길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서 차에 친 거예요. 사람들이 업고 병원으로 갔는데, 대동병원이에요. 병원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애가 3시간이 지나면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시간 57분인가, 58분인가에 숨이 딱 멎더라고. 3시간을 못 넘겼어요. 개가 딸이에요. 막내딸. 그래서 만이는 옛날에 염병에 죽었고, 막내는 차 사고로 죽었고, 제 2년 위로 누나가 있었대요. 그 당시는 전염병이라는 염병을 앓다가 죽었어요. 나도 죽을까봐 낱고 나서 출생신고를 안 한 거예요. 일년 있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42년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41년생인데.”

중학교 1학년 때에 학교에 다녀오면 어머니께서 여동생을 업어주라고 해서, 등에 업고서 땡고(다마)치기를 한 기억이 있다. 놀다가 보면 그 동생이 오줌을 싸서 등이 뜨끈했는데, 나중에 두어시간 놀다보면 오줌이 다 마를 정도로 놀이에 열중했다. 이미 그보다 2살 위의 누나가 있었는데, 전염병으로 어린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 녀석이 죽기 전에, 학교만 갔다 오면, 어머니께서 ‘애, 업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애를 봐줘라 이거죠. 학교 갔다 업고서 나가는데, 그런데 그 당시는 땡고치기를 엄청 많이 했걸랑요. 그 당시에 중학교 일학년 때인 것 같아요. 땡고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놈

을 업고 밖에 나와 양 손에 다마를 쥐고 다마치기를 했는데, 한참 하다보면 허리가 뜨끈 뜨끈 해요. 애가 오줌을 싸가지고, 그래도 더 노는 거예요. 집에도 안 가고, 노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한 두어 시간 지나면 말라버려요, 오줌 싼 게. 집에 가서 내려놓고, 하, 그렇게 했는데, 허 참, 잘 따랐는데—. 참 그때는 놀기를 좋아했죠. 애 업고서 다마를 다 땀으니까. 옛날에 땡고치기라고 했어요. 다마라고도 하고 땡고라고도 해요. 한 보따리씩 따서 양쪽 주머니에 넣을 데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2) 오리골 배경 사진과 옛 기억

일제시대에 있었던 신공(신사)에는 기둥이 네 개이고, 위에 지붕이 있었다. 신공에는 1계단이 20개 정도로 전부 4계단이 있었다. 거의 100계단에 가까울 정도로 꽤 계단이 많고 높았다. 현재 교회 십자가 높이 정도에 신공이 위치해 있었다. 태성중·고등학교 다니는 길 옆에 신공이 위치해 있었다. 대략 고등학교 1학년 시기까지 있었다.

아래 사진은 신공 끝에서 촬영한 것으로 뒤쪽으로 신공이 있다. 사진의 산 밑에 좌우로 긴 하얀 건물은 용인초등학교이다. 그리고 중앙의 좌측편은 면사무소이고, 중앙의 흰 건물은 공회당이다. 공회당은 일종의 마을회관으로 용인면민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곳이다. 당시 용인면은 지금의 처인구에 해당되는데, 김량장동, 유림동, 역북동, 동부동이 이에 해당된다. 공회당 건물은 나중에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으로 바뀌었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전쟁이 났다. 공회당 뒤의 좌우로 긴 흰 건물은 해동양조장이며, 그는 그곳에서 30년간 근무했다. 지금은 용인시네마 앞의 국민은행 건물 자리이다. 면사무소와 공회당은 용인시네마 건물로 바뀌었다. 1957년 당시에 기와집은 5~6채 정도였으며, 거의 초가집과 함석집이었다.

용인학교 뒷산을 뽕죽산이라고 했다. 학교 우측에는 은덕골이라고 해서 오리골과 유사한 판자촌이 있었다. 그 산에는 수정같은 돌이 많이 났다. 예전에 사진이 많았는데, 몸이 좋지 않자 사진을 상당수 버렸다. 그의 부인이 보관한 사진 몇 점만 남아 있다.



1957년경 옛 신사를 뒤로 하고 시내를 보고 계단에 선 김재식 씨

오리골주민들은 처음에 적산가옥인 함석집에서 주로 살았다. 옆에 큰 창고가 있었으며, 그 옆에 경찰서가 있었다. 창고에는 일본인으로부터 압류해 놓은 가구와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순경이 보초를 섰다. 당시 함석집은 적산가옥을 싸게 경매로 산 것으로 기억한다. 경찰서가 가까워서 큰 소리를 지르면 들릴 정도였다. 순경 아저씨가 ‘재식아, 정구치자.’라고 소리로 부를 정도였다. 당시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같이 경찰서 안의 정구코트에서 정구를 친 기억이 있다.

오리골의 아랫동네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으며, 각자 우물이 있었다. 그런데 윗동네는 거의 판자촌이었으며, 우물 하나를 공동으로 사용했으며, 지대가 높아 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예전에 어렵게 살 적에 하도 콩죽과 콩국수를 많이 먹어서 지금도 어려운 시절의 서러움이 생각나서 이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다.

(3) 부모의 장사와 3대 천주교 집안



1972년 김재식 모친 사망 이후 집에서의 장례식

김재식 씨의 부친은 목수이었다. 부친은 전쟁 이후에 자전거를 구입해서 쌀장사를 했다. 시장가에 가게를 열어 사장의 요구에 의해 주로 양조장에 쌀을 대주었다.

1965년경에 원래 살던 함석집을 헐고 부친이 그곳에 새로 한옥집을 직접 지으셨다. 모친은 해동양조장 옆의 작은 모퉁이에서 장사를 하셨다. 일종의 구멍가게였는데, 그곳에서 1972년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돌아가셨다. 김재식 씨가 양조장에 입사한 지 5년 만에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위의 사진은 모친의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다.

사진 안쪽의 양복 입으신 분은 부친이시고, 그 옆의 첫째 상주가 김재식 씨, 이어 셋째, 넷째, 다섯째 동생이 나란히 섰다. 당시 둘째 동생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 사진에는 없다. 1965년쯤 부친이 새로 지은 집에서 모친의 장례식을 치렀다.

집안은 조부 시절부터 천주교 신자였다. 할아버지께서 천주교 박해를 받아 도망을 나오셨다. ‘점동네’라고 향아리 만드는 동네에서 숨어 지내셨다. 천주교 성당은 현재에도 그곳

에 위치하고 있다. 1970년 성당을 지으려 산 밑의 밭을 밀었으며, 뒤쪽은 용인 시내의 모습이다. 별학의 산 밑에 집이 몇 가구 있었다. 문예회관 옆 금촌집 중심으로 쪽 내려오다가 우물 한참 올라가면 별학이 나온다. 당시 오리골에서는 꽤 먼 거리였다.

집사람의 집안은 이북이다. 장인께서 용인에 거주하셨으며 수여선 선로반에 계셨다. 부인의 세례명은 황배로카(본명 황영자)이며, 본인은 김요셉이다. 본인은 성당에서 성가대원이었다.

다니던 천주교에서 땅을 일괄 구입해서 신도 4명에게 땅을 분양했다. 그래서 개인별 400평을 분양받아 용인대학교 바로 아래 쪽에 선산을 마련했다. 묘비를 쓰고 그 아래의 땅에 두 사람씩 모실 수 있게 했다. 그래서 부모의 묘지를 마련했고, 큰집식구들에게 그 곳의 몫을 떼 주었다. 그냥 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일부 돈을 내라고 해서 나중에 함부로 팔지 못하게 5명의 공동명의로 해 놓았다. 그곳에 묘지 7기가 있으며, 화장해서 납골함을 땅에 묻어 모셨다. 요즘 명절날에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전 주의 일요일에 성묘를 한다. 가족과 친척들이 한꺼번에 모여 같이 성묘를 한다.

(4) 일에만 몰두한 해동양조장 근무 시절

해동양조장은 조성우 사장이 운영하는 큰 양조장으로 조 사장은 용인에서 유명한 분이다.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적도 있고, 문화원에도 깊이 관여하셨다. 그런데 아깝게도 김재식 씨가



1970년 성당 기공식. 뒤는 용인 시내



1970년 별학에서 천주교 성당 기공식



천주교 성당 근처 터 뉘아놓은 곳

양조장에 입사 후에 얼마 되지 않아 1973년에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 부인은 마포 출신의 이영란 씨로, 고려대학교 이웅직 박사와 주미대사를 지낸 한승조 씨와 같은 집안이다. 조성우 사장이 세상을 떠난 후에 부인인 이영란 씨가 양조장의 사업을 주관했다.

양조장은 주로 막걸리와 약주를 제조해 판매했다. 막걸리는 처음에 쌀로 만들다가 나중에 밀가루 막걸리로 바뀌었다. 술독이 100개 정도 있었는데, 주로 30개 정도 사용했다. 이 술독은 360~400리터 크기인데, 주로 400리터 술독이 가장 많았다. 몇 리터보다는 대개 몇 말이나, 몇 통이나를 기준으로 했다. 대개 1말부터 3말까지 들어간다. 따라서 3말이 가장 많이 들어갔다. 말이 들어가는 통은 나무로 만들었다. 1975년 경에 한 말짜리 플라스틱 통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만 두기 전까지 약 5년간 플라스틱 한 말짜리 통을 사용했다.

양조장은 조성우 사장의 부친 시절부터 시작했다. 따라서 일제시대부터 양조장 사업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해동양조장은 1981년까지 이곳에 있었으며, 그 해에 역북동으로 옮겼다. 그리고 양조장 자리에 해동빌딩을 지었으며, 3~4층에 해동예식장을 만들었다.

김재식은 그곳에서 총무일을 했다. 1971년에 자동차 면허를 취득했다. 군대에서 배웠는데, 영등포의 현병대에 근무할 때에 운전 배운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대 이후에 운전 교육을 조금 받고 한 달 후에 바로 면허증을 받았다.

양조장에서 일할 때에 새벽 4시 30분에 출근한다. 트럭에 시동을 걸고, 술을 담기 시작한다. 이 트럭은 신진에이스 1톤의 작은 트럭으로 1말씩 30말의 30개 통을 싣는다. 삼가동 삼거리쪽에 갔다와서 빈통을 가져온다. 이 통에 막걸리를 채워 유방리, 둔전, 마가실(자연농원 미술관 골짜기 안쪽 동네) 등에 차를 운전해서 직접 배달을 한다.

술통을 그쪽 통에 붓고, 양조장 통을 회수한 다음에 돈을 받고 운전해서 되돌아와 9시가 되어야 퇴근했다. 따라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살려고 무척 노력을 했다. 당시 사장님은 거의 안 나오셨다. 대신 전무님이 계셨는데, 둘이서 모든 일을 도맡아서 처리했다. 전무님이 장부는 거의 정리했다. 그는 낮에는 차에 술통을 싣고 술을 배달하고 수금을 하는 일을 맡았는데, 나중에는 본인이 장부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거기서 총무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7년도에 입사하기 전에 군대에서 운전면허를 땀어요. 군대에서 현병대에 있었는데, 영등포에 파견 나왔어요. 거기서 운전을 배웠어요. 제대 후에 운전면허를 따려고 학원에 갔더니, 실력이 최고라는 거예요. 시험 보면 백프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반 되어서 면허를 땀어요.

총무 하면서 새벽 4시 30반에 출근해요. 꼭두 새벽에. 해뜨기 전에 차를 시동을 걸고,

차를 대놓으면, 우리 종업원들이 차에 술통을 실어줘요. 조그만 트럭인데, 신진에이스, 1톤 트럭이에요. 거기에 한 30개 정도 싣고 나가요. 30말 정도지요.

그리고 삼가동 있죠? 그때 삼가리라고 해요. 거기 갔다 와요. 그러면 또 빈통을 내리고 다시 바꿔 실어줘요. 그래서, 유방리, 둔전을 가고, 마가실이라는 데를 가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에버랜드 자연농원 저 안쪽 골짜기로 쪽 들어가면 있는데, 거기 갔다 와요. 죽 내려다 놓고, 그러면 돈을 받고 술통을 회수해서 싣고 오는 거죠.”

위의 사진은 해동양조장 건물 앞에서 대략 1975년 경에 찍은 사진이다. 당시 넷째 동생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대신 벽돌 찍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산업도로 구청 쪽 가는 쌍갈래길에 600평의 땅을 사서 블록공장을 차려주었다. 양조장 여사장의 도움을 받고, 그동안 모은 돈을 주어 동생이 일을 하게 해 주었다.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블록을 만드는데, 1년을 묵게 해서 안 깨지는 튼튼한 블록을 만들어서 인기가 좋았다. 간판을 해동블록이라 했으며, 당시 돈을 좀 벌었다.

“지금 생각하면 바보도 아니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살려고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총무를 봐야 하니까, 사장님이 거의 안 나와요. 전무님과 둘이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술 팔고 장부 정리하고, 처음에 그 양반이 장부 정리했지만, 얼마 후 그만 두면서 내가 다 했지요. 퇴근은 빨리 해야 저녁 9시쯤. 시간을 따지면 월급을 엄청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한번은 사장님께 부탁을 했어요. 딴 사업 좀 해 보겠습니다. 넷째 동생이 공부를 못 했어요. 그런데 벽돌 찍는 거 있죠. 그것은 할 줄 알아요. 기술이 있었죠. 그래서 벽돌공장을 냈어요. 어디 쯤이냐면, 저 위에 산업도로에서 구청 쪽으로 오는 도로 있지요? 이천, 여주의 쌍갈래길. 거기에 제가 육백평 땅을 산 거 있어요. 거기에 블록 공장을 냈어요. 여사장님의 승인을 얻어서 거기서 수입을 얻은 거예요. 사장님의 은공을 따지면 말을 못하지요. 양조장 옆에서 어머니가 가게도 하고, 그래서 월급 따지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매달리고 희생한 거예요.”



해동양조장 근무 시절 양조장 건물 앞의 김재식 씨

양조장에서 고생은 되었지만 어머니 가게, 동생 블록 공장을 할 수 있게 되어 그 은공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다. 당시 돈을 버는 대로 땅을 구입했다. 어머니의 구멍가게는 어머니께서 연탄가스로 돌아가신 다음에 팔았다.

김재식 씨는 술은 많이 마시지 못했다. 양조장에 근무할 때에도 기껏해야 반 샤쿠(밥 공기 정도의 양) 정도의 술만 마셨다. 당시 직원들은 매일 출근하면 1샤쿠 정도를 마시고 소금 안주를 찍어 먹은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간이 좋지 않게 된 것도 술 때문은 아니다.

양조장에 다닐 때에 작업장 술 향아리 있는 곳에서 밤을 새워 옷놀이를 한 적이 있다. 사장이 “김충무, 그렇게 좋아?”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시 돈을 조금 걸고 돈내기를 하기도 했다. 당시 옷은 말이 4개가 모두 나가야 이기는 건데, 만약 상대방이 하나도 못 나가면 내기의 배를 냈다. 그 친구는 용인 자연농원 근처에서 돼지농원을 했는데, 소와 돼지를 마장동에 팔고 돈을 한 자루 메고 와서는 노름 화투를 했다. 그럴 정도로 한때 놀이를 좋아했다. 당시 화투는 거의 하지 않았다.

(5) 결혼과 안정된 생활, 지역 봉사 활동

용인천주교회에서 김효신 신부님의 주례로 결혼을 했다. 당시 29살이었으며, 신부는 25살이었다. 양조장 다닐 적에 성당에서 만났다. 양쪽 집안이 성당에 다녀 그곳에서 서로 알게 되었다. 연애를 몇 년간 했다. 자식은 1남 1녀를 두었으며, 어머니께서 편찮으실 때에 딸이 없이 만아들로서 직접 약도 드리고, 밥도 해 먹으며, 설거지도 했다. 그리고 청소하면서 집안의 마루에 걸레질도 했다. 그래서 그는 아들보다는 딸을 더 좋아한다. 아내가 첫아들을 낳았을 때 출산한 아내에게 왜 아들을 낳았느냐고 꾸짖하다가 장모님께 야단을 맞은 적도 있다.

“그래서 제가요, 어머니가 애기 낳는 것을 봤잖아요? 제가 집사람에게 첫 번째 아들을 낳은 걸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옆에서 ‘아니 아들을 낳았는데, 왜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나는 싫다. 내가 하도 고생을 해서.’ 그랬지요. 어머니가 전부터 편찮으셨어요. 6·25(전쟁) 때에 어머니가 우체국 앞에서 껌장사를 했어요. 그때부터 편찮으셔서 집에서 제가 밥을 하고, 설거지 하고, 편찮으신 날이 많으니까, 방청소 싹 하고, 마루 걸레질 다 하고, 그래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누라한테

딸을 낳지 왜 아들을 낳았느냐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모으면 땅을 사기 시작했으며, 점차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부터 1974년부터 로타리에 입회해서 봉사활동에 힘썼다. 현재 경찰서 방법위원이며, 대공 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회는 회장을 3번 역임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 간이 좋지 않았을 때인 2003년부터 경기지역 로타리 총재에 지명되어 맡아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성남에 가서 2시간 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총재를 맡지 못하겠다고 설득했다. 당시 7~8년간을 계속 병원을 다니던 시기였다.

(6) 간염 발병과 사선을 넘나든 간 이식수술

1990년에 처음 간이 좋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이후 계속 병원을 다니다가 2005년 간경화와 간암이 같이 왔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래 B형 간염이 있었으며, 서울대병원 소아기 내과를 계속 다녔다.

“저는 간염 B형이래요. 서울대병원 소화기 내과에 계속 다녔어요. 2005년 간염하고 간경화가 왔다는 걸 듣고, 서울대 병원에 의뢰했지요. 간 이식 수술을 의뢰했지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힘들 겁니다.’ 그래요.

그 전에 오리골에 살던 빌딩을 2004년에 팔았어요. 왜 팔았느냐면, 주위에서 현금 2억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타리에서 나더러 총재하라고 해서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로타리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니까, 총재들이 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나를 총재 후보로 지명한 거예요. 그래 나는 못한다고 거절했지요. 그때 이미 병원에 한 7~8년 다니던 시기에요.”

더 이상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서울대병원에 간이식을 의뢰했다. 그런데 차례가 많이 밀려 이식이 힘들다는 통고를 받았다. 그래서 2004년에 오리골의 빌딩을 팔아 현금 2억을 갖고 중국으로 갔다.

2005년 11월 2일에 천진 ○○병원에 간 이식을 위해 갔다. 그런데 한 달을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일주일 후에 아들은 한국으로 보냈다. 한국사람은 병원에 입원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수술을 한 후에는 입원이 가능했다. 그래서 호텔에 있으면서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어 아내와 함께 아들을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전화를 받았다. 통역을 하는 사람이 오늘 당장 수술이 있으니 오라는 연락이었다. 다른 사람이 간이식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확보된 간이 너무 커서 받을 여자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김재식 씨에게 차례가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A형으로 혈액형도 같았다.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급히 되돌아갔다.

이후 14시간에 걸쳐 간 이식 수술이 이루어졌다. 수술이 시작되면서 집사람은 병원에 있지 못하게 해서 일단 호텔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25일 정도 입원해 있었다. 처음에 중환자실에 있다가 상태가 빨리 좋아져서 입원실로 옮겼다.

“2005년에 간암이 왔어요. 그래서 간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12월 2일에 중국의 천진 〇〇병원에 간 거예요. 그런데 간이식 차례를 한 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일주일 같이 있다가 한국에 보내려고 공항을 가는 길이에요. 거의 다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하나면, 통역관이 있어요, ‘오늘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빨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달 후에 수술한다고 하면서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무슨 수술이냐?’ 그랬더니, 수술날짜가 잡혔으니 당장 오라는 거예요. 아들은 그냥 가라고 했죠. 네가 옆에 있어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니 그냥 가라고 그랬죠.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간을 주어야 되는데, 여자가 몸이 작아요. 그런데 간이 크다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도저히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현재 리스트를 짚 보니까, 딱 짚은 게 저예요. 그래서 나를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모두 준비하고,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집사람이 우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아 내가 죽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살려고 들어가니 울지 마.’ 그랬지요. 눈을 떠보니, 수술을 14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수술 중에 집사람은 병원에 계속 못 있어요. 그냥 호텔로 갔다가 다시 면회를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오전에 면회를 오니까 제대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오후에 다시 오니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젠 살았다고.

그곳에서 25일 정도 있었어요. 수술하면 입원할 수가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어느 정도 되면 입원실로 내려 보내요. 나는 상태가 좋다고 빨리 내려 보냈어요. 한 15일 정도 있다가.”

수술 후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중국음식 특유의 향내 때문에 거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중국 병원을 소개해준 교포가 조선족 학교 교감 선생님이셨는데, 그 분이 고추장을 갖다 주셔서 밥을 물에다 말아 고추장을 찍어 겨우 먹었다. 가끔 한국식당에서

된장찌개를 시켜다 먹기도 했다. 집사람은 잠을 잘 자는 편이라 간호하면서 그 고생스러움과 어려움을 잘 견뎌냈다.

본인은 배가 고프데 음식을 거의 못 먹었다. 퇴원해서 한국에 오는 비행기는 특석을 탔는데, 기내식으로 소고기 스테이크가 나왔다. 그 맛이 너무 좋아 하늘의 보약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중국에서 갈비가 어찌 먹고 싶었던지 한국에 와서 강남의 갈빗집에 가서 갈비를 엄청 먹었던 기억이 난다.

“25일 정도 입원했는데 혼났어요. 수술은 잘 되었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중국 음식은 냄새가 나잖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거기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교포인데, 한인 학교 교감 선생님이신데요. 그 양반이 반찬도 갖다 주고, 고추장도 갖다 주고, 그래서 물 말아서 고추장을 조금씩 찍어서 억지로 먹었어요.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데, 딴 거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가끔씩 한국식당에서 시켜다 먹기도 했어요. 집사람의 고생은 말도 못해요. 그래도 집사람은 잠을 잘 자는 사람이라 덜 했죠. 우리는 잠을 잘 못 자는데. 그래도 고생 무척 많이 했지요.

배가 고파서 죽겠는 거예요. 집에 오는데, 집사람이 비행기에 특석을 예약했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소고기 스테이크를 주는데, 그걸 뭐라고 할까, 하늘에서 내려준 보약마냥,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보고 그랬어요. ‘한국 가서 갈비 좀 먹으면 좋겠다.’ 그래 오자마자 강남의 유명한 갈빗집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엄청 먹더라고요. 배가 부르니까 살 것 같았어요. 그래 바로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해서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소아기 내과에 잘 다니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강남 성모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진료를 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을 가다가, 이후 한 달 반마다, 그리고 요즘은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주사를 맞는다. 그리고 4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를 받는다. 현재 11년째 별 탈이 없이 생활하고 있다.

수술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 강남성모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다음에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바로 강원도 평창의 하늘만 보이는 금당계곡으로 요양을 갔다. 공기가 좋은 곳에서 약 두 달간 휴양을 하면서 안정을 찾았다. 수술 이후에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제대로 못 해서 수술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 친구 중에 군대의 소장까지 올라간 친구가 같은 병에 걸렸다. 그래서 중국 천진의 같은 병원을 소개해줬다. 그런

데 수술 이후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인터넷 바둑 돈내기에 빠져 부부간 갈등이 생기면서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간 이식 수술은 음식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먹을 것을 다 먹어도 상관없으나, 의사의 권유로 회만 먹지 않고 있다.

(7) 건강 되찾고 욕심 없이 사는 최근 생활



집 근처 텃밭의 배추를 뽑아 조사자에게 선물하는 김재식 씨

요즘 적당한 걷기운동과 밭농사, 가축 돌보는 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하루 1시간 정도 집 옆의 마평천 하천변을 걷는다. 그리고 집 주위의 약 1000평의 땅에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 배추, 무 등을 가꾼다.

이곳의 땅은 1984년에 구입했는데, 생산녹지로 묶여 있다. 그래서 농사만 지을 수 있다. 옆에 주유소가 있고, 짜장면 집이 있어서 풀릴 수도 있지만, 현재 이곳은 녹지로 묶여 있다.

예전 양조장에 다닐 때에 인근에서 신신옥이란 식당을 하던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하고 옷놀이를 밤새도록 한 적이 있다. 요즘 그 친구와 같이 농사를 짓는데, 사람을 한 사람 얻으면 품삯을 지불해야 되는데, 친구에게 품삯 대신 땅을 조금 떼 주고 농사지으라고 하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 같이 농사를 짓는다.

2007년까지 오리골에 약 60년간 살다가 인근 아파트로 옮겼다. 당시 아파트는 살던 건물을 팔아 대토로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간 살다가 아파트를 팔고, 4년 전에 현재 사는 이곳으로 이사를 했다. 이곳은 하천변이라 공기가 좋다. 이곳 지하수는 깊게 파서 그런지 물이 따뜻하며 이 물로 김장을 하면 맛이 좋다.

5시에 기상해서 운동을 하고 밭일과 가축을 돌본다. 현재 밭농사와 함께 닭이 30마리가 있고, 개를 6마리 키운다. 특히 가축 때문에 함부로 외출을 하지 못한다. 둘째 친동생이 미국의 텍사스주에 사는데, 집사람과 식구들 5명이 미국에 한 달간 다녀왔다. 그런데 김재식 씨 본인은 가축과 밭일 때문에 미국에 가질 못했다. 키우고 있는 개의 밥은 살던 아파트 앞 식당에서 얻어다 먹인다.

현재 수술 후유증은 거의 없다. 병원에서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한다. 간이식 수술을 해서 잘못 되면 제일 먼저 담도가 망가진다. 담도는 간과 다른 부분을 연결해 주는 부분인데,

이후 간과 담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는 최근 큰 욕심이 없다. 예전부터 배우이자 가수인 최무룡이 부른 ‘단 둘이 가 보았으면’이란 노래를 좋아했다. 지금도 틈만 나면 혼자 이 노래를 가끔 부른다. 예전 오리골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시절부터 이 노래를 좋아했다.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며 예쁜 집을 지으며 살 것을 그리면서 최무룡이 부른 이 노래를 즐겨 부른다. 그가 이날 직접 불러준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1. 흰구름이 피어오른 수평선 저너머로
그대와 단 둘이서 가 보았으면
하얀 돛단배 타고 물새들 앞세우고
아무도 살지않는 작은 섬을 찾아서
아담하게 집을지어 그대와 단둘이
행복의 보금자리 마련했으면.
2. 저녁노을 곱게물든 수평선 저너머로
그대와 단둘이서 가보았으면
갈매기 사공삼아 별빛을 등대삼아
늘푸른 나무들이 무성한 섬 찾아서
꽃을 심고 새도길러 맑은샘 파놓고
그대와 단둘이서 살아 봤으면.

이 노래는 1964년에 나온 노래로 한산도 작사, 백영호 작곡에 최무룡이 불렀던 노래이다. 이후 이양일, 박재란이 듀엣으로도 불렀다. 어렵고 가난한 시절을 보내고 간 이식 수술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는 큰 욕심없이 살고 있다. 예전 불렀던 이 노래를 지금도 읊조리며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고 있다.



텃밭의 무를 수확하는 김재식 씨



오리골이
들려주는
이야기
·
9

9. 오리골이 들려주는 이야기

오리골은 수여선이 통과하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공간, 한국전쟁 당시 김량장 전투라는 치열한 전투의 공간, 해방 후 산업화 최전선의 공간으로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이 이야기들은 비록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한 개인이 경험한 체험담인 동시에 용인 지역이 겪은 역사의 증언이기도 하다.

1) 용인의 특산물

일정 시대 때 지리부도라고 지리책에 나오는 게 있어. 거기 용인의 특산물이 나와. 내가 배운 시절에. 거기 뭐가 나오냐면 용인의 특산물이 담배, 인삼 그거야.²²²⁾

2) 공로비 받은 면장

포곡면 같은 데나 구성면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소위 말하자면 (해방 후 면장이) 뚜드려 맞고 쫓겨나고 그랬는데. 여기 면장은 신 면장이라고 있었어. 그 양반은 신도비를 세워줬는데. 신도비 있지? 신도비보다는 공로비라고 해야할까? 그걸 세워줬어. 마평리에 있다

222) 조운행(남, 82) 제보

고 그러는데 거기 어디 세워놔었는데 시방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 양반이 초대 용인태성중학교 교장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신씨가 키가 조그마했었거든. 그래 그 양반이 맨날 면장 하니까. 군인 나가면 맨날 신사 올라가고 그러는데.

근데 조선백성들한테 소위 징용 나가고 하는 게 면장이라고 조그만 시골이라도 권력이 지고 막 탄압을 하고 지랄하던 (면장)들은 두드려 맞고 막 쫓겨나고 그랬는데, 이 양반은 안 그랬거든. (인심을) 안 잃었지. 그래서 그 양반은 사실 면장자린데 각 면에서 다 쫓겨나고 두드려 맞고 그랬는데 그 양반만은 안 쫓겨났어.²²³⁾

3) 김량장리 전투

그때는 여기 다 부서지지 않았어. 용인은...용인은 그대로 있었어. 김량장리 전투라는 게 (있었어) 내가 6사단에 있었는데, 우리 연대 2연대가 1·4후퇴해가지고 죽산에 있었거든. 2연대가 우리가 가까우니까 우리가 들어올 줄 알았더니, 여기가 나중에 외국군이 들어왔는데 터키인가? 터키군이 여기 전투(를 했어). 성산에 여기 전적비가 있어. 산에 가면, 여기 고속도로 타고, 옛날 고속도로 밑으로 시방 굴이 있지만 거기 꼭대기로 넘어가는데 전적비가 있어. 자연농원으로 들어가는 입구, 고 앞에 터키군 전적비가 있어. 1·4후퇴해가지고 다시 탈환하는 전적비가 있어. 터키군이 싸웠어.

그리고 고다음에 7연대 2대대가 들어왔지. 여기, 그 후로. 우리 6사단이. 2연대, 7연대, 19연대거든, 그래 저 7연대가 여기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²²⁴⁾

4) 아들 장가 시키려고 소를 판다

어지간해서는 농가에서는 그때만 해도 소 한 마리씩 길렀거든. 어지간한 집은 다 농사 짓든 안 짓든 다 길렀어. 그것이 소위 큰 재산이야. 우리 같은 집은 농사짓기 때문에 황소 큰 걸 길렀거든. 그러니까 그 황소가지고 마차 끌고 농사짓고 했으니까는. 농사 크게 짓는 사람은 황소를 기르고, 그렇지 않으면 농사 조금 짓는 사람은 암소를 기르고.

시방 기계화 됐지만은 그때만 해도 소 아니면 밭갈이를 못했잖아. 논을 갈아야 모를 심

223) 조운행(남, 82) 제보

224) 조운행(남, 82) 제보

지. 그래 전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를 조금이라도 짓는 사람은 대개 소가 있어. 또 그것이 재산이고. 옛날에는 그 당시만 해도 소 한 마리 팔아서 대학을 보낸다고 그랬다고. 대학을 보내는데 시방은 소한마리 팔아서 어렵도 없지. 한 한기 등록금도 못내는 걸. 그때는 큰 재산이야. 아니 대강 소 기르고 대학, 일부러도 그렇게 길렀으니까. 아들 장가, 결혼 시키고 뭐 그런 것 할라고 소 팔아. 그거 다 준비하는 거야.²²⁵⁾

5) 호적을 떼려면 3박 4일이 걸린다

중학교 안 간 사람들은 대강 면서기를 했어. 초등학교 나와서. 그 사람들이 그때 한문 다 배우고 했으니까. 글씨도 명필이야. 시방 사람들 한문 글씨 모르는데 그 사람들 그 당시만 해도 명필이야.

호적 같은 거 있잖아. 호적 같은 거 시방은 전부 복사를 하고 전부 기계화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호적) 쓰려면 한 사흘 나흘씩 쓰는 집이 있어. 호적이 그렇게 두꺼운 사람이 있어. 전부 분가 안하고 한집에서 다 호적을 올리고 그러기 때문에. 시방 결혼과 동시에 분가를 한다고, 장남 아닌 다음에 다 분가가 돼.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할아버지 때부터 작은 아버지, 고모 뭐 이런 것이 (다같이) 있으니까 한 30장 이상 돼. 그것 쓰려면 한 사흘 걸려.

내가 여기 면에 호적등본을 떼다고 부탁을 해. 전화로다가. 내가 좀 필요한데. 그럼

“아우 그걸 사흘은 걸릴걸.”

“그래.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 그걸 사흘을 써야 다 쓰는 걸.”

직접 가도 그것이 제일 만원이야. 제일 줄 서는 데가 거기 밖에 없어. 한 사람이 써주니까. 많아야 두 사람이야.²²⁶⁾

6) 바람만 불면 앵~

그리고 여기 지나가면 그때만 해도 시방은 그런 게 없지만은. 바람만 불면 전선이 있

225) 조운행(남, 82) 제보

226) 조운행(남, 82) 제보

지? 전화선이 두 줄이 있거든. 근데 전화선이 꺾데기가 없어. 그냥 선을 갖다 늘어놔서. 고대로 선을 늘어놔서 바람 불으면 흔들리면 ‘앵’ 소리가 나. 팽팽해도 ‘앵’ 소리가 나. 근데 시방은 전부 저기 꺾데기가 썩어져 있잖아. 시방 그런 게 소리가 안 나잖아. 근데 시방 들 모를 거여.²²⁷⁾

7) 광수 따기

해방 한 2년 앞세워놓고 맨날 산에만 가서 그저 광수, 광수라는 게 뭐냐면 소나무 있잖아. 소나무 따고 나머지. 저 소나무 가지 따고 나무를 보면은 나중에 거기서 진이 나와 가지고 영킨게 있어. 그게 송진이야.

송진을 따는 걸 학교에서 할당을 해. 그런데 그 송진 따다가 뭘 하나면 여기 제일은행 뒤편이 있었어. 근데 그 옆에 광수를 굶는데, 기름 빼는 데가 있었어. 거기다가 그저 떼 가지고 (송진을) 녹여서 기름을 받았지. 그것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쓰는 비행기 기름 한다고.²²⁸⁾

8) 모심을 사람이 없어서

(해방 전) 일반 학생들 얼마나 동원을 시켰는데, 별걸 다 했어. 풀 걷어 와라. 퇴비해오라. 뒤편해오라. 하여튼 공부라는 걸 몰라. 그리고 맨날 모 심그러 다니고. 사람이 없으니까 모심을 사람이 없잖아. 전부 징용이니 저기루 병정 소위 말해 징용으로 뽑아가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학생들을 동원시키는 거야. 학생들을.²²⁹⁾

9) 장작, 쌀 공출

요 골목 이편쪽(수여선 역사 인근)으로는 여기는 집이 없었어. 집이 없었고 여기 뭐가 쌀 여있었냐면 일정시대. 장작. 여기 장작을 쌓아놓고선 기차로다가 전부 장작 실어 날랐다고.

227) 조운행(남, 82) 제보

228) 조운행(남, 82) 제보

229) 조운행(남, 82) 제보

여기가 창고가 여기쯤, 시방 농협 있는 자리. 읍내리 조합이라고 농협 지부 말고. 용인 조합이라고 따로 있었어. 조합 옆에 백 평 썩 되는 창고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때 까만 거로 칠해놨지. 그것이 소위 공출해가지고 쌀을 일본놈이 걷어서 거기다 잡아넣고, 거기서 여기가 역이니까 그리로 실어가고 그랬던(거지) 그때 화물이란 게 뭐 있어? 여기선 장작하고 쌀하고 그것밖에 더 있었어? 일정시대에.²³⁰⁾

10) 기차굴을 나오면 감동이

저 신갈, 또 시방 동백지구 고개 넘어오는데 있잖아? 근데 고것이 고개여. 고개가 길어. 근데 기차굴이 있었다고. 그래서 기차가 뭐야야 해방되고는 장작을 때고 다녔어. 연탄이 없어가지고. 저이 뭐야 기차굴이 있어서 장작을 때고 들어가서 그냥 연기를 굴에 가서 (뿜어) 그냥 기차가 못 올라가고 힘이 부쳐서. 그러면 거기서 칙칙폭폭해서 그것이 소위 말하자면 감동이 되고 나오는 거지. 연기 쏘여가지고.²³¹⁾

11) 4살배기의 피난길

내가 4살 때 육이오 났으니까 나는 그거 기억이 조금 안 나는데. 우리 이모들이 내가, 그 4살배기가 자기 뒀을 했대. 무슨 얘기냐면,

“엄마 내가 내쫓 메고 갈게.”

피난민 집을 내가 미더라는 거여. 4살이 동네사람들이 신통방통하다는 거여. 4살배기가 자기 (뒀을) 메고 간다고. (짐을) 메고 피난간 거 그걸 얘기해주는데 나는 그게 기억이 안나.²³²⁾

12) 골프치던 장군들이...

내가 골프장에 다니면서, 그때 1975년 정도 8·15광복절 날 육영수 여사가 저격당할 때

가 내가 그때가 1975년도 같애. 8월 15일 골프장에서 거진 점심때쯤 됐나 안됐나? 별안간 장군들이 골프 치다말고 우두두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라고. “여기 3군 사령부 장군들이 비상이 났다.”고 그러더니 서둘러서 막 옷을 입고 출발하더라고.

그날 저녁에 이상하다 왜 그러냐 했더니 퇴근하면서 버스타고 오는데 버스에서 레디오 방송이 나오는 거야. 육영수 여사가 저격당해서 돌아가셨다고. 그것을 버스에서 뉴스를 듣고서 아하 그래서 낮에 장군들이 비상상태가 돼가지고 서둘러 갔구나. 그때 알았지. 그때가 아마 1975년도 일거야.²³³⁾

230) 조운행(남, 82) 제보
231) 조운행(남, 82) 제보
232) 조충호(남, 73) 제보

233) 조충호(남, 73) 제보



[부록]

1. 오리골 사람들
2. 사진으로 보는 오리골

[부록]

1. 오리골 사람들

1) 김종규

– 서울에서 오리골로

김종규는 김학조(1923~1988)·이영희(1932~1999) 사이에 3남 2녀 중 장남으로 철원에서 태어나 한국전쟁으로 평택으로 피난하여 어린 시절을 보냈다. 김종규 씨의 아버지는 평택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경기도청으로 전근함에 따라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옥마을에 살다가 성북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용인군청으로 전근하여 용인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이사오게 된 땅은 어머니가 현 읍사무소 동편 산 기슭에 대지 50여 평 위에 20여 평 정도 되는 초가집을 쌀 두 가마에 구입한 것이다. 차를 타고 먼지 폴폴 날리는 비포장도로로 오면서 이 시골에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며 이사를 왔는데 초가집에, 집 대문이며 주변에 농지 그리고 특히 빼직거리는 창문이 아주 어색했던 기억이 있다.

– 오리골에서

“서울에 잘 정리된 한옥마을과 달리 집 앞 현재 읍사무소가 있는 자리는 보리 밭, 뒤편 산기슭에 현충탑, 그리고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 김량장 시장이 있었지. 집은 방 두 개가 있어 안방은 부모님과 세 동생, 그리고 작은방은 외할머니, 나 그리고 동생 창규와 함께 사용했어. 부엌은 연탄이 아닌 불때는 아궁이였어요. 부엌에 땔나무는 주변 마을사람들은 멀리 산에 가서 땔감을 구하여다 사용하였으나 우리집은 현 용인초교 앞에 나무시장이 있어 그곳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지. 때로는 제재소에 나무 조각을 구입하여 리어카를 빌려 나와 창규가 날라다 사용하였어.

서울에서 느껴보지 못한 화로가 있어 겨울에 학교 갔다오면 아래묵 이불속에 묻어두었던 밥, 그리고 화로에 자글자글 끓는 찌개에 밥먹던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않아. 또 밤에는 속옷을 벗어 화로에 훌훌 털며 이를 잡고 고구마를 구어 일, 지금 아이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거야.

오리골 주민들은 주로 공동우물을 사용하였으나 우리집은 마당에 펌푸가 있어 이를 사용하였어. 겨울에 물을 푸려고 펌푸를 잡으면 잡은 손바닥이 얼어서 손잡이에 붙곤 하였지. 우리집에 오리골에서 맨 처음 TV를 구입하자 동리주민들이 부러워하며 많은 주민들이 연속극을 보러 오곤 했었어. 당시 유명했던 프로레슬러 김일의 경기가 방영된다 하면 20여명이 모여서 방이 좁아 마루에 TV를 옮기고 마당에서 구경 하기도 하였어.

놀이로 서울에서는 야구나 축구 등을 하며 놀았으나 오리골 어린이 놀이는 여름이면 앞또랑이나 술막다리 개천에서 고기를 잡으며 놀고 여름밤에 횃불로 밤고기 잡기가 매우 재미있었어요. 당시 여름밤에 사람들은 개울에서 목욕을 하였는데 남녀가 목욕하는 자리가 암암리에 정해져 여자들은 현 실내체육관과 시장사이 하천을 가로지르는 철길이 있어서 그 밑에서 목욕을 하였지. 우리는 고기를 잡는 척 하면서 여자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훑쳐보는 장난이 매우 재미있었지.

겨울이면 썰매 타기를 많이 하였는데 남자아이들은 양쪽에 꼬챙이를 찌으며 달리는 썰매가 아니라 썰매위에 서서 가랑이사이로 꼬챙이를 넣어 찌어가며 타는 외발 썰매를 탔어.”

방학이면 몇날 며칠 썰매를 타다보니 가랑이사이가 헤어짐에 할머니는 이를 보고 “네놈들 불알 밑에 이빨이 달렸냐 왜 바지가랑이가 헤지느냐”는 꾸중을 듣기도 하였다.

– 이력과 가족

아버지가 공무원인 관계로 가정생활은 오리골에서 유복한 편이라 끼니를 거른 적은 없었다. 태성고등학교 3학년 여름에 공무원 공채에 합격하여 용인군청에 근무하고 아버지는 포곡면장으로 재직 중 뇌출혈로 쓰러지자 어머니가 평소 애친분 있었고 서로 잘 아는 이웃집 규수 정인섭과 결혼하였다. 부부는 정성껏 부모님을 섬기어 동리에서 효자로 칭찬이 자자함에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으로부터 효자표창을 받았다. 때문에 “모범효행의 집”이라는 꽃말을 붙이게 되었다. 또 공무원 가족으로도 알려진 집안이다.

아버지는 포곡면장, 본인은 군공무원을 거쳐 정당인으로 활동하고, 동생 창규는 이천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하였고 왕규는 공무원으로 있다가 현재 용인시 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여동생 둘은 용인시 산림과, 민원실에서 근무하다 공무원과 결혼하여 한 가족 여덟 명이 되어 공무원 가족으로 알려져 있다.

2) 되미

용인에 4대 명물하면 마평리에 살던 남자 고승덕(일명 곰보)과 오리골에 살던 되미(두엄이, 똥자리에서 태어났다 하여 되미라 함), 시장에서 화물하역 작업을 하면 쫓아가 일을 하고 돈을 주면 받고 안주면 마는 관식이, 비가 오려하면 각종 색깔의 형짚을 맨 새끼를 허리에 매고 거리를 하염없이 배회하던 일식이를 꼽는다. 이들은 반말을 하고 직설적이며 욕을 잘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온 분들이라 용인 4대 명물이라 칭하게 되었다.

이들 중 고승덕은 정신이 온전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 경찰서 자동차 정비 일을 하였었는데 하루는 경찰서장이 출근하는 것을 보고 “너 지금오니” 또 국회의원을 보고 “너 이놈 어제 혼줄 났다며”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무 앞에서나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음담패설,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듣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말하면 으레 그러하거니 하며 농담으로 알아듣고 재미있어 하였다.

되미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고 1930년대 초반 금학천 움집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오리골 현 중앙동 사무소 위쪽에서 움막 비슷한 허름한 집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목소리가 크고 말소리가 덜덜 하여 처음 듣는 사람은 잘 알아듣지 못하였으며 용인면 지역 어느 집이나 찾아가 허드렛일, 품팔이로 큰일 있는 집 설거지 등을 하였다 한다. 일을 할 때는 절대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주며 살았다고 전해진다. 또 지나가다 어려운 일을 보면 손수 도와주고 부지런하여 의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일을 해주고는 반드시 품값을 받고야 말았다 하며 주인이 없어도 절대로 물건에 손대지 않아 사람들은 믿고 집을 맡기곤 하였다 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욕을 하거나 놀리거나 하면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강하게 욕하며 반박하였으므로 여러 사람들은 조심하였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오리골 꼬마들이 집 옆을 지나갈 때 돌을 던지며 “거지 되미, 거지 되미” 하며 놀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마다 쫓아가 혼쫓을 내주기도 하였다고 전해 동리아이들이 짓궂게 놀리곤 하였으나 이웃에 사는 이영실을 수양아들이라 하며 아껴주어 이영실이 그 집에 놀러 가면 매우 반가워하며 먹을 것을 주며 좋아하였다. 그 집에 가면 정리된 곳은 없이 지저분하여 냄새가 나기도 했었다고 이영실 씨는 기억하고 있다. 말년에 오리골이 정비되자 동리주민들이 현 통일교 인근(남구에 속함)에 움막을 지어주어 그곳에 살다 병이 들어 주

민들이 병원에 입원시키었으나 운명하여 면사무소에서 장례를 치러 주었다.

3) 안병환

안병환은 1949년생으로 한국전쟁 직전에 김량장리 오리골(현 용인중앙교회 밭)에서 시외버스운전을 하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6남매의 장남이다.

당시 오리골은 가난한 마을이라 또래들이 구두닦이, 신문 배달 등으로 돈벌이를 하여 가정 살림에 보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안병환은 아버지가 버스운전을 하여 일정 수입이 있어 가사를 도와야 한다는 절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돈벌이를 하지 않고 혼자 놀기가 일쑤였던 개구쟁이로 성장하였다.

- 먹고 싶은 국화빵, 아이스케키

“현 용인중학교 개울 건너편에 기차역이 있었지. 아마 1972년에 수여선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 당시기차는 조개탄을 피워 수증기를 이용하여 움직여 그래서 기차 길 옆에는 드문드문 조개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지.

지금 용인사거리에는 국화 빵집이 있어 이곳을 지나치다보면 항상 먹고 싶었으나 주머니에 돈이 없어 군침만 흘렸었거든. 그런데 국화빵은 조개탄으로 불을 피워 굽는 것을 보고 철길에 조개탄이 있는 것을 생각이 났지. 그래서 주인아저씨에게 ‘조개탄을 가지고 오면 빵을 먹을 수 있나요?’ 물으니 가지고 오라 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았던지. 아마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해요. 좋아라 하며 강통 두 개를 구하여 손잡이를 만들고 그것을 들고 기차 길로 달려갔지.

기차역에서 철길을 따라 수원 쪽으로 걸어가면서 조개탄을 줍다보면 메주고개 기차 굴을 지나면 강통두개에 조개탄이 거의 차게 돼. 메주고개는 용인에서 어정 넘어가는 고개 길을 말하는데 고개라서 굴이 있었어, 아마 두어시간 걸어가며 탄을 주우면 강통두개가 거의 차지. 굴을 지나 좀 기다리면 기차가 고개 길을 올라와. 그때 기차는 힘이 없어 고개 길을 천천히 올라오기 때문에 탈 수 있었어.

우선 강통을 문이 열려있는 객차에 올려놓고 올라타면 금방 용인역에 도착하지.

그때 기차는 수증기를 이용하여 가기 때문에 용인역에서 물을 보충 했어. 물 보충하기 위해 기차가 속도를 줄일 때 강통을 내던지고 뛰어내리면 공짜로 기차를 타게 되는 거

야. 뛰어내릴 땐 반드시 달리는 쪽을 향하여 뛰어야 해. 반대방향으로 뛰면 큰일 나. 그 당시 젊은 사람들이 곧 잘 공짜로 기차를 타고 다녔거든. 이들 중 잘 못 내려 다리가 부러지거나 죽은 사람도 있었지.

기차역에서 주워 온 조개탄을 들고 사거리로가 빵집 아저씨에게 갖다 드리면 어김없이 국화빵 네 개를 주어. 먹고는 싶으나 집에 있는 동생이 생각나 집으로 가서 우선 할머니 부터 드리고 동생과 함께 나눠 먹곤 하였지. 그런데 할머니는 잡수시지 않고 두었다 꼭 나를 주곤 하셨어. 내가 지금 생각해도 내가 기특해 먹고 싶은 그 빵을 집으로 가지고 왔으니. 그래서인지 지금도 우리는 형제가 우애롭게 사나봐.”

“그리고 옛날에는 여름이면 우리동리 아이들이 아이스케키 통을 지고 큰소리로 “아이스케키, 아이스케키”하며 아이스케키를 팔러 다녔지. 남이 이것을 먹는 것을 보면 매우 부러웠으나 돈이 없으니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어. 나도 장사를 하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장사하는 친구에게 물으니 50개가 들어있는 한통을 팔면 10개는 파는 사람 것이라 하더군. 아이스케키 공장이 지금 사 거리에 있는 외환은행건물 옆에 있었어. 방학 때 그곳을 찾아가 장사를 하겠다 하니 이 것 저 것 물더니 한통을 내어주는 거야. 통을 짊어지고 거리로 나와 “아이스케키, 아이스케키”소리를 지르려하니 목에서 큰 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버스정류장에 가면 지나가는 사람이 사겠지 하며 버스정류장으로 갔어. 그 때 정류장은 지금 문화원(용인학연구소) 시장약국 자리 앞이었어. 통을 지고 왔다 갔다 해도 팔리지는 않고 소리는 안 나오고 힘은 들고 하여 사람이 많이 지나는 곳에 통을 놓고 걸터앉아 팔려하니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에라 먹고나보자 하며 하나하나 먹다보니 저녁까지 내가 모두 먹어버린 거야. 어찌 할 바를 모르다가 그 통을 공장인근에 갖다 놓고 도망 와 버렸지. 이 후로 장사는 해보지 않았어. 공장주인이 물어 물어 찾을까봐 걱정하였는데 왜 그런지 찾지를 않았어. 지금도 그 주변에 가면 그 아저씨가 생각나.”

4) 이영실

이영실은 1959년 기흥구가 고향인 이덕환, 유방동이 고향인 한은순 사이에서 다섯째로 태어났다. 누이 넷 중 둘째는 한국전쟁 당시 현 양지면 주북리로 피난하였다가 1950년 겨울에 UN군이 북진할 때 포격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위로 세 명의 누이와 형, 동생 둘인 가

정에서 성장하였다. 형은 힘도 세고 야무져 어릴 때 형의 후광으로 동리의 아이들로부터 팔시받지 않고 살아왔는데 형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폐렴으로 인해 사망하자 귀한 아들로 대우받으며 성장하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기와 잇는 기술과 벽돌 찍는 기술이 있고 새마을운동 당시 바로 아랫집인 초가집을 매입하여 지붕을 함석으로 개량하고 누나들은 초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가 월급으로 살림에 보태니 이영실은 자신의 집이 부자인 줄 알았었다. 또 초등학교에 다닐 때도 남들이 검정고무신을 신고 허름한 복장으로 다닐 때, 이영실은 운동화를 신고 교복을 입고 보자기 대신 등에 가방을 메고 다니니 자신이 최고 부자집인 줄 알고 살았다.

– 어릴 때 같이 놀 친구가 없어

“어릴 때 동리 아이들이 모여 이웃마을 (배르기, 남구)아이들 간에 돌싸움을 많이 하였지요. 저녁이나 한가한 시간에 현충탑(현재 ‘한국전쟁 참전용사회’, ‘반딧불이 문화학교’가 있는 곳)인근에 돌을 모아 놓았다가 오리골 아이들이 모이고 남구아이들이 모이면 특별한 원한이나 감정도 없는데 돌팔매질을 하며 돌싸움을 하였지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리하였는지. 아마도 특별한 놀이가 없어 장난 한 것으로 생각되어요. 돌싸움을 하다가 김창수라는 형이 돌에 맞아 병원에 실려 간 후로는 돌싸움을 하지 않았지요.

오리골은 윗동리 아랫동리로 구분 되었었는데 아래 오리골은 생활이 나은 편이라 초교 졸업 후 주로 진학을 하였는데 윗동리는 초교조차도 졸업 못한 사람이 많았어요. 윗마을 어린이들은 생활이 어려워 시간이 나면 옛, 아이스케이키, 신문배달을 함께 나는 함께 놀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따라 신문을 돌리었는데 오후가 되면 신문보급소(현 김량장동 한일은행건물과 용인초교사이)에가 신문을 받아 2시간 정도 배달을 하였지요. 배달을 할 때 동생 영수(1962-)에게 신문 절반을 돌리게 하고 월급(400~500원)을 타면 동생은 한 푼도 안 주고 내가 다 쓰는 욕심장이였었어요. 그래도 월급을 모아 스케이트를 사 품을 재기도 하였지요. 당시에 오리골 윗마을에 스케이트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나하나 뿐이니깐요. 좀 커서는 여름이면 아이스케이키 장사를 하고 깨엿 장사를 하였지요. 깨엿장사가 재미있었어요. 장사준비는 약방에 가 엿장사를 하려하니 박카스 빈 박스를 얻어(당시에는 빈 박스 팔기위해 잘 주지 않았다 함.)마평리에 있는 엿도가에게 현금을 주고 엿 열 개를 사다가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깨엿사세요” “엿사세요”하며 팔았지요. 엿 열 개를 팔면 네 개는 내 몫이었지요.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에는 한 개도 못 팔아 완전히 허탕 치

는 날도 있었어요. 어느 때는 장사를 잘 하는 친구가 팔아주고고 하였고요. 재수가 좋은 날에는 형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만나 “형 엿치기 하세요”하면 엿치기를 하여 한 자리에서 모두 팔기도 하였지요. 장사를 할 때 모두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빈병이나 곡식으로 주어 동생 영수를 데리고 다니며 곡식과 빈병을 지고 다니게 하였어요. 영수가 따라다니는 이유는 엿 한가락, 아이스케이키 하나 얻어먹는 재미가 있었나봐요. 돈은 내가 모두 쓰고 동생은 주지 않는 이기적이 형이었어요.”

–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어렸을 때 자신만을 알고 동생을 이용해먹는 나쁜 형이었으나 지금은 동생과 의좋게 지내며 누이들을 고맙게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생활 형편이 그러하여 대학은 가지 못하였지만 고교(현 용인정보고)를 졸업하고 방직회사인 원진레이온에 취직하여 생활하다가 회사가 문을 닫자 개인택시를 운전하며 1남1녀의 아버지로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지요. 그리고 어릴 때 큰누님이 손잡고 들에 가서 꽃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큰누님은 꽃을 매우 좋아하셨지요. 꽃 이야기를 어릴 때 많이 들어서인지 40세 후반에 환경 단체인 “용인 의제21”에 참여하여 생태분과 위원장으로 손윤희 팀장과 함께 “용인 나무이야기”, “용인 들꽃 이야기” “용인 곤충이야기” 등을 펴내 용인환경운동에 기여한 것이 살아온 보람이면 보람이지요.”

5) 정동근

정동근은 1925년 화성시 봉담면 상리에서 태어나 봉담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일을 돕다가 광복 후 용인경찰서 용원으로 취업하여 용인 오리골에 터를 잡았다 한다.

한국전쟁 후 사고로 인하여 경찰서를 그만두고 1956년 용인문화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당시 문화원에서는 결핵퇴치사업, 홍보 영화 보여주기 각종 구호물자 나누어주기 사업을 실시할 때 구호물자, 영사기와 발전기를 리어카에 운반하기도 하고 X-레이 촬영 기사가 없을 때는 대신 촬영도 하며 문화원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다.

당시 정동근이 살던 오리골은 용인 4개 동(역북동, 동부동, 유림동, 중앙동) 일원에서 가장 못사는 마을이었다 한다. 마을사람들이 설이나 추석이면 떡국, 차례상차리기가 어려운 형편인데도 워낙 생활이 어려워 저축이라는 것을 할 줄 모르는 형편이었다 한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정동근이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계(일반 계와 달리 푼돈이 생기면 동리

이장에게 맡게 하여 설이나 추석 때 맡긴 만큼 가져가는 형식)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추석과 설을 지낼 수 있도록 계몽운동을 펼쳐 저축심을 앙양시키었다고 아들 정기섭은 말하고 있다.

또 이웃마을 별학(베레기)에는 노인정이 있으나 오리골에는 노인정이 없어 오리골 유지들을 설득하여 부지 구입기금을 마련 대지(현 산업도로변 반딧불이 문화학교 건물과 용인맨션 사이)를 구입하고 주민들의 합심으로 노인정을 신축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앞장 선 인물이다. 현재의 마을회관은 당시의 노인 회관 밑에 신축하고 본래 회관은 세를 주어 노인 복지기금으로 활용한다.

또 새마을운동 때에는 이장으로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오리골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2000년대 초 문화원을 정년퇴임 하고 문화원 건물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다 2005년 세상을 하직하였다.

6) 조충호(조수복)

조충호는 요리 일을 하는 아버지 조인식과 충북 진천이 고향인 김찬수 사이에서 5남매 중 장남으로 1947년 오리골에서 태어났다. 마을에서는 ‘조수복’이라 부른다.

1950년대 오리골에는 20여 호 살았는데 오리골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오리골에 살고 있는 사람은 조충호와 이웃에 사는 이영실 뿐이라 한다.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진학을 포기하고 직업전선에 들어가 아래로 네 동생을 혼인시키고 살림을 내다보니 자신의 결혼 적령기를 넘어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는 마을 통장일을 보고있다.

– 어릴 적을 생각하면

“어릴 때 할아버지와 우리는 이웃에 살았어. 학교에 갔다오면 할아버지로부터 천자문, 동몽선습 등을 배웠어. 그때 왜 그리 공부하기가 싫었는지 할아버지 댁에 가기 매우 싫었지. 그런데 아버지의 꾸중이 무서워 울며 겨자 먹기로 공부를 하였지. 특히 내가 동리 꼬마대장이었는데 밖에서 ‘수복아, 수복이형’ 놀자하면 오금이 재려 공부가 될 리가 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큰 도움이 되는군요.)

당시 같이 공부한 이들은 10여명 되었는데 그중 한자를 많이 알아 인쇄소에 취직하여 나중에 인쇄소 사장이 된 이도 있어.

옛날에 우리 동리는 거의가 나무 때는 아궁이였어. 부자 집은 시장에 가서 나무를 사다

때었으나 대부분은 나무를 해다 때었지. 나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학교가 끝난 후 집에 오자마자 지개를 지고 한 짐씩 나무를 하였지. 주로 현 명지대학이 있는 동진이에 서 나무를 해왔는데 멀리는 이동면 서리까지 하러다녔지. 나무를 해오면 괜히 마음이 아주 뿌듯하였어. 서리까지 나무를 하러 가면 오가는 데만 두 시간 정도 걸렸어.

옛날 오리골은 매우 못 사는 사람이 많았어. 우리 집은 아버지가 주방 일을 하여 일정수 입이 있었고 어머니가 친정에서 쌀을 보태주어 잘 사는 편이었어. 어느 날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가 새우젓장사 하는 친구 집에 갔는데 저녁 때 었어. 밥 먹는 것을 보니 반찬은 우거지를 주어다 만든 김치 조금 그리고 새우젓 조금 뿐이여. 반찬이 적으니까 여러 남매가 누가 먼저인지 김치를 푹 집어 밥 속에 찢러 넣고 먹는 거야. 반찬 전쟁이었지 지금도 눈에 선해.

봄이나 가을이면 신궁(강점기의 신사)이 있던 자리(현 용인감리교회)에 공터가 있어 가끔 유지들이 모여 활쏘기를 하였지. 그때 과녁 뒤에 있다가 화살을 주어다 드리면 용돈 조금 주었지 돈을 받으면 어머니에게 드리면 그리 흐뭇하고 보람이 있었는지 몰라. 가을철 일요일이면 이동면 서리에가 고구마를 캐주면 가지고 갈 만큼 고구마를 주었어. 힘 달는 데까지 고구마를 지고 온 기억이 나지. 고구마하면 드쿨(이동면 서리)이지. 또 우물은 공동 우물이었는데 매년 한두번 우물 청소를 해야 되지. 우물청소는 나와 이웃에 사는 여자아이 인섭이었어. 우물 속에는 호미, 고무신 등이 나오곤 했었지.”

– 통장이 하는 일

“옛날에 오리골은 각성바지들이 살고 못 살고 하여 동리 단합이 잘 안 되었어. 특히 우리 동리에 남자나 여자나 술 먹는 사람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은 오리골을 “모주골”이라 비아냥거리기도 하였었지. 이러 한데 동리 단합이 잘되겠어. 지금은 술꾼도 없고 옛날 같이 밥 굶는 이들은 없으나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 완전 도시화되어 단합이 더 안 되는 것 같애.

지금 오리골에 80여호 살고 있는데 가구 수는 정확하지 않으나 200여 호 될거야. 이 중 외국인이 30여 호 살지 주로 조선족이야. 이들은 쓰레기를 분리수거는 커녕 아무데나 막 버려 아무리 말해도 잘 듣지를 않아.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통장의 큰 숙제이고 길이 좁다보니 저녁이면 주차전쟁이지.

앞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재개발되면 모든 것이 해결 될 거야.”

7) 김인순

김인순은 1935년생으로 원삼면 사암리에서 태어나 양지로 시집와서 양지, 김량장동 북구, 남구에서 생활하다가 1970년대 초 집을 장만하여 오리골에 살고 있다.

– 열심히 살아도

“오리골로 이사 오기 전 남구에 있는 군수사택 옆에 세를 살면서 돼지를 길렀지 돼지 먹이는 주변 집들을 찾아다니며 쌀뜨물을 동이로 이어다가 먹이로 했지요. 겨울이면 머리위의 동이에 든 쌀뜨물이 흘러 머리에 고드름이 생길 때도 있었어요. 새끼를 내어 팔고 팔아 3년 정도 지나 오리골에 방 두개달린 집을 장만하여 이사 왔어요. 그때 우리 식구는 우리부부 아이들 다섯 많은 편이지요.

집에 우물이 없으니까 큰 빨래는 지금 초등학교 앞개울에 가서 하였는데 겨울이면 개울가 샘물이 있어 거기서 했지요, 샘물이 따뜻하여 좋았어요. 작은 빨래는 공동 우물가에서 했지요. 지금은 그 우물이 동사무소 정자 옆길에 되어있어요. 우물가에서 아낙내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기도 하였다는데 나는 바빠서 수다는 커녕 동리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어요. 또 우물이 작아 세 명 정도 빨래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우물은 가물어도 샘이 나와 남구, 베레기 사람들도 먹을 물을 푸러왔는데 가물 때 빨래는 밤에 했어요. 물이 적으니까 낮에는 할 수 없었어요.

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리사람들과 눈인사만 할 정도였어요. 우리 집은 남편이 부록크(벽돌) 찍는 기술자였는데 술로 평생을 살아 가정일은 돌보지 않아 내가 살림을 꾸려나가야만 했어요. 일이라야 식당 주방일, 품팔이 등이었는데 양지에 있는 지산컨트리골프장에서 많이 했어요. 여름이면 잔디에 잡초 뽑기, 겨울이면 스키장에서 일을 했지요. 스키장은 아침 7시에 통근차를 타고가 세끼 밥을 먹고 저녁엔 잔업을 했어요. 무슨 일이나 하면 스키정리 손님 밥 먹고 나면 밥상정리 등이었지요. 11시가 넘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어요. 집에 오면 밤 12시 그리고 아이들 옷 껴매기, 이 잡아주기 등을 하다보면 하루 3시간 정도 밖에 못 잤어요. 다행히 아이들이 밥을 지어놓으면 스스로 챙겨 먹어 고마웠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박복하여 아이들은 병이 들어 생활이 어려워 혼자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아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8) 이영재

이영재는 1942년생으로 경북 봉화에서 태어나 한학을 공부하였다. 20세가 넘어 생활하기 위하여 용인에 와 청과물 장사를 시작하였으며 특히 봉화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많이 취급하였다 한다. 1962년 오리골에 초가집 하나를 마련하여 오리골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1982년에는 초가집을 80여 평 되는 3층집으로 개조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2010년 오리골 노인회장을 맡아 지역에 봉사하며 살고 있다.

－ 왕겨로 난방, 재래식 화장실.

“1960년대 까지만 하여도 오리골에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집은 없었어, 전기로 밥을 한 다던가 난방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지. 오리골에서 잘사는 집은 나무를 사다 사용 했었고 그만 못한 집들을 왕겨를 사다 밥을 해먹었지. 왕겨를 아궁이에 떨어면 잘 타 지를 얹아 그래서 풍구로 바람을 일으켜 불을 땀지. 그래서 우리집은 화로를 사용하지 못했어. 그런데 대부분에 사람들은 멀리 나무를 해다가 사용 했었어.

화장실은 모두 재래식 이었는데 화장실 푸는 것은 푸는 사람이 있어, 지게로 푸거나 아니면 리어카로 뺐는데 재래식 화장실은 장마철이면 똥받이로 물이 새어 들어가 화장실 가기가 무서웠지, 왜냐하면 변이 떨어지면 물이 튀어 엉덩이나 옷에 똥물이 묻거던, 겨울에는 똥이 얼어 차오르면 푸지도 못하고 하여 언 똥이 뒤를 찌를 정도였으니까.

당시 오리골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세상이 좋아져 살만 하면 타지로 이사 가서 지금은 토박이라고는 두어 집 될까하지.”

9) 최기창

최기창은 1945년생으로 기흥구 언남동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최재원이 농사를 짓기 위해 오리골로 이사를 와 오리골사람이 되었고 위로 누이 한 명과 아래로 세 동생을 둔 5남매 중 장남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를 다니다가 이발 기술을 배워 평생을 이발업에 종사하였다. 오리골에서 거주하다가 1980년대 빗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살던 집을 날리고 현재 처인구청 앞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다.

－ 어릴 때 우리 마을

“내가 어릴 때 우리 마을은 20여 호 되었는데 현재 동사무소 자리는 사과 밭이었다가 밭과 논으로 변했어요. 지금은 동사무소 한전사무소로 변해 있지.

어른들은 밤낮 없이 술을 많이 먹어 주변사람들은 오리골을 “음주골” 또 길가에 어린애들이 똥을 많이 누어 “똥골”이라 놀리기도 했지. 하여튼 오리골은 못사는 동리로 유명했어. 또 우리 동리의 집들은 허름 하고 낮에는 집 비우고 일터에 나가니 불이 자주 났 나봐. 그리고 마평리는 잘 살아서 도둑이 많았는데 그래서 “도둑이야 하면 마평리, 불이야 하면 오리골”이라고도 했지.

그리고 지금 용인 감리교회가 있는 자리는 공터였어. 그 위에 신궁 그리고 현충탑이 있었어. 공터는 꼬마들 놀이터였고 거기에 점심시간과 통행금지를 알리는 “사이렌(사이렌)”이 있었지.

내가 초등학교 때 공터에서 어른들이 활쏘기 대회를 봄부터 가을까지 하였어. 얼마 후에는 마평리 다리 위 쪽 개울가로 옮기었지. 활쏘기 대회를 하면 화살 주워다 주는 것은 내 담당이었어 어른들이 활을 쏘면 과녁 뒤에 숨었다가 다 쏘면 화살을 주워다 주는 일이었어. 4~5시간 하면 약간에 돈을 받았지,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 한번은 화살을 맞아 고생 한 적도 있었어.

하여간 우리 동리는 못살기는 했어도 어릴 때 생각하면 재미있었어.”

2. 사진으로 보는 오리골

1) 옛날 오리골의 모습과 사람들



1950년도 용인장 좌판모습.
지금의 순대골목 인근이다. (이영실 소장)



1950년대 동네잔칫날 (이영실 소장)



둘째 딸 결혼 후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 (이영실 소장)



한은순 씨와 시집온 가정 친구들 (이영실 소장)



1950년대 말 안병환 씨의 어린시절
- 뒤쪽으로 옛날 천주교회의 모습이 보인다.
현재는 청한쇼핑센터가 자리한 곳이다.(안병환 소장)



1960년대 초 안병환 씨의 집 앞에서
- 오른쪽으로 보이는 초가집이
안병환 씨의 집이다.(안병환 소장)



용인신명신사 가는 계단
-1960년대 (안병환 소장)



용인군 노래자랑에 나간 한은순 씨 (이영실 소장)



한은순 씨의 남편 이덕환 씨의 환갑잔치 (이영실 소장)

2) 오리골 둘러보기



오리골 전경



마을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용인신명신사로 가는 계단



오리골의 옛길(금령로 90번길)



옛 용인신명신사 터 (현 용인중앙감리교회)



옛 군수관사 터에 위치한 식당 '별미촌'



마을에 위치한 중앙동주민센터 전경



옛 군수관사 터에 남아있는 소나무



마을의 골목길



마을 내에 위치한 이발관



오리골 아이들



마을 내에 위치한 미용실

－ 용인 처인구 김량장동 오리골 －

옛길을 품은 마을 오리골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엄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장)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임혜선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기획팀장)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유진 (경기문화재연구원 원장)

김지옥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팀 팀장)

이현재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팀 수석연구관)

이은솔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팀 연구원)

• 조사·집필

정형호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노현식 (중앙대학교 대학원 비교민속학과)

정양화 (용인문화원 이사)

이종구 (용인문화원 용인학연구소 소장)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우상표 (용인시민신문 대표)

이현재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팀 수석연구관)

남창근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팀 전문연구원)

이은솔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팀 연구원)

※ 책을 발간하기 위해 조사에 도움을 주신 용인문화원, 용인학연구소,
오우회 회원 분들과 오리골 주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발 행 일 : 2014. 12.

발행기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경기문화재연구원

인 쇄 : 경인일보사

 경기도문화원연합회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팀

※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경기문화재연구원에 있습니다.
무단인용을 금하며 필요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